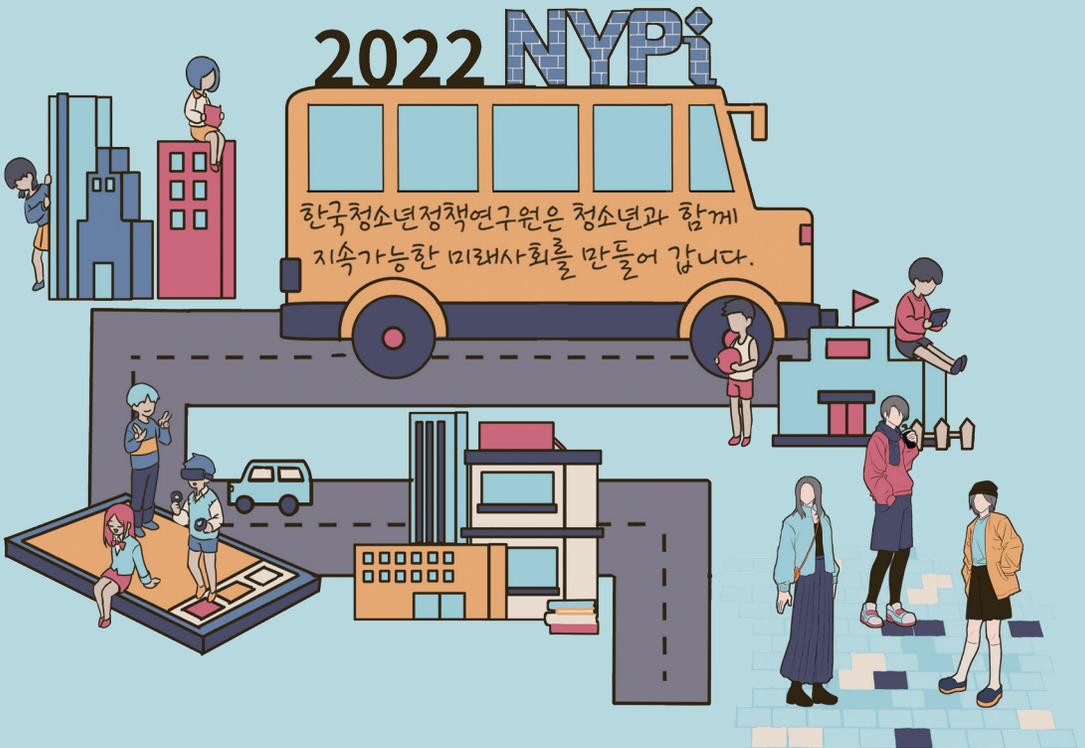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양계민 · 이정민 · 정윤미 · 엄진섭 · 장윤선 · 전경숙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저 자 양계민, 이정민, 정윤미, 엄진섭, 장윤선, 전경숙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_엄진섭(충북대학교 외래강사)
_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
_전경숙(평택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박소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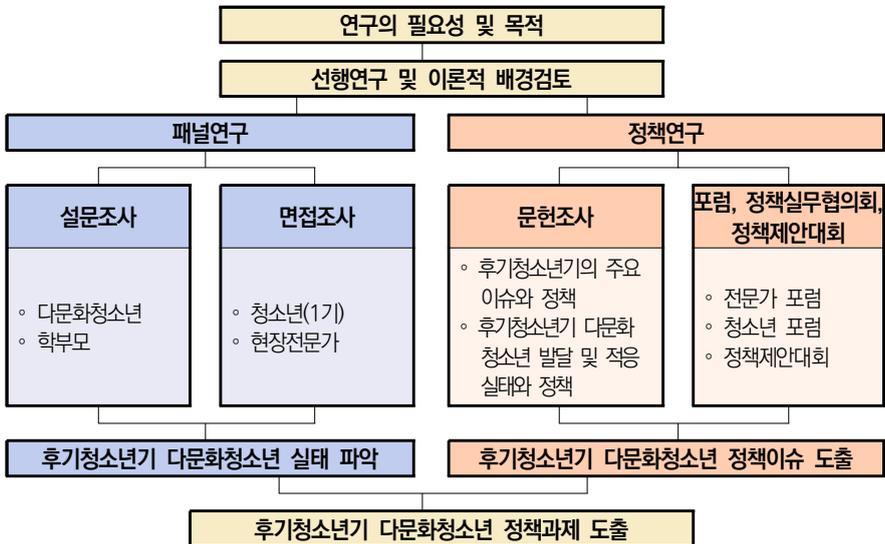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다문화청소년의 성장·발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과학적인 정책수립과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보다 면밀한 정책대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022년도의 중점 목표는 1, 2기 패널자료 구축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연구내용

- 1기, 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 구축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현황 관련 선행연구 및 이슈검토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정책 방향 검토 및 분석
- 설문조사
 - 1기 패널(2011년 구축)과 2기 패널(2019년 구축) 추적 조사
- 면접조사
 - 1기 패널 청소년 대상 진로유형별(대학진학자, 취업자, NEET) 생활실태 및 진로 현황,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의견 등 면접조사 실시함.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6회 실시하였으며,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특성 및 정책요구도, 다문화청소년 정책포럼 및 정책제안대회의 방향 등 자문
 - 전문가 의견조사는 다문화청소년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제안과제 도출 전 실시함.
- 기타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와 2회 실시함.
 - 콜로키움은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2회 실시함.
 - 조사원 워크숍은 비대면 교육(1기), 대면 교육(2기)을 실시함.
- 보고서 구성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부	부별 제목	장별 제목
제 1부	패널조사	I. 서론 II.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III. 패널조사
제 2부	심층분석	IV.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및 정책현황 V.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널자료 분석 VI.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적응현황 및 요구도 분석: 면접조사 분석 VII.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선행연구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층 증가 및 고졸 이후 후기청소년기 연령층의 비율 높아짐.
 -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간 취약성 측면이 상이함.
 - 다문화청소년의 경제활동비율이 일반 청소년 고용비율에 비하여 낮음.
 - 진로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정책분석
 - 일반 청년 대상 정책들이 중앙부처에서 진로 및 취업지원, 교육 및 훈련, 주거 및 금융지원 등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에 한정됨.
- 패널자료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위해 부모의 관심 및 지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방임이나 지나친 강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부모교육이 필요함.
 -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인지도가 크게 높지 않지만, 이를 이용한 경우 만족도가 높은 순위를 차지함.
 - 취업관련 정보취득의 경로는 온라인 매체가 가장 많음.
- 면접조사 결과분석
 - 현재 전공학과나 직장에 대한 확고한 직업관, 진로의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음.
 - 대학생은 자격증 취득, 졸업 후 진로 등이 고민이며 취업자는 비정규직의 불안정, 저임금 등이며, 니트는 정보부족, 인간관계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이 분석됨.
 -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며, 아는 경우도 접근에 어려움을 느낌.
- 콜로키움의 시사점
 - 이주배경을 고려한 자아실현과 체계적 진로개발이 필요함.
 - 인적 속성 기준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 잠재적 사각지대의 사전적 예방 필요
- 정책포럼의 시사점
 - 이주배경청소년의 포괄적 조망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이주배경청소년 담당 중앙부처 및 인력 배치 필요
 - 지역자원 연계시스템 구축이 중요, 사회적 관계망 지원이 필요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중앙부처 차원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담당부서 신설 및 정책추진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전체 범주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 성장관련 전 영역의 기능을 총괄 및 조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유형별 인구통계생산, 지자체와의 연계 등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보제공 앱 개발 및 보급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정보취약성을 해결하고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앱을 개발하여 진로, 취업, 학습, 정보교류, 생활정보, 심리상담, 법률상담,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기 글로벌 취업박람회 개최
 - 고용노동부의 취업박람회 등 일반 청년 대상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이주배경청소년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함. 부스에서는 정부지원정책 및 혜택을 설명하는 부스,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취업특강, 기업설명, 취업준비 및 취업정보, 모의면접 등의 부스를 설치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을 원하는 기업들을 모집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장이 되도록 함.
- 이주배경자 진로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
 - 이주배경을 지니고 사회적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 및 멘토링을 추진함. 강의는 유튜브로 생중계 및 업로드하며, 강의 후 강연자와의 멘토링 및 진로캠프를 추진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지원사업
(가칭: 레인보우 커리어매니저 양성사업)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1:1 맞춤형 진로지도를 하도록 함.

차 례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3

제 1부 패널조사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 2. 연구추진체계 7
- 3. 연구내용 7
- 4. 연구방법 17
- 5. 보고서 구성 23

II.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 1. 조사개요 27
- 2. 추진경과 30
- 3. 연구의 성과와 의의 32

III. 패널조사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47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58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72
4. 패널관리	76

제 2부 심층분석

IV.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및 정책현황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91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92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97
4. 후기청소년기 발달과 관련 정책의 주요 이슈	101
5. 후기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107
6.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과 한계	114
7. 소결	117

V.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널자료 분석

1. 분석개요	123
2.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생활실태 분석	123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187
4. 요약 및 소결	212

VI.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적응현황 및 요구도 분석: 면접조사 분석

1. 조사개요	217
2. 분석결과	222
3. 요약 및 소결	251

Ⅶ.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과제 도출의 절차	261
2. 심층분석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	264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274
참고문헌	283
부 록	299
국문초록	333
Abstract	334

표 목차

표 I-1.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영역별 내용	8
표 I-2. 2기 패널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2019년~2022년)	9
표 I-3. 2기 패널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2019년~2022년)	10
표 I-4.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정책포럼의 참석자 및 내용	13
표 I-5.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정책포럼의 참석자 및 내용	14
표 I-6. 정책제안공모전 제안자 및 주제	16
표 I-7. 심사절차 및 단계별 선정 결과	16
표 I-8. 정책제안대회 최종 수상작	17
표 I-9.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현황	18
표 I-10. 설문조사 개요	19
표 I-11. 심층면담 개요	20
표 I-12.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1
표 I-1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21
표 I-14. 콜로키움 개요	22
표 I-15. 조사원워크숍 개요	23
표 I-16.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24
표 II-1. 데이터 활용 건수	32
표 II-2. 주요어 빈도	34
표 II-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정책반영 결과	39
표 II-4. 본 연구결과 인용 언론게재 결과	41
표 III-1. 1기 패널 지역별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48
표 III-2. 1기 패널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49
표 III-3. 1기 패널 참여 청소년 성별 분포(2011년~2021년)	50
표 III-4. 1기 패널 참여 지역별 분포(2011년, 2021년)	51
표 III-5.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 (2020~2022년)	52
표 III-6. 2기 패널 표본설계 내용	58
표 III-7. 2기 패널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59
표 III-8. 2기 패널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60

표 III-9. 2기 패널 전국 시·도별 구축 현황	61
표 III-10. 2기 패널 참여 가구 다문화 유형별 분포(2019년~2021년) ..	62
표 III-11. 2기 패널 참여 청소년 성별 분포(2019년~2021년)	63
표 III-12.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2년) ..	64
표 III-13.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2년) ..	69
표 III-14. 2019~2021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73
표 III-15. 연도별 조사기간	74
표 III-16. 조사원 교육 일정(1기 패널)	75
표 III-17. 조사원 교육 일정(2기 패널)	76
표 III-18. 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77
표 III-19.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최근 3년간)	79
표 III-2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1기 패널, 전체) ..	80
표 III-2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소년 진로별 패널 이탈 현황 (1기 패널, 2021년)	81
표 III-2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1기 패널, 전체) ..	81
표 III-2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1기 패널, 2021년)	83
표 III-2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2기 패널, 전체) ..	83
표 III-2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2기 패널, 전체) ..	84
표 III-2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2기 패널, 전체) ..	85
표 IV-1. 부처별 후기청소년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현황	109
표 IV-2. 부처별 후기청소년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현황	111
표 IV-3. 부처별 후기청소년 주거 및 금융지원 사업 현황	113
표 IV-4.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115
표 V-1. 패널자료분석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124
표 V-2. 패널자료분석 내용	124
표 V-3.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125
표 V-4.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	126
표 V-5.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 진로유형별 빈도	127
표 V-6. 가정의 생활비 마련 주체	127
표 V-7. 가정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128
표 V-8. 집단별 가정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129
표 V-9. 자신의 생활비 마련 주체	130
표 V-10. 자신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130
표 V-11. 집단별 자신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131
표 V-12. 대학 진학 여부	132

표 V-13.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133
표 V-14. 대학 전공계열	134
표 V-15. 대학 입학 모집유형	134
표 V-16. 대학 입학 전형방법	135
표 V-17. 특별전형 지원 자격	135
표 V-18. 대학 선택 영향 준 요인	136
표 V-19. 전공계열 및 학과 선택 영향 준 요인	137
표 V-20. 대학입시 전형 준비에 영향을 준 사람	138
표 V-21.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	138
표 V-22. 대학 진학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139
표 V-23. 입학한 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140
표 V-24. 전공계열 및 학부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140
표 V-25. 현재 대학 학적상태	141
표 V-26. 지난 학기(2020년 1학기) 등록금 마련 방법	142
표 V-27.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	142
표 V-28. 대학만족도 및 적응	143
표 V-29. 2021학년도 대학입시 준비 여부	144
표 V-30. 2021학년도 대학입시자의 현재 상태	145
표 V-31. 2021학년도 대학입시 준비 이유	145
표 V-32. 2021학년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종류	146
표 V-33. 대학진학 준비 활동	147
표 V-34. 대학진학 준비 시 사교육 비용 부담 정도	148
표 V-35. 지난 1주일 간 수입 목적 일 여부	148
표 V-36. 일의 개수	149
표 V-37. 최근 한 달 내 수입 목적 일 여부	150
표 V-38. 종사상 지위	150
표 V-39.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의 특성화고 전공 관련 여부	151
표 V-40.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의 직장 소재지	152
표 V-41. 주당 근무 일 수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N=460)	153
표 V-42. 월평균 총 소득(N=460)	153
표 V-43. 월평균 총 소득: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154
표 V-44.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	154
표 V-45. 취업 또는 창업 준비 여부	155
표 V-46.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	156
표 V-47. 취업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	157
표 V-48. 취업 준비 일자리 직종	158

표 V-49. 창업을 위한 준비	158
표 V-50. 창업 정보 취득 경로	159
표 V-51. 창업 준비 업종	160
표 V-52. 특정분야 교육훈련 1개월 이상 수료 경험 여부	160
표 V-53. 교육훈련 제공 기관(최대 2개 응답)	161
표 V-54. 지난 한 달 간 취업(아르바이트 제외)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162
표 V-55.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162
표 V-56. 학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나 직장이 있으면 일할 의향 ...	163
표 V-57. 현재 주로 하는 일	163
표 V-58. 현재 그냥 쉬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	164
표 V-59. 집단별 자아존중감 평균	165
표 V-60.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	166
표 V-61. 집단별 우울의 평균	167
표 V-62. 집단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	168
표 V-63. 지난 1년 동안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	169
표 V-64. 차별한 사람 및 차별과 무시의 정도	169
표 V-65. 차별 받았을 때 대응	170
표 V-66. 차별받았을 때, 대응하지 않은 이유	171
표 V-67.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향후 사회진출과정에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172
표 V-68.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요소	173
표 V-69. 집단별 한국사회인식의 평균	174
표 V-70. 집단별 한국교육인식의 평균	175
표 V-71. 집단별 희망 학력 수준	176
표 V-72. 집단 별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지원정책의 필요성	177
표 V-73.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178
표 V-74. 집단별 청년지원정책의 인지도	179
표 V-75. 청년지원정책의 도움정도	180
표 V-76. 현재 군복무 여부	181
표 V-77. 군생활 만족도	182
표 V-78. 전역 후 계획	182
표 V-79.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생활실태 및 현황 분석결과 요약	185
표 V-80. 부모 및 가정환경 모형 투입 변인	191
표 V-81.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모형 투입 변인	192

표 V-82. 심리·사회적응 모형 투입 변인	193
표 V-8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유형 분포(2022년 조사 기준)	194
표 V-84. 영역별 Elastic net 예측 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	195
표 V-85. 대학진학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	197
표 V-86. 대학진학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	199
표 V-87. 대학진학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심리·사회 적응 영역	201
표 V-88. 영역별 Elastic net 예측 성과: 비진학자의 취업	204
표 V-89. 취업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	204
표 V-90. 취업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	205
표 V-91. 고등학교 졸업 다문화청소년 대학진학의 주요 영향 요인	208
표 V-92. 영역 및 조사시기별 대학진학의 주요 영향 요인 수	210
표 V-93. 비진학 다문화청소년 취업의 주요 영향 요인	211
표 V-94. 영역 및 조사시기별 취업의 주요 영향 요인 수	212
표 VI-1. 면접조사 일시 및 조사대상자 수	218
표 VI-2. FGI 참여자(다문화청소년) 현황	219
표 VI-3. FGI 면접지 내용	221
표 VI-4. 면접조사 결과 요약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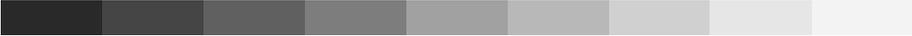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7
그림 I-2. 제1회 정책포럼 포스터	12
그림 I-3. 제2회 정책포럼 포스터	12
그림 I-4. 정책제안공모전 포스터	15
그림 I-5. 정책제안대회 포스터	15
그림 II-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29
그림 II-2. 연도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연구주제	31
그림 II-3.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2017년~2022년)	34
그림 II-4. 주요어 출현 빈도 연도별 추이(2017년~2022년)	36
그림 III-1. 1기 패널 유지율	50
그림 IV-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91
그림 IV-2.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6~2020년)	93
그림 IV-3.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2019~2021년)	94
그림 IV-4.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21년)	95
그림 IV-5.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21년)	96
그림 IV-6. 학교급별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19~2021년)	97
그림 V-1. 현재 부모님과 동거 여부	126
그림 V-2. 집단별 가정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129
그림 V-3. 집단별 자신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131
그림 V-4. 대학 진학 여부	132
그림 V-5.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133
그림 V-6.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	143
그림 V-7. 2021학년도 대학입시 준비 여부	144
그림 V-8. 2021학년도 대학입시 준비 이유	146
그림 V-9. 지난 1주일 간 수입 목적 일 여부	149
그림 V-10. 종사상 지위	151
그림 V-11.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	155
그림 V-12. 취업 또는 창업 준비 여부	156
그림 V-13. 집단별 자아존중감 평균	165

그림 V-14.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	166
그림 V-15. 집단별 우울의 평균	167
그림 V-16. 집단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	168
그림 V-17. 집단별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172
그림 V-18. 집단별 한국사회인식의 평균	174
그림 V-19. 집단별 한국교육인식의 평균	175
그림 V-20. 집단별 희망 학력 수준	176
그림 V-21. 집단 별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지원정책의 필요성	177
그림 V-22. 영역별 대학진학 영향 요인 평균 회귀계수 분포	203
그림 V-23. 영역별 취업 영향 요인 평균 회귀계수 분포	207
그림 VI-1. 본 연구의 정책과제 도출 절차	263



제 1 부



패널조사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5. 보고서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외국인주민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156,417명으로 총인구 대비 4.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 수치는 2019년 2,216,612명에 비하여 약 2.8% 감소한 수치이다(행정안전부, 2021).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향후 코로나 19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자녀의 수는 275,990명으로 2019년 264,626명에 비하여 11,364명(4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2021²⁾), 이 역시 향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등장과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2006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010년 다문화가족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실질적 지원과 성과가 있었으나, 반대급부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나 당사자 입장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가 착수되었다. 즉,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발달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청소년 정책방안 모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예비연구로 시작하여 201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문화청소년 집단이 실제 청소년 일반집단에 비하여 발달에서 뒤떨어지는지, 그래서 별도의 사회적 지원이

1) 1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2)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만 18세까지의 연령만을 자녀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어서 19세에서 24세의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필요한 집단인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다른 패널연구와는 차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기존의 패널들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초연구의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공개를 통한 기초연구뿐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기초데이터 분석과 함께 매년 주제를 정하여 관련 정책연구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동시에 추진해야 만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자료 및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는 그 간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의 계획의 근거가 되었고, 제안한 정책과제들이 정부부처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왔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기초자료 구축과 더불어 발달 추이를 분석하여 과학적 정책수립과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구축한 기초자료와 정책현황분석을 토대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 수립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22년에는 패널데이터 구축과 함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주로 고등학교 연령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언어, 학습, 적응, 진로교육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에는 고등학교 이후의 19세에서 24세 연령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의 주요 이슈가 무엇이고, 후기청소년 일반집단과 발달 및 사회진출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
---------------	--------------------------------------------------------------------------------------------------------------------------------------------------------------------------------------------------------------

2022년 중점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데이터 구축(1기, 2기: 추적조사) ■ 심층분석: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

*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은 '이주배경을 갖는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인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을 의미하고, 출생지 기준의 국내 및 외국 출생자를 모두 포함한다.

* 출처: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2018), p. 6 수정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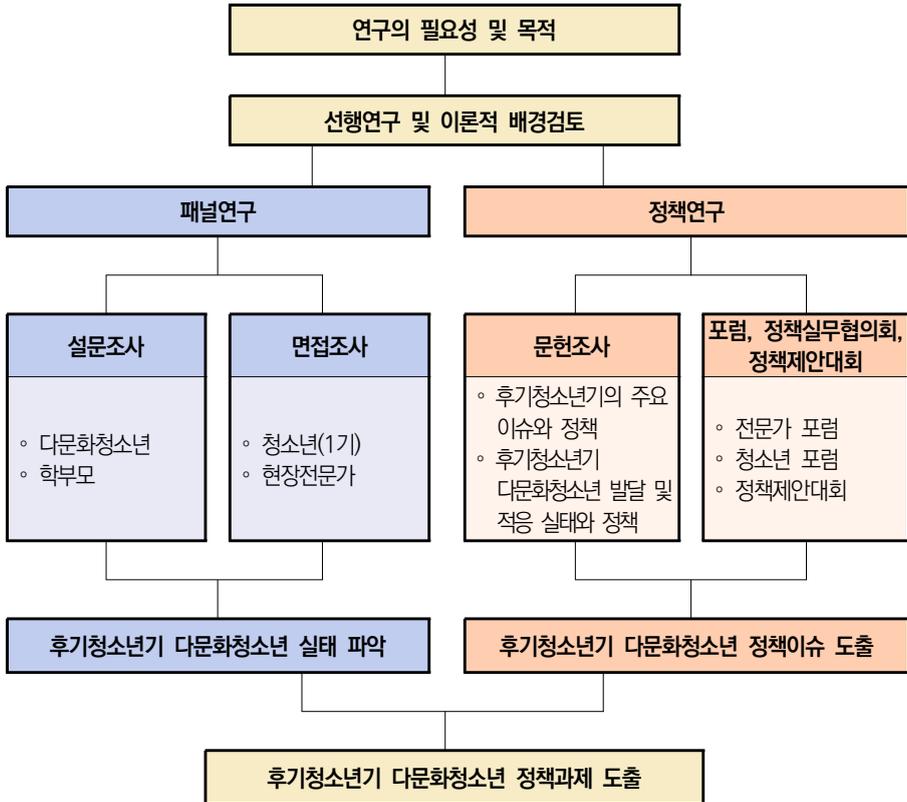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1기 패널 추적조사

2022년도의 주요 연구 내용 중 첫 번째는 2011년부터 추적 조사한 1기 패널에 대한 패널추적조사이다. 2020년에 진로유형에 따라 후기청소년기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

의 내용을 조사한 바 있는데, 2021년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유지조사만을 실시하였다. 2022년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기 조사의 영역별 주요 내용들은 아래의 <표 I-1>과 같다.

표 I-1.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영역별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배경변인	혼인상태, 현재 거주형태, 가계 생활비 마련방법, 가계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개인 생활비 마련방법, 개인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여부, (진학 한 경우) 대학교 학적 상태, (진학하지 않은 경우) 진학하지 않은 이유, (진학하지 않은 경우) 현재 주로 하는 일
군복무 경험	군복무 여부, 군입대 시기, 군 전역 후 계획, 입대 예정 시기, 군복무 마친 시기, 군복무 중 차별경험, 군복무 중 차별 가해자, 군복무 중 다문화 교육 경험, (군복무 중 교육 받은 경우) 다문화 교육 내용
대학진학	대학명, 전공계열, 학부 및 학과(전공)명, 등록금 마련방법,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대학생일 만족도 및 적응(대학만족도 4문항, 학업적응 4문항, 사회적응 4문항), (대학 자퇴한 경우) 대학을 그만 둔 이유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하고 있는 일 개수, 최근 한 달 내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경험,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유형, 일을 하게 된 경로, 일 종류, 특성하고 전공과 일의 관련성, 직장 소재지, 평균 근무시간(총 근무일수/하루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소득, 업무만족도(9개 하위문항으로 구성)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취·창업 준비여부, 취업 준비 활동, 취업정보 수집 방법, 취업 준비 직종, 창업 준비 활동, 창업정보 수집 방법, 창업 준비 업종,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받은 기간, 교육훈련 제공기관, 교육훈련 받은 목적,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교육훈련 받지 않은 이유,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교육훈련 받을 계획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구직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노동 의지, 현재 생활, (현재 쉬는 경우) 쉬는 이유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차별경험 유무, 차별한 대상, 차별 후 대응, 도움 받은 공공기관(공공기관에 도움 요청한 경우), 도움 받은 민간기관(민간기관에 도움 요청 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도움요청하지 않은 경우), 학창시절 부당한 대우 경험, 부당한 경험의 시기(부당한 경험 있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부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다문화청소년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예상정도, 구직과정에서 다문화배경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 받은 경험
사회적 가치와 태도	사회적 가치, 한국사회 인식,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태도,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도움 정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초점,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진로	학업 포부수준, 장래희망 유무, (장래희망 있는 경우) 장래희망 직업,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진로장벽

조사영역	조사내용
정책 및 지원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인지 한 경우)청년지원정책 이용 경험,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청년지원 정책 도움 정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청년지원정책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다문화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필요 한 경우) 필요한 지원,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장소

2) 2기 패널 추적조사

2022년도 연구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2019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축한 2기 패널의 4차 년도 추적조사로, 2기 데이터의 경우는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를 모두 조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한 단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표 I-2>와 <표 I-3>에 제시된 영역별 조사항목을 조사하되, 중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작업을 추진하였다.

표 I-2. 2기 패널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2019년~2022년)

구분		조사항목
대영역	소영역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언어 능력	부모의 외국인 여부,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 교육,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자신의 한국어 실력, 입국 후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배운 경험 및 장소
	이중문화 경험	국적에 대한 인식,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및 횟수,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개인요인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건강평가, 스트레스, 자존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현재 걱정거리,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차별에 대한 생각, 친한 친구 수, 친한 친구 국적
	인지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진로	희망교육수준, 희망직업, 학교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상담)하는 사람
환경요인	부모	부모님의 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하루 부모님과 대화 시간, 방과 후 보호자 부재, 가정형편
	친구	친구의 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교사의지지, 학교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 지지망	학교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구분		조사항목
대영역	소영역	
중도입국	학교 관련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한국 입학(편입) 학년,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미래 생활	국적취득 희망, 한국 거주 희망
기타	방과후생활	방과 후 활동,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등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2020: 111-113) 표 IV-24 수정

표 1 -3. 2기 패널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2019년~2022년)

구분		조사항목
대영역	소영역	
배경변인	가족특성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및 관계 만족도, 가정의 월평균 소득, 가정의 주요 소득원, 가정의 경제적 수준(가정형편)
개인요인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자아존중감, 전반적 건강 상태,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문화특성	언어능력	모국어, 한국어 학습경험, 한국어 수준
	문화적응	주로 어울리는 사람,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유형
자녀 양육	자녀교육 및 양육	자녀와 대화시 사용 언어,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한국 오기 전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기간 및 소요 이유, 초등학교 입학 시기 및 입학이 늦어진 사유,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자녀 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방과후 교육(사교육 경험)
	양육관련 특성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부모효능감
	자녀 진학/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다문화 지원정책	지원정책 태도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도, 자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선호하는 지원 방식

* 출처 : 양계민 외(2020: 113-114) 표 IV-25 수정

3) 데이터 공개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1기 패널 9차 년도까지(2011년~2019년)까지의 데이터와 2기 패널 1차~2차(2019년~2020년) 데이터 공개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검증, 코드북 및 지침서 작성, 활용자 대상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4)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모색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 기초연구이나,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관련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과 과제를 제안해오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구축 및 공개 이외에 심층분석의 주제로 「후기청소년기의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진하였다.

(1) 패널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모색을 위하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 이후 진로실태를 파악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유형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로유형별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5장에 제시하였다.

(2) 면접조사

심층분석의 주제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모색을 위하여 패널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더하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적응현황과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면접조사의 내용은 6장에 제시하였다.

(3) 정책분석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하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책을 분석하되, 기존의 청년정책 맥락 내에서 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후기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진로 및 취업지원정책,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교육·훈련지원 사업,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등의 주거·금융사업 등을 분석하였고,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분석은 4장에 제시하였다.

(4)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앞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연령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이슈는 이제 막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2회의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22년 8월 11일(목) 오후 2시~6시
- 장 소 : 다케이호텔 서울
- 주 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p.or.kr) 게시판(일일-행사정보)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044-485-2244)

시간	주제
2:00-2:20	사 례: 임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센터장)
2:20-2:30	■ 개회사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0-3:00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김영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3:00-3:30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3:30-4:00	□ 지방자치단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시행과 함의: 안전서 사례를 중심으로(이혜수, 안전서장 함성정책과 과장)
4:00-4:20	coffee break
사 례: 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4:20-4:30	□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4:30-4:40	□ 인숙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4:40-4:50	□ 오재호(경기연구원, 연구위원)
4:50-5:00	□ 이종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5:00-5:10	□ 황순우(한서대학교 평생학습센터, 부센터장)
5:10-5:20	□ 김수영(서안대학교 평생학습센터, 대표)
5:20-6:00	단체토론 및 질의
6:00	폐회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그림 1-2. 제1회 정책포럼 포스터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 일 시 : 2022년 8월 12일(금) 오후 2시~6시
- 장 소 : 다케이호텔 서울
- 주 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p.or.kr) 게시판(일일-행사정보)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044-485-2244)

시간	주제
2:00-2:20	사 례: 임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센터장)
2:20-2:30	■ 개회사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0-2:50	□ 박수희(비이주노동자지원센터, 대표)
2:50-3:10	□ 김수희(서울여자대학교, 재선(다문화과, 재학생))
3:10-3:30	□ 박민정(한양대학교 조형미술학과, 재학생)
3:30-3:50	□ 민경원(영양실용가사, 프리랜서)
3:50-4:10	coffee break
최 종: 차용경(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장)	
4:10-4:20	□ 조혜정(공주교육대학교, 교수)
4:20-4:30	□ 안복원(안산문화체육관광국, 교장)
4:30-4:40	□ 한경원(군산시미래교육국, 교장)
4:40-4:50	□ 반경원(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4:50-5:00	□ 김은영(한서대학교 평생학습센터, 센터장)
5:00-5:10	□ 이종미(한서대학교 평생학습센터, 센터장)
5:10-6:00	단체토론 및 질의
6:00	폐회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그림 1-3. 제2회 정책포럼 포스터

□ 제1회 정책포럼

제1회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2022년 8월 11일(목), 오후 2시 ~ 6시까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3명의 발표자와 6명의 토론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표 1-4.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정책포럼의 참석자 및 내용

구분	참석자 및 내용
발표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윤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교육의 방향과 과제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지방자치단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사례와 함의: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숙, 안산시 청소년과 과장)
토론	○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허승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 김수영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 제2회 정책포럼

제2회 포럼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정책」이라는 주제로 2022년 8월 12일(금) 오후 2시 ~ 6시,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그간 추진된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한 단계 고도화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제2회 정책포럼의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표 1-5.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정책포럼의 참석자 및 내용

구분	참석자 및 내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서 교사로: 나의 다문화이야기 (바수데비, 성저초등학교, 교사) ■ 志(뜻 지), 修(닦을 수) 뜻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김지수, 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재학생) ■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하여 필요한 것 (박찬영, 인천대학교 조형미술학부, 재학생) ■ 슬기로운 한국생활 (권녕일, 영상촬영기사, 프리랜서)
	○ 조혜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안복현 (안산원곡초등학교, 교장)
	○ 한경은 (군서미래국제학교, 교감)
토론	○ 변경환 (한국폴리텍대삼고등학교, 교사)
	○ 강은이 (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5)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공모전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방안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정책제안공모전의 목적은 그간 다문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학교교사 및 다문화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정책화 하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현장성 제고와 정책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정책제안공모전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추진되었다. 공모전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추진일정

- 2022년 7월 5일 ~ 7월 29일 : 정책 제안서 접수
- 2022년 8월 9일 : 1차 심사(원내 연구진 검토)
- 2022년 8월 20일 : 2차 심사(전문가 심사)
- 2022년 8월 30일 : 최종 심사(발표) 및 선정 확정

- 2022년 9월 1일 : 최종수상작 발표
- 2022년 9월 15일 : 정책제안대회 개최 및 시상식



그림 1-4. 정책제안공모전 포스터



그림 1-5. 정책제안대회 포스터

□ 정책제안공모전 제안자 및 제안주제 현황

정책제안공모전 제안자는 총 73명으로 학교교사, 대학생 및 대학원생, 다문화 및 이주자 전문기관, 일반 청소년기관, 각종 연구원, 교육청 장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제안자들이 있었다. 제안 주제로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내용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지원정책시스템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과제 14개, 이중언어 관련 과제가 9개, 한국어교육이 2개, 심리사회적응이 7개, 기초학력제고방안이 4개, 다문화수용성 제고방안이 4개, 그 외 기타 주제가 5개였다.

표 1-6. 정책제안공모전 제안자 및 주제

제안자	제안자 수	주제	제안 과제 수
학교교사(대안학교 포함)	13	진로 및 취업	14
대학생, 대학원생	21	지원정책시스템 및 전달체계	14
다문화, 이주자 전문기관	12	이중언어	9
청소년기관	8	한국어	2
연구원	5	심리사회적응	7
교육청 장학사	4	기초학력제고	4
기타	5	다문화수용성	4
기재안함	5	기타	5
총	73	총	59

□ 심사절차 및 결과

정책제안대회의 최초 응모과제 수는 총 59개로 1차에서 원내연구진과 공동주최 기관 담당자 등 총 4명의 서류심사를 통하여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 등을 작성한 제안서를 제외하였고, 43개를 본 심사에 올렸다. 2차 본 심사에서는 1차에서 걸러진 43개 과제제안서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5인이 심사를 추진하여 창의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한 후 총점 기준 상위 1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3차 심사에서는 상위 12개 과제 제안자들이 화상으로 제안서를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한 후, 12개 중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선정하였다.

표 1-7. 심사절차 및 단계별 선정 결과

	(선정)과제 수	심사위원 수
최초 응모과제 수	59개	-
1차 심사	43개	내·외부 4인, 서면심사
2차 심사	12개	외부전문가 5인, 서면심사
3차 심사	12개	외부전문가 7인, 발표심사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수상한 과제는 최우수상 3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이 선정되었고, 2022년 9월 15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시상식을 하였다. 최종 수상작 과제명은

〈표 I-8〉과 같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 중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본 연구에 수정하여 제시하였고, 그 이외 수상작 및 제안과제는 별도의 자료로 작성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현장과 행정부처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표 I-8. 정책제안대회 최종 수상작

수상	과제명
최우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알쓸신잡' ■ 학교와 마을을 잇는 이중언어 배움터에서 글로벌시민으로 함께 성장해요 ■ 중앙부처 차원의 이주배경청소년 담당부서 신설
우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기 글로벌 취업박람회 개최 ■ 이주배경청소년의 발·자·취(발전·자립·취업) ■ 언어교육거점센터와 학교 내 교과적응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시스템 개선방안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를 활용한 이주배경 학생 학습 지원-이중언어 학습 포털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 시민성 함양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을 위한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제안(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취업·비자 정책 제안 ■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앱 '마음 덩거당' ■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학업 및 진로 교육에 대한 지역 격차 줄이기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현황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후기 청소년기 연령층이 일반적으로 당면한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현황과 당면과제, 개발되어야 할 정책 등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후기청소년 대상정책의 맥락에서 차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 등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중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6회 실시하였다. 첫 번째 회의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특성과 발굴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현장의 전문가들과 학계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다문화청소년정책포럼과 정책제안대회의 기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번째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네 번째는 본 보고서의 분석을 위하여 분석의 내용, 분석방법, 도출해야 할 함의 등과 관련하여 분석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다섯 번째는 면접조사와 관련하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와 현황, 지원방안모색을 위하여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추진할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의 자문을 받았다.

표 1-9.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현황

회차	자문영역	전문가	일시
1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특성 및 정책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 이로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최영미(경기도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 허승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센터장) 	2022.03.02
2	2022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2기 패널 설문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 ■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우복남(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 허승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부센터장) ■ 김수영(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 강한나(시흥시가족센터, 통합사례관리팀장) ■ 최효경(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이지숙(시화중학교, 교사) ■ 김종호(광주월곡중학교, 교사) ■ 김지혜(경남기아중학교, 교사) ■ 우현정(선일중학교, 교사) ■ 임미은(선일중학교, 교사) 	2022. 4. 27 ~ 5.1. (서면자문)

회차	자문영역	전문가	일시
3	다문화청소년정책포럼 및 정책제안대회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 신현옥(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 허승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센터장) ■ 김윤영(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 전현경(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개발협력부장) ■ 허수경(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기획운영실장) 	2022.05.20
4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실태 및 현황	■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2022.06.22
5	1기 패널 데이터분석의 방향	■ 장운선(대구교육대학교, 교수)	2022.06.24
6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의 방향과 주요 내용	■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2022.06.29
7	평생교육원차원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방안 및 체계 구축방안	■ 강대중(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2022.07.15

3) 양적 연구

양적 연구는 총 2개의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기는 2011년 처음 구축하고 2021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1,014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2기는 2021년 조사에 참여한 2기 패널 1,980가구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10.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1기	2기
모집단	201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2019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표집틀	2011 교육부 다문화학생 현황	2019 교육부 교육통계의 전국 초4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표본수	2021년 유지조사에 참여한 1,014가구	2021년 조사에 참여한 1,980가구
표집방법	2020년 조사에 참여한 패널 전수조사	2021년 조사에 참여한 패널 전수조사
조사시기	2022년 4월 ~ 6월	2022년 6월 ~ 10월

4)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1기 청소년들을 진로유형별 즉, 대학진학자, 취업자 및 NEET 집단으로 구분하여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은 진로유형별 생활실태와 진로현황, 진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등이었고, 집단별로 5-6명씩 FGI(Focus Group Interview)로 실시하였다.

표 1-11. 심층면담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본 조사 1기 패널대상
면담 시기	2022년 8월 2일 ~ 8월 4일
면담참여자 수	32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1기 진로유형별(대학진학자 13명, 취업자 10명, NEET 9명)
면담방식	FGI(Focus Group Interview)
면담 시간 및 횟수	1시간 내외의 시간으로 1팀당 5-6명씩 총 6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취 및 전사
면담자	연구진

5)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는 현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학교교사,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추진한 정책제안대회에서 수렴한 과제를 수정하여 최종 정책제안과제로 도출하기에 앞서 전 단계에서 추진하였는데, 의견수렴의 주요 내용은 제안내용의 수정 및 개선할 사항, 구체화 방안, 사업별 추진부처 및 가장 적합한 추진주체, 적정예산, 기타 의견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표 1-12.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 센터장) ■ 이승미(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최효경(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도출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제안내용의 수정 및 개선할 사항 - 구체화방안 - 사업별 추진부처 및 적합한 추진체계 - 적정예산 및 예산소요 내용 - 기타 의견
조사방법	서면의견조사
조사시기	2022년 10. 7. ~ 10. 12

6) 기타 연구방법

그 외 기타 연구방법으로 정책실무협의회, 콜로키움 및 조사원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6월에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과 및 다문화가족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정책제안대회와 관련한 후원명칭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

표 1-1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차시	주요내용	참석 부처(과)	개최시기
1차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에 관한 여성가족부 요구파악 및 정책제안대회 협조 요청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과)	6. 10
2차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에 관한 교육부 요구파악 및 정책제안대회 협조 요청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6. 14

○ 콜로키움

콜로키움은 지금까지 총 2회 추진하였는데,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 전문연구자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차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고, 2차는 ‘취약계층 청년정책의 범위와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표 1-14. 콜로키움 개요

회수	주요내용	발표자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주요 이슈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원내 관심 있는 자	3. 10
2회	취약계층 청년정책의 범위와 주요 내용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원내 관심 있는 자	3. 16

○ 조사원워크숍

조사원 워크숍은 조사의 연력, 조사목적, 준비물 등 조사개요에 대한 내용과 조사표에 대한 설명, TAPI실습, 패널관리 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1기와 2기 각각 별도의 조사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1기 조사를 위한 조사원워크숍은 Zoom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기 조사원워크숍은 6월 21일~6월 28일까지 전국에 있는 조사업체 지부에서 대면 워크숍으로 실시하였다.

표 I -15. 조사원워크숍 개요

구분	지역	일시	장 소	참석자수
1기	서울	2022.04.15.(금), 04.21(목) 10:00	Zoom화상 교육	16
	대전	2022.04.15.(금), 04.21(목) 10:00	Zoom화상 교육	9
	대구	2022.04.15.(금), 04.21(목) 10:00	Zoom화상 교육	11
	부산	2022.04.15.(금), 04.21(목) 10:00	Zoom화상 교육	10
	광주	2022.04.15.(금), 04.21(목) 10:00	Zoom화상 교육	12
	강원/제주	2022.04.15.(금), 04.21(목) 10:00	Zoom화상 교육	6
2기	서울	2022. 6. 21(화) 13:30	한국갤럽 본사	17
	대구	2022. 6. 22(수) 10:00	한국갤럽 대구지사	12
	부산	2022. 6. 22(수) 14:00	한국갤럽 부산지사	15
	광주	2022. 6. 23(목) 10:00	한국갤럽 광주지사	11
	대전	2022. 6. 23(목) 14:00	한국갤럽 대전지사	10
	강원	2022. 6. 28(화) 10:30	한국갤럽 강원지사	4
	제주	2022. 6. 24(금) 14:00	제주 회의실	1

5. 보고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총 3권의 보고서가 발간된다. 첫째는 총괄보고서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패널조사의 개요와 추진경과, 조사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제 2부에서는 심층분석으로써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적응실태, 그리고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었고,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별도로 2기 패널 기초분석보고서와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제출된 정책과제에 대한 자료집을 출판하였다.

- 1) 총괄보고서
- 2) 기초분석보고서: 2기
- 3) 정책제안 자료집

표 I-16.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부	부별 제목	장별 제목
제 1부	패널조사	I. 서론 II.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III. 패널조사
제 2부	심층분석	IV.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및 정책현황 V.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널자료 분석 VI.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적응현황 및 요구도 분석: 면접조사 분석 VII.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 — 제2장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 1. 조사개요
- 2. 추진경과
- 3. 연구의 성과와 의의

1. 조사개요⁴⁾

본 연구는 2010년 우리 사회에 증가된 다문화청소년과 이들에 대한 늘어난 사회적 관심을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당시 다문화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되어 이를 강조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어떠한 이유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뒤처졌는지 그에 타당하고 정밀한 분석이 아닌 연구자의 부정적 인식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사회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듯 기존 연구자들의 단편적이며 일회적인 접근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결핍과 문제점을 강조하는데 그쳐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이 발달과정 상 보이는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이들 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인지, 일반 청소년집단과 차이를 검증하고 극복방안 등을 분석하며,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4).

2010년 시작된 예비조사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종단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였고, 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대상의 1기 본조사 패널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현재까지 매년 추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첫 조사가 실시된 2011년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들

3) 2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4) 조사개요는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장윤선 외, 2021: 21-23)」의 연구추진경과를 수정 보완함.

이 202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하는 등 사회 진출을 피하고 있다.

1기 패널은 2011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1,625가구가 구축되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최종 1,014가구가 유지되어 2011년 대비 62.4%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본 조사는 2011년 당시 승인통계가 아닌 상태에서 조사연구가 시작되었으나 2013년에 국가통계로 승인받았고(승인번호: 제 402003호), 바로 다음 해인 2014년 정기통계품질 진단을 통해 5점 만점 중 4.5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90.1점을 획득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111). 그 다음 5년 후 2019년에 두 번째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받았는데, 두 번째 정기 통계품질 진단에서는 5점 만점 중 4.5점, 가중치와 정성평가 및 추가점수를 적용한 점수로 97.6점의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19: 109)에서 매우 우수한 통계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패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기 패널 참여 학생들이 2020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들이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적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1기 패널 추적조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⁵⁾

그 후 2011년 당시 구축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이 국내출생자로 한정되어 국외 출생자 및 외국인가정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에 근거하여(양계민 외, 2019: 3), 2018년 신규 패널에 대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고, 2019년 2기 본 패널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9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국내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 등 4가지 유형의 다문화학생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총 2,224가구(2,246명)의 패널을 구축하였고, 현재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기 패널은 2021년 기준으로 최종 1,980가구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89.1%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1기 패널과 2기 패널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기 패널은 12차년도 조사를, 2기 패널은 4차년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5) 1기 조사 기획은 하였으나 예산상 매년 조사는 수행하지 못함.

연도	주요 연구 추진 경과	
	1기 패널	2기 패널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사 문항 및 연구방법 최종 결정 ■ 1기 패널 구축 ■ 1차년도 설문조사(초4)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년도 설문조사(초5) ■ 1기 패널 면접조사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년도 설문조사(초6) ■ 1기 패널 면접조사 ■ 국가통계승인(승인번호: 제 40203호)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년도 설문조사(중1) ■ 1기 패널 면접조사 ■ 정기통계품질진단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년도 설문조사(중2) ■ 1기 패널 면접조사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년도 설문조사(중3) ■ 1기 패널 면접조사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차년도 설문조사(고1) ■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6년간 중단변화 및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 총괄 분석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차년도 설문조사(고2) ■ 데이터 공개(2011~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기 예비조사(신규패널 구축)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차년도 설문조사(고3) ■ 정기통계품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기 패널 구축 ■ 1차년도 설문조사(초4)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차년도 설문조사(고졸이후-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년도 설문조사(초5)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차년도 설문조사(고졸이후-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년도 설문조사(초6)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년도 설문조사(고졸이후-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년도 설문조사(중1)

* 출처: 양계민, 강경균(2017: 8) 그림 1-2 수정

그림 II-1.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2. 추진경과⁶⁾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2010년 시작되어 2022년까지 총 13년에 걸쳐 추진된 연구로,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걸쳐 추진된 연구이며, 그 간의 추진경과를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라는 명칭으로 3년간 수행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종단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은 종단자료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고, 2011년에는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2012년에는 일반가정 청소년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단계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라는 명칭으로 5년간 수행되었다. 2단계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즉, 2013년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학교생활을, 2014년 연구는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을, 2015년 연구는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을, 2016년은 진로의식 및 태도를 살펴보았다. 2단계 연구의 마지막 5년차인 2017년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그동안 진행해왔던 연구를 정리하였고, 학업 및 학교생활, 심리, 사회 등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종단분석을 수행하였다.

3단계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라는 명칭으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2기 신규 패널이 구축되어 1기와 2기 패널을 조사하고 있다. 2018년 연구는 1기 패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발달현황 및 요구 분석을 하였으며, 2기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연구는 1기 패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사회 적응의 연구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20년 연구는 1기 패널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서 1기와 2기 패널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1년 연구는 2기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규모에 따른 발달격차와 진로 및 학업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2022년 연구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이며, 국내출생자로 구성된 1기 패널을 대상으로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적 요구도를 파악하여

6) 연구 추진경과는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장윤선 외, 2021: 24-26)」의 연구 추진경과를 수정 보완함.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의 근거 마련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단계	과제명	연도	연차	조사 학년	분석주제
1단계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2010년	1기 예비	초4	예비조사
		2011년	1차	초4	취약계층 청소년과 차이
		2012년	2차	초5	일반가정 청소년과 차이
2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013년	3차	초6	학업 및 학교생활
		2014년	4차	중1	심리·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2015년	5차	중2	자아정체성, 이중문화정체성
		2016년	6차	중3	진로의식, 진로태도
		2017년	7차	고1	총체적 발달
3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년	8차	고2	진로발달현황 및 요구
			예비(2기)	초4	예비조사
		2019년	9차	고3	심리·사회적응
			2기 1차	초4	-
		2020년	10차	대1	전반적 발달
			2기 2차	초5	1기 패널, 배경변인, 유형별 비교
		2021년	2기 3차	초6	지역별 차이, 진로 및 학업관련 영향 요인 분석
		2022년	11차	대3	후기청소년기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분석
2기 4차	중1		-		

* 출처: 양계민 외(2018: 8) 수정 및 보완

그림 II-2. 연도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연구주제

3. 연구의 성과와 의의

이 절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의 기초데이터 생산과 더불어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영향이 미친 학술적 성과, 정책적 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였다.

1) 학술적 성과

(1) 데이터 활용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학위논문,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연구보고서 등 학술적 성과가 있었다.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가 공개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총 472편의 연구물들이 산출되었다. <표 II-1>과 같이 2019년부터 매년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문 학술지뿐만 아니라 해외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1. 데이터 활용 건수

(단위: 편)

구분		활용실적						전체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09	
학술지	전문 학술지	9	13	49	86	115	62	334
학위	석사학위	-	-	7	16	17	17	57
	박사학위	-	-	5	11	6	10	32
학술대회 발표	MAPS	32	-	-	-	-	-	32
	기타	1	1	5	2	4	1	14
기타(타 기관 연구보고서 외)		-	-	1	1	1	-	3
계		42	14	67	116	143	90	472

* 출처: 양계민, 장윤선 외(2021: 28) 표 II-2 수정

(2) 데이터 활용논문 연구동향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가 공개된 2017년 이후 국내외 연구자들은 본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학술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국내외 학술지, 보고서 등 약 470여 편 정도를 발표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과 그의 어머니의 개인 및 다문화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문화와 관련된 시사점 및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이들의 연구가 어떠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는지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① 분석방법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 활용논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2년 7월 기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367편을 선정하였고, 학위논문 중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해 논문의 국문초록을 사용하였는데, 영문초록만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단어나 중복되는 단어를 제거하였으며, 논문의 초록에서 ‘다문화청소년패널’, ‘MAPS’, ‘MCAPS’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프로그램은 파이썬 3.9.12이며, 한나눔(Hannanum) 한글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는 비정형자료인 명사를 빈도수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시각화하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적용하였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명사의 출현 빈도에 따라 주요어(key words)의 크기를 상이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시성의 확보가 가능한 분석방법이다(권혜진, 다그와 더르지 아마르자르갈, 김학선, 2022). 본 연구동향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출된 명사 중 1위부터 100위까지 만을 지정하여 주요어가 눈에 띄도록 시각화하였다.

② 분석결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에서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주요어가 1,466회 등장하였다. 이는 전체기간 동안 다문화청소년이 주 대상인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 ‘학교생활 적응’, ‘우울’ 등이 주요어로 등장하였다. 특히, 상위권의 주요어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청

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기의 발달적 상황에서 자신을 인지하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개인, 가정, 학교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 배경을 지닌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출신 국가에 따라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문화적응에 관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연구를 통해 심리적·정신적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울’, ‘사회적위축’의 부정적 심리정서도 연구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청소년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학교생활적응’, ‘성취동기’의 주요어도 상위권에 나타났다. 이외에도 ‘집단’이라는 주요어가 266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 간 비교를 통해 차이를 살펴본 연구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내 이질적인 집단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살피는 군집분석, 잠재계층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위권의 주요어 중에서도 구조방정식 모형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

표 II-2. 주요어 빈도

순위	주요어	빈도
1	다문화청소년	1,466
2	자아존중감	512
3	문화적응스트레스	488
4	어머니	390
5	학교생활적응	380
6	우울	324
7	부모	278
8	사회적위축	274
9	성취동기	271
10	집단	266
11	자녀	248
12	청소년	229
13	매개효과	215
14	다문화가정	207
15	삶의 만족도	180
16	이중문화수용태도	178
17	진로장벽	164
18	자아탄력성	160
19	진로결정	158
20	중학교	155

* 주: 빈도는 20위까지만 제시함



그림 II-3.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2017년~2022년)

다음은 연도별 주요어 출현 빈도를 통해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앞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 1위를 차지한 ‘다문화청소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II-4]와 같다.

연도별로 주요어 출현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은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가 처음 공개된 해였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연구물들이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낸 주요어는 ‘자아존중감’이었다. 그 뒤를 이어 ‘학교생활적응’, ‘청소년’, ‘시점’, ‘학생’, ‘학업성취’ 등이 주요어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3개월 이상의 종단시점을 적용하여 성장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적응이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통해 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2018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주요어는 ‘청소년’이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어머니’, ‘부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때 ‘청소년’, ‘어머니’, ‘부모’ 등의 주요어가 상위권에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가족 간 관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문화가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제고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등장한 주요어이며, 그 뒤를 이어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어머니’, ‘집단’, ‘자아탄력성’ 등이 등장하였다. 특히, 2019년에 새롭게 상위권에 등장한 ‘집단’은 잠재계층, 잠재계층성장모형 등 횡단 및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이질성 및 다양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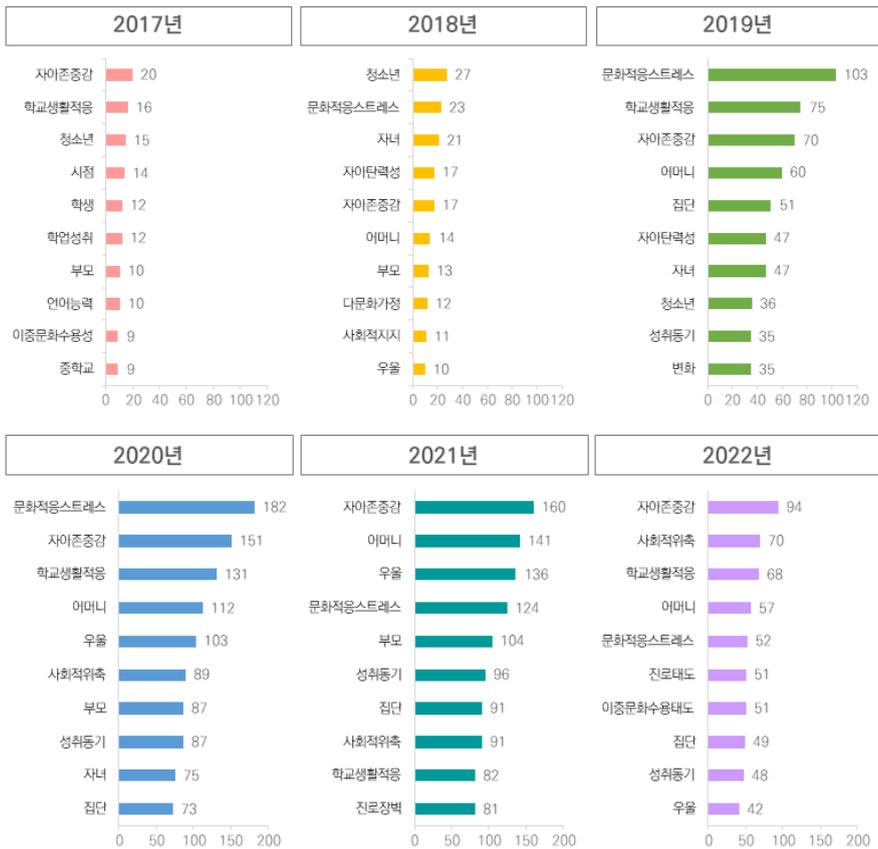
2020년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우울’, ‘사회적위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년도와 다르게 2020년에는 사회적위축의 부정적 심리정서가 새롭게 상위권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사회적위축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주요어는 ‘자아존중감’이었고, ‘어머니’, ‘우울’,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모’, ‘성취동기’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2021년에 새롭게 등장한 주요어는 ‘진로장벽’이다. 연구자들은 이중문화라는 환경적 배경이 학업과 진로발달을 지연시키거나 저해한다고 보아 진로장벽의 연구가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022년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은 출현 빈도를 보였고, 그 뒤를 ‘사회적위축’,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등장한 주요어는 ‘진로태도’이며, 이전 연도의 진로관련 연구의 연속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가 공개된 초기에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등 청소년의 심리·정서요인에 주목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등 다문화배경에서의 동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1년부터는 문화적응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진로장벽 및 진로태도의 연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고 다채로운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 주: 빈도는 10위까지만 제시함

그림 II-4. 주요어 출현 빈도 연도별 추이(2017년~2022년)

2) 정책적 성과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패널을 구축하여 이들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부터 이어져온 본 연구는 매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그의 어머니, 교사,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그 결과 다수의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정책적 성과를 이루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방안들이 국가차원의 주요 기본계획이나 사업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는 <표 II-3>와 같다.

2017년 연구의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예비교사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필수과목의 포함’을 제안한 부분이 2020년 6월,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에서 예비 교원의 교직과목에 ‘다문화 교육’을 포함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형을 권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비 교원에서부터 다문화교육의 이해 제고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0.6.25.). 이와 더불어 다문화 이해교육이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체계에서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등의 프로그램에 다문화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그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수행되었으며, ‘청소년지도사 다문화이해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정책 방안 연구’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에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와 ‘예비청소년지도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2022년 여성가족부 사업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에 다문화감수성 교육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2017년 동 보고서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동일하게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차원의 다문화청소년 재 개념화 및 일원화된 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의 주요 과제로 제안되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 방안과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였다(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0.6.25.). 이러한 정책 제안은 향후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일원화된 개념을 바탕으로 이들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통계를 지속

적으로 작성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계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이 역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안산시와 화성시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 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듬해 김해시를 포함하여 3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0.6.25.).

2018년 보고서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제고 방안의 일환인 전국 도서관에서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내용은 「2020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 계획」에 반영되어 다문화가족 독서 멘토링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으로 독서를 매개로 한 상호문화이해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여성가족부, 2020). 그 해 동 보고서에서 다문화청소년 재학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 사업'의 우선 지정을 제시하였는데, 교육부는 「2020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에 두드림 학교 우선 지정 권장'하였다(교육부, 2020).

다음으로 2019년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위기 지원 등 관할 지역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 내용은 교육부의 「2020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 '지역사회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지원 기관의 연계로 정서지원이 요구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0). 이는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의 심리적 위축 등의 정서 지원이 요구될 때 학교 내 위(Wee) 센터에서 지원을 받지만, 전문적인 정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내 연계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의뢰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2020년 보고서에서는 만 6세 대상으로 입학 전 읽고, 쓰고, 셈하기의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2022년 2월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2022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에서 학교 적응의 체계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전국 가족센터에서 초등학교 전후 아동·청소년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교육하는 '다배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2.2.4.).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존 90개소의 기초학습 지원 가족센터를 138개소로 확대·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2022.10.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다수의 내용들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교육지원방안,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2022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패널연구와 차별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I-3.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의 정책반영 결과

출판 연도	제안내용	반영결과	정책내용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 필수과목 포함(연구보고서 p. 118)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과목에 ‘다문화교육’이 포함된 교원양성교육과정 관련 규정 개정, 편성운영 권고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시설종사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고서 p. 120)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추진 • 다문화수용성 제고 위한 청소년정책방안 연구(청소년 수련시설 중심) 추진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과정에 다문화감수성 교육과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관련 시설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p. 120)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청소년지도자 대상(청소년상담학과, 청소년학과 등) 다문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추진
		「2022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과정에 다문화감수성교육 도입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통계구축 (연구보고서 p. 133)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체계 구축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추정 위한 행정통계연계방안,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실시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중심 지역연계체계 구축 (연구보고서 p. 128)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에 반영 및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 연계 사업 기관 확대(2021)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020년 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도서관에 문화다양성 이해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독서를

출판 연도	제안내용	반영결과	정책내용
	(연구보고서 p. 438)		매개로 상호문화이해 기회 확대 • 다문화가정 독서멘토링
2018년	▪ 다문화청소년 재학생이 많은 지역 「두드림 사업」 우선 지정 (연구보고서 p. 436)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반영	•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두드림 학교' 우선 지정 권장
2019년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p. 386)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반영	• 지역사회 내 다문화 청소년지원기관(CYS-Net)과 연계, 학교 내 정서지원 필요 학생 전문 지원 강화
2020년	▪ 입학전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연구보고서 p. 498)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 전국 가족센터에서 입학 전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이 부족한 다문화 아동 대상, 사전 기초학습지원 사업 추진
2020년	▪ 다문화청소년 상담 전문인력양성 (연구보고서 p. 501)	「2022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논의	•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위한 통역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2021년	▪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연구보고서 p. 425)	「2022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 반영	• 초등학교 입학 전후 다문화아동의 읽기, 쓰기, 셈하기(3R's) 기초학습 지원의 '다배움' 사업 추진(전국 가족센터)
		「2023년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 기초학습 지원 제공 가족센터 90개소에서 139개소로 확대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반영	•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지원 체계 마련, 다문화유아 조기 적응 및 교육 지원 학습자료 배포

* 출처: 양계민, 장문선 외(2021: 32-33) 표 II-2 수정 및 보완

3) 사회적 파급효과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증가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작되면서 많은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언론을 통해 조명되면서 꾸준히 기사화되었다. 특히 언론사에서 다룬 기획기사나 보도 자료에 본 연구의 결과물들이 인용되면서 홍보효과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를 통해 매년 이루어지는 다양한 포럼과 행사, 연구보고서 등의 과정과 결과들은 사회·문화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들의 실태를 점검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4. 본 연구결과 인용 언론기사 결과

년도	일자	언론사	제목
2009년	02.18.	매일경제	청소년 56% “다문화가정 자녀와 친구 안 해”
	11.23.	동아일보	다문화 사회의 대응과 전망
2010년	08.11.	약업신문	탈북·다문화 청소년 “우리 이야기 들어볼래?”
2012년	02.10.	서울경제	언어 장벽·차별적 시선에 가족 융화 힘들어 ‘삼중고’
	08.06	한국일보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인 정체성 낮아
	08.06	연합뉴스	다문화 어린이 10명 중 7명 “난 100% 한국인”
	08.07.	동아일보	다문화 어린이 73% “나는 100% 한국인”
	09.18	조선일보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1년 만에 69% 급증
2013년	03.20.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보편적 기준 적용, 지원해야”
	05.29.	장애인신문	‘다문화’, 그 속에 숨겨진 차별
	12.12.	헤럴드POP	중도입국청소년 10명 중 4명 “진로 계획 없어”
	12.13.	연합뉴스	중도입국청소년 상당수 1년 이상 ‘나홀로 집에’
2014년	03.04.	국제신문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03.04.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03.06.	영남일보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적응 어려움”
	11.04.	뉴스1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 과제는?
	11.07.	농촌여성신문	FOCUS-사회통합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2015년	03.11.	서울신문	점점 더 어우러지는 다문화 청소년
2016년	08.09.	한국농어민신문	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 ⑥국회 정책토론회
	11.20.	세계일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관심 밖… ‘있어도 없는’ 존재
	12.04.	세계일보	‘같이’의 진정한 가치 교육 통해 차별·편견 극복 ‘한마음’
2017년	02.01.	신아일보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년 올라갈수록 우울해진다
	02.01.	쿠키뉴스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년 오를수록 우울증 커져”
	02.01.	한국일보	나이 들수록 위축되는 다문화 청소년

년도	일자	언론사	제목
	02.01.	연합뉴스	“다문화청소년, 고학년 될수록 우울감 심해져” 1천300명 추적조사
	07.12.	농민신문	농촌 다문화정책, 2세에 초점을(하)대안은 없나
2018년	06.25.	연합뉴스	[다문화학생 10만명] ① 진학을 낮고 지원정책도 '부실'
	06.25.	연합뉴스	[다문화학생 10만명] ③ "진로탐색 교육 가장 중요"...전문가 제언
	09.10.	정책브리핑	다문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한다.
	09.10.	여성소비자신문	다문화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방안 모색
	12.12.	연합뉴스	“다문화청소년 정책 추진 과정서 의도치 않은 '낙인효과' 초래”
2019년	01.13.	서울경제	“함께 공부 못해” 따돌림에...다문화 고교생 20% 학업 포기
	01.13.	서울경제	“이민자 이웃 싫다”...순혈주의에 속마한 '또 하나의 한국인'
	01.14.	서울경제	단순 적응 아닌 진로 교육 등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 갖춰야
	03.22.	헤럴드경제	[우리 안의 인종차별] '동생 보느라...시선 때문에...' 학교 밖 다문화 학생들
	04.23.	연합뉴스	다문화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성장하면서 삶의 만족도 떨어져”
	04.24.	내일신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자랄수록 '삶의 만족도' 떨어진다.
	05.03.	머니투데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05.03.	국회	이주배경 아동 교육권 보장: 제도-학교 연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05.04.	미디어오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
	05.16.	CTS	2018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보고서 발표. “다문화 청소년 성장할 수록 삶의 만족도 하락”
	06.13.	연합뉴스	“다문화학생도 이질적...문제·육구 반영해 맞춤 지원 고민해야”
09.30.	뉴시스	다문화 학생 47.5%는 진로 못 정해...정보력, 가정배경 요인	
2020년	06.26.	쿠키뉴스	정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학 돕는다
	08.26.	내일신문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에도 '도움 요청할 어른 없다' 70.4%
	08.27.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당해도 도움 청할 곳 없어 '공공'
2021년	04.23.	헤럴드경제	“그냥 참았다”...차별 노출된 다문화 가정 73% '냉기숨'
	05.04.	오마이뉴스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06.11.	아시아경제	“너네 엄마 베트남 사람인 것 소문날 것”...차별·혐오에 멍든 다문화 가정
	06.14.	코리아타임즈	다문화가정 학생, 끔찍한 학교폭력의 피해자 됐다
2022년	04.08.	경향신문	'다문화'라는 낙인-교실에선 자리 잡아 가는데...‘다문화 시즌2’ 못 따라가는 한국 사회[5%의 한국]

년도	일자	언론사	제목
	04.13.	더나은미래 (조선미디어)	다문화 학생 전국 16만명… 9년 만에 3배 증가
	07.08.	연합뉴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정착 돕는 방안은'…9월 정책제안대회
	07.14.	헬스경향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해 힘 보태주세요"
	08.03.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11~12일 정책포럼
	08.10.	베이비타임즈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8월 12일은 세계청소년의 날
	08.10.	아시아투데이	여가부, 세계청소년의 날 맞아 각종 행사 진행
	08.10.	뉴스1	여가부, '세계청소년의 날' 맞아 청소년 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
	07.28.	인천일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인턴십' 진행
	09.14.	조선일보	웅진재단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개국 14주년 기념식 개최 외

* 출처: 양계민, 장윤선 외(2021: 34-35) 표 II-3 수정 및 보완

앞서 상술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생산하여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특정 주제를 연구하며 발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이들 정책이 부처를 통해 반영되는 정책적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들이 기획기사나 보도 자료에 인용되어 기사화됨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의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서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제3장 패널조사

-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 4. 패널관리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⁸⁾

1) 표본설계

(1) 모집단

2011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이 구축되었다. 2011년 구축 당시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을 조사모집단으로 하였다. 아동 개인의 종합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성실한 조사 참여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판단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다.

1기 패널 표본설계 및 패널 구축을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였다. 협조를 받은 지역은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고, 협조 받지 못한 4개 시·도는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대체하였다.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모집단은 <표 III-1>과 같다(양계민 외, 2011: 118).

7) 3장은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가 집필함.

8)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양계민 외, 2011: 111-121)의 패널 표본 부분을 요약, 발췌 및 수정함.

표 III-1. 1기 패널 지역별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개교, 명(%))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264 (10.4)	510 (11.5)	광주	75 (3.0)	110 (2.5)
인천	119 (4.7)	228 (5.1)	전북	175 (6.9)	318 (7.1)
경기	514 (20.3)	1,006 (22.6)	전남	228 (9.0)	475 (10.7)
부산	114 (4.5)	185 (4.2)	대전	49 (1.9)	64 (1.4)
울산	39 (1.5)	59 (1.3)	충북	118 (4.7)	196 (4.4)
경남	226 (8.9)	351 (7.9)	충남	175 (6.9)	279 (6.3)
대구	80 (3.2)	107 (2.4)	강원	150 (5.9)	234 (5.3)
경북	173 (6.8)	281 (6.3)	제주	38 (1.5)	49 (1.1)
합계			2,537 (100.0)		4,452 (100.0)

* 출처 : 양계민 외(2020: 72) 표 IV-1 발췌

(2) 표본추출

1기 패널의 목표표본은 약 1,600여 가구로 이는 모집단의 35.9%(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학생 수 4,452명)이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역 기준으로 모집단 층화를 실시하였다. 조사단위는 다문화청소년 가구(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이지만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모집단 정보를 수집하여 표본추출 단위를 학교로 하였다. 16개 시·도를 층화 변수로 하고 16개 시·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1,600가구에 도달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표본 배분은 확률비례통계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 III-2〉는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이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표본 대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 후 대체하였다. 향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탈 패널에 대한 표본대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양계민, 강경균, 2017: 73).

표 III-2. 1기 패널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단위: 개교, 명(%))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100 (10.0)	173 (10.8)	광주	29 (2.9)	39 (2.4)
인천	47 (4.7)	79 (4.9)	전북	67 (6.7)	108 (6.8)
경기	196 (19.6)	362 (22.6)	전남	87 (8.7)	163 (10.2)
부산	56 (5.6)	85 (5.3)	대전	19 (1.9)	24 (1.5)
울산	21 (2.1)	28 (1.8)	충북	45 (4.5)	67 (4.2)
경남	86 (8.6)	125 (7.8)	충남	79 (7.9)	113 (7.1)
대구	31 (3.1)	38 (2.4)	강원	57 (5.7)	83 (5.2)
경북	66 (6.6)	97 (6.1)	제주	14 (1.4)	16 (1.0)
합계			1,000 (100.0)		1,600 (100.0)

* 출처 : 양계민 외(2020: 73) 표 IV-2 발췌

(3) 표본구축 결과 및 패널 유지율

1기 패널은 2011년 1,625가구가 구축되었고, 동일 가구 내 조사대상 청소년이 2명인 가구가 있어 청소년의 수는 총 1,635명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한 2020년 조사 당시 학부모 조사를 축소하였고, 2021년 유지조사부터 학부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1년 1기 패널 유지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는 총 1,022명이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패널 유지율을 살펴보면, 2021년에 조사에 참여한 가구 수는 1,014가구로 11년째 지속된 패널의 유지율은 62.4%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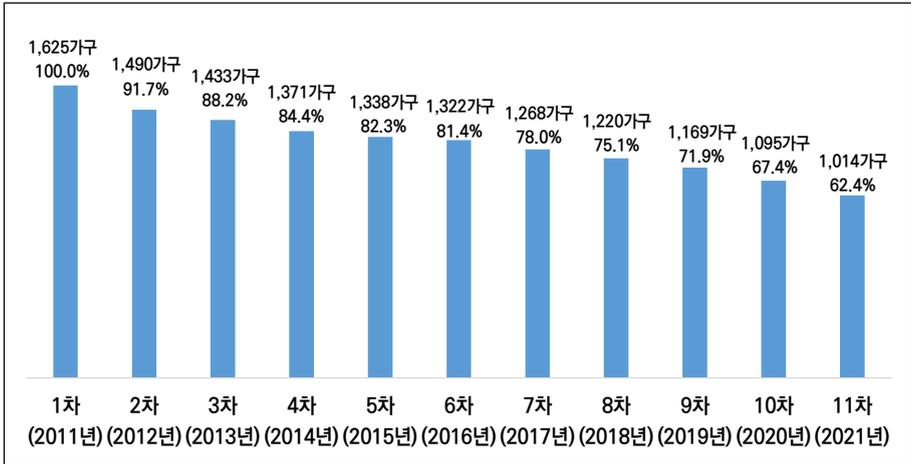


그림 III-1. 1기 패널 유지율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패널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별 분포는 <표 III-3>과 같다.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47%~49%)보다 여자 청소년(50%~52%)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 1기 패널 참여 청소년 성별 분포(2011년~2021년)

(단위: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자	805(49.2)	740(49.3)	706(48.9)	675(48.9)	662(49.1)	655(49.2)
여자	830(50.8)	760(50.7)	737(51.1)	706(51.1)	686(50.9)	677(50.8)
합계	1,635(100.0)	1,500(100.0)	1,443(100.0)	1,381(100.0)	1,348(100.0)	1,332(100.0)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남자	624(48.8)	601(48.9)	575(48.8)	530(48.1)	489(47.8)	
여자	653(51.2)	628(51.1)	603(51.2)	573(51.9)	533(52.2)	
합계	1,277(100.0)	1,229(100.0)	1,178(100.0)	1,103(100.0)	1,022(100.0)	

* 출처 : 양계민 외(2019: 95) 표 II-17 수정 보완

패널 구축(2011년) 당시 조사 대상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와 2021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1기 패널 참여 지역별 분포(2011년, 2021년)

(단위: 명(%))

시·도	2011년	2021년	시·도	2011년	2021년
서울	182 (11.1)	95 (9.3)	강원	90 (5.5)	70 (4.3)
부산	74 (4.5)	47 (4.6)	충북	75 (4.6)	49 (3.0)
대구	42 (2.6)	20 (2.0)	충남	117 (7.2)	75 (4.6)
인천	68 (4.2)	43 (4.2)	전북	108 (6.6)	83 (5.1)
광주	42 (2.6)	25 (2.4)	전남	160 (9.8)	131 (12.8)
대전	25 (1.5)	9 (0.9)	경북	102 (6.2)	63 (6.2)
울산	31 (1.9)	15 (1.5)	경남	120 (7.3)	90 (8.8)
경기	384 (23.5)	202 (19.8)	제주	15 (0.9)	4 (0.4)
합계				1,635 (100.0)	1,022 (100.0)

2) 조사내용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12년째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다양한 진로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문항을 구성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청소년 패널의 진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유지조사만 실시하였다. 2022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2020년의 조사 영역 및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 하였다. 이 때 수정보완 작업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문항(대학교 입학 관련 문항 등) 및 현재 상황(현재 청년 정책 반영) 등을 삭제,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표 III-5>는 2020년부터 2022년 1기 패널 청소년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으로 다음과 같다.

표 III-5.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 (2020~2022년)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0년	2021년	2022년
군복무 (남자인 경우 만)	군복무 여부	연구진 작성	○	○	○
	군입대 시기(혹은 입대 예정 시기)	연구진 작성	○	○	○
	군 전역 후 계획	연구진 작성	○	-	○
	군복무 마친 시기	연구진 작성	-	-	○
	군복무 중 차별경험 및 차별 가해자	연구진 작성	-	-	○
	군복무 중 다문화 교육 경험 및 (교육 받은 경우) 교육 내용	연구진 작성	-	-	○
	군생활 만족도	연구진 작성	○	-	-
배경변인	다문화 청소년 혼인상태	연구진 작성	○	-	○
	현재 거주형태(부모님과 동거 여부)	윤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가정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	-	○
	개인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	-	○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연구진 작성(2020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주관적 경제수준	연구진 작성(2020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여부	연구진 작성	○	-	○
	(진학 한 경우) 대학교 학적 상태	연구진 작성	○	-	○
	(진학하지 않은 경우) 진학하지 않은 이유	연구진 작성	○	-	○
	(진학하지 않은 경우) 현재 주로 하는 일	연구진 작성	-	-	○
	최종학교급 및 졸업여부 확인	연구진 작성	-	○	-
	(최종학교급과 졸업여부가 다른 경우) 최종학교급 및 졸업여부 확인	연구진 작성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0년	2021년	2022년
대학진학	(대학 재학 중인 경우) 학교명 확인	연구진 작성	-	○	-
	대학명	연구진 작성	○	○	○
	전공계열	연구진 작성(전공계열분류: 박근영 외(2019) 발체)	○	-	○
	전공확인	연구진 작성	-	○	-
	학부 및 학과(전공)명	연구진 작성	○	○	○
	등록금 마련방법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2018) 발체 및 수정	○	-	○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	-	○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대학만족도, 학업적응, 사회적응)	Baker & Siryk(1984)를 이윤정(1999)이 수정 보완한 대학생생활적응도검사를 사용한 이민희(2018) 일부 발체 및 수정	○	-	○
	(대학 자퇴한 경우) 대학을 그만 둔 이유	연구진 작성	-	-	○
	대학교 입학 모집유형	연구진 작성	○	-	-
	대학교 입학 전형	연구진 작성	○	-	-
	(특별전형 입학 시) 특별전형 유형	연구진 작성	○	-	-
	대학 및 전공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윤해준 외(2019) 발체 및 수정	○	-	-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영향을 준 사람	김양분 외(2011) 발체 및 수정	○	-	-
	휴학	연구진 작성	-	○	-
대학진학 준비	대학진학 준비 여부	연구진 작성	○	○	-
	대학진학 준비 이유	김양분 외(2011) 발체 및 수정	○	-	-
	대학진학 준비하는 대학 유형	연구진 작성	○	-	-
	대학진학 준비 관련 사교육	연구진 작성	○	-	-
	대학진학 준비 사교육비 부담 정도	연구진 작성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0년	2021년	2022년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연구진 작성	○	○	○
	하고 있는 일 갯수	연구진 작성	○	-	○
	최근 한 달 내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경험	연구진 작성	○	○	○
	종사상 지위	연구진 작성 (2020 종사상 지위 정의: 윤혜준 외(2019) 발체, 2022 종사상 지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통계청, 2021) 활용)	○	○	○
	임금근로자 유형	연구진 작성(통계청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통계청, 2021) 참조)	-	-	○
	일을 하게 된 경로	연구진 작성	-	-	○
	일 종류	연구진 작성	○	○	○
	특성화고 전공과 일의 관련성	연구진 작성	○	-	○
	직장 소재지	연구진 작성	○	-	○
	평균 근무시간(총 근무일수/하루 평균 근무시간)	연구진 작성	○	-	○
	월평균 소득	연구진 작성	○	-	○
	업무만족도	김양분 외(2011) 발체 및 수정	○	-	○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취·창업 준비여부	연구진 작성	○	-	○
	취업 준비 활동	유한구 외(2017) 발체 및 수정	○	-	○
	취업정보 수집 방법	유한구 외(2017) 발체 및 수정	○	-	○
	취업 준비 직종	유한구 외(2017) 발체 및 수정	○	-	○
	취업 준비 직종(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창업 준비 활동	유한구 외(2017) 발체 및 수정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0년	2021년	2022년
	창업정보 수집 방법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창업 준비 업종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창업 준비 업종(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경험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종류(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받은 기간(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제공기관	연구진 작성(교육훈련기관 유형: 윤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교육훈련 받은 목적	연구진 작성	-	-	○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 받지 않은 이유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현,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교육훈련 받을 계획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현,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연구진 작성	○	-	○
	구직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유	연구진 작성	-	-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	-	○
	노동 의지	연구진 작성	○	-	○
	현재 생활	연구진 작성	○	○	○
	(현재 쉬는 경우) 쉬는 이유	연구진 작성	○	○	○
심리·사회 적응	자존감	Rosenberg(1965) 발췌	○	-	○
	삶의 만족도	김신영 외(2006)을 인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김지경 외, 2010)	○	-	○
	우울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을 발췌·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0년	2021년	2022년
	주관적 건강상태	연구진 작성	○	-	○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있을 경우)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생활만족도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현,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차별경험 유무	최윤정 외(2019) 수정 사용	○	-	○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 차별한 대상 및 차별 후 대응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한 경우) 도움 받은 공공기관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민간기관에 도움 요청 한 경우) 도움 받은 민간기관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도움요청하지 않은 경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학창시절 부당한 대우 경험	연구진 작성	-	-	○
	(부당한 경험 있을 경우) 부당한 경험의 시기 및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청소년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이익 정도	연구진 작성	○	-	○
	구직과정에서 다문화배경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 받은 경험	연구진 작성	-	-	○
사회적 가치와 태도	사회적 가치	한국사회 인식: 김유빈 외(2019)에서 일부 발췌 한국교육 인식: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2019)에서 일부 발췌	○	-	○
	한국사회 인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현,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태도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도움 정도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초점	연구진 작성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연구진 작성	-	-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인식	연구진 작성	-	-	○
진로	학업 포부수준	연구진 작성	○	-	○
	장래희망 유무	연구진 작성	-	-	○
	(장래희망 있는 경우) 장래희망 직업	연구진 작성	-	-	○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유한구 외(2016) 발췌 및 수정	○	-	○
	진로장벽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중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부족 발췌	-	-	○
정책 및 지원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2019) 발췌 및 수정	○	-	○
	(인지 한 경우) 청년지원정책 이용 경험	김지경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청년지원정책 도움 정도	김지경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청년지원정책 이용하지 않은 이유	김지경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다문화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연구진 작성	-	-	○
	(필요 한 경우) 필요한 지원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방식	연구진 작성	-	-	○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장소	연구진 작성	-	-	○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⁹⁾

1) 표본설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은 2019년에 구축하였다. 조사 모집단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이고, 표본추출틀은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표본규모는 총 2,100여명이다. 표본추출은 다문화가정 유형 및 17개 시·도를 층화하였고, 부모 출신국가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다문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확률비례추출 하였으며, 동일 학교 내 다문화 학생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표 III-6. 2기 패널 표본설계 내용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모집단 : 전국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조사 모집단 :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중도입국/외국인 가정의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표본추출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규모 : 전국 2,1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2.1\%p$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 지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 층화 : 다문화가정 유형(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17개 시·도 ■ 내재적 층화 : 부모의 출신국가 ■ 표본추출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psu) : 학교 → 다문화 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 - 2차(ssu) : 학교 내 다문화 학생 → 전수조사
표본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유형별 : 50명 우선할당 후 나머지는 비례배분 ■ 17개 시·도별 : 비례배분
추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고, 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법 적용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다문화가족 유형별, 어머니 출신국가별, 어머니 학력별, 가구소득별, 지역 규모별 ■ 조사된 사례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25% 이상)에는 유사 인접층을 통합하여 공표하거나 내부 자료만으로 활용할 것이며, 모수추정 후 공표범위는 통계청과 협의 를 통해서 최종 결정

* 출처: 양계민 외(2019: 124) 표 VI-7 발췌

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설계보고서(양계민, 2018: 35-5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19: 120-133),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장윤선 외, 2021: 42-47)를 요약, 발췌 및 수정함.

(1) 모집단

2기 패널 모집단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으로(양계민, 2018: 38), 표본추출틀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는 2018년 4월 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표본추출의 기준일(2018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교의 분포를 모집단으로 하였다(양계민, 2018: 38). 2기 패널 모집단의 분포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7. 2기 패널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명, 개교)

구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구성비,%)
전국	14,163	4,612	902	645	2,069	729	17,134	4,805(100.0)
서울	1,458	447	169	115	543	162	2,170	485(10.1)
부산	684	237	42	33	34	24	760	246(5.1)
대구	477	175	30	28	47	24	554	182(3.8)
인천	710	202	80	52	144	55	934	214(4.5)
광주	372	124	12	11	44	12	428	128(2.7)
대전	325	108	14	13	16	13	355	115(2.4)
울산	390	98	15	13	32	19	437	99(2.1)
세종	82	30	4	4	4	4	90	31(0.6)
경기	2,903	930	306	191	830	241	4,039	999(20.8)
강원	474	214	12	11	10	9	496	217(4.5)
충북	622	203	27	23	61	24	710	210(4.4)
충남	1,046	341	47	36	101	41	1,194	347(7.2)
전북	888	303	22	19	23	17	933	306(6.4)
전남	1,046	331	27	23	21	13	1,094	339(7.1)
경북	1,158	380	23	20	58	26	1,239	389(8.1)
경남	1,301	404	49	35	73	30	1,423	408(8.5)
제주	227	85	23	18	28	15	278	90(1.9)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외(2021: 44) 표 III-5 발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원출처)
 ※ 다문화 유형이 중복된 학교가 있어 전체 학교 수와 유형별 학교 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2) 표본추출

2기 패널은 다문화 학생 유형과 지역별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표본 배분 시 변형비례배분을 적용하여 표본을 배분한 후 다문화가족 유형과 지역 표본 결과를 보완하여 셀별 표본크기가 3명 이상 되도록 추가 배분하였다.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이고 층화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추출 시 층 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의 추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을 사용하여 학교를 선정하였다(양계민, 2018: 47).

표 III-8. 2기 패널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전국	1,580	20	1,600	147	53	200	273	27	300	2,000	100	2,100
서울	163	0	163	28	3	31	72	1	73	263	4	267
부산	76	0	76	7	3	10	4	2	6	87	5	92
대구	53	0	53	5	3	8	6	2	8	64	5	69
인천	79	0	79	13	3	16	19	2	21	111	5	116
광주	41	0	41	2	3	5	6	2	8	49	5	54
대전	36	0	36	2	3	5	2	2	4	40	5	45
울산	44	0	44	2	3	5	4	2	6	50	5	55
세종	10	15	25	2	2	4	2	1	3	14	18	32
경기	324	0	324	48	6	54	107	0	107	479	6	485
강원	53	0	53	2	3	5	2	1	3	57	4	61
충북	69	0	69	4	3	7	8	2	10	81	5	86
충남	117	0	117	8	3	11	13	2	15	138	5	143
전북	99	0	99	4	3	7	3	2	5	106	5	111
전남	117	0	117	4	3	7	3	2	5	124	5	129
경북	129	0	129	4	3	7	8	1	9	141	4	145
경남	145	0	145	8	3	11	10	1	11	163	4	167
제주	25	5	30	4	3	7	4	2	6	33	10	43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외(2021: 46) 표 III-6 발췌

(3) 표본구축 결과 및 패널 유지율¹⁰⁾

표본구축 결과, 총 2,223가구의 2,245명의 청소년을 패널로 구축하였으며, 가구 내 동일 학년이 있는 사례로 인해 가구 수와 청소년 수는 동일하지 않다. 지역별, 다문화가정 유형별 패널 구축 현황은 <표 III-9>와 같다. 모집단 분포 및 비율에 근거하여 구축한 결과 국제결혼가정 가구 수(1,719가구)가 가장 많으며, 외국인가정(355가구), 중도입국가정(149가구의 순으로 구축되었다.

표 III-9. 2기 패널 전국 시·도별 구축 현황

(단위: 가구, 명)

시·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가구 수	청소년 수	가구 수	청소년 수	가구 수	청소년 수	가구 수	청소년 수
전국	1,719	1,734	149	150	355	361	2,223	2,245
서울	163	164	23	24	76	76	262	264
경기	303	305	44	44	151	156	498	505
인천	80	82	15	15	26	26	121	123
강원	60	60	2	2	2	2	64	64
충북	83	83	4	4	10	11	97	98
대전	41	42	6	6	7	7	54	55
충남	119	121	8	8	24	24	151	153
세종	25	25	1	1	1	1	27	27
대구	80	81	2	2	11	11	93	94
경북	128	128	7	7	6	6	141	141
경남	150	151	14	14	7	7	171	172
부산	79	81	13	13	6	6	98	100
울산	46	47	1	1	6	6	53	54
광주	50	50	3	3	12	12	65	65
전북	102	102	1	1	4	4	107	107
전남	180	182	3	3	2	2	185	187
제주	30	30	2	2	4	4	36	36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외(2021: 46) 표 III-6 발췌 및 수정

10) 2019년 패널 구축 이후 매년 본 조사 전 전화조사를 통해 패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2022년 전화조사 중 모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을 패널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기존의 패널 구축 현황의 가구 수와 청소년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패널 유형별 2019년부터 2021년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0>과 같다. 2019년에 국제결혼가정 1,719가구, 중도입국가정 149가구, 외국인가정 355가구 총 2,223 가구가 패널로 구축되었다. 2020년에는 국제결혼가정 1,579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외국인 가정 312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중도입국 가정은 137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 26가구가 추가로 구축되어 총 2,054가구가 2020년 패널조사에 참여하였다. 2021년에는 국제결혼가정 1,529가구, 외국인가정 296가구, 중도입국가정 155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III-10. 2기 패널 참여 가구 다문화 유형별 분포(2019년~2021년)

(단위: 가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패널	추가구축	계	
국제결혼가정	1,719	1,579	-	1,579	1,529
중도입국	149	137	26	163	155
외국인가정	355	312	-	312	296
합계	2,223	2,028	26	2,054	1,980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외(2021: 47) 표 III-7 발췌 및 수정

2기 패널 참여 청소년 성별 분포는 <표 III-11>과 같다.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분포 비율이 50~51%와 48~49%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초기 구축 당시 남자 청소년이 약 57%로 여자 청소년(약 43%)보다 약 14%p 많았으나 2020년부터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차이의 변화는 2020년 추가구축으로 인해 그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 2기 패널 참여 청소년 성별 분포(2019년~2021년)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국제결혼가정	남자	878(50.6)	821(51.4)	797(51.5)
	여자	856(49.4)	776(48.6)	750(48.5)
	계	1,734(100.0)	1,597(100.0)	1,547(100.0)
중도입국	남자	85(56.7)	87(53.0)	84(53.8)
	여자	65(43.3)	77(47.0)	72(46.2)
	계	150(100.0)	164(100.0)	156(100.0)
외국인가정	남자	182(50.4)	159(51.0)	153(51.7)
	여자	179(49.6)	153(49.0)	143(48.3)
	계	361(100.0)	312(100.0)	296(100.0)
합계	남자	1,145(51.0)	1,067(51.5)	1,034(51.7)
	여자	1,100(49.0)	1,006(48.5)	965(48.3)
	계	2,245(100.0)	2,073(100.0)	1,999(100.0)

2) 조사내용

2기 패널 1차 년도에는 청소년 2종, 학부모 4종의 설문지가 개발되었으나, 2차 년도 조사 진행 시 입국 및 입학 전 경험과 관련한 문항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결과 청소년 2종, 학부모 3종으로 축소되었다. 3차 년도에는 2차 년도와 유사하게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응답자 관점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이 삭제되거나 수정 및 보완되었고, 4차 년도에는 2기 패널 청소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로, 학교급 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문항을 재검토하고 추가해야 할 문항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후 수정하였다.

4차 년도 조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비행 문항과 사이버 비행의 문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관련된 생활 및 태도와 친구 및 선후배 관계를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심리문항에서 스트레스 문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등 정서 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 경험 및 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다문화가정 특별지원에 대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는 문항과 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을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 응답자가 문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일부 응답항목을 수정하였다. <표 III-12>는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이며 다음과 같다.

표 III-12.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2년)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2021(3차년도)		2022(4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MAPS 1기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의 언어 교육	연구진 작성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자신의 한국어 실력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	○	-	○	-	○	-	○
	이중 문화 경험	· 입국 후,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배운 경험 및 장소	연구진 작성	-	○	-	-	-	-	-	-
		· 국적에 대한 인식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및 횡수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Hovey & King(1996)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노총래(2000)를 수정한 홍진주(2004)를 수정하여 사용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국가정체성	성한기(2001) 발췌 및 수정	○	○	○	○	○	○	○	○
	지원정책	· 이중문화수용태도	노총래, 홍진주(2006) 발췌 및 수정	○	○	○	○	○	○	○	○
		· 특별지원 필요성 및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원하는 지원내용	MAPS 1기 수정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2021(3차년도)		2022(4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개인 요인	심리사회 적응, 행동 및 건강	· 건강평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수정	○	○	○	○	○	○	○	○
		· 스트레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외, 2017) 수정	○	○	○	○	○	○	-	-
		· 정서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일부 문항 발췌	-	-	-	-	-	-	○	○
		· 자존감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외, 2017) 수정	○	○	○	○	○	○	○	○
		· 사회적 역량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해정 외, 2017) 수정	○	○	-	-	-	-	-	-
		· 삶의 만족도	김신영 외(2006)을 인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김지경 외, 2010)	○	○	○	○	○	○	○	○
		· 현재 걱정거리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2018) 수정	○	○	○	○	○	○	○	○
		·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연구진 작성	○	○	○	○	○	○	○	○
		· 친한 친구 수	MAPS 1기	○	○	○	○	○	○	○	○
		· 친한 친구 국적	MAPS 1기 및 연구진 작성	-	○	-	○	-	○	-	○
		· 비행	이경상 외(2003)를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하형석 외, 2018)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	-	-	-	-	-	○	○
· 사이버비행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이승현, 김지현, 이원상, 2015) 사이버비행 가해경험을 수정 사용한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2021(3차년도)		2022(4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사이버비행 중 사이버비방 발체								
	인지	· 학교성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	○	○	○	○	○	○	○
		· 성적에 대한 만족도	MAPS 1기	○	○	○	○	○	○	○	○
	진로	· 희망교육수준	MAPS 1기	○	○	○	○	○	○	○	○
		· 희망직업	MAPS 1기	○	○	○	○	○	○	○	○
		· 학교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	연구진 구성	○	○	○	○	○	○	○	○
		·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상담)하는 사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	○	○	○	○	○	○	○
		· 진로태도 결정성	이기학, 한종철(1997)의 진로태도 중 진로태도 결정성 문항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환경 요인	부모	· 부모님의 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	김순규(2001) 수정	○	○	○	○	○	○	○	○
		· 부모의 양육태도	허묘연(2000) 수정 발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김지경 외, 2010, 이경상 외, 2011)	○	○	○	○	○	○	○	○
		·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하루 부모님과 대화 시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	○	○	○	○	○	○	○
		· 가정형편	연구진 작성	○	○	-	-	-	-	-	-
	친구	· 친구의 지지	한미현(1996) 발체	○	○	○	○	○	○	○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이해경, 김혜원(2001) 수정	○	○	○	○	○	○	○	○
	학교 생활	· 학교생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	○	○	○	○	○	○	○
		·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연구진 작성	○	○	○	○	○	○	○	○
·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MAPS 1기 수정	○	○	○	○	○	○	○	○	

대영역	구분 소영역	조사항목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2021(3차년도)		2022(4차년도)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MAPS 1기 수정	○	○	○	○	○	○	○	○
		· 교사의 지지	한미현(1996) 발체 및 수정	○	○	○	○	○	○	○	○
		· 학교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MAPS 1기 수정	○	○	○	○	○	○	○	○
	지역사회 지시망	· 학교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MAPS 1기 수정	○	○	○	○	○	○	○	○
	학업중단 위험요인	·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	이자영 외(2010) 문항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학업중단 위험요인 친구 및 선후배 영향	김순규(2001)의 문항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중도입국	학교 관련	·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연구진 작성	-	○	-	-	-	-	-	-
		· 한국 입학(편입) 학년	연구진 작성	-	○	-	-	-	-	-	-
		·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연구진 작성	-	○	-	-	-	-	-	-
	미래 생 활	· 국적취득 희망	연구진 작성	-	○	-	○	-	○	-	○
		· 한국 거주 희망	연구진 작성	-	○	-	○	-	○	-	○
기타	방과후 생활	· 방과 후 활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	○	-	-	-	-	-	-
	청소년 활동	·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등	사회조사표(통계청, 2017) 발체 및 수정	○	○	-	-	-	-	-	-
		·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출처: 양계민, 장윤선 외(2021: 49-52) 표 III-8 수정

학부모 설문지 역시 청소년용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1차 년도에는 외국인 학부모 2종, 한국인 학부모 2종 총 4종으로 구성되었으나, 2차 년도 조사부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한 결과 3종(외국인학부모 1종, 한국인학부모 2종)으로 축소되었다. 4차 년도 중학교 진학시기의 학부모 대상 설문지는 특별히 추가하거나 삭제된 문항은 없으나,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응답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 수정 및 문항이나 단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학부모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은 다음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2년)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배경 변인	가족 특성	·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및 관계 만족도	MAPS 1기 및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총래 외, 2018) 수정	○	○	○	○	○	○	○	○	○	○	○	○	○	○	○	○
		· 가정의 월평균 소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가정의 주요 소득원	MAPS 1기	○	○	○	○	○	○	○	○	○	○	○	○	○	○	○	○
		· 가정의 경제적 수준(가정형편)	MAPS 1기	○	○	○	○	○	○	○	○	○	○	○	○	○	○	○	○
개인 요인	심리사 회적응 및 건강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총래 외, 2018) 수정	○	○	-	-	-	-	-	-	-	-	-	-	-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김지혜 외(2019) 및 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발췌	○	○	○	○	○	○	○	○	○	○	○	○	○	○	○	○
		· 전반적 건강 상태	MAPS 1기	○	○	○	○	○	○	○	○	○	○	○	○	○	○	○	○
		·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	○	○	○	○	○	○
문화 특성	언어 능력	· 모국어	MAPS 1기	○	○	-	-	○	-	-	-	○	-	-	-	○	-	-	-
		· 한국어 학습경험	MAPS 1기	○	○	-	-	○	-	-	-	○	-	-	-	○	-	-	-
		· 한국어 수준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	○	-	-	○	-	-	-	○	-	-	-	○	-	-	-
	문화 적응	· 주로 어울리는 사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	-	-	○	-	-	-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움 점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	-	-	○	-	-	-
		·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승중(1995) 번안, 이소래(1997)가 수정한 것을 수정 후 사용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문화적응 유형	Barry(2001) 발췌 및 수정 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및 양육		· 자녀와 대화 시 사용 언어	MAPS 1기	○	○	-	○	○	-	○	○	-	○	○	-	○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MAPS 1기	○	○	-	○	○	-	○	○	-	○	○	-	○			
			·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한국 오기 전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기간 및 소요 이유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초등학교 입학 시기 및 입학이 늦어진 사유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MAPS 1기	○	○	○	○	○	○	○	○	○	○	○	○	○			
			· 자녀 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MAPS 1기	○	○	○	○	○	○	○	○	○	○	○	○	○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방과후 교육(사교육 경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김지경 외, 2010) 수정	○	○	○	○	○	○	○	○	○	○	○	○	○			
	양육 관련 특성	·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노총래 외, 2018)	○	○	○	○	○	○	○	○	○	○	○	○	○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외국인학부모		한국인학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 부모효능감	Gibaude-Wallstom & Wandersman (1978)의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한 신속재 (1997)을 수정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자녀 진학/ 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MAPS 1기	○	○	○	○	○	○	○	○	○	○	○	○	
다문 화 지원 정책	지원 정책 태도	·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도	MAPS 1기	○	○	○	○	○	○	○	○	○	○	○	○	
		· 자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김영혜, 김다경(2016)	○	○	○	○	○	○	○	○	○	○	○	○	
		· 선호하는 지원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출처: 양계민, 장윤선 외(2021: 54-56) 표 III-9 수정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로 ‘헬싱키 선언’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명윤리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1기와 2기 패널 심의 진행을 위해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와 연구계획서, 1기와 2기 패널 설문지, 1기와 2기 조사 설명문 및 조사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였다. 1기 패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3월 25일 신청 후 3월 3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2기 패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5월 16일 신청하였고, 5월 24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22년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는 202203-HR-고유-003이다.

2)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및 통계변경승인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3호)이다. 국가승인통계는 조사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 전 조사 자료 중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전에는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에 해당 조사 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뢰하였으나 2022년에는 기존에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에서 받은 행정자료 활용여부 판단결과를 근거로 자체판단 하였다. 1기 패널의 자체판단은 3월 25일, 2기 패널은 5월 16일에 하였고, 두 패널 모두 행정자료 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후 각각 통계변경승인을 진행하였다. 1기 패널은 4월 5일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4월 11일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만 2021년 유지조사 후 2022년에 1기 패널 본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계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통계 작성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통계자료의 시계열 문제 및 이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추후 통계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의견을 받았다. 2기 패널은 5월 17일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며, 5월 27일 최종 변경승인을 받았다.

3) 조사절차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진행을 위해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조사표를 확정하고, 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및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와 변경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이후 조사를 위해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하였고, 2기 패널은 외국출생 청소년 및 외국인 학부모¹¹⁾를 고려하여 조사표를 번역하였으며, 번역 된 조사표로 TAPI를 구축하였다. 조사표 확정 및 번역, TAPI 시스템 구축 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사원 교육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 전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방문하여 TAPI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문화청소년 1기 패널의 경우 1~8차년도까지 CAPI(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활용하였고, 9차년도부터 TAPI를 사용하였으며, 11차년도의 경우 패널 유지조사로 CATI(CATI: Computer Assistant Telephone Interview) 조사를 실시하였다. 2기 패널의 경우 1차 년도(2019년)부터 3차 년도(2021년)까지 TAPI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패널별 설문조사 소요시간¹²⁾은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2019~2021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연도 및 패널	2019년		2020년		2021년
	1기 패널	2기 패널	1기 패널	2기 패널	2기 패널
청소년	27.3분	22.8분	16.4분	18.2분	19.0분
학부모	28.8분	22.0분	-	21.7분	22.3분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외(2021: 59) 표 III-11 발췌 및 수정

11) 외국출생 청소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일본어 번역

외국인 학부모: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번역

12) 1기 패널 1~8차년도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2021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장윤선 외, 2021: 59) 참조

2019년 2기 패널을 추가적으로 구축한 이후 매년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조사실사기간은 동일하였으나 2022년 1기 패널과 2기 패널 조사실사 기간은 상이하다. 1기 패널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기 패널은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도별 조사실사 기간 및 결과 공표 일정은 <표 III-15>와 같다. 2021년 1기 패널은 유지조사로 패널의 진로 현황만 간단하게 조사하여 별도의 조사 결과는 공표(기초분석보고서)하지 않을 예정이다.

표 III-15. 연도별 조사기간

연도	조사대상 기간	조사실사 기간	최초결과공표
2011	과거부터 현재	2011. 8 ~ 2011.11	2011. 12. 31
2012	201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2. 6 ~ 2012. 8	2012. 12. 31
2013	2012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3. 5 ~ 2013. 7	2013. 12. 31
2014	2013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4. 6 ~ 2014. 8	2014. 12. 31
2015	2014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5. 5 ~ 2015. 8	2015. 12. 31
2016	2015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6. 5 ~ 2016. 7	2016. 12. 31
2017	2016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7. 7 ~ 2017.10	2018. 12. 31
2018	2017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8. 7 ~ 2018.10	2019. 12. 31
2019	2018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1기 패널) 과거부터 현재(2기 패널)	2019. 6 ~ 2019.10	2020. 12. 31
2020	2019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0. 7 ~ 2020.11	2021. 12. 31
2021	2020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1. 6 ~ 2021.10	2022. 12. 31 (2기 패널 결과만 공표)
2022	202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1기: 2022. 4~2022. 7 2기: 2022. 6~2022. 10	2023. 12. 31(예정)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외(2021: 60) 표 III-12 발췌 및 수정

4) 조사원 관리 및 교육

패널 유지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원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하다. 패널 유지율을 위해 패널 구축 당시 조사에 참여 할 조사원 선발 기준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조사 경험이 많고, 가구 방문 조사 경험 및 가구 패널 조사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패널 추적 조사 시에는 동일한 조사원이 동일 가구에 조사를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원과 조사대상 가구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원이 바뀔 경우 기존 조사원 중 이관 가능한 조사원에

게 이관하도록 하고, 이관 가능한 조사원이 없을 경우 가구 패널 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에게 이관하며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투입하였다.

2021년에 조사에 참여한 1기 패널 조사원은 65명이며, 2020년과 동일 조사원 투입률은 100%이다. 조사원 1인당 담당 가구 수는 평균 15.8 가구이다. 2021년에 조사에 참여한 2기 패널 조사원은 79명이며, 2020년과 동일 조사원은 78명(98.7%)이다. 조사원 1인당 담당 가구 수는 25.1가구이다.

2022년은 1기 패널과 2기 패널 조사일정이 상이하여 각각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1기 패널은 코로나로 비대면 화상으로 교육하였으며, 2기 패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1기 패널은 4월 15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일에 조사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조사원을 대상으로 추가교육(22년 4월 21일)을 실시하였다.

표 III-16. 조사원 교육 일정(1기 패널)

지역	참석조사원 수		교육방법
	본교육(22.4.15(금))	추가교육(22.4.21(목))	
서울	13	3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부산	6	4	
대구	10	1	
대전	8	1	
광주	12	-	
강원/제주	4	2	

2기 패널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교육 일시 및 장소는 <표 III-17>과 같다. 한국갤럽 본사 및 지역별 실사 사무실에서 조사원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원 교육 당일 집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조사원들은 7월 1일에 비대면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패널 조사에 대한 개요와 패널 관리 조사표 설명 및 TAPI 교육 및 실습, 질의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조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조사 연혁 및 조사 목적 등)하고, 패널 관리는 패널 관리 방법이나 패널과 관련한 특이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조사표 설명은 조사 항목 설명 및 작성 지침을 설명하고, TAPI 교육 시간에 조사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가구원부와 조사표 작성 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표 III-17. 조사원 교육 일정(2기 패널)

지역	일시	장소	교육 참석 조사원 수	추가 교육 조사원 수
서울	2022.06.21.(화) 13:30	한국갤럽 본사	17	3
대구	2022.06.22.(수) 10:00	한국갤럽 대구지사	12	1
부산	2022.06.22.(수) 14:00	한국갤럽 부산지사	15	-
광주	2022.06.23.(목) 10:00	한국갤럽 광주지사	11	1
대전	2022.06.23.(목) 14:00	한국갤럽 대전지사	10	1
강원	2022.06.28.(화) 10:30	강원 리서치	4	1
제주	2022.06.24.(금) 14:00	제주회의실	1	-

5) 조사 실시

1기 패널과 2기 패널 모두 대면조사로 진행하였으며, 1기 패널의 경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2기 패널은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기 패널과 2기 패널 모두 대면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방역지침을 준수¹³⁾하며 조사를 실시하였다.

4. 패널관리

1) 패널관리 원칙 및 절차

(1) 패널관리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패널조사로 1기 패널의 경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2기 패널은 2019년 구축되어 2022년까지 4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 대상을 매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패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은 <표 III-18>과 같다. 1기 및 2기 패널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기 패널의 경우 고교 졸업 이후부터는 보호자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본인을 대상으로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다양한 진로로 TAPI 조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3) 조사 시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사항은 양계민, 장윤선 외(2021: p.62) 표 III-14 참조

표 III-18. 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관리 방법	내용
동일 조사원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과 조사원의 라포 형성을 위하여 가능한 매년 동일한 조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사원에게 여러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조사원 변경 시에 인수인계 프로그램 운영
전화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또는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연락 두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가구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화 조사로 기본 정보 업데이트 ■ 전화가 가능한 일시에 접촉,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수신율을 향상하고, 접촉 시간 구조화로 전화관리 조사 진행
연하장 및 명절선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감사인사를 담은 연하장 및 명절 선물 제공을 통해 당해 연도에도 조사 참여를 독려 ■ 각 가구에 담당 조사원의 이름,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
리플릿 제작 및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신뢰도와 조사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 목적, 주관기관 안내, 전년도 주요 조사결과 요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제작 ■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리플릿을 가구방문 조사시 제공
답례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조사 후, 조사 참여 유도과 성실한 응답을 위해 조사 참여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소정의 상품권 지급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홍보와 주요 사항 안내 목적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전용 홈페이지 운영 (http://maps.gallup.co.kr) ■ 홈페이지 리뉴얼(2020년) 진행 ■ 조사 배경과 목적, 조사 주관기관 및 실시기관, 조사결과 등 수록, 패널조사 당사자가 조사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접근이 쉽도록 구성
수신자 부담 전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사 관련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080-336-2580) 운영
연락처 및 접촉 경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참여 청소년 및 어머니 외 가구 구성원의 연락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접촉 경로 확보 ■ 휴대전화 메신저(예: 카카오톡)의 사용 빈도가 높아져 관련 정보 수집으로 원활한 접촉 경로 마련
이사가구 추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파악된 이사시기를 고려하여 추가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이사에 따른 패널 이탈을 방지
가구정보 변동시 자발적 통보기구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구성원이 사전에 가구정보 변동사항을 알릴 경우, 인센티브 제공과 해당 사항을 포함한 리플릿을 각 가구에 안내함.
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1기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군입대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패널은 온라인 조사에 참여 가능하도록 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

관리 방법	내용
청소년 연락처 수집 및 거주지 파악 (1기 패널)	■ 1기 패널은 양육자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연락처 및 거주지 파악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외(2021: 65-66) 발췌 및 수정

(2) 개인정보 관리

본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 강화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근거로 조사 진행, 수집된 정보, 자료 공표 등과 관련하여 철저히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 가구 방문 조사 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조사에 사용된 태블릿 PC는 암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구방문 조사 후 관련 자료는 회수하여 파쇄하고, 전체 가구 원부 명단은 암호화하여 일부 연구진 외 다른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 홈페이지와 보안 관리 실사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에 승인된 USB 외에 다른 저장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클라우드 역시 승인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사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실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대장을 만들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 공표는 개인에게 무작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전체나 집단의 평균만 공표를 하고 있다. 조사용 일련번호와 마이크로 데이터용 일련번호는 다르게 부여하고, 데이터 공개 시 몇 가지 정보의 조합으로 개인이 특정되거나 식별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는 리코딩(예를 들어 16/17개 시·도가 아닌 5개 권역으로 리코딩) 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3) 연구자 연구윤리교육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로, 연구진들이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 생명윤리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최근 3년간의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은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최근 3년간)

번호	과정명	수료날짜	운영기관	비고
1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2020.03.05. 2020.03.06.	질병관리본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2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종사자 교육	2020.03.05.	질병관리본부	공동연구원
3	IRB 지역교육 1차	2020.10.15.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공동연구원
4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2021.03.30. 2021.04.07. 2021.04.09. 2021.04.15.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5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2022.03.08. 2022.03.18. 2022.03.25.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외(2021: 68) 표 IV-2 수정 및 보완

(4) 조사원 모니터링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패널연구로 패널 유지와 관련하여 조사원과 패널의 신뢰관계 형성 및 조사원의 자질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조사에 참여한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원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차년도 조사 진행 시 보완할 점을 파악하였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직접 방문하였는지, 방문 전 연락을 하였는지, 조사 후 상품권을 수령하였는지, 조사원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조사원과의 관계와 조사원에 대한 만족도, 기타 건의사항 등을 물어보았다.

2021년에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1기 패널의 경우 패널 유지를 위한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원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1년에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2기 패널의 어머니 399명(본조사 참여가구 20.1%)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한 가구 100.0%가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였으며, 100.0%가 방문 전 조사원이 사전에 연락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99.5%가 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하였으며, 2가구(0.5%)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조사원 확인 결과 상품권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에 참여하는 동안 조사원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으며, 94.7%는 조사원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5.3%는 조사원과의 관계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92.7%는 조사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7.3%는 보통이라고 하였다. 그 외 건의 사항으로 언제까지 조사해야 하는지와 상품권 사용 지역의 제한으로 불편한 점 등을 이야기 하였다.

2) 이탈패널 분석

(1)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가 완료되었다. 11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별 패널 탈락률은 <표 III-20>과 같다 2021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패널 유지율은 62.4%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의 패널 탈락률(8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의 구축 가구 수(15가구)가 타 지역보다 적어 패널 탈락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남지역의 패널 탈락률은 17.5%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전북(22.2%), 강원(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1기 패널, 전체)

시·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179	82	13.4	45.8	54.2
부산	74	24	3.9	32.4	67.6
대구	42	23	3.8	54.8	45.2
인천	67	31	5.1	46.3	53.7
광주	42	20	3.3	47.6	52.4
대전	24	12	2.0	50.0	50.0
울산	31	15	2.5	48.4	51.6
경기	383	184	30.1	48.0	52.0
강원	90	21	3.4	23.3	76.7
충북	74	26	4.3	35.1	64.9
충남	117	38	6.2	32.5	67.5
전북	108	24	3.9	22.2	77.8
전남	160	28	4.6	17.5	82.5
경북	101	39	6.4	38.6	61.4

시·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경남	118	32	5.2	27.1	72.9
제주	15	12	2.0	80.0	20.0
합계	1,625	611	100.0	37.6	62.4

2021년에 탈락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의 청소년 진로별로 이탈 현황은 <표 III-21>과 같다. 전체 이탈 가구 수 대비 이탈률은 대학생(56.0%)이 가장 높으며, 진로 유형별 패널 이탈률은 직장인(1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무직(10.8%)과 유사하였다.

표 III-2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소년 진로별 패널 이탈 현황(1기 패널, 2021년)

청소년 진로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청소년 직업별 가구수 대비
대학생	750	47	56.0	6.3
직장인	173	19	22.6	11.0
무직	166	18	21.4	10.8
구분 불가	6	-	-	-
합계	1,095	84	100.0	7.7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간 가장 많은 이탈사유는 '연락이 안 됨'이 31.1%로 가장 많으며, 유학이나 이민 등(13.6%), 강력 거절(9.7%) 등의 사유로 패널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1기 패널, 전체)

구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불응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되거나 피함	190	31.1
			강력 거절	59	9.7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바쁘다며 거절	33	5.4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24	3.9
			귀찮고 싫다며 거절	23	3.8
			아빠가 반대함	22	3.6

구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	17	2.8			
			관리조사 시 이미 거절 의사 밝혔으며 거절	9	1.5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연락 피함	8	1.3			
			도움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7	1.1			
			의무아니면 하기 싫음	4	0.7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거절	4	0.7			
			개인적인 일 말하는 것 싫음	3	0.5			
			약속 피하여 방문하여 설득했으나 강력거절	3	0.5			
			다문화관련 조사 참여하기 싫음	2	0.3			
			찾아오는 것 싫다며 거절	2	0.3			
			아이들이 시설에 가 있음	1	0.2			
			어머니가 거절하여 아버님께 협조했으나 바쁘고 집안 사정 있다며 거절	1	0.2			
			(2020년 이전)학생이 하기 싫어함	37	6.1			
			군입대	21	3.4			
			개인사정으로 거절	18	2.9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11	1.8			
			학생의 사정으로 진행 불가(가족사, 체육부, 소년원 시설 등)	7	1.1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어머니 가출, 아버지 거절	4	0.7
						재수해서 바쁨	3	0.5
						가족 간병으로 바쁨	2	0.3
						남편 사망 후 거절	2	0.3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자녀 이사. 조사 참여 거절	2	0.3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학생 가출	1	0.2
						어머니 가출 후 타가구원 거절	1	0.2
						어머니 가출, 가구원 거절	1	0.2
						학생이 친엄마에게 감, 친엄마가 조사 거절	1	0.2
						불능	해외 체류	해외 체류
			해외 취업으로 인해 진행 불가	1	0.2			
기타	기타	기타	4	0.7				
-	-	-	-	611	100.0			

2021년 조사에서 이탈한 84가구의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한 경우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강력 거절(23.8%), 군입대(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1기 패널, 2021년)

구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불응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함	49	58.3
불응	해외 체류	해외 체류	유학, 이민 등	4	4.8
불응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20	23.8
			개인 사정으로 거절	1	1.2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군입대	10	11.9
-	-	-	-	84	100.0

(2) 2기 패널

2019년에 구축된 2기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24>와 같다. 2019년 구축한 가구와 2020년에 추가 구축한 가구를 포함하여 이탈 가구 수를 살펴보았다. 전체 이탈 가구 수 대비 이탈 가구가 많은 지역은 서울(20.4%)과 경기도(20.1%)이다. 그러나 두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구축된 가구 수가 많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이탈 가구 수도 많았다. 시·도별 가구 수 대비 이탈률을 살펴보면 제주(36.1%)가 가장 높고, 경남(5.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는 구축된 가구 수(36 가구)가 적어 1~2 가구의 탈락으로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III-2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2기 패널, 전체)

시·도	전체				
	구축 패널 가구 수	이탈 가구 수	이탈률(%)		유지율 (%)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273	55	20.4	20.1	79.9
부산	98	10	3.7	10.2	89.8
대구	93	15	5.6	16.1	83.9
인천	121	15	5.6	12.4	87.6
광주	65	9	3.3	13.8	86.2
대전	54	4	1.5	7.4	92.6
울산	53	5	1.9	9.4	90.6
세종	27	3	1.1	11.1	88.9

시·도	전체				
	구축 패널 가구 수	이탈 가구 수	이탈률(%)		유지율 (%)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경기	510	54	20.1	10.6	89.4
강원	65	4	1.5	6.2	93.8
충북	96	10	3.7	10.4	89.6
충남	151	16	5.9	10.6	89.4
전북	107	16	5.9	15.0	85.0
전남	185	12	4.5	6.5	93.5
경북	142	19	7.1	13.4	86.6
경남	173	9	3.3	5.2	94.8
제주	36	13	4.8	36.1	63.9
합계	2,249	269	100.0	12.0	88.0

- 1) 원표본은 학생임(즉, 학생이 탈락한 가구는 탈락으로 간주하나, 어머니가 거절하고 학생만 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가구는 유지로 간주)
- 2) 시·도는 1차년도 조사 기준임(이사로 인해 시·도가 변경된 경우가 있음)

2기 패널 유형별 이탈 현황은 <표 III-25>와 같다. 전체 패널 유지율은 88.0%이며, 패널 유지율은 국제결혼가정이 89.2%로 가장 높으며, 외국인 가정 유지율이 8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2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2기 패널, 전체)

가구유형	구축 패널 가구 수	이탈 가구 수	유지율(%)
국제결혼가정	1,719	185	89.2
중도입국가정	175	20	88.6
외국인가정	355	64	82.0
전체	2,249	269	88.0

- 1) 원표본은 학생임(즉, 학생이 탈락한 가구는 탈락으로 간주하나, 어머니가 거절하고 학생만 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가구는 유지로 간주)
- 2) 가구유형은 1차년도 조사 기준임(재혼 등으로 인해 가구유형 변경된 경우가 있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2기 패널 이탈 사유는 <표 III-26>과 같다. 패널 이탈사유로 연락이 안 되는 사유(25.6%)가 가장 많으며, 강력거절(18.9%), 바빠서 거절(11.9%), 코로나로 인한 조사 거절(1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I-2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2기 패널, 전체)

		이탈 사유		전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 수	%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69	25.6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거절	51	18.9	
		바쁘다며 거절	32	11.9	
		코로나로 인해 조사 거절	29	10.8	
		아버지가 거절	14	5.2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조사 거절	7	2.6	
		약속 계속 미루다가 거절	6	2.2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부재	5	1.8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거절	3	1.1	
		조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거절	2	0.7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거절	1	0.4	
		기분 좋은 조사는 아니므로 거절	1	0.4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음	1	0.4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바빠서 거절	1	0.4	
		매년 조사하고 싶지 않음	1	0.4	
		부모님 이혼, 아버지 거절	1	0.4	
		스트레스 받으므로 거절	1	0.4	
		어머니 비수신, 아버지는 바빠서 거절	1	0.4	
		이사로 인해 조사참여가 어려움	1	0.4	
	전화 비수신이며 방문 시 거절	1	0.4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이혼 후 조사 참여 거절	4	1.5	
		학생이 하기 싫어함	4	1.5	
		가정 사정으로 거절	3	1.1	
		어머니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3	1.1	
		어머니 사망, 학생 거절	2	0.7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2	0.7	
		부모님 별거, 아버지 거절	1	0.4	
		부모님 병간호로 바쁨	1	0.4	
		부모님 이혼, 아버지 거절	1	0.4	
아버지 사망, 외부 사람 만나기 싫음		1	0.4		
어머니 가출, 연락두절	1	0.4			
어머니 재혼, 학생은 아버지와 살고 있음	1	0.4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14	5.2	
기타	기타	기타	3	1.1	
-	-	-	269	100.0	



제 2 부



심층분석

○———— 제4장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및 정책현황

-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 4. 후기청소년기 발달관련 정책의 주요 이슈
- 5. 후기청소년기 지원정책 현황
- 6.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과 한계
- 7. 소결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다문화청소년’은 체류자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지닌 만 9세에서 24세 연령에 속하는 자(양계민, 강경균, 2017: 21)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은 본인의 출생지(국내출생 또는 국외출생)와 부모의 배경(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따라 세분되며, [그림 IV-1]과 같다.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국내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출처: 양계민 외(2020: 278) 그림 IX-1

그림 IV-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본 연구에서 정의된 다문화청소년은 ① 국내 출생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② 국내 출생으로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③ 국외 출생하여 국내로 이주한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인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④ 국외 출생하여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과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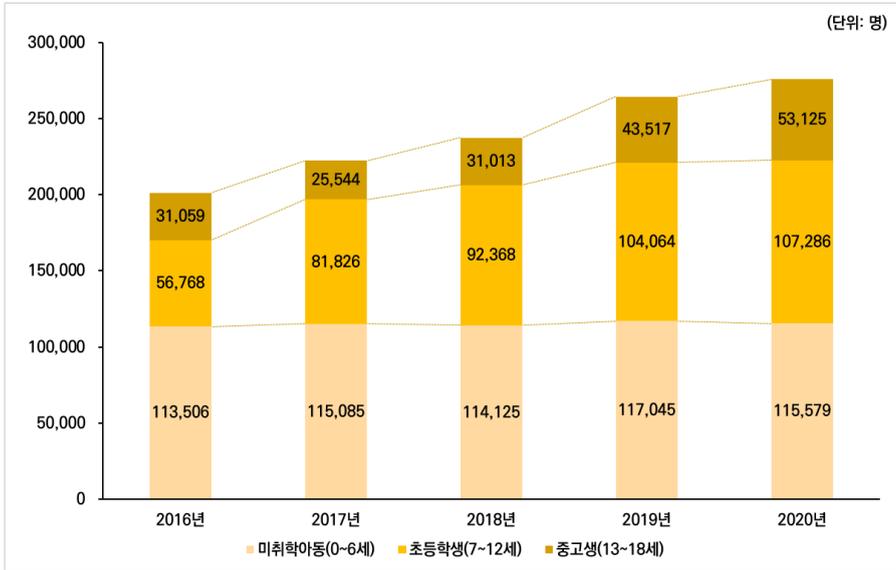
14) 4장은 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단, 4장의 1, 2절은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장윤선 외, 2021: 129-130)」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함.

결혼가정의 자녀인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로 구분한다.

개념적으로 앞서 상술한 네 가지 유형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청소년에 포함되지만, 본 패널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의 다문화학생 현황 통계를 기초로 모집단을 설정하여 구축되었다. 본 연구의 1기와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은 패널 설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하지만, 앞서 전술된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정의에서 보듯 이들이 학교에 재학 중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패널이 구축된 시점 이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재학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으로 선정하여 패널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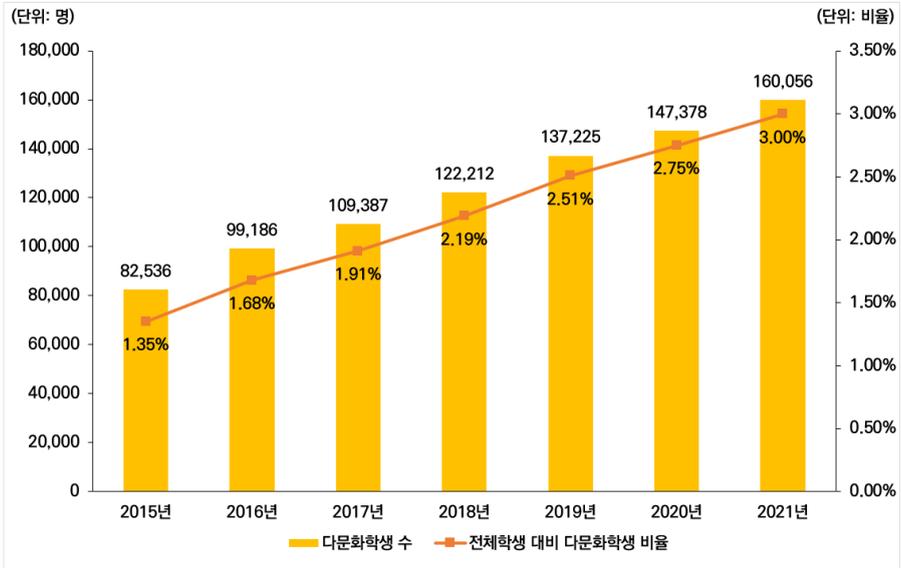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나타난 외국인주민자녀현황과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나타난 외국인주민자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총 275,99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 중 미취학 아동이 115,579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 연령이 107,286명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중고생 연령이 53,125명으로 전체 비율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IV-2]를 보면, 2016년 당시 미취학 아동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것에서 초등학생 연령의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고생 연령층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외국인주민 자녀는 만 18세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연령인 19세에서 24세의 후기 청소년기 연령의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출처: 행정안전부(2017~2021)

그림 IV-2.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6~2020년)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그림 IV-3]과 같이 최근 2021년 다문화학생 통계에서는 전체 다문화학생의 수가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당시 전체 학생의 1.35%인 것에 비하면 6년 만에 100% 이상 증가한 결과로, 객관적인 수치뿐 아니라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가정의 저출산 경향성을 고려해보면,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교육부의 통계 역시 연령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연령인 대략 만 18세 이하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통계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현황통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등 전체 다문화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출처: 교육부(2020, 2022)

그림 IV-3.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2019~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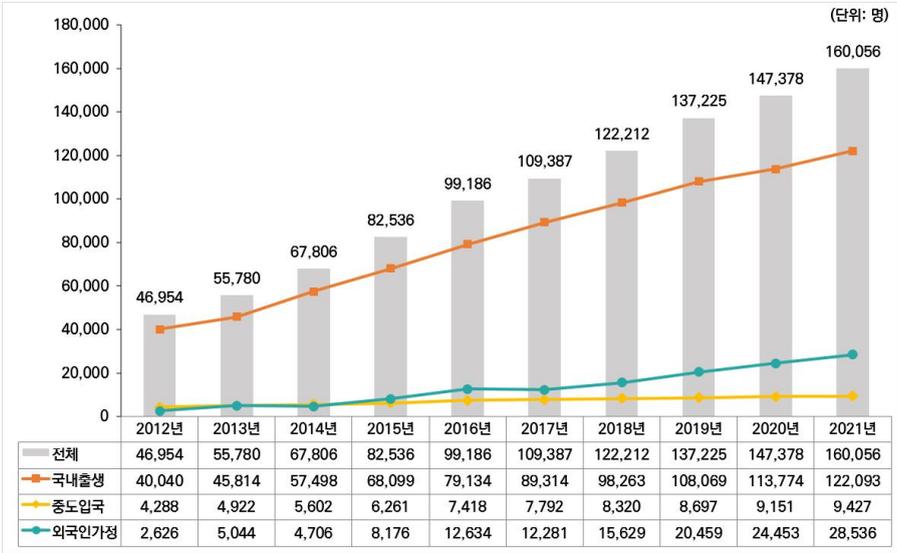
이들의 학교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IV-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초기에 비하여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에서 제시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서 미취학아동으로 집계된 대상자들이 학교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 통계에 포함되면 향후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출처: 교육부(2020, 2022)

그림 IV-4.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21년)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에 나타난 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IV-5]와 같이 전체적으로 국내출생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뒤로 외국인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 순이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초기에는 중도입국자녀가 외국인가정자녀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외국인가정자녀의 수가 중도입국자녀의 수를 넘어시기 시작하였고, 가장 최근의 2021년 자료에서는 외국인가정자녀의 수가 28,536명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의 지형이 초기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초기에는 국내출생자가 대다수였고,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가정자녀는 매우 낮은 비율이었으나, 점차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가정자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가정자녀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교육부(2020, 2022)

그림 IV-5.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2021년)

최근 3년간 다문화학생의 학교급별 하위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가정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고등학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증가폭이 적지 않은 추세로 보인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초등연령시기에 입국을 한 경우가 아닌, 어느 정도 성장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의 고교 졸업 이후 후기청소년기의 진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로써는 그 비율이 20% 미만이나 [그림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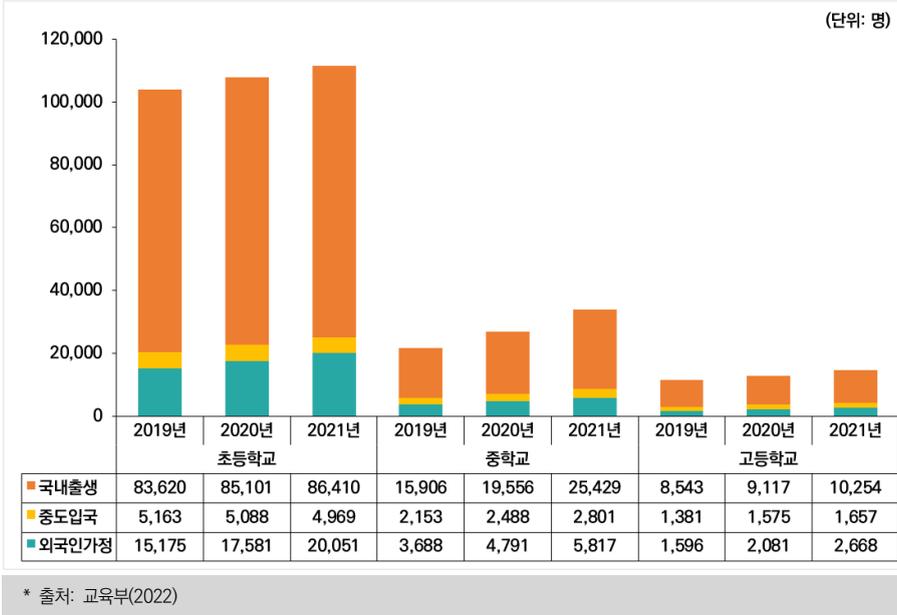


그림 IV-6. 학교급별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19~2021년)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이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지니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을 제외한 집단’으로 정의한다(양계민, 강경균, 2017: 21). 이 중 ‘후기청소년기의 다문화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령에 속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집단을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이라고 구분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과 취업률에서 이주배경집단과 원주민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의 경우는 이주민이라는 요인보다는 부모의 배경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가구의 소득,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과 같은 가정 및 사회 배경변인(Sweet et al., 2010)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국가 출신의 부모의 지지(Rae, 2018:

양계민 외, 2020 재인용)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불리함과 어려움 역시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교육수준, 성별, 정보의 부족, 차별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국가구종단조사(the United Kingdom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UKHLS) 분석결과로, 영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이 니트(NEET)로 분류될 확률은 교육수준, 출신국가, 성별, 그리고 가정 경제수준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효과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양계민 외, 2020: 41).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논의의 방향과 일관되게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등교육진학과 노동시장진출의 문제는 각 청소년의 배경적 특성과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등장과 성장에 따라 정책들이 같이 추진이 되었는데, 그 결과 아직까지는 학령기 정책을 중심으로 과제들이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정책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제들이 대부분이고, 최근 중학교 이상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진로 등의 과제들이 개발되고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연령적으로 보았을 때 후기청소년기 연령대에 속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수가 상당한 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이 당면하게 되는 현실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 후기청소년기의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이미 추진된 바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후기청소년기의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부족의 문제를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다. 즉, 한국어 부족으로 한국사회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김강남, 2019; 배상률, 2016; 서덕희, 김은석, 조은혜, 임경환, 2015; 이춘양, 박미숙, 2017), 한국어 능력이 이들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강남, 2019; 배상률, 2016; 서덕희 외, 2015).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배상률, 2016),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되고(김강남, 2019), 이러한 공교육 단절의 특성이 개인의 진로계획과 진로 성향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배상률, 2016; 서덕희 외, 2016). 한 예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집단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인식한 집단보다 기초직업능력¹⁵⁾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덕희 외, 2015). 한국어가 부족할 경우는 일을 하면서도

15) 의사소통능력, 계획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관리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활용능력, 조직적응능력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서덕희 외, 2015), 한국어 문제는 중도입국청소년 적응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와 함께 논의되는 두 번째 요인은 진로관련 이슈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보통 이상이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진로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어머니와 긍정적 관계, 교사의 지지가 진로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2016). 그 외에도 또래와 대안학교 등 선생님과의 관계(최보람, 유진이, 2016)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진로에 필요한 정보를 선생님으로부터 받기에(최보람, 유진이, 2016)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보람과 유진이(2016)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중요한 요인임을 산출하였다. 한편 서덕희 등(2015)은 진로 선택 및 진로와 관련한 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성향을 '자기주도 현재형', '타인주도 현재형', '자기주도 미래형', '타인주도 미래형'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장기적 비전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국어 실력이 좋았으며, 자기주도 미래형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인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덕희 외, 2015).

세 번째로는 중도입국 후기청소년의 대학진학이나 노동시장 진출 등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최보람과 유진이(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 일부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대학에 진학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한국체류를 위한 방법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도 하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최보람, 유진이, 2016). 김강남(2019)의 연구에서도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인하여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 진학 후 학습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과 대학 진학이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취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네 번째는 체류자격의 문제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배상률, 2016; 이춘양, 박미숙, 2017), 체류의 안정성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최보람, 유진이,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일을 하더라도 비자 문제로 경제활동에 한계가 있어서 불법근로를 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김강남, 2019; 이춘양, 박미숙, 2017) 체류의 문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한국어 능력 및 직업관련 한국어나 기술을 배우기 원하게 되며(서덕희 외, 2015), 한국 체류를 위한 다양한 진로 정보(이춘양, 박미숙, 2017)와 실제 진로를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2016).

지금까지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국외에서 출생하여 한국어가 부족하고 한국교육 경험이 부족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주로 한국어, 진로, 진학 및 노동시장진출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들 중 다수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집단의 적응과 발달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 김진희 등(2020)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국내출생자와 중도입국자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이들의 실태와 교육적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적 관점의 교육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둔 연구로, 대상자는 국내출생자와 중도입국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각 집단별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국내출생자들의 어려움은 다문화 집단으로 구분되고 차별화되는 문제와 약한 네트워크가 주된 어려움으로 분석된 반면,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여유 등에 대한 요구도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저임금노동과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 전체 다문화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취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만 15세에서 24세에 속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제활동현황을 보았을 때에도 취업상태에 있는 집단이 전체의 18.6%, 청소년 일반고용률 27.1%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8a) 다문화청소년들의 노동시장에서 취약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고등교육기관 진학과 노동시장 진입 등의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문화청소년 중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의 후기청소년기 진로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4. 후기청소년기 발달과 관련 정책의 주요 이슈

본 절에서는 후기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후기청소년기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군복무 등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후기청소년기 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견지하고자 한다. 만 19세~34세 청년 대상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에서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비전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5대 정책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하여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주역으로써 청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청년정책은 19~24세의 후기청소년기를 포함하는 정책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을 토대로 후기청소년기 정책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청년정책의 5대 정책 분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사회진출, 심리사회 적응, 주거와 금융으로 구분하여 후기청소년기 정책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진로 및 사회진출

후기청소년은 진로와 직업, 사회진출 등 청소년기 동안 진로 탐색의 과정을 거쳐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한다. 이는 학교 교육이나 진로 활동 등의 경험으로 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직업을 선택한 후 사회 진출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후기청소년기에 속하는 20대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함양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준비하고, 직업을 획득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대비하였다(박경호 외, 2021). 이러한 후기청소년의 사회진출은 학교 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여 노동시장으로 첫 진입하거나 직업을 탐색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으로 이어진다(UNICEF, 2019).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의 부진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 기술이 요구되고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20대 청년, 즉 후기청소년의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진입 유예가 초래되고 있다(오유진, 김교성, 2019). 이러한 노동시장의 진입 유예는 이들의 사회진출이 지연됨을 의미하고, 나아가 후기청소년

년의 진로, 학업, 결혼 등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후기청소년의 일자리의 감소, 신규채용 시장의 위축 등 진로와 사회진출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원하고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역량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후기청소년기는 이전의 아동기와 이후의 성인기를 이어주는 시기로써, 직업을 갖기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일이나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기초가 되기에 진로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박가열, 2009). 후기청소년기는 흥미뿐만 아니라 능력, 가치 등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진로를 선택한 후 진로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직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육 받으며 직업 획득의 진로 발달 과정을 이룬다(Ginzberg, Ginsburg, Axelrad & Herma, 1951). 즉, 이 시기의 진로 발달은 진로와 직업을 선정하여 목표를 세우고 직업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며 노동시장으로 진출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사회진출의 첫 단계로 주거 독립, 결혼이 아닌 직업을 갖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다(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이처럼 후기청소년은 진로 및 직업을 갖는 것이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여긴다. 따라서 진로발달은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미발달 할 경우 성인이 된 이후 구직을 하거나 직업 생활을 이어가는데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활동, 결혼, 양육 등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기청소년기에 필요한 진로발달이 해당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김양분 외, 2013).

이에 개인의 진로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진로교육 체계 구축이 요구되면서 진로교육법(2015.6.22.)이 제정되고,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진로교육이 마련되었다(교육부, 2016).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진로교육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진로선택을 중점으로 하여 후기청소년이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취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이해, 진로탐색, 취·창업, 해외취업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이지은, 정윤경, 나현미, 임해경, 2019). 대학에서는 변화하는 취업 환경에 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을 이루고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이지연, 2001). 이에 정부는 대학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후기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LINC+), 대학특성화사업(CK),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등의 사업으로 대학을 지원하며, 현장 맞춤형 진로 역량 강화, 지역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의 운영과 현장실습을 장려하여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재로써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발하고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정운경, 나현미, 이지은, 임해경, 2017).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청년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된 진로지도 컨설팅, 실무능력 배양, 직업적성·가치관 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종합적인 청년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2; 김정희, 정일환, 정진철, 주동범, 이현민, 2016).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은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후기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대학의 취업프로그램이 전공일치취업(이소정, 남정민, 20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정현경, 정윤희, 이해선, 윤창국, 2018), 진로준비행동(김정은, 오영교, 2022), 취업성과(염도기, 문상규, 박성수, 2017)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소정과 남정민(2021)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중 대학취업지원프로그램이 취업에 있어 전공과 일치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특강, 취업컨설팅, 인턴십, 취업박람회 등 취업프로그램을 경험하였으며, 입사지원서 작성 요령, 면접특강 등이 취업 성공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다(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특히 인턴십 프로그램은 진로 발달뿐만 아니라 취업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미리 직무를 경험 할 수 있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김지영, 2014; 염동기 외, 2017).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적성 검사의 직업심리검사,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 다양성과 만족도에 따라 4개의 군집 유형을 분석한 정현경 외(2018)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은 유형일수록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소극적인 참여와 낮은 만족도를 보인 유형보다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였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학과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기업·채용 정보 제공, 진로·직업 멘토링 등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험 여부에 따라 3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는데, 기업 및 채용정보제공 및 취업준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은 직업훈련, 면접훈련과 취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취업준비 행동에 더 높은 참여를 보였다(김정은, 오영교, 2022).

이와 더불어 취업박람회, 직장체험은 정규직과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으며, 진로교육이 후기청소년에게 양질의 직업을 획득시키고 임금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이행의 효과를 나타냈다(박천수, 2018).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4~7% 취업확률이 높아져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빈, 최충, 2017). 하지만, 취업지원프로그램이 학생의 취업에 모두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며, 기업의 채용설명회, 취업행사 등은 직업을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영민, 정승철, 남기성, 2019).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후기청소년들은 기업의 채용설명회와 같은 취업행사보다는 취업박람회, 인턴, 직업훈련 등은 직업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활동이 진로 발달에 기여하고 직업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즉,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직업선택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임을 이해할 수 있다.

2) 심리사회 적응

후기청소년은 심리사회적 변화로 인해 내·외부적 혼란을 겪게 된다. 앞서 진로 및 사회진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후기청소년은 직업을 갖고 사회진출의 이행기간이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Arnett, 2001). 또한, 코로나19의 불가항력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람 간 직접교류가 제한되고 사회적 만남이 축소되면서 관계의 단절에 직면하게 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이는 심리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후기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후기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우울, 불안, 외로움, 취업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심리 적응의 문제를 나타냈다(류경하, 김종남, 2019; 윤우석, 2019; 이유영, 양은주, 2015; 진보래, 2022). 이지민과 강영배(2020)에 따르면 후기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지만 취업난으로 인한 불안감 및 자신감 부족 등의 이유로 독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대 후기청소년의 실업 체감률은 상당하며 이로 인한 취업스트레스는 이들에게 우울감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심리적 결핍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윤우석, 2019). 20대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 간 우울감과 신체화를 비교한 이훈구와 김인경, 박윤창(2000)은 미취업집단은 취업에 대한 압박이 우울감과 신체화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은 직무에 적응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스트레스로 이어져 경력이 높은 직장인에 비해 높은 불안 수준을 나타냈다(류경하, 김종남, 2019).

취업 이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을 하지 않은 후기청소년의 경우 낮은 자존감과 함께 사회적 위축을 보였다(김지경, 이광호, 2013). 후기청소년기 대학생의 주관적 경제인식과 소셜미디어 이용 정도가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진보래(202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주관적인 경제적 인식이 높을수록, 소셜미디어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낮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높였지만, 개인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후기청소년의 소속감을 증가시켜 외로움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후기청소년기 대학생은 부모-자녀, 가족 간 관계가 건강할수록 자율성이 확보되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사회적응, 자기수용 등 삶에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정, 2020).

한편, 생애전반기 동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취업실패 등 부정적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발생한다(Caspi, Harrington, Moffitt, Milne & Poulton, 2006).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며 청년, 즉 후기청소년기에는 장기 실업, 경제환경, 친구관계 등이 사회적 고립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특히 실업의 장기화는 새로운 관계의 상실로 이어지면서 고립감과 더불어 좌절감을 높이게 되며(김재희, 박은규, 2016), 남성에 비해 여성의 외로움과 고독이 증가하고(김춘남 외, 2018), 자살생각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아짐에 따라 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중된다(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파악한 유민상과 신동훈(20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선택한 청년들은 고립을 자각하지 못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거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불안한 심리상태가 지속된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와의 단절을 스스로 선택한 후기청소년은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우울, 외로움, 삶에 대한 회의, 좌절감 등을 보이며 심리사회 부적응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앞서 상술한 내용과 같이 후기청소년은 진로 및 취업의 사회진출의 문제, 스스로 선택한 사회적 고립으로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외로움, 불안 등의 정신적 건강의 심리사회 부적응 초래하기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주거와 금융

1인 가구시대의 증가와 취업난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의 어려움은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과거에는 취업 및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책 지원이 주거와 금융 등 다차원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에 제시되었는데, 청년의 수요를 적용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학업 및 구직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된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등 주거마련과 금융지원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취업 이외에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는 후기청소년의 주거와 금융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가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짧고, 주거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의 부담하는 비율이 약 74.8%로 일반가구보다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국토교통부, 2021). 이는 부모세대보다 자립기반 형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후기청소년들이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10평 미만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전·월세로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지현, 2020; 한지희, 정소이, 김홍주, 2016). 박미선과 강미나, 임상연(2017)은 1인 청년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 부모의 의존도가 높았고, 주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비용의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대학생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주변의 거주지의 월세 비용은 높았는데, 이들의 주거 규모는 작고 열악하였으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의 곰팡이, 습기 등 주택관리의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연구를 수행한 정세정 외(2020)의 연구에서도 1인 가구 청년의 독립기간, 채광, 방음, 습기와 곰팡이, 환기, 재난안전성, 위생 등 주거환경 상태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상태를 보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후기청소년은 주거비용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은 학기 중 등록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시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이들이 졸업 후 대출금 상환의 문제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김수성, 최경진, 2016). 이는 후기청소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의 이행이 지연될수록 증가하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상환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용유의자가 될 수 있다(조인식, 2019).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이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작용하여 저임금이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할

수 있다(이용호, 이원익, 2020). 이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후기청소년기 대학생은 채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강지영, 윤정윤, 최현자, 손상희, 2018).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상환과 늘어가는 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이자 상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인식(2019)은 지적하였다. 이에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 후 이들은 생활비, 채무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임유진, 2021).

따라서 앞서 상술된 주거와 학자금 대출의 금융의 문제는 후기청소년기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후기청소년의 주거와 금융 지원 방안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후기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1) 진로 및 취업지원

후기청소년 대상의 진로 및 취업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에서 다루고 있으며, <표 IV-1>과 같다. 그 중 고용노동부는 후기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의 사업을 다른 유관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일환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후기청소년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이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중 가구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이 필요하지만, 청년의 경우 취업 경험을 고려하지 않으며, II형에서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때 특정계층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등으로 직업훈련 및 일 경험의 취업지원서비스와 훈련 중 생계부담완화를 위해 취업활동수당을 6개월 범위에서 지급받는다(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 고용노동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양질의 구직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구직자에게는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후기청소년의 구직자들은 기업 현장 체험을 통해 직무를 이해하고,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취업전략을 수립한다(고용노동부, 2022). 후기청소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얻게 될 경우,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와 경력 지원을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 간 3자 적립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은 후기청소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나 채용 장려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후기청소년은 능력중심채용제도(NCS기반 채용)를 대비한 구직 역량 강화프로그램 참여, 고교졸업 예정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탐색 및 자기탐색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첫 직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적응하게 된다(고용노동부, 2022). 대학에 진학한 후기청소년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진로·취업·상담을 받고, 취업 박람회, 취업컨설팅, 진로지도 등의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온라인 청년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비교하고 검색가능하며, 공부와 그룹스터디, 공연 등 이용이 가능한 전국의 청년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온라인 청년센터, 2022).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초·중기 청소년을 대상의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을 위한 진로와 취업지원 사업이 매우 적다. ‘조기취업계약학과’는 4년제 대학이나 2·3년제 대학에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을 단축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 학생은 학비 지원과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고, 기업은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 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종합포털, 2022). 또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 후기청소년의 사회 안착을 도모하는 지원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후기청소년의 유망 예술가 지원을 위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차세대예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후기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의 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후기청소년의 빈곤 대책과 관련성이 있으며, 실업 부조적 성격을 지닌다(이덕재, 2021). 이에 양질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후기청소년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1. 부처별 후기청소년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현황

부처	사업명	대상	내용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 (청년 18~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 지급 • I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60%이하(청년특례:120%,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취업 경험(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 II형: I유형에 해당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중소기업 인력 유도 - 1유형: 기업탐방, 인사담당자, 취업전략 수립 - 2유형: 직무역량 향상에 초점(모의면접, 멘토링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15~34세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장기근속 유도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통한 자산형성(만기금 1,200만원(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만 15~34세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 채용, 6개월간 인건비(최대 180만원 및 간접 노무비 1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만 15~34세 취업으로 청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 최장 1년간 지원 ※ 취업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만 15~34세 정규직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 시 -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1년간 지원
	(청취력)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18~34세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중심채용제도(NCS기반채용) 대비 구직역량 강화, 워크숍 형태 운영
	Hi(고졸자취업지원)프로그램	만 15~34세 고졸 취업준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졸업 예정 및 졸업생의 자기탐색, 일자리를 탐색, 구직기술 수준 제고, 참여식 집단상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 및 졸업생(2년 이내), 지역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진로와 취업 서비스 - 전문상담, 진로설정, 역량개발, 취업 연결
	온라인 청년센터	만 15~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정보, 공간정보,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 - 일자리, 금융, 주거 등 중앙·지자체 정보 - 전국 청년공간(고용센터, 지자체, 민간) 정보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등학교 3학년 (2023년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취업한 학생을 위한 장려금 - 1인당 총 500만원(일시금) 1회 지급
	조기취업계약학과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기업이 계약, 현장실무 갖춘 인력양성 - 1학년: 필요경비 정부지원(학기당 최대 400만원 이내), 2~3학년: 산업체 50%이상 부담
문화 체육 관광부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만 15~39세 미취업자(학부재학생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소재 개발, 조사연구 과정 및 작품제작 발표 - 강의, 멘토링, 워크숍, 합평회 등, 연구비(200만원 내외), 창작지원금(800~3,000만원)

* 출처: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yUnif/youngPlyUnifList.do>에서 2022.10.12. 인출

2) 교육 및 훈련

후기청소년 대상의 교육·훈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서 다루고 있으며, <표 IV-2>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후기청소년의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일학습병행, 청년취업아카데미, 해외 취업아카데미, K-MOVE스쿨,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등 진로와 취업을 연계한 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의 전공에 맞는 현장맞춤형 실무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거나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게는 이공계열 전공의 융합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직업능력개발정보망, 2022).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후기 청소년은 구직과 재직의 여부와 상관없이 빅데이터, 코딩 등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까지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고용노동부, 2022). 이와 더불어 후기청소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K-Move스쿨’과 해외취업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력서 작성법, 영문 인터뷰 등을 지원과 더불어 해외 일자리 발굴과 어학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2).

교육부에서는 후기청소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후기청소년만을 위한 온라인 공개강좌이기 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무료로 학습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공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일부 대학이나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도 한다(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2022). 반면에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은 미취업 대학생, 즉 재학생은 대학에서 한 학기동안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탐색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한 후 활동에 관한 점검을 통해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다(교육부, 2021.1.27.).

여성가족부에서는 ‘2022년 내일 이름학교’사업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 학부모, 가출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해 이들이 사회진출과 자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립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여성가족부, 2022.6.10.).

앞서 상술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가부의 교육·훈련 지원 사업은 정부부처 기관의 특징에 따라 후기청소년의 지원 사업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교육·훈련 사업은 사회 초년생인 후기청소년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후기청소년의 첫 일자리 획득을 위한 교육·훈련은 양적 다양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2. 부처별 후기청소년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현황

부처	사업명	대상	내용
고용 노동부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만 18~31세 구직자 및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 제공 - 훈련비용 및 인프라지원금원(공동훈련센터)
	일학습병행	제한없음 입사 후 1년 이내 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학습)근로자 채용, 맞춤형 훈련제공 및 종료 후 역량 평가하여 자격, 학력 등 인정
	청년취업아카데미	0~34세 대학(원)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제공, 취업 또는 창직, 창업활동 연계 - 융합인재, 현장맞춤 양성과정, 창직과정
	해외취업아카데미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이력서 작성법, 영문 인터뷰, 모의면접 등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만 19~5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진입·적응을 위한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지원
	K-Move스쿨	만 34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직무교육을 통해 해외취업 연계 - 교육비 등 포함 1인당 최대 1,350만원(연수기관 지급)
교육부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	미취업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학기동안 자유롭게 진로탐색 활동 설계, 학점 인정(10개교)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공개 우수강좌 900개 이상 개발·제공 - 이수결과에 따라 학점 인정 가능
여성 가족부	2022년 내일이룸학교	만 15세~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 학부모, 가출청소년 등) 맞춤형 직업훈련 - 훈련생 자립장려금, 취업처 연계 등

* 출처: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에서 2022.10.12. 인출

3) 주거 및 금융

후기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하거나 대학 진학의 진로를 설정하게 되는데, 주거와 금융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등의 정부부처에서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 기숙사 및 주택 제공 등의 주거와 금융지원 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표 IV-3>과 같다.

교육부에서는 ‘국가근로장학금’,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II)’, ‘행복 기숙사’ 등의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 대학 진학자에게는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으로 대학 재학생에게 근로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과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은 학업활동, 봉사활동, 근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역량을 함양할수록 있도록 하며, 금융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22). 또한, 대학 기숙사의 부족은 이들에게 주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행복기숙사’ 사업은 대학 인근 주거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들의 거주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하지만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은 공적 자금의 재원으로 건립된 기숙사이기에 매우 적은 수가 운영되어 일부 대학생만 수혜를 받고 있으며, ‘행복기숙사(사립)’ 사업도 22학년도 기준 32개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소수의 대학생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행복주택’의 사업을 통해 후기청소년이 포함된 청년 중심의 주거·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청년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마이홈, 2022).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형 ISA운영’과 ‘햇살론 유스’의 사업을 통해 청년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 유스’는 신용이력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서비스로 금융접근성을 완화하여 생활비, 학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금융위원회, 2022).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으로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통해 학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22).

앞서 상술했 것과 같이 이들 부처는 청년, 즉 후기청소년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업이나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주거와 금융에서 취약한 후기청소년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년 누구나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3. 부처별 후기청소년 주거 및 금융지원 사업 현황

부처	사업명	대상	내용
교육부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봉사유형 - 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 취업연계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리장학금 II)	2년 이상 고졸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후 학습자(선취업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
	행복기숙사(사립)	만 19~99세 대학 입학 또는 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주거부담 및 주거비 경감, 월24만원 - 32개교 행복기숙사(사립) 운영 중
	행복기숙사(연합)	만 19~99세 대학 입학 또는 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공된 부지 상에 공적자금(국비, 공공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립된 기숙사, 월 24만원 내외 ※ 청년주택의 경우 취업준비생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3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의 취학, 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내
	청년매입임대주택	만 19~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택 매입하여 임대 - 무주택 미혼 청년(소득, 자산 기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 19~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집 마련 지원, 우대금리와 비교세 혜택 - 우대금리: 최대 3.3%, 비교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행복주택	만 19~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사업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 실시
금융위원회	청년형 ISA 운영	만 15~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증식 지원, ISA 계좌, 금융상품별 손익 통산하여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
	햇살론 유스	만 18~34세 신용이력 부족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리대출 서비스 정책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최대 1,200만원 (1년 600만원 한도)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만 0~55세 학부생 및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 등록금: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대출 - 생활비: 생활비 대출한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만 0~40세 학부생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 등록금 대출: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대출 -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한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출처: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에서 2022.10.12. 인출

6.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과 한계

이 절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다룬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공교육 중심 학교 교육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에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진로활동, 심리·정서 지원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정책은 <표 IV-4>와 같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2012년에 설립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이다.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후기다문화청소년들이 수준별 한국어 수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의 기술교육, 맞춤형 진로 및 취업 교육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청소년이 받는 교육은 한국어와 기술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통해 점진적인 한국어 학습을 유도하고,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기술을 익힘으로써, 산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2022).

교육부의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는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로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이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는 관광콘텐츠과와 관광서비스과의 전공학과를 통해 관광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NCS 기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2022).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은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이 겪은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어 능력의 부족을 채우고, 나아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은 관광서비스 및 항공사무, 광고 콘텐츠 등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관광산업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 한국어 교육, 생활적용

및 사회문화체험 등 한국사회를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진로탐색과 진로 체험 등의 진로교육으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 ‘레인보우스쿨’은 일반형과 진로형으로 구분되며, 일반형은 한국어에 대한 기본 정보와 TOPIK, 검정고시 등 한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진로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심화단계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심리상담 및 부모상담, 부모교육, 통역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4.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부처	사업명	대상	내용
고용 노동부	한국폴리텍 다송고등학교	만 22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학력인정 대안학교(2012년 개교) - 학비 전액 무상지원 기숙형 사립학교 - Computer 기계, Plant 설비, Smart 전기학과 운영 - 취업과 진학 지원의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 - 수준별 한국어, 다중언어 능력 지원
교육부	서울다송관광고등 학교	중학교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 인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각종학교 - 한국어 및 국어수업 운영: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구사 능력 향상, 직업교육 - 관광콘텐츠과, 관광서비스과 학과 운영
여성 가족부	레인보우스쿨 운영	만 9~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형: 23개소 위탁 운영 - 한국어특화형과 진학준비형 - 한국어교육, 특화프로그램 등 정착지원
		만 16~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형: 4개소 위탁 운영 - 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사회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기초 마련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만 9~24세 부모, 기관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비대면, 온라인 등 활용한 심리상담 - 진로·진학 및 교육정보: 한국어, TOPIK 등 - 체류 및 국적취득: 외국인 등록, 귀화 등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마음돋보기, Job돋보기 •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상담통역지원사 지원	만 9~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있는 청소년 지원 - 심리상담 및 병의원 치료 통역 -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2022.8.2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에서 발췌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_b01_s0.do에서 2022.10.13. 인출
 한국폴리텍다송고등학교 <https://www.kopo.ac.kr/dasom/content.do?menu=2400>에서 2022.10.13. 인출

교육부의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은 초·중학교 중심의 한국어교육, 기초학력 및 학습 결손 지원, 진로지도, 학교생활 정서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교육부, 2022). 또한,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이주 여성 대상의 인권 보호, 주거안정 개선, 자립역량 강화, 취·창업 지원 등이 지원되며, 가족의 일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녀의 사회성 개발, 자녀와 부모 상담 지원,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 고취 등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b). 이처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지원 사업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이행하는 19세~24세 미만의 후기청소년을 중점으로 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된 상황에서 일부 교육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상술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을 토대로 이에 대한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에 관심과 지원은 학령기 자녀를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의 획득으로 노동시장 이행을 통해 독립된 삶을 준비하는 데 청년 정책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국내출생 다문화배경의 아동들은 초·중기 청소년기를 거치며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하게 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 본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도 청년 지원 정책의 하나의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의 특정계층으로 분류되어 생계부담의 완화 등 소득 지원을 통한 자립의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다(취업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 즉, 초·중·고등학교의 학령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진로개발 및 진로지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고 있으며 지원이 되더라도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령기 이후 성인기를 준비하는 20대 초반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교육기회, 취업, 주거안정, 사회참여 등 맞춤형 지원과 정책의 다양화를 통해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폴리텍 다습고등학교’와 ‘서울다습관광고등학교’는 다문화배경을 지닌 학생이 입학하여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이 두 기관은 고등학교 직업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산업 현장, 기업으로 취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직업교육은 기계 조립,

용접, 구조물 제작 설치, 전기 설비 등의 기계 산업이나 항공, 호텔, 여행사 등 관광 산업 중심의 학과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다. 윤형준(2019)에 따르면 다문화 2세대인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들은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과 더불어 서비스, 장치와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 등 노동의 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이 종사하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즉,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기계와 관광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의료, 로봇, 소프트웨어, 농생명 과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 폭을 확장시키고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은 진로 설정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역량을 갖추므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교육, 통역 서비스, 진로 체험 등 기초적인 교육이나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보인다.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중도입국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출생 및 성장한 집단의 주요 이슈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훈련이 고등학교 이후 단절된 점을 보완하여 평생교육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첫 일자리를 획득한 후 자신의 역량을 높여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소결

이 절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발달관련 정책의 주요이슈를 토대로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들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청소년의 주요 지원 정책은 진로 및 취업지원이 다수를 이뤘다. 이는 진로 및 사회진출이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도 하지만(박가열, 2009), 이들

의 주요 관심사로 점철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중심의 진로와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원 사업은 취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특히, 취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는 취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일정기간 납부를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의 확대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으로 보인다. 또한, 워크숍, 기업탐방, 취업전략 수립, 모의면접, 멘토링 등은 미취업자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후기청소년들에게 대학 연계학과, 취업장려금 지급, 예술 창작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정책은 진로와 취업의 정보부족을 해소하여 취업의 역량을 고취함으로써, 사회 저변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결국 후기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정책은 이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한국어 교육과 직업 교육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와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는 다문화배경을 지닌 후기청소년들이 입학하여 교육과정 내에서 직업 교육 및 진로, 취업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즉, 공교육의 학습권의 보장으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은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진로체험 및 진로 프로그램, 통역 서비스 등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이 조기에 한국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 사업을 진행한다. 즉, 대부분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은 10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타 부처와 다르게 여성가족부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한계점은 학령기 이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부재이다. 후기청소년은 정책의 우선 고려대상이 아니며,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19~24세의 다문화청소년은 대학 진학, 진로, 취업 등 동일한 연령대가 갖는 고민을 하고 있으며(전경숙, 임양미, 양정선, 이의정, 2010),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 대인관계망의 확충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윤형준, 2019). 이처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을 위한 정책이 학령기를 끝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제고되어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의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 기계, 관광 등 한정된 직업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직무역량을 높여 전문직업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직업을 획득하고 자신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훈련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5장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널자료 분석

- 1. 분석개요
- 2.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생활실태 분석
-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 4. 요약 및 소결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널자료 분석¹⁶⁾

1. 분석개요

5장은 본 연구의 심층분석 주제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생활실태 및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심층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는 다문화청소년의 고졸 이후 생활실태 및 적응현황을 파악을 위한 분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를 예측하는 주요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Elastic net 회귀모형을 적용한 벌점화회귀(penalized regression)분석이었다. 각 분석의 내용은 아래에 각각 제시하였다.

2.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생활실태 분석

1) 조사대상자

본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진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¹⁷⁾. 따라서 2020년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 특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표 V-1>과 같다. 조사 참여자 수는 총 1,091명으로 남성이 526명(48.2%), 여성이 565명(51.8%)이었으며 연령별로는 만 19세가 970명(88.9%)으로 대다수였고, 만 18세가 81명(7.4%)이었으며, 20세 이상도 40명(3.7%)이었다. 고등학교 이후 진로현황을 대학진학,

16) 5장의 2절은 엄진섭(충북대학교 외래강사)이 집필하였고, 3절은 장운선(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이 집필하였으며, 1절과 4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17) 2021년에는 유지조사만 이루어져서 분석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기타 집단¹⁸⁾으로 구분해본 결과, 전체의 65.7%인 717명은 대학에 진학하였고, 나머지 374명 중 107명(9.8%)은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77명(7.1%)은 임시근로자였고, 대학 비진학자이면서 교육도 취업도 하지 않은 기타 집단은 니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총 190명(17.4%)이었다.

표 V-1. 패널자료분석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배경특성		빈도(%)	배경특성		빈도(%)
성별	남성	526(48.2)	현재 상태	대학 진학자	717(65.7)
	여성	565(51.8)		상용근로자	107(9.8)
연령	18세	81(7.4)		임시근로자	77(7.1)
	19세	970(88.9)		기타	190(17.4)
	20세 이상	40(3.7)	전체	1,091(100.0)	

2) 분석영역

본 장의 실태 및 현황분석에서 살펴본 분석의 영역은 <표 V-2>와 같다. i) 배경변인, ii) 대학진학관련 경험, iii) 대학진학 준비, iv) 일 경험, v)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vi) 구직활동, vii)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 viii) 군복무관련 경험 등 총 8가지 영역의 변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V-2. 패널자료분석 내용

조사영역	분석내용
배경변인	혼인상태, 현재 거주형태, 가계 생활비 마련방법, 개인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개인 생활비 마련방법, 개인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대학진학관련 경험	2020학년도 대학진학여부, 대학 비진학의 주된 이유, 대학명, 전공계열, 학부 및 학과(전공)명, 입학 모집유형, 입학 전형방법, 입학 전형방법: 특별전형 자격, 대학 및 전공계열 선택의 주요 영향요인, 대학입학에 영향을 준 사람, 현재 학적상태, 등록금 마련방법,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대학생활(대학만족도,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진학 준비	2021학년도 대학진학 준비여부, 대학진학 준비의 주된 이유,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종류, 대학진학 준비방법,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정도

18) 대학 비진학자, 일주일 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조사영역	분석내용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일 개수, 최근 한달의 일 경험여부, 종사상지위, 일 종류, 특성화고 전공과 일의 관련성, 직장 소재지,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소득, 업무만족도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취·창업 준비여부, 취업 준비 활동, 취업정보 획득경로, 준비하는 취업직종, 준비하는 취업의 구체적 명칭, 창업 준비 활동, 창업정보 획득경로, 준비하는 창업업종, 준비하는 창업의 구체적 명칭, 교육훈련 경험여부, 교육훈련 명,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제공 기관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노동 의지, 현재 생활, (쉬는 경우)그냥 쉬는 가장 주된 이유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의 학력주의에 대한 태도, 직업의식
차별	차별경험 여부, 차별한 사람, 차별 후 대응방식 유형, 차별 후 대응방식: 도움요청 공공기관, 차별 후 대응방식: 도움요청 민간단체나 전문가, 차별 후 대응방식: 아무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 다문화청소년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이익 정도,
정책적 요구	다문화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필요성,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군복무	군복무 여부, 군입대 시기, 군입대 예정시기, 군생활 만족도, 전역 후 계획

3) 분석 결과¹⁹⁾

(1) 배경변인

배경변인으로 혼인상태, 혼인상태, 현재 거주형태, 가계 생활비 마련방법, 개인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① 혼인상태

우선 배경특성 중 첫 번째로 조사대상자 1,091명의 배경특성 중 혼인상태를 알아본 결과 '미혼'이 99.7%로 대부분이었고, '결혼'이 0.1%,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0.2%였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미혼의 상태였다.

표 V-3.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미혼	결혼	동거	합계
빈도(%)	1,088 (99.7)	1 (0.1)	2(0.2)	1,091(100.0)

19) 본 분석 결과 상대표준오차가 높은 항목은 일부 통합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상대표준오차가 높은 항목은 분석결과를 그대로 제시하되 상대표준오차를 부록에 제시함.

② 현재 거주형태

응답자의 현재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가 71.1%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비동거'가 26.5%였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인 '독립'이 2.4%였다.

표 V-4.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

	빈도	백분율
동거	776	71.1
비동거	289	26.5
독립	26	2.4
합계	1,0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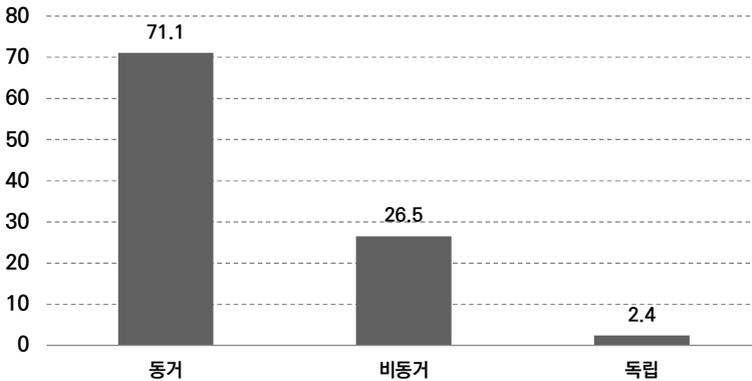


그림 V-1. 현재 부모님과 동거 여부(%)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가 진로유형별로 다른지 살펴보았는데, 대학에 진학한 집단과 임시근로자 및 기타 집단의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69.5%, 75.3%와 88.4%였으나, 상용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는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48.6%이고 비동거의 비율이 35.5%였으며 독립의 비율이 15.9%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5.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 진로유형별 빈도

	진학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타	전체
동거	498(69.5)	52(48.6)	58(75.3)	168(88.4)	776(71.1)
비동거	218(30.4)	38(35.5)	15(19.5)	18(9.5)	289(26.5)
독립	1(.1)	17(15.9)	4(5.2)	4(2.1)	26(2.4)
합계	717(100.0)	107(100.0)	77(100.0)	190(100.0)	1,091(100.0)

* 주: 1) $\chi^2=145.38, p < .001$

③ 가정의 생활비 마련방법

세 번째로 가정의 생활비를 누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전적으로 마련한다’가 78.4%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대부분 마련하고 본인이 일부 마련한다’는 응답이 12.6%였다. ‘본인과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반반씩 마련한다’는 응답이 2.6%,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일부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2.7%, ‘본인이 전적으로 마련한다’는 응답이 3.6%였다. 따라서 아직은 대부분 부모님에게 의존(78.4%)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이 일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전체의 2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본인이 대부분 마련한다거나 본인이 전적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으나 전체의 6.3%를 차지하였다.

표 V-6. 가정의 생활비 마련 주체

	빈도	백분율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전적 마련	855	78.4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대부분 마련하고, 본인이 일부 마련	138	12.6
본인과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반반 마련	28	2.6
본인이 대부분 마련, 일부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도움	29	2.7
본인이 전적 마련	39	3.6
기타	2	0.2
합계	1,091	100.0

④ 가정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가정의 생활비 중 본인이 일부 또는 전적으로 가정의 생활비, 즉, 가족구성원 전체를 위해 필요한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 생활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에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고,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와 ‘약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2.6%와 21.8%로 뒤를 이었으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15.0%, ‘매우 부담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1%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29.9%, 별로 느끼지 않는 비율이 37.6%, 중간이 32.5%로 각각 30%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가정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35	15.0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53	22.6
보통이다	76	32.5
약간 부담을 느낀다	51	21.8
매우 부담을 느낀다	19	8.1
합계	234	100.0

가정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가 조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집단(대학진학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타)에 따라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부터 ‘매우 부담을 느낀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결과, 가정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의 평균이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F=6.545, p<.001$). Tukey HSD 검증결과, ‘상용근로자’ 집단의 평균이 2.38 (SD=1.11)로 ‘임시근로자’ 집단의 평균 3.35(SD=1.32), ‘기타’ 집단의 평균 3.21 (SD=3.21)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상용근로자로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경우 가정 전체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응답으로 해석된다.

표 V-8. 집단별 가정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진학자	123	2.95 ^{ab}	1.12	6.545	<.001
상용근로자	66	2.38 ^b	1.11		
임시근로자	26	3.35 ^a	1.32		
기타	19	3.21 ^a	0.85		
합계	234	2.85	1.16		

* 주: 1) 동일한 첨자가 있는 집단들 간에는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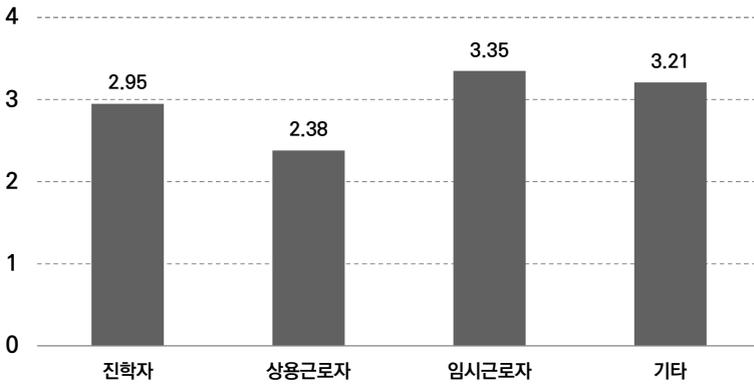


그림 V-2. 집단별 가정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⑤ 개인의 생활비 마련방법

가족 전체의 생활비와는 별개로 응답자 자신을 위한 생활비, 즉 자신을 위해 필요한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 생활에 드는 비용을 누가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전적으로 마련한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대부분 마련하고 본인이 일부 마련한다’는 응답이 16.2%, ‘본인과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반반씩 마련한다’는 응답이 3.7%,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일부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8.3%였다. 이와 달리 ‘본인이 전적으로 마련한다’의 응답은 8.2%였다. 따라서 고졸 직후의 시기에는 부모님이 대다수 생활비를 마련하고, 본인이 일부 마련하는 비율이 77.2%이며, 본인이 전적으로 마련하는 비율이 8.2%로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인 3.6%보다 높은 비율로,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의 생활비는 자신이 벌어서 충당하는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V-9. 자신의 생활비 마련 주체

	빈도	백분율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전적 마련	665	61.0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대부분 마련하고, 본인이 일부 마련	177	16.2
본인과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반반 마련	40	3.7
본인이 대부분 마련, 일부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도움	91	8.3
본인이 전적 마련	90	8.2
기타	2	0.2
무응답	26	2.4
합계	1,091	100.0

⑥ 자신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본인이 일부 또는 전적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에 생활비 마련의 부담 정도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와 ‘약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25.9%와 22.1%로 뒤를 이었으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13.6%,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6.0%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28.1%,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32.4%,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29.5%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V-10. 자신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빈도	백분율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54	13.6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03	25.9
보통이다	129	32.4
약간 부담을 느낀다	88	22.1
매우 부담을 느낀다	24	6.0
합계	398	100.0

자신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가 집단(대학진학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타)에 따라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부터 '매우 부담을 느낀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결과, 자신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의 평균이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F=3.780, p=.011$). Tukey HSD 검증결과, 상용근로자 집단의 평균이 2.46($SD=1.08$)으로 임시근로자 집단의 평균 3.02($SD=1.1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앞의 가족전체 생활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용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돈을 벌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의 부담을 타 집단에 비하여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1. 집단별 자신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진학자	233	2.89 ^{ab}	1.08	3.780	.011
상용근로자	79	2.46 ^b	1.08		
임시근로자	53	3.02 ^a	1.13		
기타	33	2.79 ^{ab}	1.17		
합계	398	2.81	1.11		

* 주: 1) 동일한 첨자가 있는 집단들 간에는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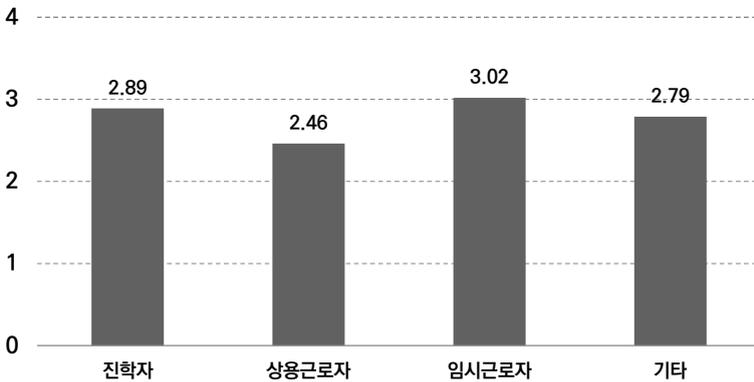


그림 V-3. 집단별 자신의 생활비 마련 부담 정도

(2) 대학진학 경험

두 번째로 대학진학과 관련된 경험요인들의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0학년도 대학 진학 여부

2020년도 대학진학자의 비율은 앞서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65.7%인 717명이었고, 나머지 34.3%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는 고졸 이후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대학 진학 여부

	빈도	백분율
예	717	65.7
아니오	374	34.3
합계	1,0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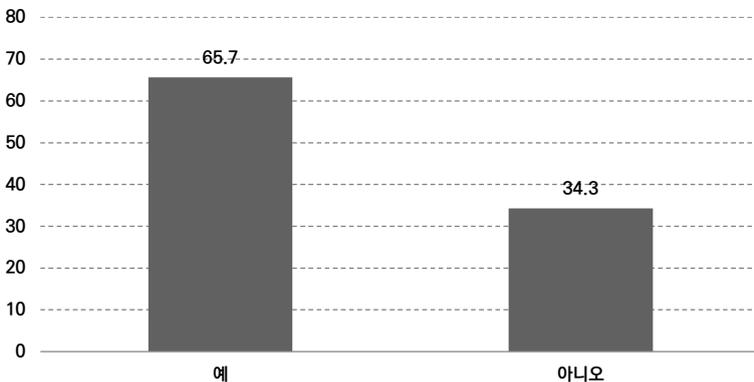


그림 V-4. 대학 진학 여부(%)

이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74명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1%, '합격한 대학이 만족스럽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5%, '합격한 대학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7.0%,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대학

진학에 반대하셔서'라는 응답이 0.5%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직업전문학교에 다님'과 '취업 준비 또는 취업을 원해서' 등이 있었다.

표 V-13.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빈도	백분율
합격한 대학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28	7.5
합격한 대학이 없어서	26	7.0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34	9.1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대학 진학에 반대 하셔서	2	0.5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18	58.3
기타	66	17.6
합계	3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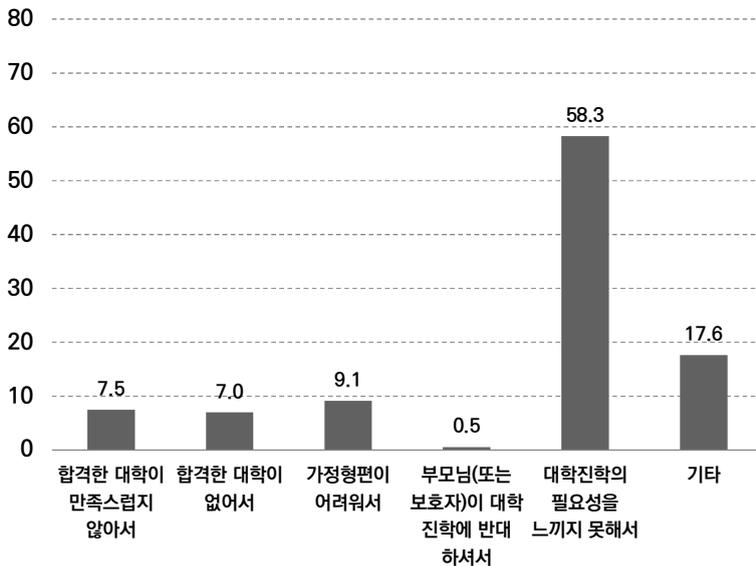


그림 V-5.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② 대학 전공 계열

대학에 진학한 717명을 대상으로 진학한 대학의 전공계열을 조사한 결과 ‘예술 및 인문학’ 분야가 18.6%로 가장 높았고, ‘보건 및 복지’ 분야 17.0%, ‘공학, 제조 및 건설’ 분야 13.9%, ‘정보통신기술’ 분야 12.7%, ‘서비스’ 분야 10.7% ‘경영, 행정 및 법학’ 분야 10.5% 순이었다.

표 V-14. 대학 전공계열

순위		빈도	백분율
1	예술 및 인문학(예술, 인문학, 어문학 포함)	133	18.6
2	보건 및 복지(의·약학 및 보육, 복지, 상담학 포함)	122	17.0
3	공학, 제조 및 건설(건축학 포함)	100	13.9
4	정보통신기술(컴퓨터 공학, 전산학 포함)	91	12.7
5	서비스(체육학 및 관광, 여가, 위생, 경비학 포함)	77	10.7
6	경영, 행정 및 법학	75	10.5
7	교육(교육학, 유아교육, 사범계열 포함)	35	4.9
8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32	4.5
9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21	2.9
10	농림어업 및 수의학	5	0.7
-	기타(자유전공 등)	26	3.6
	합계	717	100.0

③ 대학 입학 모집유형

대학 입학 모집유형으로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경우가 89.1%였으며,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경우가 10.9%로 대부분은 수시모집에 합격을 하였다. 이는 2020학년도 전국 수시모집비율인 77.3%(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5.1.)과 비교해볼 때 본 패널의 참여자들의 경우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비율이 전국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15. 대학 입학 모집유형

	빈도	백분율
수시모집	639	89.1
정시모집	78	10.9
합계	717	100.0

대학입학 전형방법으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경우가 77.3%였으며,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경우가 22.7%였다.

표 V-16. 대학 입학 전형방법

	빈도	백분율
일반전형	554	77.3
특별전형	163	22.7
합계	717	100.0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특별전형 지원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가 30.7%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졸업자’가 20.2%, ‘농어촌 학생’이 1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2.9% 순이었다. 따라서 특별전형 합격자 중에서는 다문화 가정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입학자 717명을 전체로 놓고 볼 때 다문화가정자녀 특별전형으로 지원한 비율을 보면 전체 대학지원자 중 7.0%에 불과하였다.

표 V-17. 특별전형 지원 자격

	빈도	백분율
다문화 가정자녀	50	30.7
특성화고 졸업자	33	20.2
농어촌 학생	29	1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1	12.9
특기자(대회입상, 어학성적 등)	11	6.7
다자녀 및 한부모가정자녀	5	3.1
성적우수자	4	2.5
기타	10	6.1
합계	163	100.0

④ 대학 및 전공계열/학과 선택의 주요 영향요인

대학진학자들을 대상으로 대학 선택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요인을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 순위 선택으로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 32.1%로 가장 많았

으며, '본인의 성적'이 25.9%, '취업전망'이 13.7%, '대학의 사회적 평판'이 10.2%로 뒤를 이었다. 2 순위 선택으로는 '본인의 성적'이 18.0%로 가장 높았고,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 17.0%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이 16.2%, '취업전망'이 15.3%로 뒤를 이었다. 1 순위와 2 순위를 합하였을 경우,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 49.1%로 가장 높았고, '본인의 성적'이 43.9%, '취업전망'이 29.0%,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이 23.2%였다.

표 V-18. 대학 선택 영향 준 요인

	1 순위 빈도(백분율)	2 순위 빈도(백분율)	합계 빈도(백분율)
본인의 적성과 희망	230(32.1)	122(17.0)	352(49.1)
본인의 성적	186(25.9)	129(18.0)	315(43.9)
취업전망	98(13.7)	111(15.3)	208(29.0)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	50(7.0)	116(16.2)	166(23.2)
대학의 사회적 평판	73(10.2)	40(5.6)	113(15.8)
지리적 여건(통학 편리성 등)	35(4.9)	61(8.5)	96(13.4)
장학금 혜택	19(2.6)	42(5.9)	61(8.5)
가정형편	12(1.7)	21(2.9)	33(4.6)
대학홍보	8(1.1)	19(2.7)	27(3.8)
기타	6(0.8)	8(1.1)	14(2.0)
합계	717(100.0)	668(93.2)	1,385(193.2)

이와 더불어 전공계열 및 학과 선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요인을 순서대로 최대 2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 순위 선택으로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 43.2%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성적' 18.3%, '취업전망' 17.0% 순이었다. 2 순위 선택으로는 '취업전망'과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이 모두 21.1%로 가장 높았고,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 16.7%, '본인의 성적'이 14.4%로 뒤를 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였을 경우,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 60.0%로 가장 높았고, '취업전망'이 38.1%, '본인의 적성' 32.6%, '원하는 직업과 관련성'이 30.3%, '전공의 사회적 평판' 13.5%의 순이었다.

표 V-19. 전공계열 및 학과 선택 영향 준 요인

	1 순위 빈도(백분율)	2 순위 빈도(백분율)	합계 빈도(백분율)
본인의 적성과 희망	310(43.2)	120(16.7)	430(60.0)
취업전망	122(17.0)	151(21.1)	273(38.1)
본인의 성적	131(18.3)	103(14.4)	234(32.6)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	66(9.2)	151(21.1)	217(30.3)
전공의 사회적 평판	45(6.3)	52(7.3)	97(13.5)
지리적 여건(통학 편리성 등)	7(1.0)	22(3.1)	29(4.0)
가정형편	10(1.4)	18(2.5)	28(3.9)
장학금 혜택	10(1.4)	17(2.4)	27(3.8)
전공계열 및 학과 홍보	7(1.0)	15(2.1)	22(3.1)
기타	9(1.3)	3(0.4)	12(1.7)
합계	717(100.0)	652(90.9)	1,369(190.9)

따라서 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때의 주요 기준은 본인의 적성과 희망, 성적, 그리고 취업전망 등인 것으로 보인다.

⑤ 대학입학에 영향을 준 사람

다음으로 대학진학자들의 대학입시 전형 준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을 순서대로 최대 두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 순위로 ‘본인’이 53.0%로 가장 높았고, ‘학교선생님’이 29.8%로 뒤를 이었다. 2 순위로는 ‘학교선생님’이 29.3%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19.4%, ‘부모님’이 15.8%, ‘친구’가 12.4%로 뒤를 이었다. 1 순위와 2 순위를 합하였을 경우, ‘본인’이 7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59.1%, ‘부모님’이 22.6%, ‘친구’가 14.8%였다.

표 V-20. 대학입시 전형 준비에 영향을 준 사람

	1 순위 빈도(백분율)	2 순위 빈도(백분율)	합계 빈도(백분율)
본인	380(53.0)	139(19.4)	519(72.4)
부모님	49(6.8)	113(15.8)	162(22.6)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14(2.0)	18(2.5)	32(4.5)
학교선생님	214(29.8)	210(29.3)	424(59.1)
학원선생님	34(4.7)	34(4.7)	68(9.5)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3(0.4)	1(0.1)	4(0.6)
친구	17(2.4)	89(12.4)	106(14.8)
기타	6(0.8)	6(0.8)	12(1.7)
합계	717(100.0)	610(85.1)	1,327(185.1)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 1 순위로는 ‘학교선생님’이 42.1%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38.9%였다. 2 순위로는 ‘본인’이 25.4%, ‘학교선생님’이 25.2%, ‘친구’가 15.1%, ‘부모님’이 11.4% 등이었다. 1 순위와 2 순위를 합하였을 경우, ‘학교선생님’과 ‘본인’이 각각 67.4%와 64.3%로 많았고, ‘친구’ 18.3%, ‘부모님’ 17.3%, ‘학원선생님’ 11.0% 등이었다.

표 V-21.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

	1 순위 빈도(백분율)	2 순위 빈도(백분율)	합계 빈도(백분율)
본인	279(38.9)	182(25.4)	461(64.3)
부모님	42(5.9)	82(11.4)	124(17.3)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11(1.5)	21(2.9)	32(4.5)
학교선생님	302(42.1)	181(25.2)	483(67.4)
학원선생님	47(6.6)	32(4.5)	79(11.0)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2(0.3)	3(0.4)	5(0.7)
친구	23(3.2)	108(15.1)	131(18.3)
기타	11(1.5)	8(1.1)	19(2.6)
합계	717(100.0)	617(86.1)	1,334(186.1)

대학 진학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1 순위로는 '본인'이 66.0%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과 '학교선생님'이 각각 14.6%와 14.1%였다. 2 순위로는 '부모님'이 29.3%로 가장 높았고, '학교선생님'이 23.7%, '본인'이 15.8% 순이었다. 1 순위와 2 순위를 합한 경우, '본인'이 81.7%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이 43.9%, '학교선생님'이 37.8%였다.

표 V-22. 대학 진학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1순위 빈도(백분율)	2순위 빈도(백분율)	합계 빈도(백분율)
본인	473(66.0)	113(15.8)	586(81.7)
부모님	105(14.6)	210(29.3)	315(43.9)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6(0.8)	25(3.5)	31(4.3)
학교선생님	101(14.1)	170(23.7)	271(37.8)
학원선생님	15(2.1)	24(3.3)	39(5.4)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1(0.1)	2(0.3)	3(0.4)
친구	10(1.4)	52(7.3)	62(8.6)
기타	6(0.8)	6(0.8)	12(1.7)
합계	717(100.0)	602(84.0)	1,319(184.0)

입학한 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1 순위로는 '본인'이 66.4%로 가장 높았고, '학교선생님'이 15.2%, '부모님'이 12.6% 등이었다. 2 순위로는 '부모님'이 27.5%로 가장 높았고, '학교선생님'이 23.4%, '본인'이 17.0% 순이었다. 1 순위와 2 순위를 합한 경우, '본인'이 83.4%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이 40.2%, '학교선생님'이 38.6%이었다.

표 V-23. 입학한 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1순위 빈도(백분율)	2순위 빈도(백분율)	합계 빈도(백분율)
본인	476(66.4)	122(17.0)	598(83.4)
부모님	90(12.6)	198(27.5)	288(40.2)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9(1.3)	21(2.9)	30(4.2)
학교선생님	109(15.2)	168(23.4)	277(38.6)
학원선생님	17(2.4)	20(2.8)	37(5.2)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0(0.0)	2(0.3)	2(0.3)
친구	9(1.3)	58(8.1)	67(9.3)
기타	7(1.0)	4(0.6)	11(1.5)
합계	717(100.0)	593(82.7)	1,310(182.7)

전공계열 및 학부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1순위로는 '본인'이 75.7%로 가장 높았고, '학교선생님'이 11.7%로 뒤를 이었다. 2 순위로는 '부모님'과 '학교선생님'이 각각 24.8%와 23.2%로 많았고, '본인'이 13.9%였다. 1 순위와 2 순위를 합한 경우, '본인'이 89.7%로 가장 높았고, '학교선생님'과 '부모님'이 각각 34.9%와 32.8%였다.

표 V-24. 전공계열 및 학부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1순위 빈도(백분율)	2순위 빈도(백분율)	합계 빈도(백분율)
본인	543(75.7)	100(13.9)	643(89.7)
부모님	58(8.1)	178(24.8)	236(32.8)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6(0.8)	18(2.5)	24(3.3)
학교선생님	84(11.7)	166(23.2)	250(34.9)
학원선생님	11(1.5)	30(4.2)	41(5.7)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1(0.1)	2(0.3)	3(0.4)
친구	6(0.8)	61(8.5)	67(9.3)
기타	8(1.1)	1(0.1)	9(1.3)
합계	717(100.0)	556(77.5)	1,273(177.5)

따라서 대학입학과 관련된 정보 및 대학입학 선택에서 가장 크게 의지한 사람은 본인 자신이었으나, 대학입시관련 정보는 학교선생님이 가장 많이 정보를 주었고, 대학입시전형 준비에 영향을 준 사람도 본인을 제외하고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학한 대학이나 전공 선택의 경우는 본인의 선택이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입관련 정보나 준비는 교사의 도움을 받지만 최종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현재 학적상태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학적상태는 '재학'이 96.9%였으며, '휴학'이 2.2%, '자퇴(퇴학 포함)'가 0.9%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휴학이나 자퇴의 비율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현재 대학 학적상태

	빈도	백분율
재학	695	96.9
휴학	16	2.2
자퇴(퇴학 포함)	6	0.9
합계	717	100.0

⑦ 등록금 마련 방법

다문화학생들의 등록금과 관련하여 지난 학기(2020년 1학기) 등록금 마련 방법으로 주된 방법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 순위로는 '부모의 도움'이 62.2%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장학금'이 32.4%였다. 2 순위로는 '장학금'이 26.6%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도움'이 11.0%였다. 1 순위와 2 순위를 합한 경우, '부모의 도움'이 73.2%, '장학금'이 59.0%였다. 따라서 대부분은 부모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였고, 장학금을 받은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지난 학기(2020년 1학기) 등록금 마련 방법

	1순위 빈도(백분율)	2순위 빈도(백분율)	합계 빈도(백분율)
부모의 도움	446(62.2)	79(11.0)	525(73.2)
자매의 도움	0(0.0)	3(0.4)	3(0.4)
조부모 또는 친척의 도움	10(1.4)	13(1.8)	23(3.2)
본인이 직접 마련함	10(1.4)	21(2.9)	31(4.3)
장학금(코로나19로 인해 장학금 형태로 반환된 등록금 제외)	232(32.4)	191(26.6)	423(59.0)
본인이나 부모님이 학자금 또는 개인대출을 통해 마련	17(2.4)	22(3.1)	39(5.4)
기타	2(0.3)	1(0.1)	3(0.4)
합계	717(100.0)	330(46.0)	1,047(146.0)

⑧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다음으로 등록금 마련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약간 부담을 느낀다'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26.0%,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가 16.7%, '매우 부담을 느낀다'가 12.8%,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가 12.4% 순이었다.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부터 '매우 부담을 느낀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한 후 평균을 산출한 결과,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의 평균은 3.16(SD=1.21)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표 V-27.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89	12.4	3.16(1.21)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20	16.7	
보통이다	186	26.0	
약간 부담을 느낀다	230	32.1	
매우 부담을 느낀다	92	12.8	
합계	7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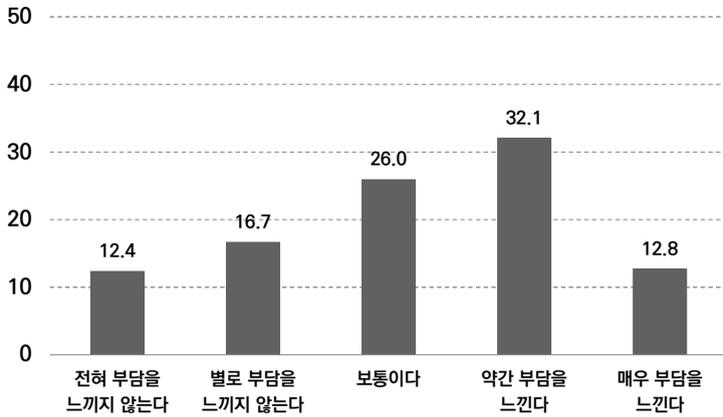


그림 V-6.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

⑨ 대학생생활만족도 및 적응

다음으로 지난학기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대학만족도 4문항, 학업적응 4문항, 사회적응 4문항 등 총 12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만족도의 경우는 평균 3.58(SD=0.71)로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의 대학만족도를 보였고, 학업적응의 경우도 평균 3.61(SD=0.72)로 역시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의 학업적응을 보였으며, 마지막 사회적응요인은 평균 3.15(SD=0.79)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사귀고 동아리활동 등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사회적응 측면에서는 대학만족도나 학업적응의 요인에 비하여 적응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인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면대면 수업이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과 활동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28. 대학만족도 및 적응

	평균	표준편차
대학만족도	3.58	0.71
학업적응	3.61	0.72
사회적응	3.15	0.79

(3) 대학진학 준비

다음으로 2021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는데, 대학에 진학을 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대입준비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① 2021학년도 대학입시 준비

우선 첫 번째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21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8.1%,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1.9%였다.

표 V-29. 2021학년도 대학입시 준비 여부

	빈도	백분율
예	88	8.1
아니오	1,003	91.9
합계	1,0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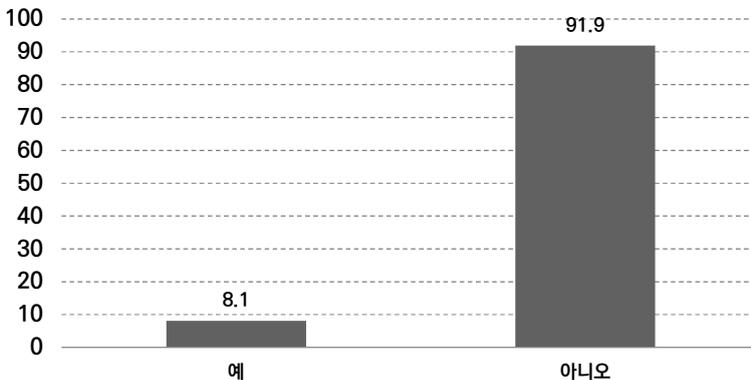


그림 V-7. 2021학년도 대학입시 준비 여부(%)

2021년도의 대입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88명 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대학에 진학한 상태에 있는 22명도 포함되어 있었고, 기타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이 48명(54.5%)으로 역시 가장 많았으며 임시근로자가 11명(12.5%), 상용근로자가 7명(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0. 2021학년도 대학입시자의 현재 상태

	빈도	백분율
대학 진학자	22	25.0
상용근로자	7	8.0
임시근로자	11	12.5
기타	48	54.5
합계	88	100.0

② 2021학년도 대학입시 준비 이유

위에서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88명에게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입학 또는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지 않아서’가 37.5%, ‘전문성을 향상하여 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가 38.6%로 비슷하게 높았으며, ‘대학에 합격하지 않아서’는 17.1%였다. 이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도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입시준비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도 입학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대학 또는 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위해 대학입시를 다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V-31. 2021학년도 대학입시 준비 이유

	빈도	백분율
입학 또는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지 않아서	33	37.5
대학에 합격하지 않아서	15	17.1
전문성을 향상하여 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34	38.6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3	3.4
기타	3	3.4
합계	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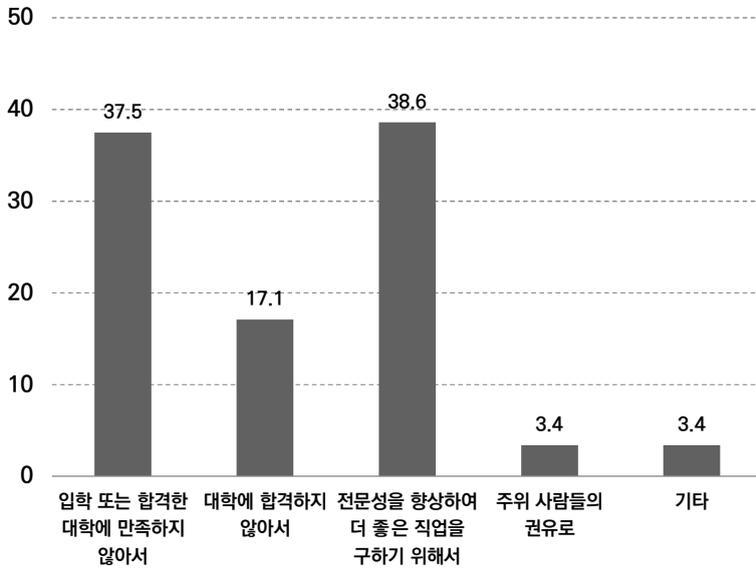


그림 V-8. 2021학년도 대학진학 준비 이유(%)

③ 2021학년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종류

2021학년도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종류로는 '4~6년제 일반대학'이 71.6%로 가장 높았고, 2~3년제 전문대학이 21.6%였다. 그 외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가겠다는 응답자도 소수 있었고, 해외소재의 외국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도 역시 소수 존재하고 있었다.

표 V-32. 2021학년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종류

	빈도	백분율
4~6년제 일반대학	63	71.6
2~3년제 전문대학	19	21.6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이버전문대학 등)	2	2.3
해외 소재 외국대학	4	4.5
합계	88	100.0

④ 대학진학 준비 활동

그렇다면 대학진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래의 <표 V-33>에 나오는 활동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온라인 강의(EBS 포함)를 수강함'이 64.8%로 가장 높았고, '학원에서 개별과목을 수강함'이 19.3%, '과외, 학원 및 온라인 강의수강 없이 공부함'이 14.8%, '개인 또는 그룹으로 과외지도를 받음'이 13.6%, '대입종합학원 및 기숙학원에 다님'이 10.2%였다. 보통 대입진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대입을 위한 전문학원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응답자들 중 학원을 다닌다는 비율은 크게 높지 않고, 물론 중복응답이기는 하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입준비생들과 대입 준비의 양상이 다르거나 본격적으로 대입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33. 대학진학 준비 활동

	빈도	백분율
대입종합학원 및 기숙학원에 다님	9	10.2
학원에서 개별과목을 수강함	17	19.3
개인 또는 그룹으로 과외지도를 받음	12	13.6
온라인 강의(EBS 포함)를 수강함	57	64.8
과외, 학원 및 온라인 강의수강 없이 공부함	13	14.8
기타	12	13.6

⑤ 대학진학 준비 시 사교육 비용 부담 정도

또한 대학진학 준비를 위하여 발생하는 사교육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8.8%,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22.7%였으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과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은 16.7%였다.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부터 '매우 부담을 느낀다'까지 1점에서 5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을 산출한 결과, 3.50(SD=1.2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 보다는 부담을 느끼는 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V-34. 대학진학 준비 시 사교육 비용 부담 정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7	10.6	3.50(1.22)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4	6.1	
보통이다	19	28.8	
약간 부담을 느낀다	21	31.8	
매우 부담을 느낀다	15	22.7	
합계	66	100.0	

* 대학진학 준비 시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교육 비용 부담 정도'에 응답하지 않음.

(4) 일 경험

다음으로는 일 경험 실태를 제시하였다.

① 지난 1주간 일 경험 여부

지난 1주 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2%였으며,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8%로,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비율이 하지 않은 비율보다 15.6%p 높았다.

표 V-35. 지난 1주일 간 수입 목적 일 여부

	빈도	백분율
예	460	42.2
아니오	631	57.8
합계	1,0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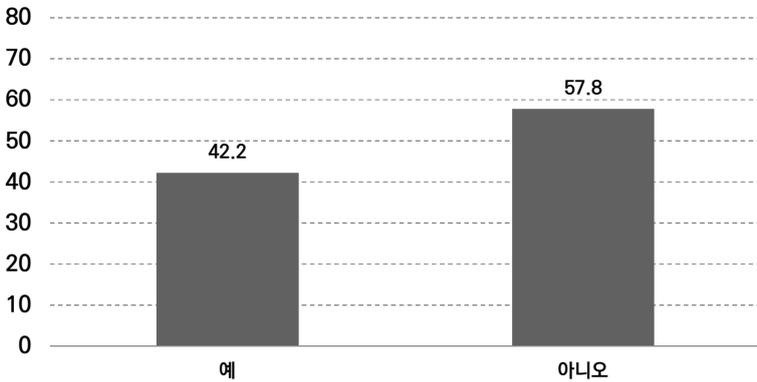


그림 V-9. 지난 1주일 간 수입 목적 일 여부(%)

② 일의 개수

지난 1주 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 460명을 대상으로 일의 개수를 질문한 결과, ‘1 개’라는 응답이 전체 92.2%였으며, ‘2 개’라는 응답이 7.8%로 대부분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6. 일의 개수

	빈도	백분율
1개	424	92.2
2개	36	7.8
합계	460	100.0

③ 최근 한 달 이내 일을 했는지 여부

‘지난 1주 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631명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최근 한 달 내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예’라는 응답이 11.1%, ‘아니오’라는 응답이 88.9%로, ‘최근 한 달 이내’에 일을 한 비율은 ‘최근 1주일 이내’에 일을 한 비율보다도 더 응답비율이 더 낮았다.

표 V-37. 최근 한 달 내 수입 목적 일 여부

	빈도	백분율
예	70	11.1
아니오	561	88.9
합계	631	100.0

④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주 간 돈을 벌기 위하여 주로 어떤 상태로 일을 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이 때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는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임시근로자’가 55.0%로 가장 많았는데,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상용근로자’로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5%였는데, 상용근로자는 흔히 말하는 정규직으로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세 번째는 ‘일용근로자’로 18.3%였는데,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규직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합하면 전체의 73.3%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38. 종사상 지위

	빈도	백분율
상용근로자	108	23.5
임시근로자	253	55.0
일용근로자	84	18.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	1.5
무급가족종사자	8	1.7
합계	4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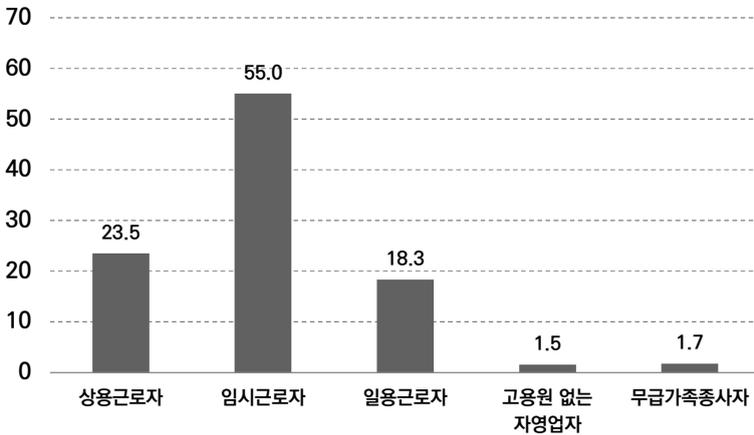


그림 V-10. 종사상 지위

⑤ 일과 특성화고 전공과의 관련

다음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이 졸업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일인지를 파악하고자, 현재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는 일이 졸업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과 관련이 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예’라는 응답이 42.2%이고 ‘아니오’라는 응답이 57.8%로 특성화고등학교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비율이 15.6%p 낮았다.

표 V-39.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의 특성화고 전공 관련 여부

	빈도	백분율
예	62	42.2
아니오	85	57.8
합계	147	100.0

⑥ 일의 직장 소재지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한 결과 ‘경기’가 2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3.0%, ‘전남’ 9.8%, ‘경남’ 7.0%, ‘강원’ 6.5% 순이었다. 따라서 서울·경기지역에 36.7%가 모여 있고, 나머지는 전국에 퍼져 있는데, 반드시

광역시 등 큰 도시에 직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광역시에 직장이 있는 경우는 20명 이하였고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남, 경남, 강원, 충남, 전북, 충북, 경북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표 V-40.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의 직장 소재지

	빈도	백분율
경기	109	23.7
서울	60	13.0
전남	45	9.8
경남	32	7.0
강원	30	6.5
충남	27	5.9
전북	27	5.9
충북	26	5.7
경북	21	4.6
광주	18	3.9
인천	18	3.9
부산	17	3.7
대전	9	2.0
대구	7	1.5
울산	7	1.5
제주	4	0.9
외국	3	0.7
합계	460	100.0

⑦ 근무 일 수 및 근무시간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 포함)의 주당 총 근무 일 수의 평균은 4.18(SD=1.61)일 이었고, 주당 근무 일수의 최솟값은 1이었으며 최댓값은 7이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6.90(SD=2.46)시간이었으며, 최소 근무시간은 1시간이었고, 최대 근무시간은 15시간이었다.

표 V-41. 주당 근무 일 수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N=460)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1	7	4.18	1.61
하루 평균 근무시간	1	15	6.90	2.46

⑧ 월평균 총 소득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460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수준을 질문하였는데 월평균 총 소득은 0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였고, 월평균 총 소득의 평균은 108.93만원이었다. 이들의 소득수준 분포를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53.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0.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3.7%, 300만원 이상자는 1.9%로 대부분 소득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2. 월평균 총 소득(N=460)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100만원 미만	245	53.3	108.93	76.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42	30.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3	13.7		
300만원 이상	9	1.9		
무응답	1	0.2		
전체	460	100.0		

월평균 소득수준을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는데 상용근로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6.4%였으며,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5.6% 있었다. 상용근로자 집단의 전체 월평균 소득수준은 187.5만원이었다. 임시근로자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8.1%로 절반 정도였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구간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으로 37.7%였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1.7%였다. 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11.95만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소득수준이 다소 낮으며, 특히 고졸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 것은 노동의 질이 높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V-43. 월평균 총 소득: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100만원 미만	6(5.6)	37(48.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7(53.3)	29(37.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9(36.4)	9(11.7)
300만원 이상	5(4.7)	2(2.6)
전체	107(100.0)	77(100.0)
평균(표준편차)	187.5(52.37)	111.95(70.37)

* 응답자 중 대학진학자로 분류된 응답자는 월평균 총 소득 산출에서 제외됨.

⑨ 업무만족도

그렇다면 다문화청소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 V-44>와 같이 총 9개 항목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만족한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9가지 항목의 평균 만족도는 모두 3점대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직장 내 인간관계'로 평균 3.91(SD=0.87)이었다. 평균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복리후생'으로 평균 3.38(SD=1.0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 소년들이 낮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직장 내 인간관계나 근무환경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긍정적 태도로 일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V-44.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직장 내 인간관계	3.91	0.87
2	근무환경	3.77	0.96
3	고용 안정성	3.73	0.96
4	근무 내용	3.72	0.92
5	근무시간 및 업무량	3.61	1.01
6	급여수준	3.54	1.01
7	개인의 발전 가능성	3.49	1.05
8	복리후생	3.38	1.08
	전반적인 만족도	3.69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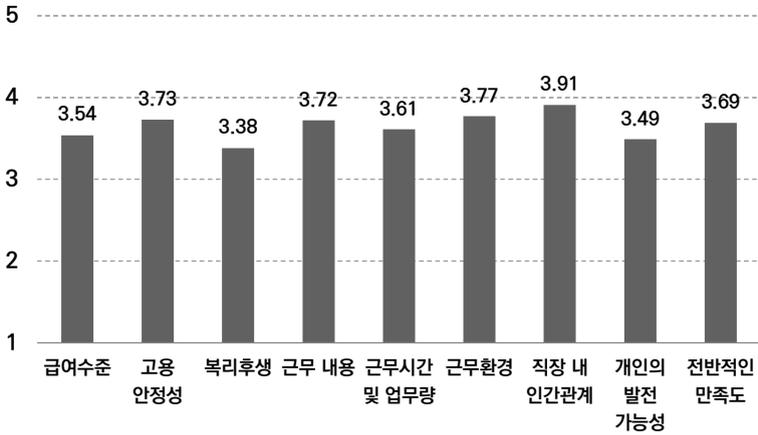


그림 V-11.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

(5) 취·창업 준비 및 교육훈련

① 취업 또는 창업 준비 여부

현재 취업(아르바이트 제외)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지 질문한 결과, ‘둘 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1.3%였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16.2%였으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0.9%, ‘둘 다 준비하고 있다’가 1.6%로 나타났다.

표 V-45. 취업 또는 창업 준비 여부

	빈도	백분율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177	16.2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10	0.9
둘 다 준비하고 있다	17	1.6
둘 다 준비하지 않는다	887	81.3
합계	1,0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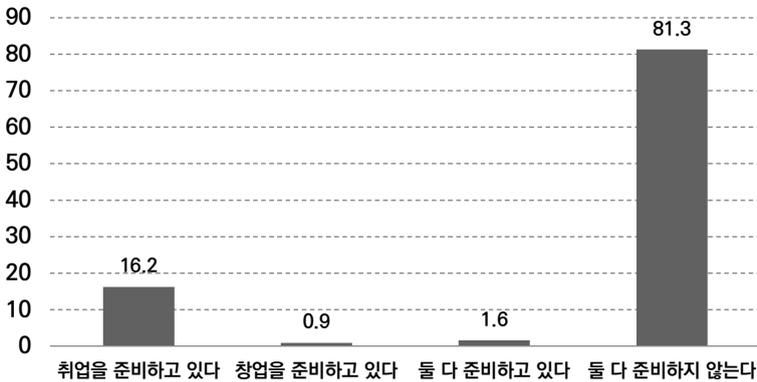


그림 V-12. 취업 또는 창업 준비 여부

② 취업 준비 활동

이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194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79.9%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55.7%,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41.2%, '공무원시험 등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15.5% 순이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시험이나 특정 기술을 배우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표 V-46.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

	빈도	백분율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80	41.2
공무원시험 등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30	15.5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108	55.7
취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55	79.9
기타	4	2.1

③ 취업정보 취득 경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두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순위로는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가 5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 친인척, 친구, 선후배'가 22.2%로 많았다. 2 순위로는 '부모, 친인척, 친구, 선후배'가 2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가 27.3%로 많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가 77.8%로 가장 높았고, '부모, 친인척, 친구, 선후배'가 50.5%, '교내 취·창업지원센터'가 17.0%, '공공취업전문기관(고용센터 등)'이 11.3% 순이었다. 따라서 후기청소년기 취업관련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V-47. 취업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

	1 순위	2 순위	합계
신문, TV 등 언론매체(인터넷 제외)	11(5.7)	9(4.6)	20(10.3)
부모, 친인척, 친구, 선후배	43(22.2)	55(28.4)	98(50.5)
교내 취·창업지원센터	18(9.3)	15(7.7)	33(17.0)
시설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학원 등)	8(4.1)	3(1.5)	11(5.7)
공공취업전문기관(고용센터 등)	12(6.2)	10(5.2)	22(11.3)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	98(50.5)	53(27.3)	151(77.8)
취업박람회	1(0.5)	4(2.1)	5(2.6)
기타	3(1.5)	0(0.0)	3(1.5)
합계	194(100.0)	149(76.8)	343(176.8)

④ 취업 준비 일자리 직종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가 어떤 직종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 19.6%, '사무 종사자' 14.4% 순이었다.

표 V-48. 취업 준비 일자리 직종

순위		빈도	백분율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6	34.0
2	서비스 종사자	38	19.6
3	사무 종사자	28	14.4
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	8.8
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	8.2
6	군인	12	6.2
7	판매 종사자	9	4.6
8	단순노무 종사자	6	3.1
9	관리자	1	0.5
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	0.5
	합계	194	100.0

⑤ 창업을 위한 준비

이와 더불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27명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일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창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가 92.6%로 가장 높았고,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가 55.6%,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가 37.0%, '창업교육을 받고 있다'가 25.9%였다.

표 V-49. 창업을 위한 준비

	빈도	백분율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15	55.6
창업교육을 받고 있다	7	25.9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10	37.0
창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5	92.6

⑥ 창업 정보 취득 경로

창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두 가지 중복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1 순위로는 '친구 또는 지인'이 33.3%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가 29.6%, '부모 또는 가족'이 18.5%였다. 2 순위로는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가 29.6%로 가장 높았고, ‘친구 또는 지인’이 25.9%, ‘자격증 취득과정’이 14.8%이었다. 1 순위와 2 순위를 합한 경우에, ‘친구 또는 지인’과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가 모두 59.3%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또는 가족’ 25.9%, ‘자격증 취득 과정’ 18.5%, ‘공공창업교육센터의 교육’ 11.1% 순이었다. 따라서 창업의 경우는 취업과 달리 친구나 지인 등 아는 사람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경향이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하여 공공창업교육센터나 민간 컨설팅회사의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창업을 하는 경우 전문적 교육이나 준비 보다는 지인이나 인터넷 등 다소 비전문적인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응답자가 소수여서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표 V-50. 창업 정보 취득 경로

	1 순위	2 순위	합계
공공창업교육센터의 교육	2(7.4)	1(3.7)	3(11.1)
민간 컨설팅회사(프랜차이즈)의 교육	1(3.7)	0(0.0)	1(3.7)
자격증 취득과정	1(3.7)	4(14.8)	5(18.5)
부모 또는 가족	5(18.5)	2(7.4)	7(25.9)
친구 또는 지인	9(33.3)	7(25.9)	16(59.3)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	8(29.6)	8(29.6)	16(59.3)
창업박람회	0(0.0)	0(0.0)	0(0.0)
기타	1(3.7)	0(0.0)	1(3.7)
합계	27(100.0)	22(81.5)	49(181.5)

⑦ 창업 준비 업종

준비하고 있는 창업의 업종으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29.6%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2%, ‘농업, 임업, 어업’이 14.8%, ‘도매 및 소매업’ 11.1% 등이었다. 이 역시 응답자의 수가 적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볼 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V-51. 창업 준비 업종

	빈도	백분율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29.6
숙박 및 음식점업	6	22.2
농업, 임업, 어업	4	14.8
도매 및 소매업	3	1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7.4
정보통신업	2	7.4
제조업	1	3.7
부동산업	1	3.7
교육 서비스업	0	0.0
금융 및 보험업	0	0.0
기타	0	0.0
합계	27	100.0

⑧ 특정분야 교육훈련 이수 경험

다음으로는 전문기술 습득 및 전공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특정한 분야의 교육 훈련을 1개월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예’라는 응답은 7.1%였으며, ‘아니오’라는 응답은 92.9%였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경험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2. 특정분야 교육훈련 1개월 이상 수료 경험 여부

	빈도	백분율
예	77	7.1
아니오	1,014	92.9
합계	1,091	100.0

⑨ 특정분야 교육훈련 제공 기관

대부분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지만,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77명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교육훈련을 제공한 기관을 최대 2개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사설학원’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훈련기관’ 22.1%,

‘민간훈련기관’ 20.8%, ‘대학 또는 전문대학’ 18.2% 순이었다.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50%에 달하고, 공공훈련기관이나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V-53. 교육훈련 제공 기관(최대 2개 응답)

	빈도	백분율
사설학원	37	48.1
공공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기능대학 등)	17	22.1
민간훈련기관(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시설 등)	16	20.8
대학 또는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교 포함)	14	18.2
잘 모르겠음	7	9.1
통신교육기관(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인터넷, 전화, 우편, TV 등)	4	5.2
기타	4	5.2
합계	99	128.6

(6) 구직활동

다음으로 구직활동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구직활동 여부

현재 대학 재학생이 아니면서 지난 1주 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72명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간 취업(아르바이트 제외)을 위한 원서접수 및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예’라는 응답이 12.8%, ‘아니오’라는 응답은 87.2%였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이 아니면서 지난 1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대다수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4. 지난 한 달 간 취업(아르바이트 제외)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빈도	백분율
예	22	12.8
아니오	150	87.2
합계	172	100.0

②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 150명에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17.3%로 가장 높았고,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16.7%,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2.7%,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므로’ 10.7% 순이었다.

표 V-55.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빈도	백분율
일하고 싶지 않아서	26	17.3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25	16.7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9	12.7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므로	16	10.7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11	7.3
이전에 찾아보았는데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7	4.7
심신에 장애가 있어서	7	4.7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과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7	4.7
육아 및 가사를 돌봐야 해서	2	1.3
기타	30	20.0
합계	150	100.0

③ 노동의지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고, 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금이라도 학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나 직장이 있으면 일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예’라는 응답이 57.6%로 절반 정도만이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표 V-56. 학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나 직장이 있으면 일할 의향

	빈도	백분율
예	99	57.6
아니오	73	42.4
합계	172	100.0

④ 현재 주로 하는 일

현재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172명에게 현재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22.7%,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2.2%,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7.0%로 나타났다.

표 V-57. 현재 주로 하는 일

	빈도	백분율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39	22.7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12	7.0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21	12.2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	3	1.7
육아 및 가사를 하고 있다	4	2.3
그냥 쉬고 있다	70	40.7
기타	23	13.4
합계	172	100.0

⑤ 현재 그냥 쉬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

현재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한 70명에게 그냥 쉬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음'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12.9%, '뭔가를 할 의욕이 없어서' 12.9%,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11.4% 등이었다.

표 V-58. 현재 그냥 쉬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

	빈도	백분율
특별한 이유 없음	37	52.9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9	12.9
원기를 할 의욕이 없어서	9	12.9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8	11.4
몸이 아파서	3	4.3
기타	4	5.7
합계	70	100.0

(7)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의 진로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①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9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 받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88(SD=0.66)이었다. 응답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집단(대학진학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타)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8.326, p<.001$). 즉, 상용근로자의 평균이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학자의 평균이 3.9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Tukey HSD 검증결과, ‘진학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세 번째로 높은 집단이 기타 집단으로 평균이 3.74점이었고 임시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이 3.65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Tukey HSD 검증결과, 임시근로자와 기타 집단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진학자와 상용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이 임시근로자와 기타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V-59. 집단별 자아존중감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F	p
진학자	717	3.92 ^{ab}	0.63	8.326	〈.001
상용근로자	107	4.01 ^a	0.68		
임시근로자	77	3.65 ^c	0.67		
기타	190	3.74 ^{bc}	0.74		
합계	1,091	3.88	0.66		

* 주: 1) 동일한 첨자가 있는 집단들 간에는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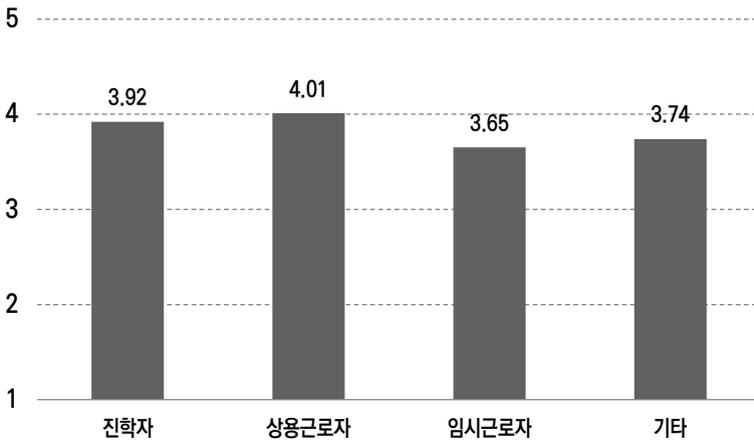


그림 V-13. 집단별 자아존중감 평균

② 삶의 만족도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3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2.88 (SD=0.59)이었다. 변량분석결과, 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는데($F=5.493, p=.001$), Tukey HSD 검증결과, ‘진학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 2.92(SD=0.56)가 ‘임시근로자’ 집단의 평균 2.67(SD=0.59)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으로 보면, 임시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기타 집단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V-60.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F	p
진학자	717	2.92 ^a	0.56	5.493	.001
상용근로자	107	2.88 ^a	0.61		
임시근로자	77	2.67 ^b	0.59		
기타	190	2.80 ^{ab}	0.66		
합계	1,091	2.88	0.59		

* 주: 1) 동일한 첨자가 있는 집단들 간에는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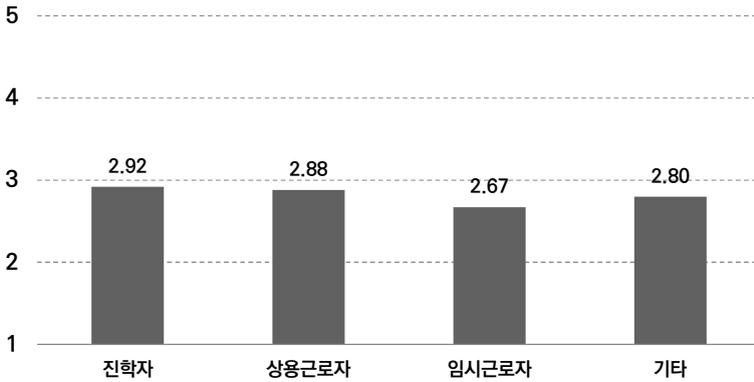


그림 V-14.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

③ 우울

심리적응의 지표로 우울도 측정을 하였는데,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우울 평균은 1.82(SD=0.57)로 우울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역시 현재의 진로상태에 따라 변량 분석을 한 결과,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331, p=.001$). Tukey HSD 검증결과, '임시근로자' 집단의 우울 평균이 2.01(SD=0.53)로 '진학자' 집단의 우울 평균 1.79(SD=0.56)와 '상용근로자' 집단의 평균 1.76(SD=0.6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 역시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임시근로자의 심리적 건강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V-61. 집단별 우울의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F	p
진학자	717	1.79 ^b	0.56	5.331	.001
상용근로자	107	1.76 ^b	0.62		
임시근로자	77	2.01 ^a	0.53		
기타	190	1.90 ^{ab}	0.60		
합계	1,091	1.82	0.57		

* 주: 1) 동일한 첨자가 있는 집단들 간에는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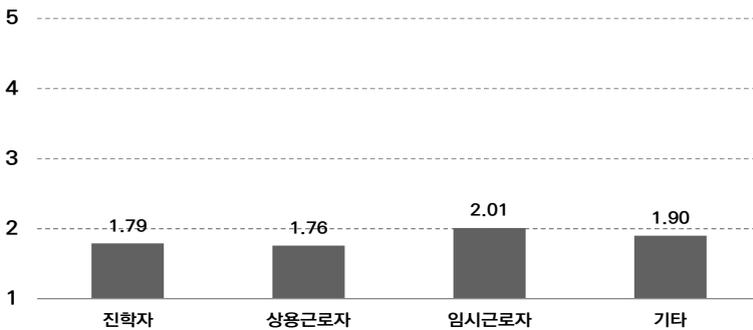


그림 V-15. 집단별 우울의 평균

④ 주관적 건강상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고,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1)’부터 ‘매우 건강하다(4)’까지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은 3.06(SD=0.67)으로 대체로 건강하다는 응답 경향성을 보였다. 이에 대해 현재의 진로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F=7.523$, $p<.001$), Tukey HSD 검증결과, ‘진학자’ 집단의 평균 3.11(SD=0.65), ‘상용근로자’ 집단의 평균 3.08(SD=0.62)과 ‘기타’ 집단의 평균 2.98(SD=0.70)이 ‘임시근로자’ 집단의 평균 2.77(SD=0.7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2. 집단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F	p
진학자	717	3.11 ^a	0.65	7.523	〈.001
상용근로자	107	3.08 ^a	0.62		
임시근로자	77	2.77 ^b	0.74		
기타	190	2.98 ^a	0.70		
합계	1,091	3.06	0.67		

* 주: 1) 동일한 첨자가 있는 집단들 간에는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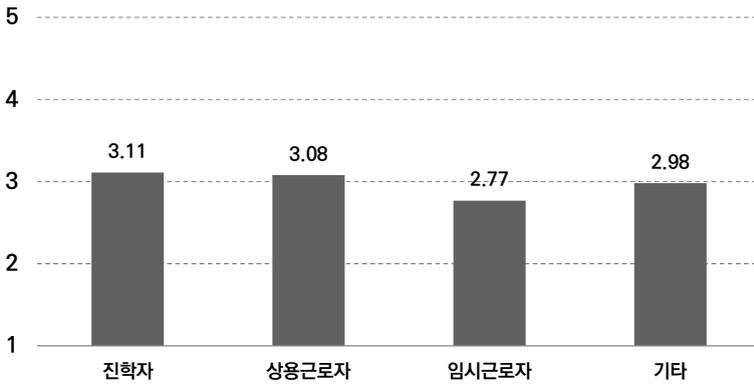


그림 V-16. 집단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

이러한 심리적응 차원의 변인들에서 나타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유형별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진학자와 상용직근로자들이 임시근로자와 기타 집단에 비하여 더 긍정적이며, 임시근로자의 경우는 기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임시근로자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발견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유의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

⑤ 차별경험

다음으로는 차별경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예’라는 응답은 0.8%였으며, ‘아니오’라는 응답은 99.2%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3. 지난 1년 동안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

	빈도	백분율
예	9	0.8
아니오	1,082	99.2
합계	1,091	100.0

⑥ 차별과 무시의 정도

비록 소수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명을 대상으로 누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와 차별과 무시의 정도를 응답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와 ‘약간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을 합하면, ‘친구 및 학교 선후배’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우가 4명(44.4%)이었으며, ‘동네사람’과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우가 각각 2명(22.2%)씩 있었고, ‘고용주 또는 직장동료’와 ‘의료인’,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우가 각각 1명(11.1%)씩 있었다.

표 V-64. 차별한 사람 및 차별과 무시의 정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약간 차별을 받았다)	차별 받지 않았다 (별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해당없음
	n(%)	n(%)	n(%)
친구 및 학교 선후배	4(44.4)	4(44.4)	1(11.1)
선생님	0(0.0)	8(88.9)	1(11.1)
고용주 또는 직장동료	1(11.1)	8(88.9)	0(0.0)
군대 내 상관이나 동료	0(0.0)	0(0.0)	9(100.0)
동네사람	2(22.2)	7(77.8)	0(0.0)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2(22.2)	7(77.8)	0(0.0)
복지시설 종사자	0(0.0)	7(77.8)	2(22.2)
일반 공무원	0(0.0)	7(77.8)	2(22.2)
의료인	1(11.1)	8(88.9)	0(0.0)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1(11.1)	8(88.9)	0(0.0)
기타	2(22.2)	0(0.0)	7(77.8)

⑦ 차별 후 대응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가 5명(55.6%)으로 가장 높았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가 2명(22.2%),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가 1명(11.1%)이었다. ‘인터넷, SNS 등에 글을 올렸다’와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V-65. 차별 받았을 때 대응

	빈도	백분율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1	11.1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2	22.2
인터넷, SNS 등에 글을 올렸다	0	0.0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0	0.0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0	0.0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5	55.6
기타	2	22.2
합계	10	111.1

⑧ 차별받았을 때 대응하지 않은 이유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5명을 대상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가 2명(40%),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가 1명(20%),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1명(20%),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1명(20%) 있었다.

표 V-66. 차별받았을 때, 대응하지 않은 이유

	빈도	백분율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1	20.0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1	20.0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아서	1	20.0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몰라서	2	40.0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0	0.0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0	0.0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0	0.0
기타	0	0.0
합계	5	100.0

⑨ 다문화청소년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

전체 청소년들에게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향후 사회진출과정(예: 취업 등)에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보았다. 그 결과,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는 응답이 37.5%로 많았다.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4.4%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집단(대학진학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타)에 따라 교차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향후 사회진출과정에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진로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chi^2=6.865, p=.333$).

표 V-67.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향후 사회진출과정에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매우 낮다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높다(높은 편이다+매우 높다)	전체
	n(%)	n(%)	n(%)	n(%)
진학자	411(57.3)	275(38.4)	31(4.3)	717(100.0)
상용근로자	72(67.3)	31(29.0)	4(3.7)	107(100.0)
임시근로자	40(51.9)	31(40.3)	6(7.8)	77(100.0)
기타	111(58.4)	72(37.9)	7(3.7)	190(100.0)
전체	634(58.1)	409(37.5)	48(4.4)	1,091(100.0)

* 주: 1) $\chi^2=6.865$, $p=.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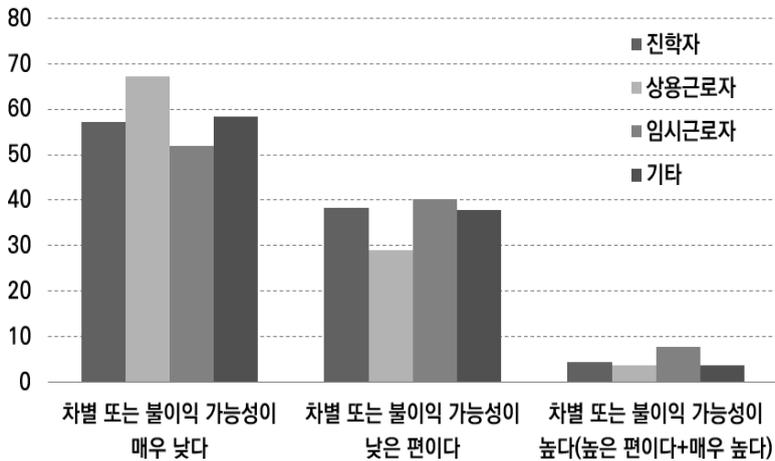


그림 V-17. 집단별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⑩ 직업의식

다음으로는 가치관 측면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 순위 선택으로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이 6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12.0%였다. 2 순위 선택으로는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20.2%

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 18.7%,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 14.5%,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 13.7%,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 11.5% 순이었다. 1 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이 7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32.3%, '지속적이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28.6%,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이 20.7% 등이었다.

표 V-68.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요소

	1 순위 n(%)	2 순위 n(%)	합계 n(%)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	659(60.4)	150(13.7)	809(74.2)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	108(9.9)	204(18.7)	312(28.6)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	21(1.9)	53(4.9)	74(6.8)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	45(4.1)	126(11.5)	171(15.7)
사회적 평판이 좋은 것	9(0.8)	35(3.2)	44(4.0)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	131(12.0)	220(20.2)	351(32.2)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	68(6.2)	158(14.5)	226(20.7)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	42(3.8)	102(9.3)	144(13.2)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8(0.7)	31(2.8)	39(3.6)
합계	1,091(100.0)	1,079(98.9)	2,170(198.9)

⑪ 사회적 가치

청소년들의 가치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를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는지,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한지 등 4개 질문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 5점까지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인식의 평균은 3.56(SD=0.69)로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현재의 진로상태에 따라 다른지 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4개 집단별 한국사회인식의 평균은 3.55에서 3.67의 범위에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0.947, p=.417$).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

들은 한국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진로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9. 집단별 한국사회인식의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F	p
진학자	717	3.55	0.67	0.947	.417
상용근로자	107	3.67	0.74		
임시근로자	77	3.56	0.71		
기타	190	3.55	0.73		
합계	1,091	3.56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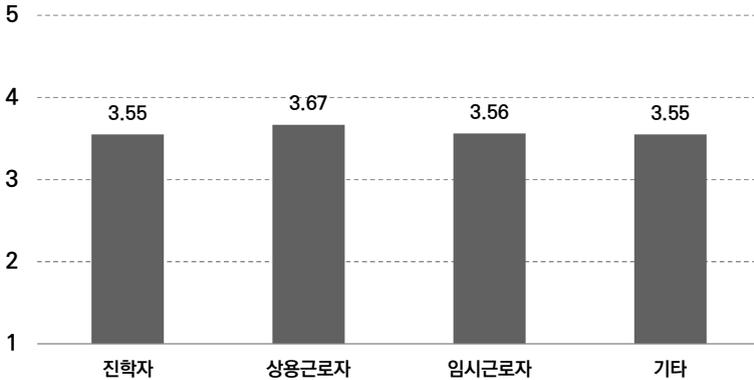


그림 V-18. 집단별 한국사회인식의 평균

다음으로 한국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한국교육인식)과 관련하여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는 3개 항목에 대하여 역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 5점까지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이 3.30(SD=0.89)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성을 현재의 진로상태에 따른 4개 집단별로 차이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8.316, p<.001$). Tukey HSD 검증결

과, '진학자' 집단의 평균 3.43(SD=0.83)이 '상용근로자' 집단의 평균 2.88(SD=0.92), '임시근로자' 집단의 평균 3.05(SD=0.99), '기타' 집단의 평균 3.13(SD=0.92)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0. 집단별 한국교육인식의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F	p
진학자	717	3.43 ^a	0.83	18.316	<.001
상용근로자	107	2.88 ^b	0.92		
임시근로자	77	3.05 ^b	0.99		
기타	190	3.13 ^b	0.92		
합계	1,091	3.30	0.89		

* 주: 1) 동일한 첨자가 있는 집단들 간에는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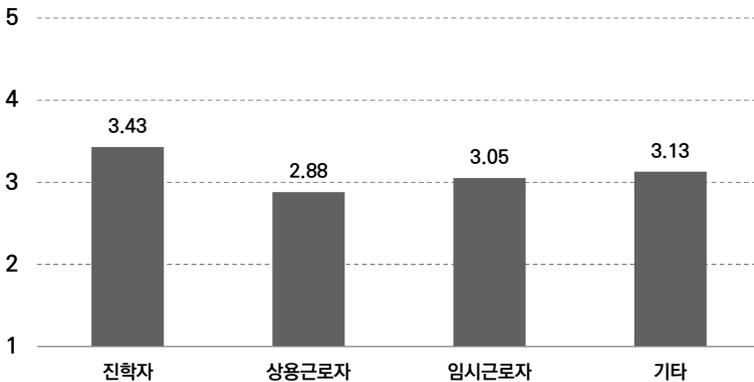


그림 V-19. 집단별 한국교육인식의 평균

⑫ 학업 포부수준

최종적으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는지 학업포부수준을 질문한 결과, '대학교(4년제 이상)'라고 응답한 경우가 5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교)(4년제 미만)'이 22.6%로 많았으며, '고등학교' 18.2%, '대학원 과정' 7.3%였다. 집단에 따라 희망 학력 수준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과 희망 학력 수준의 교차빈도표를 산출한 후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검증 결과, 집단에 따라 희망 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72.321, p<.001$). '진학자' 집단의 경우 희망 학력수준이 '대학교(4년제 이상)'인 경우가 65.7%로 가장 많았지만,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기타' 집단의 경우 희망 학력수준이 '고등학교'인 경우가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표 V-71. 집단별 희망 학력 수준

	고등학교 n(%)	대학교 (4년제 미만) n(%)	대학교 (4년제 이상) n(%)	대학원 과정 (석사+박사) n(%)	전체 n(%)
진학자	1 (0.1)	179 (25.0)	471 (65.7)	66 (9.2)	717 (100.0)
상용근로자	62 (57.9)	17 (15.9)	26 (24.3)	2 (1.9)	107 (100.0)
임시근로자	41 (53.2)	14 (18.2)	19 (24.7)	3 (3.9)	77 (100.0)
기타	95 (50.0)	37 (19.5)	49 (25.8)	9 (4.7)	190 (100.0)
전체	199 (18.2)	247 (22.6)	565 (51.8)	80 (7.3)	1,091 (100.0)

* 주: 1) $\chi^2=472.32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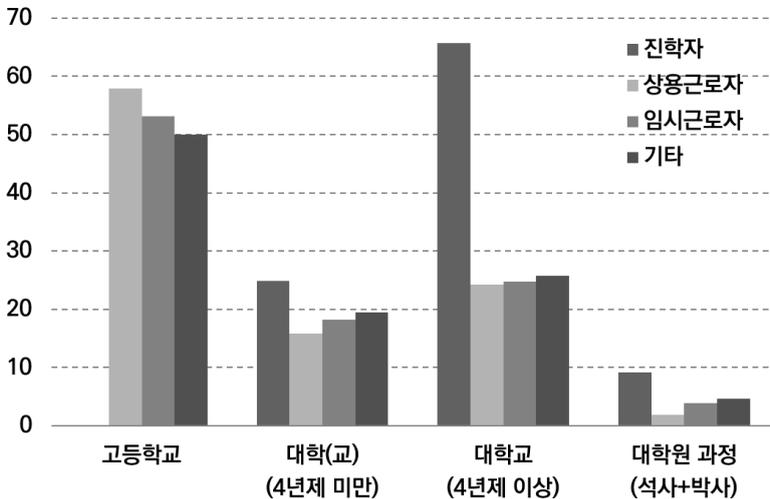


그림 V-20. 집단별 희망 학력 수준(%)

⑬ 다문화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필요성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필요한 편이다'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0.8%,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6.1%였다. 집단에 따라 필요성의 인식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chi^2=12.272, p=.056$). 따라서 현재의 진로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2. 집단별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지원정책의 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n(%)	필요한 편이다 n(%)	매우 필요하다 n(%)	전체 n(%)
진학자	136(19.0)	466(64.8)	115(16.0)	717(100.0)
상용근로자	32(29.9)	64(59.8)	11(10.3)	107(100.0)
임시근로자	13(16.9)	50(64.9)	14(18.2)	77(100.0)
기타	46(24.2)	108(56.8)	36(18.9)	190(100.0)
전체	227(20.8)	688(63.1)	176(16.1)	1,091(100.0)

* 주: 1) $\chi^2=12.272, p=.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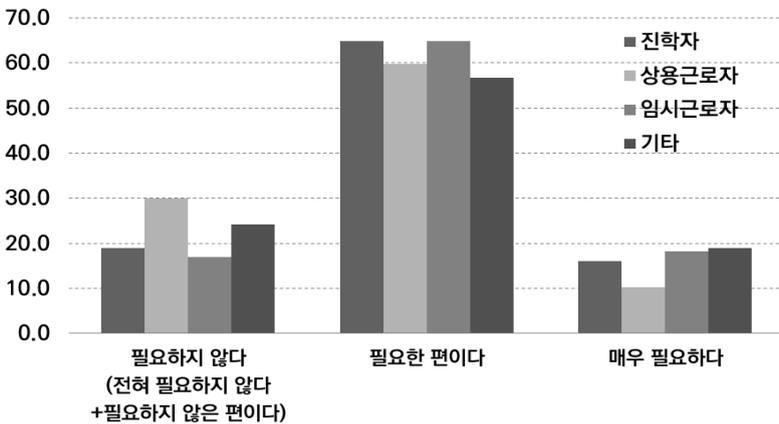


그림 V-21. 집단별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지원정책의 필요성(%)

⑭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다음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13가지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인지도를 질문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정책을 알고 있는 경우에 이용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인지도가 높은 청년지원정책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각각 87.5%와 81.0%의 인지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31.6%, ‘청년행복주택’ 26.9%, ‘청년희망키움통장’ 25.8%, ‘청년내일채움공제’ 20.6% 등의 인지도를 보였다. 청년지원정책 중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정책은 ‘국가장학금’으로 정책을 알고 있는 대학생의 85.4%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취업성공패키지’ 18.2%, ‘국민내일배움카드’ 17.2%, ‘학자금 대출’ 15.3% 등이었다.

표 V-73.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인지도		이용경험	
	알고 있음 n(%)	모름 n(%)	있음 n(%)	없음 n(%)
1) 국가장학금	955(87.5)	136(12.5)	599(85.4)	102(14.6)
2) 학자금 대출	884(81.0)	207(19.0)	99(15.3)	546(84.7)
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345(31.6)	746(68.4)	22(6.4)	323(93.6)
4) 청년전용창업기금사업	160(14.7)	931(85.3)	5(3.1)	155(96.9)
5) 청년내일채움공제	225(20.6)	866(79.4)	22(9.8)	203(90.2)
6) 청년희망키움통장	282(25.8)	809(74.2)	10(3.5)	272(96.5)
7) 청년저축계좌	230(21.1)	861(78.9)	15(6.5)	215(93.5)
8)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98(9.0)	993(91.0)	5(5.1)	93(94.9)
9) 청년행복주택	294(26.9)	797(73.1)	13(4.4)	281(95.6)
10) 국민내일배움카드	174(15.9)	917(84.1)	30(17.2)	144(82.8)
11) 청년취업아카데미	189(17.3)	902(82.7)	5(4.2)	114(95.8)
12) 취업성공패키지	209(19.2)	882(80.8)	38(18.2)	171(81.8)
13) 창업성공패키지	151(13.8)	940(86.2)	5(3.3)	146(96.7)

이러한 청년지원정책의 인지도가 현재 상태의 진로유형에 따라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행복청년주택’과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제외한 모든 정책의 인지도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정책의 인지도는 ‘진학자’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으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전용창업기금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의 인지도는 ‘상용근로자’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는 상태로 보이며, 당장의 현재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으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 수준은 사실상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4. 집단별 청년지원정책의 인지도

	대학 진학자 n(%)	상용 근로자 n(%)	임시 근로자 n(%)	기타 n(%)	전체 n(%)	χ^2
1) 국가장학금	700 (97.6)	81 (75.7)	48 (62.3)	126 (66.3)	955 (87.5)	203.887 α .001
2) 학자금 대출	644 (89.8)	77 (72.0)	46 (59.7)	117 (61.6)	884 (81.0)	111.207 α .001
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203 (28.4)	53 (49.5)	27 (35.1)	62 (32.4)	345 (31.6)	20.018 α .001
4) 청년전용창업기금사업	94 (13.1)	28 (26.2)	12 (15.6)	26 (13.7)	160 (14.7)	12.897 ρ -.005
5) 청년내일채움공제	92 (12.8)	66 (61.7)	23 (29.9)	44 (23.2)	225 (20.6)	141.552 α .001
6) 청년희망키움통장	179 (25.0)	41 (38.3)	23 (29.9)	39 (20.5)	282 (25.8)	12.430 ρ -.007
7) 청년저축계좌	147 (20.5)	40 (37.4)	21 (27.3)	22 (11.6)	230 (21.1)	29.322 α .001
8)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51 (7.1)	19 (17.8)	11 (14.3)	17 (8.9)	98 (9.0)	15.791 α .001
9) 청년행복주택	190 (26.5)	35 (32.7)	22 (28.6)	47 (24.7)	294 (26.9)	2.453 ρ -.484
10) 국민내일배움카드	73 (10.2)	36 (33.6)	15 (19.5)	50 (26.3)	174 (15.9)	58.737 α .001
11) 청년취업아카데미	117 (16.3)	23 (21.5)	15 (19.5)	34 (17.9)	189 (17.3)	2.100 ρ -.552
12) 취업성공패키지	104 (14.5)	37 (34.6)	17 (22.1)	51 (26.8)	209 (19.2)	34.123 α .001
13) 창업성공패키지	82 (11.4)	26 (24.3)	14 (18.2)	29 (15.3)	151 (13.8)	14.829 ρ -.002

* 주: 1) 표 안의 값은 해당 청년지원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빈도임.

위에서 제시된 청년지원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본인이 경험한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도움됨’과 ‘매우 도움됨’의 응답율이 80%이상으로 나타난 청년지원정책으로 ‘국가장학금’(89.8%), ‘학자금 대출’(87.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86.3%), ‘청년희망키움통장’(80.0%), ‘청년저축계좌’(93.3%) 등이 있었다. 이를 평균이 높은 순으로 제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V-75>와 같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전용창업기금사업 등의 순이었다.

표 V-75. 청년지원정책의 도움정도

순위	정책	전혀 도움 안됨 n(%)	도움 안됨 n(%)	보통 n(%)	도움됨 n(%)	매우 도움됨 n(%)	전체 n(%)	평균 (표준편차)
1	국가장학금	15 (2.5)	10 (1.7)	36 (6.0)	150 (25.0)	388 (64.8)	599 (100.0)	4.48(0.88)
2	학자금 대출	1 (1.0)	0 (0.0)	11 (11.1)	35 (35.4)	52 (52.5)	99 (100.0)	4.38(0.77)
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 (4.5)	0 (0.0)	2 (9.1)	7 (31.8)	12 (54.5)	22 (100.0)	4.32(0.99)
4	청년저축계좌	1 (6.7)	0 (0.0)	0 (0.0)	8 (53.3)	6 (40.0)	15 (100.0)	4.20(1.01)
5	청년내일채움공제	2 (9.1)	0 (0.0)	5 (22.7)	4 (18.2)	11 (50.0)	22 (100.0)	4.00(1.27)
6	청년전용창업기금사업	0 (0.0)	0 (0.0)	2 (40.0)	1 (20.0)	2 (40.0)	5 (100.0)	4.00(1.00)
7	취업성공패키지	0 (0.0)	3 (7.9)	8 (21.1)	14 (36.8)	13 (34.2)	38 (100.0)	3.97(0.94)
8	국민내일배움카드	1 (3.3)	0 (0.0)	9 (30.0)	10 (33.3)	10 (33.3)	30 (100.0)	3.93(0.98)
9	청년행복주택	1 (7.7)	0 (0.0)	2 (15.4)	6 (46.2)	4 (30.8)	13 (100.0)	3.92(1.12)
10	청년희망키움통장	2 (20.0)	0 (0.0)	0 (0.0)	4 (40.0)	4 (40.0)	10 (100.0)	3.80(1.55)
1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1 (20.0)	0 (0.0)	1 (20.0)	2 (40.0)	1 (20.0)	5 (100.0)	3.40(1.52)
12	창업성공패키지	0 (0.0)	1 (20.0)	2 (40.0)	1 (20.0)	1 (20.0)	5 (100.0)	3.40(1.14)
13	청년취업아카데미	1 (20.0)	0 (0.0)	2 (40.0)	1 (20.0)	1 (20.0)	5 (100.0)	3.20(1.48)

(8) 군복무

마지막으로 남자 청소년들의 군복무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현재 군복무여부, 군생활 만족도, 전역 후 계획 등을 질문한 결과 전체의 15명만이 2020년 기준 군복무 중이었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군복무자의 현황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① 군복무 여부

군복무와 관련하여 남자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군복무 중인지 질문한 결과, 15명이 현재 군복무 중이었다. 이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시기인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는 아직 군대에 가기에는 이른 연령이나 향후 군복무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76. 현재 군복무 여부

	빈도(명)	백분율
예	15	2.9
아니오	511	97.1
합계	526	100.0

② 군생활 만족도

군복중이라고 응답한 15명을 대상으로 현재 군복무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이라는 응답이 6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 5명(33.3%), '매우 만족한다' 4명(26.7%)이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한 후 계산한 전체 평균은 3.87(SD=0.83)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만족도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복무 대상자 자체가 극소수인 관계로 의미 있는 해석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

표 V-77. 군생활 만족도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	0.0	3.87(0.83)
만족하지 않는다	0	0.0	
보통이다	6	40.0	
만족한다	5	33.3	
매우 만족한다	4	26.7	
합계	15	100.0	

③ 전역 후 계획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군 전역 후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였는데, 7명(46.7%)이 ‘취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학복학’이 4명(26.7%), ‘대학진학’과 ‘창업’, ‘직업군인’, ‘기타’가 각각 1명(6.7%)씩 있었다.

표 V-78. 전역 후 계획

	빈도(명)	백분율
대학복학	4	26.7
대학진학	1	6.7
유학	0	0.0
복직	0	0.0
취업	7	46.7
창업	1	6.7
직업군인	1	6.7
기타	1	6.7
합계	15	100.0

4) 결과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고졸 이후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대학진학자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및 기타의 적응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다문화청소년패널에 참여한 1기 청소년들 중 고졸자의 경우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가장 높고, 대학진학자와 임시근로자, 기타 집단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상용근로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비동거 및 독립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네 집단 중 가정의 생활비 및 자신의 개인적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은 임시근로자로 이는 아마도 경제적인 형편으로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상용근로직에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거나 또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도 임시근로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집단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대학입학은 수시입학, 일반전형이 가장 일반적인 입학형태였다.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비율이 22.7%인데, 그 중 다문화가정자녀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전체의 7.0%였다. 2022학년도 고른기회 전형의 전체 모집인원이 13.3%였고, 그 안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장애인등 대상자, 지역인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해보면 이 수치는 낮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선택이나 전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본인의 적성과 희망, 성적, 취업전망이 가장 주요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본인 자신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학교선생님과 부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제공자는 학교선생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을 하여 입시정보제공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넷째로 일 경험과 관련하여 지난 1주일간 일을 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많은 경우 대학교에 진학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일을 한 경우도 상용근로자는 23.5%였고, 임시근로자로 일한 비율이 55.0%였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고등학교 때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일인지를 질문하였는데, 그런 경우는 42.2%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일을 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수준이 108.93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 정도이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약 30%였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는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급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특히,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직장의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이 복지수준이나 급여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직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잘 적응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일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로 취업준비와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정보취득은 주로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매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다양한 온라인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창업정보 취득경로의 경우도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그와 동일하게 친구 또는 지인 등이 동일한 수준이었고, 공공창업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 경우 전문기관보다는 비전문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업을 위한 정보를 보다 전문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현재 대학생이 아니면서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가장 높고, 군대입대나 자신의 능력부족, 취업준비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경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수이기는 하나 이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특별한 이유가 없다거나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의욕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라는 이유 등을 들고 있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건강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및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내에서 대학교 진학자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타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대학교 진학자와 상용근로자가 임시근로자나 기타 집단보다 적응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집단 중 임시근로자의 적응상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시근로의 상태에 있는 경우 심리적응이 타 집단보다 더욱 열악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여덟 번째로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거의 대부분이 없었고, 한국

사회에서 나중에 사회진출과정에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없다고 인식을 하여 차별의식은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우리 사회가 적어도 후기청소년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직접적인 차별행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되며, 스스로도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요구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다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시각과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고, 특히 이미 성장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초중학교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크게 높지 않으나, 일단 경험을 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V-79.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생활실태 및 현황 분석결과 요약

조사영역	분석내용
배경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이후 대학진학자가 65.7%, 상용근로자가 9.8%, 임시근로자가 7.1%, 기타가 17.4%임. ■ 대학진학자와 임시근로자, 기타 집단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는 비동거 및 독립의 비율이 높음. ■ 가정의 생활비 및 자신의 개인적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은 임시근로자임.
대학진학관련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비진학의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임. ■ 대학진학자의 경우 가장 많은 전공은 예술 및 인문학분야이고 두 번째는 보건 및 복지임. ■ 대학입학 모집유형은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비율이 89.1%로 2020년 당시 전국 수시모집 비율인 77.3%보다 훨씬 높음. ■ 대학진학자의 경우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경우가 77.3%이고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경우가 22.7%로, 특별전형으로 중 다문화전형으로 합격한 비율은 전체 대학진학자의 7.0%임. ■ 대학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본인의 적성과 희망, 성적, 취업전망 등의 순임. ■ 전공계열 및 학과선택의 요인도 본인의 적성과 희망, 취업전망, 본인의 성적 등의 순임. ■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이상임.
대학진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시 전형 준비에 영향을 준 사람은 본인과 학교선생님 순임. ■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은 학교선생님과 본인 순임. ■ 대학진학여부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은 본인, 부모님, 학교선생님 순임.

조사영역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한 대학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본인, 부모님, 학교선생님 순임. 전공계열 및 학부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본인이 절대적이고 학교선생님, 부모님 순임.
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주일간 일을 한 경우는 42.2% 일을 한 경우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가 55.0%, 상용근로자가 23.5%임. 특성하고 졸업자의 경우 고교 당시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경우는 42.2% 월평균 소득수준은 평균 108.93원이고 100만원 미만인 53.3%,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30.9%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에 3.69로 비교적 높은 편임.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직장 내 인간관계였고, 가장 낮은 항목은 복지수준이었음.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준비자가 16.2%, 창업준비자가 0.9%, 둘 다 준비하는 자가 1.6%임.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취득은 주로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매체가 가장 많음. 창업정보 취득경로는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매체와 친구 또는 지인이 동일한 수준이고, 공공창업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구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대학생이 아니면서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 구직활동을 한 비율은 12.8%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87.2%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비율이 17.3%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어서(16.7%),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2.7%), 취업 준비 중이어서(10.7%)의 순임. 현재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경우 학력이나 능력에 맞는 일자거나 직장이 있으면 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57.6%임. 현재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쉬고있다는 응답이 40.7%, 대학입시준비가 22.7%, 군입대 준비가 12.2%임. 현재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경우 그냥 쉬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음이 52.9%, 심리적으로 힘들어서가 12.9%, 뭔가를 할 의욕이 없어서가 12.9%,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가 11.4% 등임.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존중감은 평균적으로 높은 편임. 집단별로 보았을 때, 임시근로자와 기타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대학진학자와 상용근로자보다 낮음. 삶의 만족도도 평균적으로 높은 편임. 집단별로 보았을 때, 임시근로자와 기타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대학진학자와 상용근로자보다 낮으며, 임시근로자가 가장 낮음. 우울은 평균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임시근로자의 우울점수가 가장 높음 주관적 건강상태는 높은 수준임. 임시근로자의 평균이 가장 낮음.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며 한국의 학벌주의 가치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가치를 지님. 다만,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은 대학교 진학자가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음.
차별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년간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0.8%로 거의 없음. 향후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진출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4.4%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정책적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77.2%는 필요하다고 인식.

조사영역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그 외 나머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30% 이하임. ■ 청년지원정책 중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모두 높고, 상용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6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단은 전반적으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 ■ 청년지원정책 중 이용한 정책에 대한 도움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앞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생활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절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대학진학자와 비진학자를 구분하는 요인과 비진학자 중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구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분석방법

다문화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실태 및 진로결정의 영향 요인 탐색은 2021년 연구에서 한 차례 수행된바 있다. 2021년 연구에서는 2020년 조사를 통해 수집된 10차년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유형을 대학 진학, 일 경험, 대학진학 및 취창업 준비, 기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진로 유형인 대학교 진학 및 일 경험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의 하나인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당시 분석에서는 1~9차년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자료의 관련 변인들을 하나의 모형에 투입하여 전체 변인들 가운데 중요도 지수를 기준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유형, 희망교육수준과 같은 대학 진학 또는 일 경험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변인들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도출됨에 따라 가정 환경, 학교 환경, 학습경험, 심라사회적응 등 다양한 영역의 다문화청소년 특성이 이들의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22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유형별 영향 요인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패널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11년에 구축된 1기 패널의 1~9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영역별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은 각 영역의 수십 개 이상의 변인들을 하나의 모형에 투입할 수 있는 벌점화 회귀(penalized regression) 방법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벌점화 회귀방법은 최근 패널조사와 같이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됨에 따라 사례 수에 비하여 변인의 수가 더 크며, 변인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 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계학습 기법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분석방법이 자료 내 변인 간 관계를 통계적 모형에 기반을 두어 설명하고 추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기계학습 기법은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학습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특정 규칙을 찾아 예측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권순보, 유진은, 2019; 유진은, 2019). 기계학습 기법은 기계가 특정 입력 값에 따른 반응 값이 있는 훈련자료를 통해 학습한 뒤 새로운 입력 값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입력 값만 있는 훈련자료에서 일련의 규칙을 찾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된다(오미애 외, 2017; 정재현, 2019). 벌점화 회귀방법은 입력 값에 해당하는 예측변인과 반응 값에 해당하는 반응변인이 모두 포함된 훈련자료를 바탕으로 반응변인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지도학습 기법에 해당된다.

벌점화 회귀방법은 자료의 수에 비하여 추정해야 하는 회귀모형의 모수가 많은 경우 전통적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 및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귀계수의 크기를 제한하는 벌점항(penalty term)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벌점화 회귀방법으로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능형(ridge), Elastic net 등이 주로 사용되며, 이들 방법은 벌점 제약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Hoerl & Kennard(1970)에 의해 제안된 능형회귀는 모든 회귀계수를 평균에 가깝게 수축시켜 모수의 과잉추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아래 제시된 식 (1)에서 $\lambda \sum_{j=1}^p \beta_j^2$ 이 벌점항이 되며, λ 를 조절모수(tuning parameter)라 하고 0 이상의 값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λ 값이 커질수록 모수 추정에 미치는 벌점항의 영향이 커져 회귀계수의 수축 정도가 커진다. 식 (1)의 y_i 는 반응변인, β 는 회귀계수 벡터, X 는 모형에 투입된 예측변인의 행렬을 의미한다.

$$\hat{\beta}_{ridge} = \operatorname{argmin} \left\{ \sum_{i=1}^N (y_i - X^T \beta)^2 + \lambda \sum_{j=1}^p \beta_j^2 \right\} \quad (1)$$

모든 회귀계수의 수축을 통해 별점을 가하는 능형회귀와 달리 Tibshirani(1996)가 제안한 LASSO는 모수 수축과 변인 선택을 동시에 실행한다. 따라서 LASSO는 예측력이 높은 변인만 선택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나머지 변인의 계수는 0으로 추정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모형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김나영, 황혜영, 2020; 박민수 외, 2014; 정혜원, 김예림, 박소영, 2020). 능형회귀와 마찬가지로 아래 제시된 식(2)에서 조절모수 λ 가 포함된 $\lambda \sum_{j=1}^p |\beta_j|$ 이 별점항이 된다.

$$\hat{\beta}_{lasso} = \operatorname{argmin} \left\{ \sum_{i=1}^N (y_i - X^T \beta)^2 + \lambda \sum_{j=1}^p |\beta_j| \right\} \quad (2)$$

Elastic net은 Zou & Hastie(2005)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변인 선택과 모수 추정에 LASSO와 능형회귀를 결합하였다. 식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Elastic net의 별점항은 $\lambda \sum_{j=1}^p \left\{ (1-\alpha) |\beta_j| + \alpha \beta_j^2 \right\}$ 으로 LASSO와 능형회귀의 별점항의 절충 값을 갖게 된다(박민수 외, 2014). 이로써 LASSO가 상관성이 높은 변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단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모든 변인의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능형회귀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박민수 외, 2014; 박소영, 정혜원, 2022; 오미애 외, 2017). Elastic net의 별점항은 조절모수 λ 와 α 에 따라 달라지는데, λ 는 다른 별점화 회귀와 같이 0 이상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 α 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α 가 1일 경우 LASSO의 별점항과 같아지며, α 를 0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능형회귀의 별점항과 같아진다(Friedman et al., 2022).

$$\hat{\beta}_{elastic} = \operatorname{argmin} \left[\sum_{i=1}^N (y_i - X^T \beta)^2 + \lambda \sum_{j=1}^p \left\{ \alpha |\beta_j| + \left(\frac{1-\alpha}{2} \right) \beta_j^2 \right\} \right] \quad (3)$$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에 같은 내용은 반복적으로 측정함에 따라 패널자료 내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Elastic net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역별 투입 변인들의 결측률을 확인하여 그 값이 10% 이상인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결측률이 10% 미만인 변인은 해당 변인의 전체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계학습을 통한 모형 구축을 위하여 전체 자료를 7:3의 비율에 따라 훈련자료와 검증자료로 분리한 뒤, 훈련자료를 통해 구축된 Elastic net 모형의 예측력을 검증자료를 확인하였다. Elastic net의 조절모수 α 와 λ 값 설정을 위해 10-fold 교차타당화(cross validation: CV)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능형회귀와 LASSO의 절충 정도를 조절하는 α 값은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나(권순보, 유진은, 2019),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α 설정을 위하여 박민수 외(2014)와 박소영, 정혜원(2022)의 연구와 같이 0.1부터 0.9까지 0.1간격으로 α 값을 변화시키면서 반복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가 가장 작아지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절모수 λ 도 10-fold 교차타당화를 통해 평균제곱오차를 최소화 하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비록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여 Elastic net의 최적의 조절모수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자료분할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Elastic net 분석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권순보, 유진은,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앞서 기술한 절차를 100회 반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된 모형의 예측률을 계산하고 최종 영향 요인을 선택하였다. 예측률은 훈련자료를 통해 구축된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자료의 실제 반응변인과 모형을 통해 추정된 반응변인의 일치도를 계산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100번의 반복 분석 중에서 절반보다 많이, 즉 51회 이상 Elastic net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인을 최종 영향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이상 기술된 Elastic net 분석은 R 패키지 glmnet (Friedman et al., 2022)을 통해 실시하였다.

2) 분석 자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2년 연구의 패널자료 분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1~9차년도 패널조사에서 수집된 변인들을 조사 내용에 따라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별점화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유형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에 따라 2021년에 실시한 랜덤포레스트를 통한 진로유형 결정요인 탐색에 사용하였던 고등학교 유형 및 희망 교육수준과 같이 진로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변인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영역별 모형에 투입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표 V-80. 부모 및 가정환경 모형 투입 변인

영역	변인(척도)	조사 년도	변인 수
가정 환경	부모의 교육정도(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 중 큰 값)	2011	1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2011~2019	9
	아버지와 동거여부(동거=1, 사망 및 비동거=0)	2012~2019	8
	어머니와 동거 여부(동거=1, 사망 및 비동거=0)	2012~2019	8
부모 요인	부모의 지지(하위문항 평균)	2014~2019	6
	가족의 지지(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4점 척도)	2011~2019	9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4점 척도)	2011~2019	9
	부모 양육태도(하위문항 평균) : 감독/방임	2011~2019	18
	부모님의 진로지원(하위문항 평균): 지원/강요/무관심	2016~2019	12
	부모님과 대화 및 활동(하위문항 평균): 활동/대화	2017~2019	6
	외국 출신 부모님의 한국어 실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평균)	2011~2016	6
	본인의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 실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평균)	2011~2019	9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4점 척도)	2011~2019	9
	부모효능감(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자녀의 학교활동 참여(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자녀의 진로를 위한 활동(하위문항 평균): 지원/강요/무관심	2016~2019	12
	자녀의 학교교육 도움 정도(4점 척도)	2011~2019	9
총 변인 수			167

첫 번째 영역은 다문화청소년의 부모 및 가정환경으로, 이 영역의 모형에는 부모의 교육정도, 월평균 소득 수준, 부모님과 동의 여부와 같은 객관적 내용의 변인과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지지 수준,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 진로지원 정도, 부모님과의 대화 및 활동 빈도 등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인지 수준을 측정된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님이 응답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부모효능감,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및 학교활동 참여 정도, 자녀의 진로지원 활동, 학교교육의 도움 정도 변인도 함께 투입되어, 부모 및 가정환경 모형에는 총 167개의 변인을 투입하여 이 변인들 중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의 주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표 V-81.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모형 투입 변인

영역	변인(척도)	조사 년도	변인 수
학교 생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 여부(있다=1, 없다=0)	2011~2019	9
	학교공부의 어려움 여부(있다=1, 없다=0)	2011~2019	9
	학교수업태도(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교사의 지지(하위문항 평균)	2011~2016	6
	교사와의 관계(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학교생활 만족도(5점 척도)	2017~2019	3
	교우관계(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친구의 지지(하위문항 평균)	2011~2016	6
	친한 친구 수	2011~2019	9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집단괴롭힘 유형의 수)	2011~2019	9
	주관적 성적 수준(교과 평균)	2011~2019	9
	성적에 대한 만족도(4점 척도)	2011~2019	9
	방과 후 프로그램 경험(있다=1, 없다=0)	2014~2019	6
	사교육 경험(있다=1, 없다=0) :학원, 개인 또는 그룹과외, 인터넷 강의(EBS 포함)	2014~2019	18
	다문화가족정책지원 경험(있다=1, 없다=0) :14개 지원 항목(2012~2016)/ 6개 항목(2017~2019)	2012~2019	88
	진로	학습활동(참여 활동 수)	2014~2019
진로태도(하위문항 평균)		2014~2019	6
진로장벽(하위문항 평균): 자기이해부족/정보부족/경제		2016~2019	12
학교진로교육 및 활동(참여 활동 수)		2017~2019	3
학교진로교육 만족도(하위문항 평균)		2017~2019	3
총 변인 수			238

두 번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생활 및 경험에 대한 변인들로 구성된 학교환경과 활동 경험 영역이다. 이 영역에는 학교생활 및 학교공부에서의 어려움 여부,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교사 및 교우관계, 친한 친구의 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주관적 성적 수준, 진로교육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에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 참여 여부, 방과 후 프로그램과 사교육 경험 등에 대한 변인이 포함되었다.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에는 총 238개 변인이 포함되어 세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은 변인이 모형에 투입되었다.

표 V-82. 심리·사회적응 모형 투입 변인

영역	변인(척도)	조사 년도	변인 수
심리사회적응	성취동기(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자아존중감(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자아탄력성(하위문항 평균)	2011~2015	5
	삶의 만족도(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우울(하위문항 평균)	2012~2019	8
	사회적 위축(하위문항 평균)	2012~2019	8
	비행 경험(비행유형의 수)	2013~2019	7
사회적지지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있다=1, 없다=0)	2011~2019	9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있다=1, 없다=0)	2011~2019	9
다문화관련 요인	다문화청소년 공개 여부(공개=1, 비공개=0)	2012~2019	8
	국가정체성(하위문항 평균)	2011~2019	9
	이중문화 수용태도(하위문항 평균) : 한국문화/외국출신 부모님나라 문화	2011~2019	18
	문화적응스트레스(하위문항 평균)	2011~2016	6
총 변인 수			114

마지막으로 영역에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내용의 변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자신의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 경험 등의 변인과 사회적지지 체계를 볼 수 있는 학교 안 또는 밖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가 해당 영역의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다문화청소년임을 공개하였는지에 대한 변인과 국가

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다문화적 관련 요인의 변인도 함께 포함되어, 총 114개의 변인이 해당 영역의 모형에 투입되었다.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유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집단은 다시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세 영역의 변인들 가운데 다문화청소년의 대학 진학 여부, 그리고 비진학자의 취업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하였다. 진로유형 변인은 1기 패널의 다문화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실시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하였다. 즉,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대학교에 진학하여 현재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 또는 졸업한 경우를 모두 진학자로 분류하였고, 진학자에 포함되지 않은 다문화청소년 가운데 2020년 이후 조사에서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미취업자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유형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었다.

표 V-8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유형 분포(2022년 조사 기준)

구분	진학자	비진학자			계
		취업자	미취업	소계	
명	782	198	111	309	1,091
(%)	(71.7)	(18.1)	(10.2)	(28.3)	(100.0)

다문화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기인 2020년에 실시된 1기 패널 10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1,091명 가운데 2022년 조사 기준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82명으로 이들을 진학자로 분류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진학자 가운데 임시 또는 상용근로자의 지위로 취업한 청소년은 198명으로 전체의 약 18%(비진학자의 64%)를 차지하였다.

3) 분석 결과

별점화 회귀방법 가운데 Elastic net을 적용하여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유

형별 주요 영향 요인을 탐색한 결과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여부, 그리고 비진학자의 취업여부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영향 요인

훈련자료를 통한 회귀모형 구축과 검증자료에 구축된 모형의 예측을 100번 반복하여 실시한 분석 결과, 훈련자료를 통해 구축된 영역별 Elastic net 회귀모형의 평균제곱오차의 평균은 학교환경 및 활동경험 모형이 0.35로 부모 및 가정환경과 심리사회적응 영역의 평균 0.39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훈련자료를 통해 구축된 Elastic net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된 반응변인(대학진학 = 1, 비진학 = 0)과 실제 검증자료의 반응변인이 일치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예측률의 경우, 학교환경 및 활동경험 영역이 평균 72.07%로 가장 높았고, 부모 및 가정환경과 심리사회적응 영역은 각각 69.84%, 69.7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실시된 100번의 반복 분석결과, 100번 모두 모형에 포함된 변인은 학교환경 및 활동경험 영역이 4개, 다른 두 영역이 2개였다. 한편, 51회 이상으로 선택된 변인의 수를 살펴보면, 모형에 투입된 변인의 수가 다른 영역보다 적었던 심리사회 적응 영역이 40개(투입 변인의 약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교환경 및 활동경험 영역이 30개(투입변인의 약 13%)였으며,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이 18개(투입변인의 약 11%)로 가장 적었다.

표 V-84. 영역별 Elastic net 예측 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영역(투입 변인 수)	평균제곱오차		예측률(%)		선택된 변인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00번	51번 이상
부모 및 가정환경 (167)	0.39	0.01	69.84	2.24	2	18 ¹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238)	0.35	0.01	72.07	2.23	4	30
심리사회 적응 (114)	0.39	0.01	69.74	2.43	2	40

* 주: 1) 부모 및 가정환경 변인 중 2017~2019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은 51번 이상 모형에 포함되었으나, 회귀계수의 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 기준 반올림 하였을 때 그 값이 0이 되므로 선택된 변인 수에서 제외하였음.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 결정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선정된 변인을 영역별로 살펴보자.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의 경우 51번 이상 Elastic net 회귀모형에 포함된 18개 변인 가운데 다문화청소년 대학진학의 정적 영향 요인은 15개 변인이었고, 3개는 부적 영향 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응답한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와 다문화청소년이 응답한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가 100회의 반복 분석에서 모두 모형에 포함되어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변인은 모두 다문화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시기인 2019년에 조사된 변인이고, 각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는 0.22, 0.09로 대학진학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시기에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높아졌으며,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대화 정도가 많은 다문화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에 정적인 영향을 준 15개 변인들 중에서 2019년 고3 시기 조사변인인 아버지와의 동거여부(1 = 예, 0 = 아니오)가 평균 회귀계수 0.35로 가장 컸고, 이어서 100회 모두 Elastic net 회귀모형의 변인으로 선택되었던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가 0.22로 다른 변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균 회귀계수가 컸다. 이와 함께 어머니와의 동거 여부(2019년 고3 시기 조사 변인)와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인식하는 부모효능감(2018년 고2 시기 조사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도 각각 0.13, 0.10으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7~2018년에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응답한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 및 2019년 조사의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인식하는 부모효능감 수준 변인 또한 51회 이상 포함된 대학진학의 정적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초·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부모님의 감독적 양육태도가 대학진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2019년에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진로강요(2017년 고1 시기 조사 변인)와 방임적 양육태도(2014년 중1, 2016년 중3 시기 조사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는 각각 -0.07, -0.05, -0.06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에 부적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V-85. 대학진학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

변인	조사 시점	포함 횟수	회귀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p)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2019 (고3)	100	0.22	0.10	0.03	0.58
부모와의 대화	2019 (고3)	100	0.09	0.04	0.00	0.20
(p)부모효능감	2018 (고2)	96	0.10	0.04	0.01	0.25
동거여부_아버지	2019 (고3)	91	0.35	0.16	0.04	0.81
(p)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2018 (고2)	76	0.08	0.05	0.01	0.27
양육태도_감독	2015 (중2)	72	0.08	0.04	0.01	0.17
부모의 진로강요	2017 (고1)	66	-0.07	0.04	-0.18	0.00
동거여부_어머니	2019 (고3)	64	0.13	0.09	0.01	0.44
양육태도_감독	2018 (고2)	64	0.08	0.06	0.00	0.31
양육태도_감독	2013 (초6)	64	0.06	0.04	0.00	0.20
양육태도_방임	2014 (중1)	64	-0.05	0.03	-0.14	0.00
양육태도_방임	2016 (중3)	63	-0.06	0.05	-0.23	0.00
양육태도_감독	2019 (고3)	61	0.06	0.05	0.00	0.24
가족의 지지	2019 (고3)	57	0.04	0.04	0.00	0.25
(p)자녀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2017 (고1)	55	0.06	0.04	0.00	0.22
부모의 진로무관심	2018 (고2)	54	0.08	0.05	0.00	0.23
양육태도_감독	2011 (초4)	54	0.05	0.03	0.00	0.13
(p)부모효능감	2019 (고3)	51	0.04	0.02	0.00	0.10

* 주: 1) 부적 영향 요인은 음영 처리하였음.
2) p: 부모 대상 조사 변인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의 경우 30개 변인이 51번 이상 Elastic net 회귀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이 가운데 12개 변인은 90번 이상 모형에 포함되어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개 변인 가운데 14개 변인은 대학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나머지 16개 변인은 정적 영향 요인이었다. 부모 및 가정환경의 주요 영향 요인이 대체로 대학진학에 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에서는 부적 영향 요인의 비율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들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주었는

지를 살펴보면, 사교육 경험 및 참여 학습활동의 수와 같이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의 경험에 대한 변인이 주로 정적 영향 요인에 포함되었고,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및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주요 부적 영향 요인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친한 친구의 수 등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특성으로 인식되어 오던 변인들이 오히려 대학진학에는 부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회귀계수가 -0.01 로 다른 변인들과 비교할 때 그 영향력은 실제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인식하는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회귀계수가 -0.14 로 해당 변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진학을 결정한 청소년이 기대하는 성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30개 변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학교에서 다문화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된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2014년 중1 시기 조사 변인)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지원정책으로 제공된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경험(2014년 중1 시기 조사 변인)이었다. 두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는 각각 -0.58 , -0.57 로 대학진학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금지원, 놀이공원 방문 등 다른 유형의 다문화지원정책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역시 대학진학의 부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다문화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원을 받은 경험이 대학 진학에 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학교생활 및 학교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대학진학과 부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대학 진학의 정적 영향 요인 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인터넷 강의(EBS 포함)를 통한 사교육 경험의 평균 회귀계수가 0.49 로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2017년과 2019년 학원에서의 사교육 경험(평균 회귀계수 2017년: 0.24 , 2019년: 0.21) 또한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관적 성적수준이 높거나 학교 수업태도가 높을수록 대학진학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예상과 달리 자기이해에 대한 부족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이 대학진학의 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로를 위해 대학진학을 선택하기보다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V-86. 대학진학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

변인	조사 시점	포함 횟수	회귀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교육 경험: 인터넷 강의	2019 (고3)	100	0.49	0.16	0.23	1.01
참여 학습활동 수	2018 (고2)	100	0.18	0.06	0.03	0.32
참여 학습활동 수	2017 (고1)	100	0.14	0.05	0.03	0.31
학교생활의 어려움	2012 (초5)	100	-0.30	0.11	-0.54	0.00
사교육 경험: 학원	2017 (고1)	99	0.24	0.10	0.00	0.65
성적에 대한 만족도	2019 (고3)	97	-0.14	0.05	-0.28	-0.02
다문화지원정책: 심리적응 프로그램	2014 (중1)	97	-0.58	0.26	-1.29	-0.08
사교육 경험: 학원	2019 (고3)	96	0.21	0.09	0.03	0.58
학교공부의 어려움	2011 (초4)	95	-0.13	0.07	-0.32	-0.01
다문화지원정책_현금지원	2017 (고1)	92	-0.25	0.13	-0.60	-0.01
주관적 성적수준	2016 (중3)	91	0.09	0.05	0.01	0.24
학교수업태도	2019 (고3)	90	0.10	0.05	0.00	0.29
학교수업태도	2013 (초6)	89	0.12	0.08	0.00	0.34
학교수업태도	2018 (고2)	88	0.07	0.05	0.00	0.22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2019 (고3)	87	0.14	0.07	0.02	0.38
학교수업태도	2016 (중3)	83	0.12	0.07	0.00	0.37
학교생활의 어려움	2018 (고2)	82	-0.17	0.11	-0.52	0.00
참여 학습활동 수	2019 (고3)	81	0.14	0.05	0.00	0.35
다문화지원정책: 학습보조 선생님	2014 (중1)	79	-0.57	0.38	-1.65	-0.02
친한 친구의 수	2015 (중2)	74	-0.01	0.01	-0.02	0.00
다문화지원정책: 놀이공원 방문	2016 (중3)	74	-0.38	0.25	-1.09	0.00
교사와의 관계	2015 (중2)	72	-0.09	0.06	-0.29	-0.01
학교생활의 어려움	2017 (고1)	69	-0.12	0.09	-0.46	0.00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2018 (고2)	63	0.09	0.05	0.01	0.22
친한 친구의 수	2017 (고1)	61	-0.01	0.00	-0.02	0.00
학교생활의 어려움	2019 (고3)	61	-0.14	0.11	-0.63	0.00
진로장벽_자기이해	2017 (고1)	60	0.05	0.04	0.00	0.15
사교육 경험: 과외	2018 (고2)	58	0.17	0.11	0.00	0.45
진로장벽_정보부족	2017 (고1)	58	0.05	0.04	0.00	0.23
다문화지원정책: 문화공연관람	2012 (초5)	56	-0.10	0.06	-0.26	0.00

* 주: 1) 부적 영향 요인은 음영 처리하였음.

마지막 영역인 심리·사회 적응에서는 총 114개 투입 변인 중에서 40개 변인이 51번 이상 Elastic net 회귀모형에 포함되어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 요인이 도출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변인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의 존재 여부를 통한 사회적 지지 체계, 그리고 가정의 다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다문화 관련 요인이 포함된 이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 요인이 정적 영향 요인보다 더 많이 도출되었다.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된 변인은 23개(57.5%)였으나, 정적 영향 요인은 17개(42.5%)에 불과하였다. 정적 영향 요인으로는 대부분 긍정적인 심리·사회 적응의 특성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성취동기가 포함되었으며, 부정적 영향 요인은 대표적인 사회 부적응 특성인 비행 경험과 사회적 위축, 우울이 포함되었다. 또한, 다문화 관련 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도 부정적 영향 요인에 포함되었다.

한편, 다른 영역과 달리 심리·사회 적응 영역의 일부 변인들은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는 변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기에 조사되었는가에 따라 정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부는 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7~2018년에 조사된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가 각각 0.38, 0.29, 0.09로 정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심지어 2017년과 2018년의 변인은 40개 변인 가운데 평균 회귀계수가 가장 컸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인 2012년에 조사된 동일한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는 -0.09로 부정적 영향 요인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 안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여부에 관한 변인과 삶의 만족도, 이중문화 수용태도에서도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경우,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3학년 재학 시기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 회귀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보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진학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조사된 삶의 만족도는 평균 회귀계수가 0.07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변인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시기의 변인은 평균 회귀계수가 -0.19로 부정적 영향 요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컸으나, 2년 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의 변인은 평균 회귀계수 값이 0.12로 대학진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7. 대학진학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심리·사회 적응 영역

변인	조사 시점	포함 횟수	회귀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밖	2017 (고1)	100	0.38	0.11	0.18	0.67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밖	2018 (고2)	100	0.29	0.08	0.08	0.54
비행 경험	2019 (고3)	98	-0.06	0.03	-0.14	0.00
자아존중감	2016 (중3)	97	0.16	0.08	0.01	0.34
비행 경험	2016 (중3)	96	-0.13	0.06	-0.36	-0.02
비행 경험	2018 (고2)	95	-0.08	0.04	-0.21	0.00
사회적 위축	2018 (고2)	94	-0.10	0.05	-0.25	-0.01
삶의 만족도	2013 (초6)	94	-0.14	0.07	-0.33	-0.01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안	2017 (고1)	94	-0.19	0.08	-0.41	-0.02
이중문화수용_부모나라문화	2017 (고1)	93	0.10	0.06	0.01	0.27
비행 경험	2013 (초6)	89	-0.11	0.07	-0.30	0.00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안	2019 (고3)	84	0.12	0.06	0.01	0.29
자아존중감	2011 (초4)	83	0.09	0.05	0.00	0.23
비행 경험	2017 (고1)	83	-0.05	0.03	-0.16	0.00
이중문화수용_한국문화	2011 (초4)	80	-0.11	0.06	-0.25	0.00
문화적응스트레스	2011 (초4)	80	-0.11	0.07	-0.33	0.00
비행 경험	2014 (중1)	74	-0.09	0.06	-0.25	0.00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안	2016 (중3)	74	-0.12	0.05	-0.27	-0.01
삶의 만족도	2019 (고3)	71	-0.09	0.05	-0.27	0.00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밖	2019 (고3)	70	0.09	0.06	0.00	0.27
국가정체성	2011 (초4)	70	-0.06	0.04	-0.19	-0.00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안	2015 (중2)	68	0.07	0.06	0.00	0.37
자아존중감	2015 (중2)	66	0.08	0.05	0.00	0.22
자아탄력성	2015 (중2)	66	-0.12	0.08	-0.34	0.00
삶의 만족도	2011 (초4)	64	0.07	0.05	0.00	0.23
성취동기	2016 (중3)	63	0.07	0.05	0.00	0.25
삶의 만족도	2018 (고2)	63	-0.07	0.06	-0.29	0.00
삶의 만족도	2017 (고1)	62	-0.07	0.05	-0.21	0.00
성취동기	2018 (고2)	61	0.07	0.05	0.00	0.26
이중문화수용_부모나라문화	2016 (중3)	61	0.05	0.05	0.00	0.35
성취동기	2011 (초4)	60	0.06	0.04	0.00	0.22

변인	조사 시점	포함 횟수	회귀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밖	2012 (초5)	60	-0.07	0.04	-0.17	0.00
문화적응스트레스	2016 (중3)	57	-0.08	0.06	-0.26	-0.01
자아탄력성	2011 (초4)	54	0.07	0.06	0.00	0.25
자아탄력성	2013 (초6)	54	0.06	0.05	0.00	0.18
문화적응스트레스	2013 (초6)	54	-0.08	0.06	-0.29	0.00
이중문화수용_한국문화	2014 (중1)	52	0.05	0.04	-0.01	0.17
국가정체성	2012 (초5)	52	-0.05	0.05	-0.24	0.00
우울	2014 (중1)	52	-0.06	0.05	-0.20	0.00
문화적응스트레스	2015 (중2)	52	-0.08	0.06	-0.26	0.00

* 주: 1) 부적 영향 요인은 음영 처리하였음.

이상 살펴본 각 영역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에 영향을 준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인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영역별 평균 회귀계수 값을 상자그림(box plot)으로 제시하면 [그림 V-22]와 같다. 그림에 제시된 세 개의 상자는 왼쪽부터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 심리사회 적응 영역에서 주요 영향 요인으로 선택된 변인들의 평균 회귀계수 값의 분포를 보여준다. 왼쪽에 제시된 상자를 보면, 부모 및 가정 환경 영역에서 도출된 주요 영향 요인의 평균 회귀계수 값은 대부분 0에서 0.2 사이의 값으로 세 영역 중에서 회귀계수 값의 폭이 가장 좁았다. 따라서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의 주요 영향 요인 간 영향력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운데 상자로 제시된 학교환경 및 활동경험 영역의 주요 영향 요인의 경우, 평균 회귀계수 값의 전체 범위는 -0.4에서 0.5 사이로 세 영역 가운데 가장 크며 상자 안의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값은 0보다 컸다. 이를 통해 학교환경 및 학습활동 영역에서는 대학진학의 정적 영향 요인이 부적 영향 요인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오른쪽 상자로 제시된 심리사회 적응의 주요 영향요인은 대부분 -0.2에서 0.3 사이에 평균 회귀계수 값들이 분포하고 있어 요인 간 영향력의 차이는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의 요인들 보다는 크지만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의 요인보다는 작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앙값의 위치는 0보다 작아 부적 영향 요인이 정적 영향 요인에 비해 많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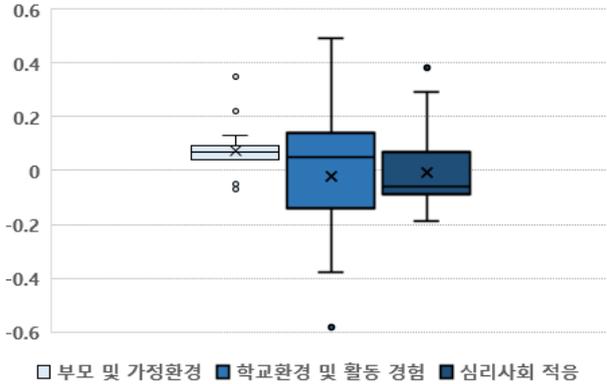


그림 V-22. 영역별 대학진학 영향 요인 평균 회귀계수 분포

(2) 비진학자의 취업 영향 요인

다음으로 1기 패널의 다문화청소년 중에서 2022년 기준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없는 비진학자 취업의 주요 영향 요인 탐색을 위하여 Elastic net 회귀모형을 100번 반복하여 구축하고 모형의 예측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V-88>과 같다. 영역별 투입 변인은 대학진학의 주요 영향 요인 탐색을 위해 투입된 변인과 동일하다. 영역별 평균제곱오차의 평균은 0.44에서 0.46으로 대학진학 영향 요인 탐색 모형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영역별 모형의 예측률 평균은 약 56%에서 59%로 대학진학의 영향 요인 탐색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100번 반복된 Elastic net 회귀모형에 모두 포함된 변인은 세 영역에서 하나도 없었고, 51번 이상 선택된 변인은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이 32개(투입 변인의 약 13%)로 가장 많았고,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은 16개 투입 변인 가운데 단지 6개 변인만 51번 이상 선택되었다. 심리사회 적응 영역에서는 51번 이상 선택된 변인도 없었으며, 가장 많이 선택된 변인은 학교 친구 및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문화청소년임을 알렸는가(1 = 예, 0 = 아니오)에 대해 2018년(고2 재학 시기)에 조사한 변인과 2012년 조사에서 응답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두 변인은 37번 선택되었다. 다문화청소년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는지에 대한 변인은 정적 영향 요인(평균 회귀계수 0.14)인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평균 회귀계수 -0.20)는 부적 영향 요인이었다.

표 V-88. 영역별 Elastic net 예측 성과: 비진학자의 취업

모형(투입 변인 수)	평균제곱오차		예측률(%)		선택된 변인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00번	51번 이상
부모 및 가정환경 (167)	0.45	0.01	58.08	5.87	0	6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238)	0.44	0.02	59.34	4.34	0	32
심리사회 적응 (114)	0.46	0.01	56.08	10.17	0	0

총 167개 변인이 투입되었던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에서는 비진학자 취업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6개 변인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데, 6개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는 모두 정적 영향 요인이었다. 이들 변인 중에서 3개는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이며, 나머지 3개는 외국 출신 부모님의 한국어 실력이었고, 대체로 취업을 결정하는 후기 청소년기가 아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시기에 조사된 변인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평균 회귀계수가 가장 큰 변인은 2012년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조사된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로, 이 변인은 90번 Elastic net 회귀모형에 선택되었고 평균 회귀계수는 0.19였다. 이어서 2015년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조사된 외국 출신 부모님의 한국어 실력(평균 회귀계수 0.14)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9. 취업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

변인	조사 시점	포함 횟수	회귀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2012 (초5)	90	0.19	0.11	0.00	0.54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2016 (중3)	63	0.08	0.06	0.00	0.30
외국 출신 부모님의 한국어 실력	2015 (중2)	59	0.14	0.08	0.00	0.41
외국 출신 부모님의 한국어 실력	2013 (초6)	59	0.11	0.07	0.00	0.34
외국 출신 부모님의 한국어 실력	2019 (고3)	56	0.07	0.04	0.00	0.20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2012 (초5)	51	0.07	0.06	0.00	0.36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에서는 32개 변인이 비진학자의 취업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변인 가운데 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시기인 2012년 조사 당시 학교에서 다문화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변인(1 = 예, 0 = 아니오)으로, 평균 회귀계수는 -0.60이었다. 즉,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경험한 비진학자가 상용 또는 임시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이 한국어 교육 지원을 받지 않은 비진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기인 2018년에 학원에서의 사교육 경험 여부(1 = 예, 0 = 아니오)는 평균 회귀계수 -0.52로 비진학자의 취업에 부적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학교 공부의 어려움(2012년 초5 조사 변인)과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2015년 중2 시기 조사 변인)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영향력(학교공부의 어려움 평균 회귀계수 -0.33, 학교생활에서 어려움 평균 회귀계수 -0.30)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성적에 대한 만족도(2012년 초5 시기 조사 변인), 교사의지지(2014 중1 시기 조사 변인), 학교의 진로교육 만족도(2018년 고2 시기 조사 변인)가 부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정적 영향 요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평균 회귀계수가 0.50인 다문화지원정책으로 제공된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2017년 고1 시기 조사 변인)이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된 심리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2013 초6 시기 조사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는 0.47로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문화공헌관람, 대학생 멘토링 등 한국어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문화지원정책으로 제공된 지원에 참여한 경험과 관련된 12개 변인이 비진학자 취업의 정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표 V-90. 취업 영향요인으로 51번 이상 포함된 변인: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

변인	조사 시점	포함 횟수	회귀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학교공부의 어려움	2012 (초5)	94	-0.33	0.21	-1.03	0.00
학교생활에서 어려움	2015 (중2)	85	-0.30	0.22	-1.10	-0.02
다문화지원정책: 심리적응 프로그램	2013 (초6)	83	0.47	0.37	0.01	1.51
교우관계	2019 (고3)	83	0.14	0.10	0.01	0.58
사교육 경험: 학원	2018 (고2)	80	-0.52	0.30	-1.84	-0.04
학교생활 만족도	2019 (고3)	78	0.13	0.09	0.00	0.42
사교육 경험: 인터넷 강의	2014 (중1)	76	0.28	0.25	0.01	1.21

변인	조사 시점	포함 횟수	회귀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다문화지원정책: 방과 후 수업료 지원	2014 (중1)	76	0.26	0.20	0.00	1.04
다문화지원정책: 문화공연관람	2016 (중3)	73	0.28	0.18	0.01	0.87
교사와의 관계	2012 (초5)	72	0.14	0.11	0.00	0.45
성적에 대한 만족도	2012 (초5)	72	-0.10	0.09	-0.37	0.00
다문화지원정책: 대학생 멘토링	2014 (중1)	71	0.24	0.19	0.00	0.75
학교생활 만족도	2018 (고2)	70	0.10	0.08	0.00	0.39
다문화지원정책: 대학생 멘토링	2016 (중3)	68	0.25	0.16	0.00	0.84
진로장벽_자기이해	2019 (고3)	67	0.11	0.09	0.00	0.40
교사의 지지	2014 (중1)	66	-0.12	0.09	-0.43	0.00
학교진로교육 만족도	2018 (고2)	66	-0.13	0.10	-0.42	0.00
진로장벽_정보부족	2019 (고3)	65	0.10	0.08	0.00	0.47
방과 후 프로그램	2019 (고3)	64	0.17	0.14	0.01	0.79
다문화지원정책: 방과 후 수업료 지원	2012 (초5)	64	0.15	0.11	0.00	0.56
다문화지원정책: 진로관련 프로그램	2017 (고1)	62	0.50	0.42	0.00	1.87
다문화지원정책: 한국어 교육	2012 (초5)	61	-0.60	0.52	-2.44	-0.01
학교수업태도	2012 (초5)	59	0.13	0.09	0.01	0.43
교사의 지지	2012 (초5)	56	0.05	0.04	0.00	0.20
다문화지원정책: 놀이공원 방문	2016 (중3)	55	0.29	0.24	0.00	1.19
진로장벽_정보부족	2018 (고2)	55	0.09	0.08	0.00	0.41
친구의 지지	2011 (초4)	55	0.06	0.04	0.00	0.16
다문화지원정책: 특기적성 프로그램	2012 (초5)	53	0.21	0.17	0.01	0.77
다문화지원정책: 문화체험활동	2016 (중3)	52	0.20	0.15	0.00	0.56
다문화지원정책: 진로지원	2016 (중3)	52	0.20	0.14	0.00	0.70
학교생활에서 어려움	2011 (초4)	52	-0.10	0.07	-0.35	0.00
다문화지원정책: 현금지원	2017 (고1)	51	0.13	0.11	0.00	0.49

* 주: 1) 부적 영향 요인은 음영 처리하였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다문화청소년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상자그림은 [그림 V-23]과 같다. 전술된 바와 같이 비진학자 취업의 주요 영향 요인은 부모 및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및 학습 활동 영역에서만 도출되었고,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에서는 6개 변인이, 학교환경 및 학습활동 영역에서는 32개 변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그림 V-23]에 제시된 상자그림은 두 영역에서 선택된 6개와 32개

변인의 평균 회귀계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 그림의 왼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의 영향 요인은 평균 회귀계수 값이 대부분 0.1 근처에 분포하고 있어 요인 간 영향력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의 분포는 -0.3에서 0.5 사이로 상당히 넓어 영향 요인 간 영향력의 방향과 크기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두 영역 모두 중앙값은 모두 0보다 크므로 비진학자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보다는 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더 많이 도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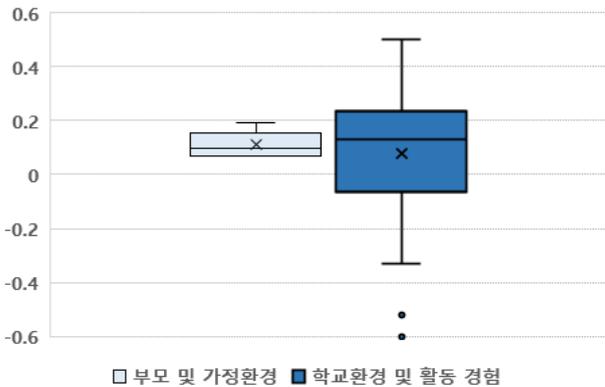


그림 V-23. 영역별 취업 영향 요인 평균 회귀계수 분포

3)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먼저 2020년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졸업자 1,091명을 대상으로 대학진학 여부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탐색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및 가정환경 변인 중 월평균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대학진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에 대한 부모의 강요는 청소년의 대학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진로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은 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원을 넘어선 지나친 강요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기의 학습과 관련된 활동의 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매우 이해가능하고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진로장벽이 대학진학의 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로부터는 ‘대학진학이 진로결정의 결과가 아닌’ 청소년이 많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초·중등학교 재학 시기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심리사회적응 영역에서는 가장 적은 변인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영향 요인이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심리사회 적응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자아 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정적 영향 요인에 포함되었고, 비행 경험, 우울과 같이 부정적인 심리사회 적응 특성들이 부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일부 요인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변인이라 할지라도 조사 시점에 따라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의 특성은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진로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여러 측면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91. 고등학교 졸업 다문화청소년 대학진학의 주요 영향 요인

영역	정적 영향 요인	부적 영향 요인
부모 및 가정 환경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2017~2019) 부모와의 대화(2019) 부모효능감(2018, 2019) 동거여부_아버지(2019) 동거여부_어머니(2019) 양육태도_감독(2011, 2013, 2015, 2018, 2019) 가족의지지(2019) 부모의 진로무관심(2018)	양육태도_방임(2014, 2016) 부모의 진로강요(2017)
학교 환경 및 활동 경험	사교육 경험: 인터넷 강의(2019) 사교육 경험: 학원(2017, 2019) 사교육 경험: 과외(2018) 참여 학습활동 수(2017~2019)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2019) 주관적 성적수준(2016) 학교수업태도(2013, 2016, 2018, 2019) 진로장벽_자기이해(2017) 진로장벽_정보부족(2017)	학교생활의 어려움(2012, 2017, 2018) 학교공부의 어려움(2011) 성적에 대한 만족도(2019) 친한 친구의 수(2015) 교사와의 관계(2015) 다문화지원정책: 심리적응 프로그램(2014) 다문화지원정책: 현금지원(2017) 다문화지원정책: 학습보조 선생님(2014) 다문화지원정책: 놀이공원 방문(2016) 다문화지원정책: 문화공연관람(2012)

영역	정적 영향 요인	부적 영향 요인
심리 사회 적응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밖(2017~2019)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밖(2012)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안(2015, 2019)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안(2016, 2017)
	자아존중감(2011, 2015, 2016)	비행 경험(2011, 2013, 2016~2019)
	자아탄력성(2011, 2013)	사회적 위축(2018)
	삶의 만족도(2011)	자아탄력성(2015)
	성취동기(2011, 2016, 2018)	삶의 만족도(2013, 2017~2019)
이중문화수용_부모님 나라문화(2016, 2018)	이중문화수용_한국문화(2011)	
이중문화수용_한국문화(2014)	문화적응스트레스(2011, 2013, 2015, 2016)	
	국가정체성(2011, 2012)	
	우울(2014)	

* 주: 1) 정적 영향 요인과 부적 영향 요인에 모두 포함된 변인은 진하게 처리함.

넷째, <표 V-90>와 같이 각 시기별 주요 영향 요인의 수를 비교해 볼 때, 부모 및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은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조사된 변인들이 대부분인 반면, 심리·사회적응 영역은 조사가 시작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기 간 영향 요인 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은 대학 진학여부를 결정하고 난 뒤, 이를 위해 필요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 및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영역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조사된 변인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인 한 심리·사회적응 영역에서는 특정 시기에 조사된 변인을 중심으로 주요 영향 요인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심리·사회적응 영역에서 도출된 영향 요인이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다양한 특성이 종합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하여 초기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표 V-92. 영역 및 조사시기별 대학진학의 주요 영향 요인 수

영역	구분	2011~2013년			2014~2016년			2017~2019년			전체 (%)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부모 및 가정환경	요인 수	1	0	1	1	1	1	2	4	7	18
	소계(%)	2(11.1)			3(16.7)			13(72.2)			(100.0)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요인 수	1	2	1	2	2	3	7	5	7	30
	소계(%)	4(13.3)			7(23.3)			19(63.3)			(100.0)
심라사회 적응	요인 수	7	2	4	3	4	6	5	5	4	40
	소계(%)	13(32.5)			13(32.5)			14(35.0)			(100.0)

비진학자 309명을 대상으로 상용 또는 임시근로자 지위로 취업하는 것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탐색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대학진학의 주요 영향 요인에 비해 비진학자 취업의 영향 요인으로 도출된 변인의 모든 영역에서 38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본 분석에 사용된 비진학자 수는 309명으로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수준이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 후 2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비진학자가 가지는 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비진학자 취업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도출된 변인의 수도 대학진학 영향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출된 요인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한 후기청소년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향후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부모 및 가정환경 영역의 다양한 변인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외국 출신 부모님의 한국어 실력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대학진학의 영향 요인과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습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부모의 지원 및 개입과 관련된 변인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도출된 것과 다르게, 비진학자의 취업에는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님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이 주요 영향 요인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는 부모 및 가정에서의 직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다문화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된 다양한 활동들이 비록 대학진학의 정적 요인으로 도출되지는 않았으며 일부 변인은 부적 영향 요인으로 포함되었으나, 비진학자의 취업에는 주요 정적 영향요인으로 상당 부분 포함된 것도 의미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을 고려할 때, 대학에 진학하였다는 것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단지 다문화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물론 본 분석의 결과 결과만으로 비진학 다문화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활동을 계기로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그에 따른 결정이라고 일반화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문화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표 V-93. 비진학 다문화청소년 취업의 주요 영향 요인

영역	정적 영향 요인	부적 영향 요인
부모 및 가정 환경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2012, 2016)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2012) 외국 출신 부모님의 한국어 실력(2013, 2015, 2019)	
학교 환경 및 활동 경험	학교생활 만족도(2018, 2019) 학교수업태도(2012) 교사와의 관계(2012) 교우관계(2019) 교사의 지지(2012) 친구의 지지(2011) 사교육 경험: 인터넷 강의(2014) 방과 후 프로그램(2019) 진로장벽_ 자기이해(2019) 진로장벽_ 정보부족(2018, 2019) 다문화지원정책: 심리적응 프로그램(2013) 다문화지원정책: 방과 후 수업료 지원(2012, 2014) 다문화지원정책: 문화공연 관람(2016) 다문화지원정책: 대학생 멘토링(2014, 2016) 다문화지원정책: 놀이공원 방문(2016) 다문화지원정책: 특기적성 프로그램(2012) 다문화지원정책: 진로지원(2016) 다문화지원정책: 현금지원(2017)	학교공부의 어려움(2012) 학교생활에서 어려움(2011, 2015) 학교진로교육 만족도(2018) 성적에 대한 만족도(2012) 교사의 지지(2014) 사교육 경험: 학원(2018) 다문화지원정책: 한국어 교육(2012)

* 주: 1) 정적 영향 요인과 부적 영향 요인에 모두 포함된 변인은 진하게 처리함.

표 V-94. 영역 및 조사시기별 취업의 주요 영향 요인 수

영역	구분	2011~2013년			2014~2016년			2017~2019년			전체 (%)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부모 및 가정환경	요인 수	0	2	1	0	1	1	0	0	1	6
	소계(%)	3(50.0)			2(33.3)			1(16.7)			(100.0)
학교환경 및 활동 경험	요인 수	2	8	1	4	1	5	2	4	5	32
	소계(%)	11(34.4)			10(31.1)			12(37.5)			(100.0)

4. 요약 및 소결

본 장은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진학과 비진학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번 장의 결과를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태 및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을 제시하면,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대학진학자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타 집단으로 나누어 심리사회적응 및 가치관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은 대체로 적응적이고 건강하며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진로유형에 따라 네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학진학자와 상용근로직으로 취업을 한 경우 임시근로자와 기타 집단보다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은 임시근로자 집단이었다.

둘째,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큰 사람은 교사, 본인, 부모의 순이었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정보에 교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일반적인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다문화전형 등 유리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들이 이와 관련되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준비를 위하여 정보취득을 하는 사이트는 주로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매체가 가장 많았고, 창업준비자의 경우는 온라인 매체와 함께 친구나 지인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 또는 직접적인 취업관련 정보들을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크게 높지 않았으나, 한번 이용해 본 경우 도움이 된다는 만족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이 있으나 인지하고 이용하는 비율을 높인다면 보다 많은 후기청소년들이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졸 이후 대학에 입학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변인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집단 중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구분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대입 진학자와 비(非)진학자를 구분하는 변인 중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부모 및 가정환경 요인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효능감,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가족의지지, 고 2 시기 부모의 진로에 대한 무관심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임적 양육태도와 부모의 진로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위하여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성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감독적 양육태도를 지니고 지지해주는 것은 중요하나 방임이나 지나친 진로에 대한 강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환경 및 활동경험에서는 사교육경험이나 참여학습활동 수준, 방과후프로그램, 주관적 성적수준, 학교수업태도, 진로장벽인식(자기이해, 정보부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교공부의 어려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친한 친구의 수, 교사와의 관계, 각종 다문화정책 등은 대학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대학 입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교육과 학습요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진로장벽인식 중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기이해부족과 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각종 학교 내 인간관계나 다문화지원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이는 대학에 입학하는 청소년들이 확실한 진로의식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따라서 대입 이후에도 진로탐색의 기회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다문화지원정책의 경험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가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다문화지원정책의 대상이 되기 쉽고, 대학입학의

기회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각 변인별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심리사회적응요인으로는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초 4 시기의 삶의 만족도, 성취동기와 이중문화수용성 중 부모님 나라에 대한 수용성 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변인이 시기에 따라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기별로 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지는 현재로써 알 수 없으나, 심리·사회적응요인이 긍정적 발달에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비진학자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하는 요인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심리사회적응 영역에서는 요인이 산출되지 않았고 부모 및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및 활동경험영역에서만 영향요인들이 산출되었는데, 우선 부모 및 가정환경요인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외국출신 부모님의 한국어실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다문화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된 다양한 활동들이 대학진학자들과는 다르게 비진학자의 취업에는 주요 정적 영향요인으로 상당 부분 포함되었는데 이는 다문화지원정책의 효과가 다양한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언할 수 없고,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들을 좀 더 세밀화 및 정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제6장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적응현황 및 요구도 분석: 면접조사 분석

- 1. 조사개요
- 2. 분석결과
- 3. 요약 및 소결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적응현황 및 요구도 분석: 면접조사 분석²⁰⁾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면접조사는 패널데이터 분석결과와 함께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유형별 적응현황과 요구도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직접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2) 조사절차

면접조사를 위하여 우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리쿠르팅 질문지, 조사설명문, 조사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면접조사지, 생명윤리준수서 약서 및 연구자 생명윤리교육이수증을 제출하였고, 2022년 8월 1일자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203-HR-고유-003). 면접조사에 대한 IRB승인 이후 리쿠르팅 질문지에 근거하여 총 32명의 1기 패널조사 참여 청소년을 섭외하였고, 아래의 <표 VI-2>와 같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대학생, 취업자, 무직자(NEET) 등 세 집단별로 선정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에 대하여 섭외 시 유선을 통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준비된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미리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현장 FGI가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전체 조사 진행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FGI 진행 시 면접지는 피면접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비밀보장 및 익명성을 확인해 주었으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면담내용을 녹취하였으며,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20) 6장은 전경숙(명택대학교 교수)이 집필함.

표 VI-1. 면접조사 일시 및 조사대상자 수

집단	일시	조사대상자 수
대학생	2022년 8월 2일, 오후3시	6명 (남자 2명, 여자 4명)
	2022년 8월 3일, 오후3시	6명 (남자 3명, 여자 3명)
취업자	2022년 8월 2일, 오후 7시30분	4명 (남자 3명, 여자 1명)
	2022년 8월 3일, 오후 7시30분	6명 (여자 6명)
무직자(NEET)	2022년 8월 4일, 오전 10시30분	5명 (남자 3명, 여자 2명)
	2022년 8월 4일, 오후3시	5명 (남자 3명, 여자 2명)

3) 조사대상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1기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참여자로 다문화청소년 진로 유형에 따라 대학진학자, 취업자, 무직자(이하 NEET)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당 2개씩 총 6개 포커스 그룹을 모집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그룹 당 4~6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대학진학자 13명, 취업자 10명, NEET 9명, 총 32명이 FGI에 참여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14명, 여자 18명으로 여자가 좀 더 많았다. 어머니가 다문화 배경을 지닌 경우가 25명으로 대다수였으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7명 포함되었다. 부모 출신국은 상당수가 일본이고, 중국(조선족 포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등 다양하다.

진로 유형 중 대학진학자 그룹 총 13명은 현재 휴학 중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 재학 중이며, 주로 3학년 학생이다. 실용음악, 피아노 등 음대 계열 3명을 포함하여 이과와 문과가 적절히 섞여 있었는데, 남자는 주로 이과 계열, 여자는 주로 문과 계열인 경향을 보였다. 취업자 그룹은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이나 정규직 1명, 계약직 2명 이외에 대다수는 파트타임 근로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NEET 그룹은 현재 재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무직 상태로 다수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이었다.

거주지역은 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면접 장소를 서울 지역으로 정하여 대면 FGI를 진행하였으므로, 참여자 모집에서 이동 거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면접조사에 참여자인 1기 패널 청소년은 국내 출생 자녀이거나, 장기간 국내 체류자로 한국어 실력이 능통한 수준이어서 연구자진이 직접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1기 패널 청소년 현황은 <표 VI-2>와 같다.

표 VI-2. FGI 참여자(다문화청소년) 현황

ID	구분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모 출신국	개인별 특성
A01	대학진 학자	남	21	경기 시흥시	파키스탄(부)	일반고졸/ 전문대 휴학/ 경영학과 1학년 휴학 중(군입대)
A02		여	21	서울	일본	특목고졸/ 4년제 재학/ 피아노학과 3학년
A03		여	21	경기 평택시	우즈베키스탄	일반고졸/ 4년제 재학(해외)/ 심리학 희망 2학년
A04		남	21	서울 영등포구	일본	일반고졸/ 전문대 재학/ 실용음악과
A05		여	21	경기 군포시	일본(부)	자율고졸/ 4년제 재학/ 화학과 3학년
A06		여	21	서울 성북구	중국(한족, 기타 민족)	일반고졸/ 4년제 재학 / 국제어학과 3학년
A07		남	21	경기 파주시	키르기스스탄	기타학교 졸업 / 전문대 재학/ 전기, 기계과 1학년
A08		남	21	서울 용산구	일본(부)	일반고졸/ 4년제 재학/ 전자공학과 3학년
A09		여	21	경기 광명시	일본	일반고졸/ 4년제 재학/ 전자공학과 3학년
A10		여	21	서울 용산구	일본	일반고졸/ 4년제 재학/ 문헌정보학과 3학년
A11		남	21	경기 양주시	중국(조선족)	일반고졸 / 전문대 재학/ 실용음악과 2학년
A12		여	21	서울 종로구	네팔(부)	일반고졸/ 4년제 재학/ 상담심리학과 3학년
A13		여	21	전북 부안군	중국(조선족)	일반고졸/ 4년제 재학/ 중어중문 3학년
A14	취업자	남	21	서울 광진구	일본	자율고졸/ 체육시설(정규)
A15		남	20	서울 광진구	중국(조선족)	특성화고졸/ 주민센터(계약직) 2년차
A16		남	21	서울 용산구	일본	일반고졸/ 알바
A17		여	22	경기	캄보디아	일반고졸/ 알바(대입 준비)
A18		여	21	경기 남양주시	필리핀(부)	일반고졸/ 전문대졸 / 네일아트 직원 3년차
A19		여	21	서울 용산구	일본	일반고 자퇴, 검정고시(고졸)/ 웹디자인 3년차
A20		여	20	경기 가평군	필리핀	일반고졸/ 알바(대입 준비)
A21		여	21	인천 연수구	일본	특성화고졸/ 전문대졸/ 카페 알바(취준)

ID	구분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모 출신국	개인별 특성
A22		여	21	서울 종로구	네팔(부)	일반고졸/ 모 사업 보조, 식당 알바, 8개월
A23		여	21	서울 금천구	일본	특성화고졸 / 일반사무직 2년차(계약직)
A24	무직자 (NEET)	여	21	경기 수원시	일본	일반고졸/ 전문대졸/ 취업 후 퇴사 1년, 취업생
A25		남	21	서울 관악구	일본	자율고졸/ 취준, 군입대 대기
A26		남	21	경기 고양시	중국(조선족)	일반고졸/ 전역 후 취준, 타투, 디자인 분야
A27		남	21	서울 송파구	일본	특성화고졸/ 군 면제, 취준(게임 원화)
A28		여	21	서울 은평구	일본	특성화고졸/ 미용쪽 출근 예정
A29		여	21	경기 평택시	중국(한족, 기타민족)	일반고졸/ 취준
A30		남	21	경기 여주시	일본	특성화고졸/ 취준, 군복무 준비
A31		남	22	서울 금천구	중국(한족, 기타 민족)(부)	자율고졸/ 전문대졸(연기예술) / 군복무 준비
A32		남	21	서울 강동구	일본	일반고졸/ 4년제 자퇴 후 햄버거 요리 / 공익 예정

4)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각 집단별로 진로 선택 및 결정의 영향요인, 현재 생활의 고민 및 극복을 위한 노력, 향후 진로 계획 및 추진과정의 어려움과 지원 욕구, 초·중등 학령기 다문화정책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현행 정부의 청년정책인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다문화 청년정책의 필요성 및 서비스 욕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제시된 질문 이외에도 면담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서비스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개방적 질문을 포함하였다. 그룹별 주요 핵심적인 질문들은 표준화하여 질문하되, 조사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질문방식을 상황에 따라 수정 및 변경하고 정확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부가적인 질문과 예시를 제공하며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VI-3. FGI 면접지 내용

조사대상	조사내용
대학진학자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전공과 전공 선택 이유 ▪ 전공 선택 및 대학진학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 또는 기관 ▪ 현재 대학 생활의 어려움 및 고민 ▪ 졸업 후 진로 계획/ 고민이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 ▪ 졸업 후 진로 계획 관련 대학 및 기타 기관의 지원 여부 ▪ 원하는 진로 선택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나 도움 ▪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 ▪ 자신의 배움이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초·중등 학령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수혜 경험, 제공 주체/ 도움 정도 ▪ 대학 외 지역사회 센터(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 지원 욕구 ▪ 일반 청년정책의 인지 수준/ 정책 수혜 경험/ 이용 경로/ 도움 여부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 청년(19~24세)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취업자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직업/ 직종/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 ▪ 취업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 도움이 되었는지 ▪ 현재 직장생활의 어려움 및 고민 ▪ 향후 진로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 대학진학 계획/ 이유/ 준비 정도 ▪ 이직계획/ 이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욕구 ▪ 초·중등 학령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수혜 경험, 제공 주체/ 도움 정도 ▪ 지역사회 센터(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 지원 욕구 ▪ 일반 청년정책의 인지 수준/ 정책 수혜 경험/ 이용 경로/ 도움 여부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 청년(19~24세)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무직자(NEET)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황 ▪ 향후 계획/ 고민이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지/ 도움 내용/ 개선 필요성 ▪ 향후 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교육내용/ 장소 등 ▪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취·창업 시 필요한 지원/ 대학 진학 계획 여부/ 이유 ▪ 초·중등 학령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수혜 경험, 제공 주체/ 도움 정도 ▪ 지역사회 센터(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 지원 욕구 ▪ 일반 청년정책의 인지 수준/ 정책 수혜 경험/ 이용 경로/ 도움 여부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 청년(19~24세)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5) 분석방법

면담내용의 결과분석에 있어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녹취된 모든 내용을 전사하고 반복적으로 읽어가며 유목화 작업을 하였다. 각 유목화된 내용에서 도출된 주제에 적합한 분석 용어 및 단위를 결정하고 지속해서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면담내용을 보고서에 인용할 때는 부여된 고유 숫자를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였다(예시 : A01, A13 등).

2. 분석결과

1) 진로 선택 및 결정의 영향요인

현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경로와 그 과정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대다수 청소년은 혼자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였고 일부 부모님이나 교사의 조언이나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탐색하였다기보다 어쩌다 보니 현재의 학과와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게 일반적이다. 예체능의 경우는 진로 선택과정에서 오히려 부모님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고, 별다른 고민이나 생각 없이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1) 자발적 선택

스스로 진로를 선택한 경우는 혼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로 탐색을 시도한 후에 선택하였다기보다 우연히 혹은 어쩌다 보니 진로를 결정하게 된 경우로 세밀한 진로 계획과 탐색이 없다. 이는 대학의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취업이나 일자리 선택에 있어서 유사했다. 어릴 때부터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피아노 전공까지 하게 된 사례, 우연히 사람들의 이상 행동을 보면서 치료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 상담을 전공하게 되었다거나 심지어 아무 도움이나 조언 없이 그냥 혼자 선택하게 되었다는 등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진로 선택은 아니다. 학령기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취업자 및 NEET

A23 : 딱히 도움을 구한 사람은 없고요. 학교 다닐 때 전공을 살리려다 보니까 지금 회사에 다니게 된 거 같아요.

A20 : 저는 사실 이 직업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돈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연구자 : 000님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A30 : 도움을 받은 적은 없고 혼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혼자 알아서 결정하고..

대학진학자

연구자 : 피아노과는 언제부터 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A02 : 전공을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교회 피아노 반주 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간거라서요. 피아노를 해야겠다고 해서 피아노를 시작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연구자 : 상담 분야로 진로를 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A12 :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 치료해 주고 싶어서 혼자 결정하게 되었어요.

연구자 : 학생은 실용음악과를 선택한 계기가 있을까요?

A11 :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초중고생 때부터 음악을 자주 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용음악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 : 부모님, 선생님 상의 없이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A11 : 부모님에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두 분 다 반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그냥 했어요.

(2) 부모 혹은 교사의 영향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부모, 특히 부모의 다문화적 배경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출신의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접하다 보니 대학진학 시 전공학과로 중국어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담임교사도 중국 배경의 다문화가정임을 인지하여 중국어와 관련한 기회를 학생에게 다양하게 제공하고 조언한 것이 결국 진로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경우 현재 전공 중인 학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취업자 중 한 사례는 네팔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메뉴를 알게 되고, 인도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가 평생 직업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경험 중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현재 일하고 있긴 하지만 확고한 진로 의식은 없어 이들에게도 확고한 직업관과 진로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대학진학자

연구자 :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

A13 : 제가 느끼기에는 엄마? **엄마 영향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중국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접하게 되어서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좋은 경험이 많았어요. 제가 관심이 있고 관심 있는 게 보이고 선생님이 해 볼래 하면 하겠다고 하니깐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신 거 같아요.**

연구자 :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어중문학과를 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진 걸 수도 있겠네요?

A13 : 맞아요. **결과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자신감 같은 것도 얻어서 다른 거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되고 자세도 달라지고 그랬어요.

취업자

A22 : **이 직업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 거는 아버지인 한데** 엄청난 영향까지는 아니고요. 인도랑 네पाल이 가깝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도, 네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매뉴도 알겠고** 무슨 맛인지 알겠고 다 알아서 그냥 인도 음식점에서 음식 이름이나 맛 이런 거 서비스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 거 같아요.

연구자 : 앞으로도 네팔 관련된 일, 음식 관련된 일 하기를 본인도 원하시는 거예요? 적성에 맞는 거 같아요?

A22 : **맞는 거 같진 않거든요.** 웹 코딩하면서 상품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디자인도 하고 하는데 제가 딱히 잘한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사업이 엄청 잘 된다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도와 드리면서 그냥 하는 거지 이걸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여러 알바 하면서 젊을 때 경험을 많이 쌓자?** 이런 생각이어서 딱히 계획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조언과 영향으로 진로를 선택한 경우,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어머니가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자녀에게 학과 선택을 권유한 결과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여 만족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요리사인 자신의 꿈을 접고 부모님이 정해진 원예과로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의 경우는 현재 모두를 포기한 채 무직(니트) 상태로 머물면서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문화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대학진학자

연구자 :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

A07 : 저는 **중학교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 기계를 하고 있었는데 캐드라든지 선반, 머신 같은 기계 분야들이 저랑 맞아서 **어머니께서 전공에 맞는 대학을 먼저 알아보신 거예요**. 저에게 메카트로닉스과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전기와 기계를 융합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연구자 : 어머니가 그런 정보를?

A07 : 네. 알아보셨더라고요. **중학교까지는 거의 놀다시피 해서요. 고등학교 때는 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서 관련된 분야를 어머니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권해서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NEET

연구자 : 고등학교를 원예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학하게 되었어요?

A30 : **원예과는 아버지의 선택으로 가게 되었어요.**

연구자 :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거기가 나를 거다 정해주신 거예요?

A30 : **중학교 때까지 꿈이 요리시었는데** 부모님께서 요리는 취미로 하는 게 어떠냐, 꿈은 아니라고 하셔서 부모님 말 듣고, **공무원이 어떠냐 하셔서 부모님 말만 듣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갔는데 둘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자 : 고등학교 전형에 공무원이 있었던 거죠?

A30 : 공무원 학교는 아니지만 특성화고여서 고등학교 졸업자 특기생을 뽑아 가는 제도가 있어서 특기생을 노려서 갔는데 특기생이 성적이 높았고 진입장벽이 높았고 저랑 맞지도 않아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생활의 고민 및 극복을 위한 노력

현재 생활의 고민은 면접참여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대학진학자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에서 전공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 자격증 취득, 졸업 후 진로 등의 고민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취업자는 불완전한 비정규직 일자리,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저임금, 육체노동의 고단함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무직자(Neet)의 경우는 정보 부족, 군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1) 대학진학자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고민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

이 이루어지면서 교수와 선배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것에서 기인한 정보 부족, 경험과 스펙 부족을 비롯하여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 졸업 후 진로의 막막함,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지속해야 하는 고단함 등 다양하다. 특히, 2년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는 대학 생활과 대면 수업을 전혀 해보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하거나 편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고충이 많았고, 4년제 대학생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실습을 통한 실무 경험을 지난 2년간 전혀 해보지 못하고, 전공 분야와 관련된 스펙을 쌓을 수 없었던 점에 고민이 컸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의 부정적 영향에 다문화청소년이 더 크게 직면하고 있으므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진학자

연구자 : 현재 대학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까요?

A09 : 입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 3학년이긴 하지만 **1, 2학년을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을 보면 경험을 쌓은 것도 많고 스펙 쌓은 것도 많은데 **저는 스펙 같은 것도 없이 학년만 3학년이 되어서 다른 분들에 비해 경험도 스펙도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박차**다는 느낌이 요즘 가장 고민입니다.

A10 : 저도 비대면 수업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3학년이 되어서요.** 아는 교수님, 선배님들도 없어서 **졸업 후에 뭘 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게 큰 고민이에요.

A07 : 어려운 거는 **2년제다 보니까 자격증을 2년 안에 많이 따 놔야 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교수님께서 2학기부터 사람들 모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부족할 거 같아요.

A12 : 저도 자격증? 시간이 없어서요. 또 **실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론만 주로 다루다 보니까 나중에 취업할 때 경험이 없어서 무서워요.**

A09 :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바를 했고 진짜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다섯 번? 그 정도 나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1학년 때는 비대면이라 괜찮았는데 **3학년이 되니까 공부량은 많아지고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내야하고 하니까 아꼈던 돈은 벌어야 하니까 알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성적 받고 우울해지긴 했는데 식당 알바, 학원 알바, 과외도 하는데 사람들 만나니까 오히려 힘을 얻기도 해서 노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자는 마음으로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2) 취업자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에서는 현재 취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많은 고민과 갈등,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 사례에서는 웹디자이너라는

유망 직종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졸 학력과 그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한계에 직면하여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졸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격증 외에는 취득하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 자격증이 많이 요구되는 현실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괴리로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적인 갈등과 혼란 속에 고민하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전공한 회계 분야는 회사에 경리직으로 취업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더 선호하는 일은 손재주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창업하여 자유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므로 다른 자격증 취득과 새로운 직업을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다. 출퇴근과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야 하는 월급자보다 좀 더 자유롭고 수입도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 창업자를 더 선호하는 신세대적 발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취업자

연구자 :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A19 : **저는 일단 고졸이라는 것에 한계를 느껴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큰 장벽이 있고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도 커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구자 :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A19 : 네. 진급도 다르고 연봉도 다르니까 고졸로 오래 살아남기는 힘든 거 같아요.

A23 : 자격증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필수적인 것만 몇 개 따고 그냥 안 땀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격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A21 : 안정적으로 경리를 하자 해서 선택한 게 회계 쪽이거든요.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잘 안 풀릴 때 이거 해야 하는 게 맞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게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도 해야 하는데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계속 빈둥대다가 자격증 계속 떨어지고 이게 맞는 걸까 생각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취업자의 경우는 임금체불, 육체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서비스직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 일하는 속도 혹은 패턴의 상이함 등으로 겪는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취업자의 경우, 현재 취업하여

일은 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이 많고, 불안정한 저임금·저속련 직종에서 직업의 만족도가 낮으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이직을 희망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자

A20 : 어려움이라는 거는 금전적인 거죠. **월급을 제때 안 주거나 주휴수당을 안 챙겨 주거나, 알바생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카페에서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A22 : **홀서빙이다보니 많이 들어야 하니까, 쇠 그릇을 쓰니까 무겁거든요.** 식기가 많은데 그걸 한 손에 들고 움직여야 하니까 손목이랑 팔목이랑 다 아파요. 계속 서 있고 움직여야 하는 알바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요. 그리고 **사람 대하는 서비스직이니까 스트레스가, 안 좋게 말하면 진상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A18 : 일단 네일아트가 없어서 하는 직업이잖아요.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건강상의 문제가 많은 게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직업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2년 정도 했는데 벌써 제 손가락에 물집도 생기고 손목도 안 좋아져서 창업하게 된다면 직원을 써서 다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A23 : **저는 빨리빨리 해야 하는 일인데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 힘들었어요.** 일이 늦어질 때도 있고, 처음에는 제 성격에 안 맞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었어요.

(3) 무직자(NEET)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취업준비생이거나 군입대를 앞둔 상황이어서 그로 인한 고민과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인데, 금전적 지원이 안 되거나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무직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수강비 마련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하려는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선배나 지도자 등 인간관계의 부재, 긴 인턴 기간,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쉽게 취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민거리로 지적했다. 이 외, 군복무 준비 중인 청소년의 경우는 군대를 다녀와야 본격적인 취업 준비와 사회진출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어쩔 수 없이 니트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 현재 취업생 혹은 군입대를 앞두고 생활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24 : 지금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학원비는 매달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뭘 배우는 데 집중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걸로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연구자 :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네요. 00님은 어떠세요?

A26 : **저도 삼에 수강비를 내야 하는데 집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거 같고.** 나라에서 해 주는 지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투가 불법 의료 시술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나오는 거는 없어요.

A25 :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인들이 똑같이 게임 쪽 관련된 사람이니까 팁이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관련해서 **개발하다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A28 :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자인 쪽이 정규 디자이너가 되기 전까지 인턴 기간의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서...**사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의 열정페이로 일하고 인턴을 거의 2년 정도 넘게 해야, 도제님을 찾아야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서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A30 : 애매하게 꺼 있어서 안 된 건데, 취업지원제도를 받지 못한 이유가 **군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제도여서 군복무를 빨리 마쳐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게...답답한 상황이지요.**

연구자 : 제약이 군과 관련된 게 많은 거예요?

A30 : 네.

연구자 : 000님은 어때요?

A31 : **저도 군대가 제일 커요.**

3) 향후 진로 계획 및 추진과정의 어려움

(1) 대학진학자의 진로·취업 계획 및 지원 욕구

대학 재학 중인 청년들의 졸업 후 진로나 취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생각해보지 않았고 딱히 계획도 없다는 무계획 유형,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는 중이라는 고민 유형, 편입 혹은 대학원 진학 계획 유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공 수업이나 실습 등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아 아직 잘 모르겠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는 사례 등 안타까운 현실이 주를 이루었다.

대학진학자

연구자 : 대학 졸업하고는 뭐 하고 싶어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A03 : **잘 모르겠어요.**

A01 : **아직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생각해 보려고요.**

A10 : 저는 아직 **취업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딱히 계획이 없어요.**

A12 : 어려움은 실습이.. 취업할 때 어떻게 될 지 두렵고요. **자격증이 따로 있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A13 :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 같아요.**

한편,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할지, 전공 분야를 바꿀지, 취업할지 등을 고민 중인 청년들도 많았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주로 자신의 적성에 무엇이 맞을지 모르는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가 확대되고 진로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진로 설정에 필요한 정보 부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보를 어디에서 습득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대하여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진로 계획수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학진학자

A02 : 지금 고민인 게 전공 심화를 해서 **대학원을 피아노로 갈지 이룬 교수법이나 아니면 반주 이런 쪽으로 바질지**, 아니면 학교에 문화예술 경영학과라고 있는데 그 과도 복수 전공은 신청해 봤거든요. 거기로 빠져서 공연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할지 **고민하는 상태예요.**

연구자 :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A02 : **정보는 그냥 제 스스로 찾는 거밖에 없어요.** 일단 피아노는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서 학원을 차리시는 분 이런 쪽은 괜찮은데 문화예술 쪽은 아는 분이 없어서, **잘 몰라서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A05 : 보통 대학원을 가거나 기업에 취업하거나 하는데 **저는 대학원이 저랑 잘 맞지 않을 거 같아서 고민하고 있고요.** 3학년이라 이제 취업 정보, 기업정보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연구자 : 그런 정보는 어디서 알아봐요?

A05 : **보통 선배들에게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아는 선배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그래요. 그 외 정보는 스스로 알아보는 거죠

연구자 : 학교에 취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A05 : **취업지원센터 잘 되어 있다고 듣긴 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가보진 않았어요.**

전문대학이나 음대 등 2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주로 편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학업에 관심이 있어 계속 전공 지식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나 열정보다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이 어렵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기저에 있는 듯하였다. 편입이 안 되면 군대 가겠다고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학진학자

A04 : 올해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도 문화 쪽으로 가고 싶어서요. **편입시험을 본 다음에 안 되면 군대 가려고요.**

연구자 : 졸업 후 실용음악은 어디로 진로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A11 : **저 같은 경우는 편입이나 다른 학교에 졸업자 전형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편입 같은 경우 끝나고 바로 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학교생활이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게 걱정이예요.

A07 : 4년제라고 메카트로닉스 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편입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취업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 계획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사항으로는 대학에서 사회진출 시 필요한 다양한 실무 교육, 영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험·실습 기회 제공, 교육훈련비 지원 등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현행 정책이나 제도는 간단한 취미생활이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교육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공을 좀 더 심화하여 들을 수 있는 교육이나 강의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결국, 전공 관련 심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이를 위한 교육비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대학진학자

A09 : **내일배움 카드를 봤는데** 간단하게 취미생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많은데 **저는 조금 더 답하게 업무에서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거를 많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아직 다양한 종류의 강의는 많지 않아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 심화 교육을 받고 싶다?

A09 : 네. **비전공자들 교육 위주로 있어서 전공자들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08 : 저는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요.** 이게 외국으로 유학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면 그만이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기도 해서요. 너무 큰 거를 바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그게 되면 좋겠어요.

A07 : **자격증 관련된 건데 이론은 책을 독학을 할 수 있어도 제가 기계 전공이다 보니까 관련 기계가 없으면 실기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특정 기계를 배우고 싶으면 이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학에 없어서요, 그런 도움을 받고 싶네요.

A11 :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문화 그런 걸로 받은 적도 있고, **학원비 같은 거를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12 : **전공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비용이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요.

(2) 취업자의 미래 준비 및 지원 욕구

취업자 집단은 취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이 많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그리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근로이고, 상당수가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노력 정도는 높지 않다. 일부 고졸 학력으로는 높은 연봉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니 공부하는 데 하지 않겠다는 청년도 있다. 아직 자신의 적성에 맞는 좋아하는 직업을 찾지 못해서 당분간은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군입대라는 변수도 작용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하려는 성향도 반영된 결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방향의 연속선상에 있는 청년세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취업자

연구자 :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어요?

A23 : **아무래도 고졸과 대졸의 연봉도 다르고 일 배우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더라도 앞으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자 : 000님은 어때요?

A22 : **진학은 안 할 거 같고, 아예 안 할 거 같아요.** 아직 좋아하는 거를 못 찾아서, 그냥 무작정 아무 데나 들어간다 해도 제가 좋아야 꾸준히 할 수 있지, 안 좋아하면 꾸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살 거 같아요.**

A18 : 스무 살 당시에는 좀 힘들기는 했지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있던 했거든요.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해 보자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제 학교 전공이 네일아트과를 나왔거든요. 학교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장도 그렇게 이어진 거 같아요.

취업자 집단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했다. 유망 직종이나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아예 정보가 차단되기도 한다. 또한 더 나은 계획을 세우거나 미래에 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돈을 많이 모아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유와 역력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고 있었다.

취업자

연구자 : 가까운 미래에 관한 준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20 :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직업 말고도 다른 직업을 알아본다거나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저희 나이가 대가 평생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정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부족해서요.**

A19 : 저는 결국 다른 일을 준비하려면 지금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두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 두고 계획을 잘 세우거나 그런 거 밖에 없는 거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터넷에 정보가 정확히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저는 **인터넷 진짜 많이 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도 친구 때문에 들은 거지만** 그거 아니라도 정보가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 그런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서 SNS에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는데 접근성? 다들 아는 게 아니니까 애초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는 거 같아요.

A18 : 일단 제 진로 특성상 자격증을 떼다거나 다양한 세미나를 듣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관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아직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찾게 된다면 해 볼 의향이 있지만, **아직 접근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처럼 취업자 집단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목할 점은 현재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았고, 최근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지역사회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년지원 관련 센터나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홍보와 접근성 확대에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학령기에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지원을 받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오히려 지원이 더 축소되고 받기 어려워지는 느낌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다른 기관이나 센터의 도움을 받아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이므로, 스스로 정보를 찾고 개인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취업자

연구자 : 지역사회에 있는 센터나 기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앞으로 취업이나 진로 준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A20 : **취업, 진로에 대해서 딱히 도움 받은 기억은 없는데요.** 청소년이랑 어렸을 때 그런 지원을 꽤 받았던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인 되고 나서 지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있다면 알려 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A23 : **취업성공패키지를 했는데 저는 딱히 크게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명 들어 보고 면접 보고 하는데 **저랑 맞지 않은 회사를 추천해 줄 때가 있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강요하듯이 밀어 붙이는 것도 있어서 저는 딱히.. 도움이 안 되었어요.**

A20 : 네. 저 같은 경우처럼 대학 진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취업하고 나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일을 찾는대거나,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가 덜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많다고는 들었는데 아는 게 없어요.**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 그런 것도 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많이 검색하고 했는데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A19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확실히 정보인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취업할 수 있고 솔직히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교육 같은 거니까 인강이나 학원을 알아봐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A18 : **저도 일단 지원을 받은 거는 없지만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문화 기관에서 상담 같은 거를 받아 보지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진로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A21 : **저도 도움 받은 적 따로 없어요.**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인강 듣고 했는데 확실히 00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른 곳에서 받아도 내 개인 역량이 필요한 거 같아요.** 나를 키워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해요.

(3) 무직자(NEET)의 미래 준비 및 지원 욕구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집단은 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미래 준비는 군대를 먼저 다녀와서 시작되며,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에 주력하고 있었다. 군대 문제 때문에 혹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니트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별다른 진로 계획이나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는 무기력 상황에서 군대나 간다는 식의 청년도 있어서 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EET

A32 : 저는 군복무가 아니라 공익이라서 내년 공익 가는 거 기다리면서 쉬고 있어요. 공익 하면서 조금씩 생각하려고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요.**

A30 : 취업 준비 겸 군복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고 군대를 다녀와서 해야죠.**

A25 : 지금 게임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진로를 정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군대가 얽혀 있어서 애매해서 산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A26 : **일단 군대를 해결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이 꼬여서** 지금은 계속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A27 : **대학 진학 안 하고 군대도 면제라서 완전 백수 상태입니다.** 취업 준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기술직 학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포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만들면서 집에 있습니다.

니트 상태에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비롯하여 여러 난관에 직면하다가 니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지원이나 자원이 부족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사례도 발견되어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타투라는 특이 직종에 관심을 두어 진로를 설정하였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는 청년의 경우 산업체 복무로 군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외, 경제적인 문제, 하고 싶었던 일과 부모가 원하는 직종이 달라 시간을 허비하고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과정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자 : 미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26 :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타투가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보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요.

A25 : 저 같은 경우 원래도 게임 프로그램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데 군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중략) IT, 게임 프로그래밍 쪽도 산업체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 학원 다니면서 그쪽으로 준비 중이고요. 그건 있는 거 같아요. **계획을 짜면서 많이 복잡했던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걸 명확히 모르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A29 : 진로가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복학하고 나서 학원을 가려고.** 처음에는 제가 꿈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끝나서 돈만 벌자는 생각으로 결정했어요.**

A30 : 제가 원래 빵이 아니라 원예였는데, **제가 전공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따로따로 놀아서 확실한 기술이 없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확실히 취업하고 싶어요.**

연구자 : 왜 원예 쪽으로 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A30 : 처음에 원예를 간 이유도 공무원 때문에 갔던 건데 아버지의 주장으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고 어려운 거 같아서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안 돼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요.**

A31 : **저는 지금까지 한 게 좀 많아요.** 중학교 때는 운동선수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일반학교 다녔다가 이번에 연기 쪽으로 대학을 왔는데, 그래서 군대 가서 생각이 많아질 거 같아서, **뭘 해야 할지 어떤 쪽이 맞을지가 고민이 되어서** 요즘은 엄마 친구분 가게에서 잠깐 알바식으로 장사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관심이 생기고, 모르겠어요. **군대 가서 머리를 식히고 선택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것에 관한 정보, 실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창업 기회 확대, 내일배움카드에서 배울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요구를 피력했다. 청년층의 경우 지금까지 배워 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실무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현장에서 실무 체험이 가능한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길 희망하고 있었다.

연구자 :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할까요?

A28 : 저는 기술 분야다 보니까 기술 분야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다 해도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수준은 사실 아니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A25 : 청년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배워 왔던 거를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배우는 건 대학에서 배우더라도 실무 쪽으로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 위주로,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체험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A31 : 저는 창업 생각도 있긴 해서 **뭘 체험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재능이 있어도 스스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A32 : 내일배움 카드 같이, **내일배움 카드는 범위도 한정적이고 지원하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서 지원해 주거나 범위가 한정적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범위에 안에 포함되도록 이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좋을 거 같아요.**

4) 초·중등 학령기 다문화정책 및 서비스 이용 경험

(1) 이용 서비스 유형

초·중등 학령기에 어떤 다문화정책과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다수 면접참여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언급하였고, 지역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주관했으며,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리진 못하였다. 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한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 혹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나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외국에 갔었던 경험을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였다. 모국을 방문하거나 처음 경험해 보는 여행지 등 강한 인상을 남겼던 프로그램 위주로 좋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보다는 주로 교회나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했던 프로그램이며,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참여했다.

A13 : **고등학생 2학년 때 선생님이 알려 주신 건데 선생님 도움으로 면접 보고 중국 한 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이런 거를 왜 모르고 안 찾고 있었을까, 그 후로는 많이 찾아본 거 같아요.
연구자 :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A13 : **중국에 일주일 정도 문화교류 할 수 있는 거요. 대학교도 구경해 보고 중국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교류도 하고,** 거의 여행 느낌으로 놀러 다녔던 거 같아요.

A16 :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문화라고 중국을 다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과 후도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좋았어요.

A14 : 학교에서는, 저 초등학교 때 다문화가 많았거든요. **학교 말고 교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뭐 만들거나 어디 놀러 갔던 거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A15 : 초등학교 때 다문화 그걸로 **제주도 한 번 갔던 거 같은데** 그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연구자 : 초등학교 때는 많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나요?

A15 : **고등학교 때는 뭐 없었던 거 같고요. 중학교 때 한 번 다문화 가족들끼리 강원도 어딘가 가서 2박 3일 동안 했던 거** 기억나는 거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뭐 한 거 없는 거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 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어머니를 따라 학습멘토링 혹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단발적인 이벤트 성 행사였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으로 나라에서 학원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6개월 정도 단기간 이루어져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면접참여자들의 경우,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학습과 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중고등학생 때 학습지원과 학원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했다.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22 : 제가 고등학교 때 다문화센터가 저도 가깝게 있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를 했는데 그것도 잠깐 지원을, 약 6개월? 정도밖에 못 받았고요.** 제가 입시 미술을 하고 있었는데 3년 내내 받은 것도 아니고 **6개월밖에 안 받아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초중고에서 **학비 지원해 주시는 거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A23 : 저는 초등학교 때 동네 다문화 센터가 있어서 거길 다녔는데요. 거기서는 **대학생들이 봉사로 공부를 가르쳐 줬는데 그때 당시에만 도움이 되었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A19 : 저는 잘.. 없었던 거 같아요. 굉장히 **단발성 이벤트 행사 같은 한국문화체험 이런 데를 간다거나 가족들끼리 공연하는데 다녀온 거는 있는데** 어렸을 때라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커서는 제가 다문화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담임 선생님도 관심이 없어서, 저는 학습비 지원 이런 거를 좀 원했는데 정말 없었던 거 같아요.**

A21 : **무상급식이라든지 카드 같은 거 나눠 줘서 방학 때도 먹으라고 해 줬던 거 같고요.** 점점 크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졌다, 다문화가 많아졌다 하면서 그런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고요.

(2) 도움 정도

초·중등 학령기에 이용해 본 다문화청소년 지원 서비스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부와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고, 장학금으로 받은 지원금이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운데, 다문화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를 통해 학습지도를 받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A30 : 고등학교 때는 지원을 받지 못했고 초중학교 때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초등학교 때는 로봇공학이라고 해서 조립하는 거를 배웠는데 그 덕분인지 초등학교 꿈이 과학자였고** 중학교 때는 방과후 요리실습이라고 다문화센터 가서 요리를 하거나 학교에 가서 요리를 배웠는데 **그 덕분에 중학교 3년 동안 꿈이 요리사여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를 해 주는 게 취업, 진로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31 :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중학교 때 운동을 할 때 다문화 쪽으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만원 정도인가? 그때 20만원 받고 **운동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사서 도움이 되었어요.**

A24 : 초등학교 때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문화 멘토링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멘토 선생님과 같이 붙어서 공부를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초등학생이면 자발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단발성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는 의견이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시기에 자아정체감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A07 : 저도 똑같이 중학교 때 절약할 수 있는 시골마을 가서 캠프를 2박3일 갔던 거 같아요. 전기 절약하는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A12 :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미술공연 그런 것도 보러 가고 **경복궁도 가족들끼리 가고 그랬어요.**

A16 : 아무래도 방과 후 시간이 **놀거나 배우거나 하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연구자 : 그게 도움이 되었어요?

A16 :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이었던 거 같아요. 별로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A15 : **진로보다는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느낌**이어서요.

A25 :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지는 솔직히 체감하는 거는 **가족이랑 같이 아마 놀이공원 같은 데 보내 주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 덕분에 가족들과의 관계라든가 관습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초중고 시절에는 아무래도 다문화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올 시기인데 어느 정도 정립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어요.

(3) 프로그램 평가

이용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초·중등 학령기 때 지원을 받았더라면 자신이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정책이나 서비스에서의 개선점을 알아본 결과, 제공되었던 프로그램이 주로 문화체험이나 여가 프로그램이었으므로 진로 준비나 탐색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데 굳이 일반가정과 구분해서 이런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다문화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정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다문화가정을 분리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으로서 하나로 통합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인기로 진입한 다문화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는 국가정책에 대한 평가 혹은 사회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28 : **진로보다는 아무래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좋지 않았나 싶어요.** 여가생활도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런 게 좋지 않았나, 여가나 놀이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았던 거 같아요.

A26 : **진로적으로 도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없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때 놀이공원 한 번 갔던 거,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다문화가정도 한국 사회에 들어가 있는 가정이잖아요. 제가 직접 느꼈었던 게 **굳이 우리 집에 지원을 안 해 줘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왜 이쪽으로, 예산을 안 써도 될 가정까지 지원이 가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 같아요.**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문화 관련 예산이 있으면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세대? 주요 타겟들에게 지원이 직접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A15 : **굳이 다문화라서 주기보다는, 오히려 다문화만 주변 같듯이 일어날 거 같기도 하고요.** 똑같이 못 사는데 왜 개네만 주냐 그럴 거 같기도 하고

A25 :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어차피 다문화인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 아닌 사람들끼리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을 거 같긴 해요.**

A28 : 제가 생각하기에 다문화라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언어가 힘들어서 부모님과 소통하기 어렵다든지 한국말이 어려워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선 요구는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등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기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지나고 보니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이다. 다문화가정이라서 지원을 받는다고보다는 이중언어가 힘들어서, 부모님과 소통하기 어렵거나 한국말로 대화하는 게 어려워서 한국어 지원을 하는 등 다문화가정이라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의 소지는 적고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A28 : 저는 학습지랑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적도 있고 여가생활, 현장체험 학습이나 가족여행도 있었던 거 같은데 좋았던 거 같아요.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은 솔직히 없었던 거 같아서 진로 컨설팅 쪽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때 중점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A13 :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정보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지나고 보니 어디서 해 주는지 무슨 지원을 해 주는지 몰라서 놓친 것도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은 많았는데 활용을 못 했던거죠. 이중언어 교육 같은 것도 어렸을 때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해봤을 텐데…

A14 : **다문화끼리 일반사람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요.** 다 같이 놀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거요.

A28 : **다문화가족이라 지원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문화적 차이의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더 맞지 않나 싶긴 해요. 정책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5) 현행 정부의 청년정책 인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1)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나 서비스를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청년 통장, 청년 주택, 구직수당 정도를 일부 면접참여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면접참여자 대다수의 청년정책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대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때는 다문화 학생에게 학비 지원도 있었고, 방과 후 프로그램, 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별로 지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는 다문화 청년정책이 따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일반 청년정책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 청년들의 정책적 관심과 인지도에 따라 정책 수혜 체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은 청년 통장, 청년 주택 등을 들어 보긴 했는데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 크게 와 닿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여 수입이 있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통장 등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대학진학자

연구자 : 일반적인 청년 대상 정책을 알고 있나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A04 : 들어 보긴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 쓱 본 정도요.

A07 : 들어 본 게 대학교 때 외부 강사 오셔서 청년 관련해서 지원이 있다고만 해서, 그때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 본 게 없어요.

A01 : 청년희망적금, 주택적금 그 정도요. 들어보긴 했어요.

A13 : 요즘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거는 확실히 아는데 다른 거는 그냥 뭔가 딱 보고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 한 귀로 들려서 흘러가는 느낌으로 알아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 청년 통장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A13 : 제가 돈을 벌다 보니까 모으는 거에 관심도 있고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 거 많이 알아봤어요. 적금이나 투자, 채테크 그런 거 알아보면서 조건이 되는지 한 번 보고 찾아보면서 알았던 거 같아요.

현재 일하고 있는 취업자의 경우는 청년 통장이나 적금 등의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되므로 정책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년 통장 이외 청년 주택 등 다른 정책 사업의 경우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일하다 보면 정책이나 서비스를 검색하고 해당 여부를 따져서 신청할 여유가 없다고 한다. 특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제출 기한을 맞추어야 하고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취업자

A15 : 통장 해주는 거? 청년 통장, 청년 주택, 찾아보면 많긴 한데 뭐 하나 하면 나머지는 못하게 막아 버려서요.

연구자 : 그거 말고 다른 거는요?

A15 : 다른 거는 사실, 보통 취업 못한 사람들에게 카드 만들어 줘서 그걸로 학원 다니라고 해주는 거 있는데 그거는 취업해서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취업 못 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서요. 주택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요.

A14 : 저는 안 찾아봤어요. 일이 많아서요. 월-금 다 똑같아서, 집에 늦게 와요. 그리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 때문에 뭘 투자 못해요.

A17 : 저도 찾아봤는데 신청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아서 보면서 많이 복잡하다 느끼긴 했거든요. 심사 기간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시간도 안 맞고, 그 사이 일도 하고 있어서 해 보진 않았어요.

니트 상태에 있는 면접참여자의 경우 정책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정책 인지도가 높을 듯하지만, 상황은 대학생과 취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년정책을 알지도 못하고 지원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스스로 검색하거나 정보를 들어서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있으나 알아보고 절차가 복잡하여 중간에 그만두거나 해당 사항이 아니라 신청을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청년과 청년정책 이슈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부처별로 수많은 정책이 앞 다투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는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EET

연구자 : 혹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들어 봤어요?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나요?
 A24 : **청년정책은 잘 알지도 못하고 받은 적도...**
 A25 :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본 것도 있고 SNS에도 사실상 올라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중에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계속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50만 원씩 나오는 거를 보고 신청해 봤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정책 자체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A26 : **청년 통장 있잖아요. 그거는 알아보긴 했는데 귀찮아서 못 만들었고요.** 그거 말고 전세대출 같은 게 저희 토레부터 30대 초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A27 :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긴 했는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지원 못 받았어요.**

(2) 정책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정책 수혜 경험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도 소수에 불과했다. 대학생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례가 있었고 자신의 전공 지식을 심화할 수 있어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다.

대학진학자

연구자 : 청년 정책이나 서비스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도움은 되었나요?
 A09 : **내일배움카드요.** 배우고 싶던 프로그램 강의를 있었는데 90일 하는 데 45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배우고 싶고 일주일 무료수강을 해 봤는데 좋아서 알바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가 마침 그 사이트에서 내일배움카드 연계가 된다고 해서 눌러 봤더니 **3학년부터는 배울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2학년 때까지 참다가 3학년 올라갈 때 신청해서 받게 되었어요.**

취업자의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통장, 청년 주택, 월세 지원, 구직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대다수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여 이용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신청 자격에 제한이 많아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점과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고, 중단 없이 꾸준히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생 신분일 때 가장 유리한 정책이거나 대학을 졸업해야 가능한 정책으로, 고졸자는 제외되는 등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청년들의 정책 수혜 체감도는 낮은 점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취업자

A19 : 저는 월세 지원받은 경험이 있고요. 청년적금 이런 비슷한 계열의 청년들 목돈마련 하는 것도 했었고 내일배움카드도 했었고요. 저는 그런데 수시로 찾아보거든요. (중략) 조금 아쉬운 거는 기준이 높다는 거?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아서 선착순 같은 거는 아니지만 선발제, 추첨제 이런 게 많아서 생각보다는 그 기준에 들기는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꾸준히 일하는 청년 위주의 정책이 많았다고 해야 되나? 대학생 신분일 때 가장 유리한 느낌도 있고,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고 나서 가능한 프로그램도 많았고, 저는 하나 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A23 :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월 미만 알바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5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현금이라 아니라 제로페이라는 상품권 그런 걸로 주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어머니가 생활비로 쓰셨던 거 같아요.

A20 : 취업성공패키지를 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뒀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A18 : 아직 받은 적은 없지만 이번에 청년 주택을 넣기는 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NEET

A25 :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예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받고 나니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편, 서비스 이용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이용 의사가 있어 신청을 시도하였으나 선정기준이 높아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거나 신청 후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서비스 진입 장벽이 높을 경우, 서비스 이용 후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아 정책의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A21 : 혜택을 받고 싶지만, 혜택 기준점은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월 몇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어야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인에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아서 준다는 건지 안 준다고 하는 건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A18 : 진짜 그런 기준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거나 대학생이어야 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크더라고요. 정책은 있지만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그런.
- A22 : 제가 검색해서 정책 도움을 받으려고 해 봤는데 기간이 지나가 있거나 아직 멀었다거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구에 전화를 해 봐도 그런 사업 있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만들었지 싶기도 하고 딱히 도움을 받은 건 없었던 거 같아요.
- A23 : 저도 여러 가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도움받은 거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길거리 가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나마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서 했던 거고 누구나 쉽게 받아서 그것만 도움이 되었고 시에서 하는 거, 구에서 하는 거 다 기준이 높기도 한데 선정되는 심사 기간도 길다 보니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 A32 : 청년 통장인가? 그거 만들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수입이 좀 높다 보니까 제가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신청을 하려니까 부모님이 버는 돈의 한도가 있어서 신청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6) 다문화 청년정책의 필요성 및 서비스 욕구

(1) 필요성 인지 수준

다문화 배경을 지닌 후기 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일반적인 청년정책과 별도로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학생, 취업자, 무직자의 집단별 차이 없이, 굳이 다문화라고 하여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동의 정도가 일부 있었고, 정보습득이 쉽지 않아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문화 청년이 다수가 아니므로 소수자를 위한 정책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이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자란 청소년과 큰 차이가 없고,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임을 평소 의식하고 살지 않아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취업자의 경우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왜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몰라도 잘살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나한테 와서 국가에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대학진학자

연구자 : 일반 청년 정책과 별도로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까요?

A01 : 저는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연하게 **필요하다고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

A02 : 네.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정보를 잘 받는다면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거 같고요. **저희 나이에 다문화는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A03 : 저는 크고 나서는 다문화청소년으로 어렵다 이런 거를 느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한국에서 자란 청년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A04 : 저도 살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큰 차이를 느껴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별도의 지원은 생각 안 해 봤어요.**

A05 : 저도 **제 환경에서는 딱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의식을 하지 않아서 필요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게 없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어요.**

A06 : **저도 딱히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어요.**

취업자

A16 : **다문화라고 특별히 쥐야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 그런 지원들은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A16 : 그게 아니라 초중고, 성인 다 통틀어서 **소득이 낮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연구자 :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A16 : **굳이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돈이 나에게 와서 더 이롭게 할 거 같지 않고, 왜 주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문화라서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난하면 받겠는데 다문화고 몸도 멀쩡하고 잘살고 있는데 굳이 이 돈이 나에게 와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나? 그런...

니트 상태에 있는 면접참여자의 경우가 오히려 별도의 다문화 청년정책 필요성에 대한 더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었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정책효과는커녕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라고 따로 분류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방향이 중론이었다.

NEET

A28 : 교육이라든지 공동체 생활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필요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해요.**

A27 : 저도 똑 같아요.

A26 : 저는 오히려 **다문화가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문화가 아닌 친구들에게 역차별이 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고 뭐고 다 떠나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A25 : 저도 맥락 자체는 비슷한데 **다문화청소년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책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A24 : 저도 다문화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다문화가정에만 지원을 하는 거는 필요성을 모르겠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청년 이슈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사회적 갈등 상황이 빈번히 초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다문화 청년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을 부추기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년층이 아닌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도 청소년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런저런 지원이 있으니 교무실로 오라는 식의 공공연한 교사의 발언 때문에, 다문화청소년 당사자는 굳이 원치 않는 정보가 노출되어 상처를 받고, 놀림이나 차별, 언쟁으로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초래된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역효과는 여러 사례에서 발견되었으며, 한 일본 국적 배경을 지닌 면접참여자의 경우는 학창 시절 동료들로부터 대놓고 친일파 소리를 듣고, 역사책의 일제강점기 부분은 본인에게 읽도록 한 교사의 차별적 대우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다룰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정책이나 서비스는 그것을 원하는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하고, 특히 자아정체감 혼란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 A24 :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문화라고 해서 지원 이런 거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역차별? 차별성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 A25 :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지원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실 다문화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데 어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특별한가 하는 착각을 심어 줄 수 있어서 잘못된 흐름을 생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A26 : 저는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면 참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학교 측에서 지원 같은 게 들어 오잖아요. 대놓고 마이크에 대고 다문화 대상 누구누구 교무실로 와라. 굳이 원치 않는 정보일 수 있는데 노출이 되니까, 나이가 들면 모르겠는데 어릴 때 애들이 와서 너네 엄마 짱깨라며? 이러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따로 불러 주신다든지 아니면 섬세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어요.
- A28 : 저도 똑같이 생각인데 지원이라는 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좋은 곳에 올바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저도 애들이 너네 엄마 일본사람이라면서? 어리면 애들도 철이 없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친일파 소리도 듣고 선생님들도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2) 정책 및 서비스 욕구

별도의 다문화 청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일반적인 청년정책의 범위 안에서의 개선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먼저, 실효성이 높은 청년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등학교 때 진로교육과 직업탐색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므로 초기 성인기나 후기청소년기에도 다양한 직업탐색의 기회가 주어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을 확대하고 청년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하여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까다롭고 정책 수혜의 진입 장벽이 높을 경우, 아예 신청을 포기하거나 정책에 대한 불만족만 높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세심한 대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취업자

- A19 : 청년기에는 계속 직업탐색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기업과 연계를 해서 인턴십을 마련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론 상담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진짜 취업이면 취업, 대학 진학이면 진학 나눠서 봐 줬으면 좋겠어요
- A20 :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이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청년 정책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NEET

- A29 : 저는 청년직금을 들려고 했었는데요. 알바로 돈이 생겨서 만들려고 하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을 해야 만들 수 있다고 못 만들어서 절차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지원금의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일부 정책 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프로그램 참여비, 직업훈련 교육비 등으로 제한하여 당사자에게 정작 필요한 교재비나 기타 여비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 대학의 경우 취·창업 특강, 현장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단위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상황이나 욕구가 다르므로 취업 준비를 위한 개인단위의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원했다.

대학진학자

- A09 : 무료 프로그램을 열고 저희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생활비나 간단한 교재비, 식비 이런 것도 좀 부족해서, 교재도 책으로 보면 좋지만 친구, 선배들에게 빌려서도 공부하거든요. 프로그램 개최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생활비, 교재비 등을 더 지원하면 좋을 거 같고요.

끝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홍보를 확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가 정책 수혜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어릴 적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에 익숙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직접 여기저기 찾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정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홍보에 있어 다문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진학자

A07 : 저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찾아보면 있겠지만 **홍보를 잘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이런 혜택이 있는데 받아 보라고 **안내장이라도 보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12 : 저도 교재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 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 혜택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취업자

A19 : 확실히 청년 정책이 좀 더 포괄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정보를 수시로 알 수 있을 만한 통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A20 : 저도 정책, 사업의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안 되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이 된다고 해도 아예 신청을 못하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3. 요약 및 소결

1) 조사 결과 요약

이상에서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4. 면접조사 결과 요약

조사 대상자	구분	핵심 내용 및 시사점
다문화 청소년	1. 진로 선택 및 결정의 영향 요인	
	자발적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로 탐색을 시도한 후에 선택하였다기보다 우연히 혹은 어쩌다 보니 현재 진로를 결정하게 됨.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진로 계획과 선택이 부재하여 학령기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부모국의 언어 문화적 관심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줌. 부모의 직업관이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자녀의 진로 선택에 관여할 경우, 오히려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조사 대상자	구분	핵심 내용 및 시사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다문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과 조언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동기가 됨.
2. 현재 생활의 고민 및 극복을 위한 노력		
	대학 진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수와 선배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것에서 기인한 정보 부족, 졸업 후 진로를 위한 다양한 경험과 스펙 부족을 호소함.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 졸업 후 진로의 막막함,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지속해야 하는 고단함 등 다양함. 특히, 비대면 수업으로 실습을 통한 실무 경험을 지난 2년간 전혀 해 보지 못하고, 전공 분야와 관련된 스펙을 쌓을 수 없었던 점에 고민이 큼.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직종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졸 학력과 그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한계에 직면하여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 자격증이 많이 요구되는 현실에 대한 부담이 있음. 임금체불, 육체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서비직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현재 취업하여 일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이 많고, 불안정한 저임금·저숙련 직종에서 직업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임.
	무직자 (N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인데, 금전적 지원이 안 되어 수강비 마련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선배나 지도자 등 인간관계의 부재, 긴 인턴 기간,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쉽게 취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
3. 향후 진로 계획 및 추진과정의 어려움		
	대학 진학자의 진로·취업 계획 및 지원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공 수업이나 실습 등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아 진로 설정에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함. 진로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습득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경로를 알지 못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대하여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진로 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대학에서 사회진출 시 필요한 다양한 실무 교육, 영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험·실습 기회 제공, 교육 훈련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취업자의 미래 준비 및 지원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저임금 근로이고, 상당수가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노력 정도는 높지 않음. 일부 고졸 학력으로는 높은 연봉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체적인 미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 실제 지역사회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조사 대상자	구분	핵심 내용 및 시사점
		<p>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음.</p>
	<p>무직자 (NFI)의 미래 준비 및 지원 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비롯하여 여러 난관에 직면하다가 니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지원이나 자원이 부족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음. 이 외, 하고 싶었던 일과 부모가 권하는 직종이 달라 시간을 허비하고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과정의 어려움은 더욱 큰 상황임.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것에 관한 정보, 실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창업 기회 확대, 내일배움카드에서 배울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p>4. 초·중등 학령기 다문화 정책 서비스 이용 경험</p>		
	<p>이용 서비스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다수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언급하였고, 일부는 지역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 혹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하여는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단발적인 이벤트성 행사였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학습과 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중·고등학생 때 학습 지원과 학원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p>도움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부와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단발성이긴 하지만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임.
	<p>개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문화체험이나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중·고등학교 때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등 청소년기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 프로그램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를 확대할 것을 강조함. 다문화가정을 분리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있음.
<p>5. 현행 정부의 청년정책 인지 및 서비스 이용 경험</p>		
	<p>정책 인지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통장, 청년 주택, 구직수당 정도를 일부 면접참여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대다수 면접참여자의 청년정책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청년정책 이슈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부차별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나 체감도는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조사 대상자	구분	핵심 내용 및 시사점
	정책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정책 수혜 경험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도 소수에 불과함. 대학생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청년 통장을 만든 경험이 있음. • 취업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통장, 청년 주택, 월세 지원, 구직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대다수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여 이용 만족도가 높음. • 다만, 신청 자격에 제한이 많아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점과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이처럼 서비스 진입장벽이 높을 경우, 서비스 이용 후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아 정책의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다문화 청년정책의 필요성 및 서비스 욕구	
	필요성 인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다문화 청년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임. • 특히 취업자의 경우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왜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하나, 이 예산이 나한테 와서 국가에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함. •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정책효과는커녕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다문화라고 따로 분리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정책 및 서비스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청년 정책의 범위 안에서의 개선점은, 실효성이 높은 청년정책 확대를 우선 꼽음.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을 확대하고 청년이 원하는 관청은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 제고를 고려함. • 다음으로, 지원금의 사용처 확대를 요구함.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프로그램 참여비, 직업훈련 교육비 등으로 제한될 경우, 당사자에게 정작 필요한 교재비나 기타 여비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음. • 청년정책에 관한 홍보를 확대하여 가능한 많은 대상자가 정책 수혜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소결

위에서 요약한 다문화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며 소결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중등 학령기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진로 탐색과 진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면접참여자의 대다수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탐색하였다기보다 어쩌다 보니 현재의 학과와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경우가 다수였다. 부모의 다문화적 배경이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조언이 진로 설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전공학과나 직장에 대한 확고한 직업관이나 진로 의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녀의 직업관이 달라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진입이 늦어지거나 니트 상태로 머무는 사례도 있다.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 탐색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성년기로 진입하여 다양한 유형의 고민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위기 대응과 심리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에서 전공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 자격증 취득, 졸업 후 진로 등으로 고민하고 있고, 취업자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저임금, 육체노동의 고단함에 시달리고 있으며, 니트 상태의 무직자는 정보 부족,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나 지도자 등 인간관계의 부재, 군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제각각 직면한 문제는 다르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청년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 상담, 심리지원,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원활한 진입과 미래 준비를 위해 현행 청년정책의 세부 추진내용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다. 현행 청년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았고, 최근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역사회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간단한 취미생활이나 일반적인 교육 정도는 가능하지만, 자신의 전공을 좀 더 심화하여 들을 수 있는 교육이나 강의는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취업을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금의 경우 사용 용도를

프로그램 참여비, 직업훈련 교육비 등으로 제한하여 당사자에게 정작 필요한 교재비나 기타 여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도 지적되었다. 대학의 경우 취·창업 특강, 현장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단위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진로 준비를 위한 개인별 상황이나 욕구가 다르므로 맞춤형 지원으로의 전폭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 초·중등 학령기에 이용해 본 다문화청소년 지원 서비스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연령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대에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단발성 프로그램이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님 나라를 이해하고 부모님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친밀감을 느끼며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진로 준비나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하여 중·고등학교시기에 진로 탐색과 준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및 진로컨설팅 등 청소년기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수혜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책홍보와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청년 통장, 청년 주택 등을 들어 보긴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 크게 와 닿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적금, 월세 지원, 구직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일부 취업자의 경우, 대다수가 서비스 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이용 만족도가 높다. 다만, 신청 자격 기준이 높고,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등 정책 수혜 진입 장벽이 높음을 지적한다. 청년과 청년정책 이슈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부처별로 수많은 정책이 앞 다투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정책 수혜 체감도는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책홍보를 확대하고 접근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 배경을 지닌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커녕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에서 청년 이슈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사회적 갈등 상황이 빈번히 초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다문화 청년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을 부추기는 위험

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청년층이 아닌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서비스를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제7장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 1. 정책과제 도출의 절차
- 2. 심층분석의 주요결과와 정책적 함의
-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과제 도출의 절차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10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정책제안의 근거자료 준비 단계로 문헌연구, 콜로키움, 정책실무협의회,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자문, 정책포럼, 정책제안대회를 실시하였고, 총 8단계에 거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8단계에서 도출된 정책과 제안을 정리하여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정 후 최종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로 본격적 연구에 앞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물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하여 기존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와 주요 내용에 관한 콜로키움을 통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의 여성가족부 학교박청소년지원과의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고졸이후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하여 각 부처의 향후 계획과 현재의 정책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획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의 후원을 요청하였다.

4단계에서는 1기 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고졸이후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현황

21) 7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과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진로유형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5단계에서는 면접조사를 통하여 1기 패널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로유형별로 생활실태와 정책적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요구도, 특히 평생교육차원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7단계에서는 두 차례의 정책포럼을 통하여 후기청소년이 점차 증가하는 시점에 이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모색하고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경험을 들으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8단계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에서 평소 느끼고 있는 문제의 개선방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제안된 과제 중 후기청소년과 관련된 과제는 본 연구의 정책방안으로 발전시켰고, 그 외 제안된 다양한 영역의 과제들은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전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차로 본 연구의 심층주제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다시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타당성과 구체성 제고를 위한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최종수정안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도출의 절차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VII-1]과 같다.



* 출처: 양계민 외 (2014: 388) 그림 IX-1 수정

그림 VII-1. 본 연구의 정책과제 도출 절차

2. 심층분석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심층분석의 주제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분석, 후기청소년기 대상 정책분석, 패널자료분석, 면접 조사결과 분석, 콜로키움, 정책포럼 및 정책제안대회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절차에 따라 도출된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심층분석의 주요 결과

1. 선행연구 분석

주요 결과

-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졸 이후의 후기청소년기 연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국내로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생 및 성장한 집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 국내출생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내출생자와 국외출생 중도입국자의 취약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국내출생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차별화 문제와 약한 네트워크가 주요 이슈인 반면, 중도입국자는 일자리와 경제적 어려움, 직장 내 차별 등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경제활동비율이 국내 청소년 일반 고용률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인 후기청소년들도 전반적으로 진로 및 사회진출, 심리·사회적응, 주거와 금융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인턴십프로그램이나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은 추후 직업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일수록 높은 진로결정 효능감을 보임.
- 취업박람회는 정규직 여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기업 입사에 영향을 미침.
- 진로교육은 후기청소년에게 양질의 직업 획득 및 임금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침.
- 기업의 채용설명회, 취업행사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20대 후기의 취업스트레스는 우울, 자살생각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유발함.
- 미취업집단은 취업에 대한 압박이 우울감과 신체화 증상을 높임.
- 고졸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을 보임.
-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은 좌절감, 자살생각 등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감소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중됨.
- 학자금 대출상환의 부담이 첫 일자리 획득에 작용하여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출생 및 성장 집단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취약성에 대한 이슈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인턴십프로그램,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고졸 이후 비진학, 미취업상태의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 있음. ■ 다문화청소년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감소시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2. 정책분석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주관을 하여 진로 및 취업지원, 교육 및 훈련, 주거 및 금융지원 등의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한국폴리텍 다숨고등 학교와 서울다숨관광고등학교,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하여 추진하는 레인보우스쿨,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사업, 상담통역사 지원사업 등으로 주로 중도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직업교육의 내용도 한정적임. ■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한정되어 있고, 고졸 이후의 교육이나 지원은 단절되어 있음.
----------	-------------------------------------------------------------------------------------------------------------------------------------------------------------------------------------------------------------------------------------------------------------------------------------------------------------------------------------------------------------------------------------------------------------------------------------------------------------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모색할 필요 있음.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특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 일반적인 후기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음.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일반집단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면, 보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	--------------------------------------------------------------------------------------------------------------------------------------------------------------------------------------------------------------------------------------------------------------------------------------------------------------------------------------------------------------------------------------------

3. 패널자료 분석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은 대체로 적응적이고 건강하며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음. 그러나, 진로유형에 따라 네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학진학자와 상용근로자의 경우 임시근로자와 기타 집단보다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남. 가장 취약한 집단은 임시근로자 집단임. ■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큰 사람은 교사, 본인, 부모의 순임. ■ 취업준비를 위하여 정보취득을 하는 사이트는 주로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였고, 창업준비자의 경우는 온라인 매체와 함께 친구나 지인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한 비율이 높음. ■ 일을 하는 경우 소득수준은 높지 않음. ■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크게 높지 않았으나, 한번 이용해 본 경우 도움이 된다는 만족도는 높은 수준임. ■ 대입 진학자와 비(非)진학자를 구분하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가정환경 요인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효능감,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가족의지지, 고 2 시기 부모의 진로에 대한 무관심.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임적 양육태도와 부모의 진로강요임. · 학교환경 및 활동경험 영역에서는 사교육경험, 참여학습활동 수준, 방과후프로그램, 주관적 성적수준, 학교수업태도, 진로장벽인식(자기이해, 정보부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교공부의 어려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친한 친구의 수, 교사와의 관계, 각종 다문화정책 등은 대학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심리사회적응요인으로는 학교안팎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초 4 시기의 삶의 만족도, 성취동기와 이종문화수용성 중 부모님 나라에 대한 수용성 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비진학자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하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가정환경요인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외국출신 부모님의 한국어실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됨. · 다문화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된 다양한 활동들이 비진학자의 취업에 정적 영향 요인으로 포함됨.
----------	-------------------------------------------------------------------------------------------------------------------------------------------------------------------------------------------------------------------------------------------------------------------------------------------------------------------------------------------------------------------------------------------------------------------------------------------------------------------------------------------------------------------------------------------------------------------------------------------------------------------------------------------------------------------------------------------------------------------------------------------------------------------------------------------------------------------------------------------------------------------------------------------------------------------------------------------------------------------------------------------------------------------------------------------------------------------------------------------------------------------------------------------------------------------------------------------------------------------------------------------------------------------------------------------------------------------------------------------------------------------------------------------------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 또는 직접적인 취업관련 정보들을 모바일 앱 등 개발 고려 필요 ■ 보다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과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위하여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성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감독적 양육태도를 지니고 지지해주는 것은 중요하나 방임이나 지나친 진로에 대한 강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부모 교육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 있음. ■ 대학에 입학하는 청소년들이 확실한 진로의식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입 이후에도 진로탐색의 기회가 필요함. ■ 다문화지원정책의 효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

4. 면접조사결과 분석

<p>주요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탐색했다기 보다 어쩌다 현재의 학과나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응답함. ■ 교사의 높은 관심과 조언이 진로설정에 중요한 요인이 됨. ■ 현재의 전공학과나 직장에 대한 확고한 직업관이나 진로의식이 부재한 경우 많음. ■ 부모와 자녀의 직업관이 달라서 사회진입이 늦어지거나 니트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음. ■ 대학생은 코로나로 인하여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학업, 자격증취득, 졸업 후 진로 등으로 고민하고 있고, 취업자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저임금, 육체노동의 고단함에 시달리고 있으며, 니트 집단은 정보부족,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나 지도자 등 인간관계 부재, 군대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제각각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음.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청년정책이 다양하지만 실제 도움을 받은 경험은 거의 없음. ■ 보다 심화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강의는 부족함. ■ 취업을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금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비나 직업훈련 교육비 등에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 필요한 교재비나 기타 여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제한이 큼. ■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창업 특강이나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별 상황이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초·중등 학령기에 이용했던 다문화청소년 지원서비스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험이나 부모님 나라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한 경험 넓히기와 정서적 안정, 정체감 등에서는 도움이 되었으나 실제 진로준비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미흡함. ■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 체감도는 매우 낮음. ■ 다문화청소년 중 후기청소년기를 위한 별도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함. 역차별 논란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음.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학령기 다문화청소년 대상보다 체계적인 진로탐색과 진로교육프로그램 제공 필요 ■ 부모 대상 진로교육 필요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위기대응 및 심리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 있음. ■ 지역사회 내 개인상담, 심리지원,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높으며, 개인별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홍보 및 접근성 확대 및 정책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별도의 정책보다는 현재의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 및 고려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콜로키움의 시사점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연구쟁점과 교육정책에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생자와 중도입국자들은 주요 쟁점이 다름. · 학습생활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생존을 위해서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기 쉬움. · 이주배경을 고려한 자아실현과 체계적 진로개발이 필요함. · 한국사회적응, 경제적 여건, 사회적 관계망, 소득수준, 교육, 주거, 문화 등 다차원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하기 쉬움. ■ 취약계층청년, 범위와 정책, 그리고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년은 인적 속성 기준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일자리 특성이나 경제력 수준 등에서도 취약계층으로 중첩될 수 있음. · 취약계층 청년의 복합적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잠재적 사각지대의 사전적 예방이 필요함. · 취약계층 청년이 각자 경험하는 고유한 취약경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필요 · 실태조사 및 법적근거 등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반 구축 필요
----------	----------------------------------------------------------------------------------------------------------------------------------------------------------------------------------------------------------------------------------------------------------------------------------------------------------------------------------------------------------------------------------------------------------------------------------------------------------------------------------------------------------------------------------------------------------------------------------------------------------------------------------------------------------------------------------------------------------------------------------------------------------------------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이후의 다문화청소년의 위한 포괄적 교육지원망과 이주민의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발휘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정체성과 삶의 질, 학습생활과 교육적 요구, 일과 직업진로, 사회적 관계 외 시민참여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취약경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	---------------------------------------------------------------------------------------------------------------------------------------------------------------------------------------------------------------------------------------------------------------------------------------------------------------------------------------------------------------------------------------------------------------------------------------------------------------------------------------------------

6. 정책포럼의 시사점

주요 결과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수립되지 못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임.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의 큰 틀 내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 현재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모두 고등학교 이전의, 특히 저연령 저학년 중심의 정책들이 대부분이고, 후기청소년기 대상 정책은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후기청소년기의 고등교육기회 및 노동시장진출 및 적응 등 자립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모집단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구축과 실태조사가 필요함.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은 평생교육적 접근이 필요함.
- 평생교육은 청년기 성인학습자의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동 및 고용역량 제고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와 산업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접근임.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평생교육의 영역은 정체성과 삶의 질, 학습 및 교육지원, 진로, 직업 및 취업, 사회적 관계 및 시민참여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의 일반적인 후기청소년기의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더불어 다문화배경에 기인한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음.
- 지역 청년센터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이주배경청년에게 확대 적용이 필요함.
- 지자체 차원의 이주민지원기관들의 연계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지원시스템 적용이 필요함.
- 이주배경청년들을 청년정책위원회에 위촉 및 정책참여기회 제공 필요
- 이주배경 청년들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부서는 존재하지 않음.

(2차)

- 다문화청소년의 집단 내 다양성을 인정해주기 바람.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인식과 정책적 지원의 대상자라는 인식이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됨.
- 다문화가정들이 다문화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바람. 단편적 일시적 지원은 도움이 되지 못함.
-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진로상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인식이 변하는 도움일 받음.
- 다문화지원정책은 청소년의 성장과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함.
- 대학에 입학을 했어도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한국사회가 다문화에 대하여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바람.
- 지역자원 연계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정보접근성과 정보격차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1차)

- 지역사회 내 학습지원망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성장에 필요한 개별적 요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장소(온·오프라인)를 마련하는 방안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규모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작업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정례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전담 중앙정부 부서 및 인력배치 필요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구축 필요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집단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지원의 방식은 보다 성숙하고 세련된 방식이어야 함. ■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들의 요구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함. ■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은 가족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

2) 심층 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심층분석에서 선행연구, 콜로키움, 패널자료 분석, 면접조사, 정책포럼, 정책 실무협의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한 결과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총괄적으로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	결과의 시사점	정책적 함의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생 및 성장 집단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취약성에 대한 이슈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감소시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인턴십프로그램,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졸 이후 비진학, 미취업상태의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생 국내성장집단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실태 및 사회진출에 대한 지속적 조사 필요 ▶ 다문화청소년대상 인턴십프로그램,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 다문화청소년의 노동취약성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방안 모색 ▶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콜로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이후의 다문화청소년의 위한 포괄적 교육지원망과 이주민의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이 각 진로별, 배경특성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발휘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시스템을 다양한 영역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취약경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p>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시스템 활용방안 모색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적근거마련 필요
패널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 또는 직접적인 취업관련 정보들을 모바일 앱 등 개발 고려할 필요 ■ 보다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 다문화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위하여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성취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감독적 양육태도를 지니고 지지해주는 것은 중요하나 방임이나 지나친 진로에 대한 강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부모 교육 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 있음. ■ 고졸 이후에도 진로탐색의 기회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각종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접근성 제고 ▶ 고졸 이후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직업교육 등 활성화 ▶ 부모대상 자녀 진로교육 강화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임시근로자 및 무직자 심리지원시스템 구축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학령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보다 체계적인 진로탐색과 진로교육프로그램 제공필요 ■ 부모 대상 진로교육 필요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위기대응 및 심리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 있음. ■ 지역사회 내 개인상담, 심리지원,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높으며, 개인별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홍보 및 접근성 확대 및 정책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별도의 정책보다는 현재의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 및 고려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학령기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강화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심리지원시스템 강화 ▶ 청년정책 홍보 및 접근성 제고방안 모색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별도의 정책보다는 기존의 청년정책 내에서 세밀화 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이동청소년 규모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작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의 정례화 필요 ■ 성장에 필요한 개별적 요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이주배경청소년 전담 중앙정부 부서 및 인력 배치 필요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들의 요구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함. ■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 내 학습지원망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장소(온오프라인)를 마련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규모파악을 위한 행정통계생산 ▶ 이주배경청소년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지역사회 중심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상호교류, 정보교환 등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
정책실무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모두 고졸이후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이슈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포함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전 연령을 다루는 전담부서 설치 필요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시사점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그 방향성이 어떤 방향이든지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 자체는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은 초·중등연령의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초등생 중심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연령의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본 연구결과 설문조사나 면접조사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형태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 특히 여러 집단 중 국내출생 국내성장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일반 청년정책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기에 더더욱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입국하여 고졸이후의 연령이 된 청소년들의 경우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후기청소년기 또는 청년대상 지원정책 내에서 포함하되, 이들 집단이 특별히 지니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위한 기반마련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직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고민되지 않고 있고,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의 1기 패널이 있기는 하지만 후기청소년기 이후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21년 여성가족부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추진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의 경우도 일회적으로 추진한 이후 추진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 통합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지원이라는 입장으로 지원을 해 왔다. 이러한 지원들은 초·중·고등학교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이제는 고졸이후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이들의 성인기 사회통합의 문제를 면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을 전담하는 중앙부처의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적극적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기반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이슈는 역시 진로와 직업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저임금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인턴십이나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특히 취약한 것은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자원자력의 까다로움이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하기 위하여 취약한 측면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로와 직업 이외에도 후기청소년기 연령의 심리·사회적응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상담실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관도 있으나 고졸이후,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그 중에서도 임시근로자 또는 무직자들의 경우 이러한 심리·사회적응 측면에서 취약하기 쉽다.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의 문제는 진로 및 취업 이전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상태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제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학령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또는 다문화가족센터나 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진로를 탐색하며 직업을 찾는 작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년센터나 평생교육센터 등을 활용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금까지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과제로 정책연구와 달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2022년도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

첫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정책은 기본적인 일반 청년정책 내에서 함께 다루되, 이주배경자들이 가지는 취약성을 보완하여 일반청년들과의 성장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집단의 경우 별도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별도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은 사실상 정책추진에서 더욱 많은 측면을 고려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선의로 시작되었지만 정책의 효과와는 별개로 낙인효과 등 기대하지 않은 부작용을 산출한 과거 경험을 기초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일반 정책 내에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의 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서에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까지를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을 전담하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며,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중도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청소년들 대부분은 지원체계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통계생산, 정기적인 실태조사, 연령별 정책개발 및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인 진로와 취업과 관련하여 이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취업을 고민하고 있으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요구부합적인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청년취업 정책에 대한 정보에서도 취약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과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와 방향성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한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기반조성이고 둘째는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본 연구결과 심리사회적응이나 부모교육 등 다른 영역에 대한 함의도 도출되었으나 그러한 주제들은 다음번 연구주제로 넘기고 이번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한 진로 및 취업관련 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 및 제안하고자 하였다.

(1) 중앙부처 차원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담당부서 신설 및 정책추진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콜로키움, 정책제안대회, 정책협의회 등에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추진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이 과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제안대회에서 허승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이 제출한 과제안을 수정 보완함.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내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북한배경청소년, 유학생, 난민 등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전반 ○ 담당부서 역할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 관련 부처별 기능 총괄 및 조정 • 이주배경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실태조사 •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인구통계생산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현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서비스 실행을 위한 시설환경 조성,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전면적 조직개편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범위선정 및 지원체계 명확화 • 서비스 이력 관리를 통한 맞춤형 핀센 서비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구축 									
추진로드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2023</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2024</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2025</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 정책토론회 • 공청회 • 부처간 협의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작업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전담부서 신설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인구통계생산사전준비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준비작업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인구통계 생산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 </td> </tr> </tbody> </table>	2023	2024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 정책토론회 • 공청회 • 부처간 협의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전담부서 신설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인구통계생산사전준비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준비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인구통계 생산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
2023	2024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 정책토론회 • 공청회 • 부처간 협의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전담부서 신설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인구통계생산사전준비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준비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인구통계 생산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 								
담당부처	여성가족부(법 개정 시 담당부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의 생애주기적 일원화된 지원정책 추진을 통한 체계적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의 성장기회격차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 									

(2)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보제공 앱 개발 및 보급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선행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정보접근성에서 취약하고, 진로나 취업 등 정보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는 온라인 매체이며, 각종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과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제안대회에서 김효경(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이 제출한 과제안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고 Yousefi Rizi Houra(한양대학교 경영학과)의 제안을 일부 포함함.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생활법령, 생활 정보, 진로 및 취업지원, 커뮤니티 기능을 하며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전국에 있는 모든 후기 청소년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리케이션 내에 각 시·도별 지원 사항, 전국 기반 지원사항 등 본인의 지역을 설정하는 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구성함. • 초기화면에서 본인의 거주지 선택 → 화면에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정보가 제시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정부부처 단위의 일반 후기 청소년지원 정책 및 서비스 2) 도 단위의 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서비스 3) 거주지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 • 이주배경청소년인 경우 '이주배경' 항목을 클릭하면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책으로 이동 • 모든 섹션은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함. ○ 정보제공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직업적성검사 등 진로검사, 진로교육프로그램, 진로체험처, 대학입시 정보 등 연계 • 취업: 거주지 근처 상담기관 연계, 잡코리아, 잡플래닛 등 연계, 취업박람회 정보, 취업시 무료정장대여 사업 연계, 무료 비대면 면접 공간 제공기관 연계 • 학습: 한국어, 기초학습 관련 사이트 연계 및 학습멘토링 • 정보교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소통의 장 • 생활정보: 자취방 구하는 방법, 학자금을 대출 및 상환방법, 입출금 통장 만들기, 아르바이트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일자리 연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전화를 걸 수 있는 곳, 금융과 관련된 절차,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등 • 심리상담: 거주지 근처의 심리 상담기관 연계 • 법률상담: 체류자격, 비자문의, 비자유형별 취업가능처 • 통역서비스: 정부나 지자체 운영 무료 통번역서비스 기관 연계 						
추진로드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2023</th> <th style="width: 33%;">2024</th> <th style="width: 33%;">2025</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욕구조사 및 공동개발 • 애플리케이션 제작 • 콘텐츠 구축 • 홍보 및 유지방안 •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 보안 • 홍보 및 관리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 유지보수 • 홍보 및 관리 </td> </tr> </tbody> </table>	2023	2024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욕구조사 및 공동개발 • 애플리케이션 제작 • 콘텐츠 구축 • 홍보 및 유지방안 •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 보안 • 홍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 유지보수 • 홍보 및 관리
2023	2024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욕구조사 및 공동개발 • 애플리케이션 제작 • 콘텐츠 구축 • 홍보 및 유지방안 •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 보안 • 홍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 유지보수 • 홍보 및 관리 					
담당부처	여성가족부(법 개정 시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대효과	○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한 생활적응력 지원						

(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기 글로벌 취업박람회 개최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 면접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에 취약하고,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있으며 취업박람회가 양질의 일자리 취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이 과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제안대회에서 정서윤, 김서진, 정지민(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이 제출한 과제안을 수정·보완함. 		
정책방향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 정보제공과 취업을 제고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국의 모든 청소년 및 이주배경청소년 ○ 운영원칙: 일반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이주배경청소년 부스를 활용함. ○ 부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설명 부스(이주배경청소년을 요구하는 기업 부스)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 및 혜택 설명 부스 • 여성가족부에 실시하는 다문화 정책 및 혜택 설명 부스 •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팁, 필요한 자격증 등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 모의면접 부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기업에서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모셔서 모의 면접진행 - 모의 면접 참여희망자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취업 박람회에 참석 ○ 취업박람회를 위한 절차 및 준비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기업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시작 6개월 전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모집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 분야에서 취업 특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팸플릿 번역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국어로 번역된 팸플릿 제공 - 취업박람회에 대한 설명 및 부스, 특강 설명 및 위치 안내 내용. • 통역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박람회장 안에 통역사들을 배치하여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이 부스를 다닐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유니폼을 착용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참여 독려 협조 -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 등 SNS를 활용하여 취업박람회 홍보(앞의 이주배경 청소년 정보제공 앱에 홍보) - 참여 청소년과 기업의 취업박람회 만족도 조사 등 평가 - 부처별 결과평가회의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추진로드맵	2023	2024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회의 • 취업박람회 기획: 프로그램 구성, 기업, 통역사 모집 • 취업박람회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추진(서울경기인천/충청권/경상권/전라제주) • 메타버스 온라인 플랫폼에 상시채용정보 탑재 •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추진, 평가 및 개선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법 개정시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기대효과	이주배경청소년 취업정보 제공 및 외국어 능통자 요구 기업체 연계로 취업을 제고		

(4) 이주배경자 진로멘토링 및 네트워크링 지원사업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정책포럼에서 이주배경을 지닌 대상의 모델이 진로탐색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함. ○ 정책포럼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성장기를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함. ※ 이 과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제안대회에서 오명숙, 한귀연(경기도교육청 가족다문화과)이 제출한 과제안을 수정·보완함.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을 가지고 현재 한국사회에 적응한 사람이 진로 멘토가 되어 특강 및 강연을 하도록 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인식을 낮추는 기능을 하도록 함.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상: 이주배경 청소년(9세~24세) 및 다문화가족 ○ 사업내용: 이주배경 멘토의 자유주제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링 지원: 강연 후 강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진행 및 추후 진로캠프 • 온라인 서비스 병행 강연을 Youtube 채널에 업로드 ○ 운영방안: 공모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총괄) → 자치단체(사업주관) → 자치단체 직접 진행 혹은 기관위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여성가족부</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자치단체</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지역전문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 멘토 강연회공모 ·예산 확보 및 교부 ·강연 Youtube에 게재 ·이주배경 네트워크링 지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신청 ·이주배경 강연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연회 계획서 작성 ·강연자 추천 ·강연회 진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보고서 작성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간 정보 및 인프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우선선발 후 도시지역으로 확대 ○ 선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학교와 유관기관의 연계 필요 • 멘티모집을 위해 학교 및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지원센터 등 다각적인 홍보 필요: 유튜브로 제공할 경우 구독이벤트, 후기 댓글 선정이벤트 등 제공 • 온라인 업로드시 다국어 자막 필수제공 ○ 세부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자치단체 연 2회 개최 - 위탁기관 : Youtube 게재를 위한 영상 녹화 및 자치단체 송부 -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 강연, 여성가족부 Youtube 영상 게재 • 선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 및 지원을 받아 내부심사 후 강연자 선정 - 다양한 이주배경 멘토들을 초청하기 위해 강연자의 지역 제한은 없음 • 강연자 및 강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자)대안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학생, 직장인, 농업종사자, 군인, 교사 등 - (강연내용)나의 고입 성공기, 나의 대입전략, 나의 아르바이트 성공기, 나의 인맥관리, 나의 대학생활, 나의 전공 소개하기, 나의 첫 직장, 나의 한국사회 적응기 등 다양한 멘토링 콘텐츠 제공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지역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 멘토 강연회공모 ·예산 확보 및 교부 ·강연 Youtube에 게재 ·이주배경 네트워크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신청 ·이주배경 강연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연회 계획서 작성 ·강연자 추천 ·강연회 진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보고서 작성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지역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 멘토 강연회공모 ·예산 확보 및 교부 ·강연 Youtube에 게재 ·이주배경 네트워크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신청 ·이주배경 강연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연회 계획서 작성 ·강연자 추천 ·강연회 진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청소년 네트워크 지원 (여성가족부 직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연회 참석자 이후 참석자간 네트워킹을 통한 멘토링 차후 강연회 진행 지역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킹 대회 추진 차후 진로캠프로 연결(1박 2일) 		
추진로드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20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서 준비 강의계획, Youtube 영상준비(주제 및 강연자 섭외 계획) 사업공모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2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추진 기관 선정 강사 및 멘티 모집 행사장소 섭외 지역사회 홍보 강의 추진 및 Youtube 영상제작, 외국어 자막 준비 강연회 참석자 대상 멘토링 방학 중 진로캠프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2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사업 동일하게 추진하되, 개선점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div>
담당부처	여성가족부(법개정시 담당부처), 지자체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유사한 모델을 제기함으로써 진로효능감을 제고함. 사회적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한 이주배경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5)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지원(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패널자료분석 및 면접조사에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 맞춤형 지원에 대한 요구가 파악됨. ※ 이 과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제안대회에서 유난영, 김태준, 하소정(김포시청소년재단)이 제출한 과제안을 수정·보완함.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맞춤형 진로서비스 체계 마련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여 개별적 1:1 매칭 후 맞춤형 진로지도를 제공함.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국내 거주 중인 이주배경 후기청소년(만 18세 ~ 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취업지원체계 구축(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협업) 이주배경 청소년 활동 멘토 양성과정(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운영을 통한 특화된 인적 자원 확보 선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 연계 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 검토

교육부	•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고용노동부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활동지원 매니저 양성 및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방안
 - 교육부 : 재학 중인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중 동의자 연계
 - 여성가족부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 된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중 동의자 연계
 - 개별 지원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연계
 - ※ 대상자 연계는 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시스템 적용 참고

○ 단계별 추진내용

1)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 기초, 보수, 심화 3단계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초급과정	청소년의 이해, 다문화 이해(문화 감수성)	8시간
중급과정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10시간
심화과정	진학지도, 취업지원(이력서, 면접)	1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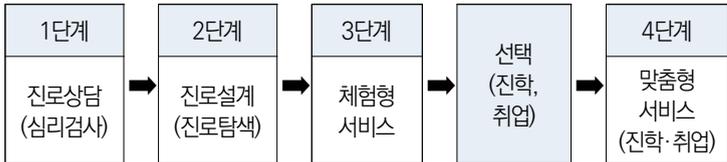
- 교육주관 :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연계(교육강좌 개설)

2) 레인보우커리어 매니저 양성

- 지원자격 : 한국어와 외국어가 가능한 성인(이주배경을 가진 성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 사업 대상자(정교사, 보육교사, 상담사, 지도사 등 자격 소지자)
- 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 28시간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

3) 청소년과의 1:1 매칭 및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동의 또는 지원한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 담당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등
- 내용 : 대상 청소년과 양성 된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를 연계하여 대상 청소년의 욕구와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진로지도를 하여 진학 및 취업을 도움



※ 4단계 맞춤형 진로 서비스

- 1단계(진로 상담) : 다양한 진로검사 및 상담을 통한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욕구 파악
- 2단계(진로 설계)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진로 설계(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연계)
- 3단계(체험형서비스)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취업박람회(고용노동부 주관 취업박람회와 연계),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맞춤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 : 학업지원, 대학입시컨설팅, 학비지원 정보 - 취업 : 자격증 취득지원, 직업체험 지원(단기), 일경험 지원(장기), 모의면접, 일자리 찾기 등 								
추진로드맵	<table border="1"> <thead> <tr> <th>2023</th> <th>2024</th> <th>2025</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부처별 업무 협의 • 맞춤형 지원모델 개발 • 지역별 수요도 조사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과정(초급, 중급, 심화)운영 • 이주배경청소년 모집 • 맞춤형 지원모델 시범 운영 및 평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과정 지속운영 • 맞춤형 진로지원프로그램 본격운영 •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td> </tr> </tbody> </table>	2023	2024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부처별 업무 협의 • 맞춤형 지원모델 개발 • 지역별 수요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과정(초급, 중급, 심화)운영 • 이주배경청소년 모집 • 맞춤형 지원모델 시범 운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과정 지속운영 • 맞춤형 진로지원프로그램 본격운영 •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2023	2024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부처별 업무 협의 • 맞춤형 지원모델 개발 • 지역별 수요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과정(초급, 중급, 심화)운영 • 이주배경청소년 모집 • 맞춤형 지원모델 시범 운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과정 지속운영 • 맞춤형 진로지원프로그램 본격운영 •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담당부처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법 개정시 담당부처), 교육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으로 취업률제고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사회적응력 제고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및 채용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 사회경제 활동인구 확보를 통한 사회경제적 안정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17-36.
- 강지영, 윤정윤, 최현자, 손상희 (2018).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11(4), 21-53.
-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0.6.25.). 정세균 국무총리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심의.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2022.2.4.). 김부겸 국무총리,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화령기 다문화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안), '22년 시행계획(안) 등 심의의결.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2). 2022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세종: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교육부 (2016).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
- 국토교통부 (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 권순보, 유진은 (2019). Elastic Net을 통한 교사의 직무만족도 관련 변수 탐색. **열린교육 연구**, 27(3), 1-23.
- 권혜진, 다그와터르지 아마르자르갈, 김학선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신념모델 (Health Belief Model) 이론의 국내와 국외 연구동향 비교분석. **산업혁신연구**, 38(2), 89-104.
- 김강남 (2019).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해 (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1-06). 서울: 여성가족부.
-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연구보고 21-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나영, 황혜영 (2020). Lasso 벌점회귀모형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업열의 관련 변수 탐색. **교육문화연구**, 26(6), 337-355.
- 김수성, 최경진 (2016). 대학 학자금 마련 저축 Plan의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미국 세법 Section 529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16(3), 245-274.
-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 조사 I: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연구보고 06-R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양분, 임현정, 남궁지영, 박희진, 이병식, 김위정 외 (2013).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고교 이후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 (연구보고 RR 2013-2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양수경, 이병식, 임후남, 최정윤 (2011). **한국교육종단 연구 2005 VII** (연구보고 RR2011-2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혜, 김다경 (2016). **경기도 다문화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보고서 2016-30).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유빈, 이지은, 신선옥, 정현상, 권익성 (2019). **한국노동패널 1~21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빈, 최충 (2017).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연구보고서 2017-02).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 김정은, 오영교 (2022). 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유형과 관련요인 분석. **직업능력 개발연구**, 25(1), 1-40.

- 김정희, 정일환, 정진철, 주동범, 이현민 (2016). 4년제 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전담기구 현황 분석. **진로교육**, 29(4), 1-28.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 19-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광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3-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영 (2014). 대학생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의 학습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7(4), 41-90.
- 김지혜, 김지림, 김철효, 김현미, 박영아, 이완, 허오영숙 (2019).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진희, 김경애, 한효정, 김태준, 공석기, 권진희, 김자영, 이로미, 박상미 (2020). **다문화 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 RR2020-19).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GGWF REPORT 2018-31). 경기: 경기복지재단.
-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19-R02-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2018).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1).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류경하, 김종남 (2019). 사회초년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과 속박감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4), 871-889.
- 박가열 (2009).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 박경호, 권희경, 박근영, 최인희, 송승원, 이병식 외 (2021). **2021 한국교육종단연구** (연구보고 RR 2021-28).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근영, 오지연, 장윤정, 이정환, 김은미, 설가인, 이상민, 이운정 (2019). **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통계자료 SM2019-09).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수시17-02). 세종: 국토연구원.
- 박민수, 김태현, 조은석, 김희발, 오희석 (2014). R을 이용한 벌점화 축소추정 기법 비교연구: 요크셔 돼지 산자수와 SNP에 대한 적용 사례. **농업생명과학연구**, 48(3), 147-155.
- 박세정 (2020).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가 대학생의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389-397.
- 박소영, 정혜원 (2022).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관련 주요 설명변수 탐색: 벌점화 회귀모형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23(1), 121-143.
- 박지현 (2020). 청년세대 주거 빈곤 경험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143-159.
- 박천수 (2018).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18(4), 51-75.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서덕희, 김은석, 조은혜, 임경환 (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MYF15-07).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5(3), 33-48.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계민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보고서** (연구보고 18-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연구보고 17-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 연구 II**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정윤미, 장운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MYF21-19-개)**. 서울: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
- 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9-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0-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한지형 (202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1-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8-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0).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염동기, 문상규, 박성수 (2017).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취업 진로연구**, 7(4), 45-68.
- 오미애, 최현수, 김수현, 장준혁, 진재현, 천미경 (2017).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연구보고서 2017-46).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유진, 김교성 (2019). 성별 · 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 연구**, 19(3), 1-35.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진은 (2019). 기계학습: 대용량/패널자료와 학습분석학 자료 분석으로의 활용. **교육 공학연구**, 35(2), 313-338.
- 유한구, 김영식, 류지영, 신동중, 이은혜 (2016).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기본사업 2016-10)**.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한구, 민숙원, 류지영, 신동준, 이은혜, 이의규, 정태화 (201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 (2017) (기본사업 2017-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우석 (2016).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95-118.
- 윤형준 (2019). 다문화 2세대의 성인 초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인문사회** 21, 10(6), 369-378.
- 윤혜준, 송창용, 황성수, 민숙원, 백원영, 이은혜, 이지은, 금예진, 김혜정, 박라인, 손희전, 윤종혁, 김영식 (2019).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2019) (기본사업 2019-09).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조사개요보고서**- (연구보고 03-R1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이택재 (2021).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도적 검토. 2021 가을호 고용 이슈**. 충북: 고용정보원.
- 이민희 (2018). **대학생의 부모애착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정, 남정민 (2021). 대학취업지원프로그램이 전공일치취업에 미치는 영향: 전공 만족도와 재학 중 근로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1), 97-116.
- 이승종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용호, 이원익 (2020). 청년의 부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7 (3), 227-253.

- 이유영, 양은주 (2015). 대학생의 온라인, 오프라인 사회관계자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9), 79-109.
- 이윤정 (1999).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계획**.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 **2021 사업활동보고서** (MYF22-01-개). 서울: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
- 이지민, 강영배 (2020).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심리적 독립과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4(-), 137-169.
- 이지연 (2001).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기본연구 01-11).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은, 정운경, 나현미, 임해경 (2019). 대학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대학생 진로교육 인식과 요구 분석. **취업진로연구**, 9(1), 55-75.
- 이춘양, 박미숙 (2017). 후기청소년기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 체류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1(3), 160-178.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87-10.
- 임유진 (2021). 청년 금융 복지적 관점의 학자금 대출 지원 정책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12(2), 2717-2731.
- 전경숙, 임양미, 양정선, 이의정 (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10-11).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외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연국보고서 2020-0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운경, 나현미, 이지은, 임해경 (2017). **고등교육단계의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기본 연구 2017-15).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재현 (2019).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책설계: 출산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79, 12-35.
- 정현경, 정윤희, 이혜선, 윤창국 (2018). 전문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유형화와 효과성 분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고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465-487.
- 정혜원, 김예림, 박소영 (2020). 초·중학생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별점화 회귀모형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673-693.
- 조인식 (2019).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60).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진보래 (2022). 대학생들의 경제 수준 인식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HCI학회 논문지**, 17(1), 15-23.
- 천영민, 정승철, 남기성 (2019).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1), 141-151.
- 최보람, 유진이 (2016).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1), 87-111.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21). **한국종사상지위분류 해설서**.
-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X: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8-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5.1.).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0(2)**.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준, 이희길, 정병은, 김대훈, 김월화 (2019).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한지희, 정소이, 김홍주 (2016).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따른 주택 개발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2(7), 3-12.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 (2018). **청년패널2007 11차(2017) 조사기초분석보고서** (기본사업 2018-107).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Arnett, J. J. (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133-143.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aker, R. W. and B. Siryk.(1984).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Caspi, A., Harrington, H., Moffitt, T. E., Milne, B. J., & Poulton, R. (2006). Socially isolated children 20 years later: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0*(8), 805-811.
- Friedman, J., Hastie, T., Tibshirani, R., Narasimhan, B., Tay, K., Siman, N., Qian, J., & Yang, J. (2022). Package 'glmnet': Lasso and Elastic-Net regularized generalized linear models.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glmnet/glmnet.pdf>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John F. Kennedy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erl, A. E., & Kennard, R. W. (1970). Ridge regression: Biased estimation for nonorthogonal problems. *Thecnometrics, 12*(1), 55-67.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ral Profiles of Emigrating Koreans, Non-Emigrating Koreans, and Korean-Canadian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 Portes, A., & Rumbaut, R. G. (2008).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CILS)*, 1991-2006.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weet, R., Anisef, P., Brown, R., Walters, D., & Phythian K. (2010). *Post-high school pathways of immigrant youth*. Toronto: Higher Education Quality Council of Ontario.
- Tibshirani, R. (1996). Regression shrinkage and selection via the lasso.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Statistical Methodology)*, 58(1), 267-288.
- UNICEF (2019) *Unpacking school-to-work transition : Data and evidence synthesis*. New York: UNICEF.
- Zou, H., & Hastie, T. (2005). Regularization and variable selection via the elastic net.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Statistical Methodology)*, 67(2), 301-320.

[인터넷 자료]

- 고용노동부 (202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2.do>에서 2022년 5월 31일 인출.
- 교육부 (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https://www.moe.go.kr/boardCnts/>

- view.do?boardID=294&boardSeq=8168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년 6월 2일, 10월 16일 인출.
- 교육부 (2021.1.27.). **2021년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 공고** 교육부 공고 제2021-27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lev=0&statusYN=W&s=moe&m=020502&opType=N&boardSeq=83359>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 교육부 (20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9066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2년 6월 2일, 10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8a).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20에서 2022년 2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8b).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8b0Ufd5zym+htGEMQ0vGDOpc.mogef21?mid=plc503&bbtSn=704771&pageIndex=1&upDispYn=&schBgnDt=&schEndDt=&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2.6.10.). **2022년도 내일이름학교 하반기 훈련기관 모집 공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02호**.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8606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2.8.2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61hsid+qLf9FnutmgMVIqLcE.mogef10?mid=plc502&bbtSn=202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2.10.11.). **'23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표(청소년)**. <http://kostat.go.kr>에서 2021년 7월 27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

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
0014&nttId=60528에서 2022년 6월 2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66841에서 2022년 6월 2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73857에서 2022년 6월 2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2년 6월 2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2월 12일, 6월 2일 인출.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14.do>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40101?cnId=1148>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https://sds.sen.hs.kr/>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종합포털. https://earlyuniv.kr/main01_23.html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300T.do>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_b01_s0.do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develop/content/863>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한국사학진흥재단. <https://www.happydorm.or.kr/hub/20/2010.kmc>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_submain02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https://www.kopo.ac.kr/dasom/content.do?menu=2400>에서 2022년 10월 12일, 10월 13일 인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http://www.kmooc.kr/about_intro/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 — 부 록

부록

▣ 다문화청소년패널 활용논문 리스트

1) 학위논문

(1) 박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강유선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발달산물의 관계	기톨릭대학교
곽은정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성결대학교
김관숙	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	조선대학교
김서정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적응특성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김수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김예은	2022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언어능력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김정량	2021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 장벽이 진로 준비성과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김평화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김효선	2020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박동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 우울의 종단적 분석: 성장혼합모형과 인과적 전이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순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박혜경	2022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진로 지지가 자녀의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 활동과 진로 준비 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명지대학교
손한결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오동균	2022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제주국제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오세비	2019	어머니의 문화통합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오혜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책개선 연구	충신대학교
우안순	2020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공동운동모형(CFM)을 적용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이덕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대한신학대학교
이은정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중단 연구	연세대학교
이현주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한양대학교
장선아	2021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장은애	2021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계명대학교
장은지	2020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동아대학교
장지현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부산대학교
전종순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정두수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정인숙	2022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지지가 진로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신한대학교
차한솔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및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호운운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및 언어적응 영향요인 연구	충북대학교
박지수	2020	Challenges and adjustment of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성균관대학교
박경미	2019	Child well-being in Korea	KDI 대학원

(2) 석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강다영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통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강연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진로교육 참여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사이버대학교
김령	2022	다문화어머니의 동화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	중앙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에 미치는 영향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연구	
김민수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중다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김슬기	2020	(The) Effe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서울대학교
김유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김정란	2022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과 진로지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건강과 부모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가야대학교
김현진	2021	Understanding the key factors associated with well-being and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 South Korea	이화여자대학교
김혜령	2021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녀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남상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문유진	202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민예지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경미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적 변인과 비다문화적 변인 분석	한남대학교
박다은	2022	청소년의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유강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배가령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변효범	202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보금로	2022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송현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신연주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신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왕예비	2020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라대학교
우영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요인, 부모진로지지, 자아존중감, 진로장벽과 진로태도결정성과의 구조적관계	가야대학교
유기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자본 잠재프로파일유형과 진로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육주홍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윤빛나	2019	포래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윤수민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윤예린	2020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한 다문화멘토링 사업 효과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이미화	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신체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동신대학교
이선민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이아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이은화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이지혜	2021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심리적 변인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이현녕	2022	다문화 가정 모(母)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울산대학교
이현정	2020	다문화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이혜니	2022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임미정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임정소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임준	2022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임지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정주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부산대학교
체렌람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조강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조수빈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송실대학교
조연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조은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집단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충북대학교
최은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학업적응 차이	연세대학교
최은지	2021	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최점순	2022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최지예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남대학교
최지원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하은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정서요인, 성취동기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구조적 관계	가야대학교
하차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Cui, Lina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Ghafary, Abdullatif	2022	Impact of parent's country on wellbe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Korea National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Kang, Lei	2021	Effect of 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on Adolescent's School Score	경희대학교
Li, Ling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 학술논문

(1) 국내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강민구, 박상희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주 사용언어에 미치는 다문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30(1)
강민구, 박상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요인 분석	인문사회21, 12(6)
강하라	2021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 양육행동을 매개로 초기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강하라, 노총래	2021	중학생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외모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강해순, 김현욱, 김소형	2022	다문화적 특성의 혼합분포군집 유형에 따른 초국적 이주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요소 분류예측 - 혼합분포군집분석과 CARET 중심	한국사회복지학, 74(1)
강희경	2019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 진로 지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2)
경예나, 박선영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녀진로태도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2(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고은선, 김성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고은선, 전한성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종단관계 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학부모연구, 8(1)
곽지영	2020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5
구자민, 윤희선, 이상록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구 빈곤이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구하라, 모경환, 성상환	2020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도 및 참여유형이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6(5)
권민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체육특기적성활동 참가와 교우관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권성연, 신소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인,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평생교육·HRD 연구, 18(3)
권혁준, 서종한	2022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1)
김기영, 고은선	2018	다문화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 분석	교육혁신연구, 28(1)
김동순, 박봉선, 이의빈, 손가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
김미진, 김경은	2021	중등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군집유형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1)
김민선	2019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 변화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8(4)
김민선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7(1)
김민수, 하수경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중다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김상용	20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자녀의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사회과학리뷰 7(1)
김서정	2021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와 영향요인	교육학연구, 59(1)
김선미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지역정책연구 33(1)
김소영, 홍세희	2019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 분석을 적용하여	조사연구, 20(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수미, 김현옥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2016년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 이용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3)
김영미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육아정책연구, 14(2)
김영미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 가족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49
김영배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한국어 사용 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6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김원영, 김경식	2020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김원영, 정나은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김원영, 정나은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탐색	교육연구논총, 41(4)
김유미, 황예린	2021	다문화 학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 다문화 학부모의 진로지와 자녀의 진로장벽 인식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0(4)
김윤정, 이진향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족지지 및 한국어 능력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경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종단적 교우관계 발달	청소년학연구, 27(9)
김은경, 조대현, 정윤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다집단분석	교육문화연구, 28(4)
김은혜, Cui, Lina, 노총래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8
김은혜, 최려나, 노총래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한국아동복지학, 70(3)
김자경, 오혜정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진로결정성, 진로장벽 인식의 관계: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3(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정은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김준범, 박성훈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김중곤	2020	집단 괴롭힘 피해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차별적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8(2)
김중곤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피해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김중곤	2022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발달의 성 차이	한국범죄학, 16(2)
김지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김진영, 이유진	202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김춘경, 조민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김태균	2021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3)
김태은, 함승환	2021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변용 전략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종단분석	다문화와 평화, 15(3)
김평화, 윤혜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김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관련 변인의 군집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과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차이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김형희, 김용섭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5)
김형희, 전종순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4)
김혜경, 어윤경	2021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진로활동, 성별, 지역의 개인차 효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김혜금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김혜미, 권태연	202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2)
김혜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다문화수용성이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12(1)
김희찬, 전구훈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무단결석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정서 차이: 자아존중감, 우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6)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족도와 한국어능력의 종단적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노보람, 최나야	2020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31(4)
노필순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부모관심,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8)
딩징야, 진미정	2019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 교육참여, 공적 교육 지원, 사교육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류도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성의 구조 분석	재활심리연구, 28(4)
류도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9(3)
맹미숙, 천미정, 정영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4)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4
목소리, 서보림, 정재경, 강민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문희정, 김은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 진로장벽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4(4)
민예지, 강현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2)
박경미	2019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1(4)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2)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9)
박동진, 김송미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보건과 복지, 23(1)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융복합지식학회는 논문지, 9(2)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1(8)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이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8)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	교육과학연구, 23(3)
박동진, 김송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우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7(3)
박동진, 김송미, 박경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5)
박동진, 김송미, 이지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 연구, 6(4)
박동진, 신태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그리고 우울로 이어지는 인과적 전이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9(7)
박동진, 이수진, 김송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4)
박동진, 이지연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6(3)
박명희	20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0(4)
박미현, 김희숙, 김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초기 자아 탄력성과 연도별 친구관계 지지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3)
박민아, 한명희, 서지영	202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2(2)
박봉환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4(1)
박선숙	2022	다문화 청소년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관련 변인 연구	미래사회 13(1)
박선숙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79
박선우, 정제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8(1)
박송주, 이보라	2021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군집과 고교진학 유형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3)
박순진, 백진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5)
박여주	2022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 생활 적응도가 자녀들의 비행과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탐구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2)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박유강, 권선주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 학회지 17(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일태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2)
박정심, 박수원, 이아람,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성취동기 및 진로결정성의 종단적 상호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19(1)
박정윤, 박현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박정윤, 채지은, 조몽적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2)
박준호, 성용은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변용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18(3)
박지수, 김하영, 한윤선	2021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유형별 예측요인: 긴장이론, 사회유대 이론 및 사회학습이론의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23(1)
박현주, 양영자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박혜숙	20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지각된 한국어 수준(한국어 효능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
박혜숙, 양상희	2017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양상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박희서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6(11)
박희서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6(12)
백성은, 조상현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2)
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정	교육학연구, 56(1)
백종규, 염동문	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3)
서봉언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비행 참여요인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9(2)
서현석, 김태균	2020	가족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효학연구, 31
성윤희, 장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손신영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3)
손은영, 서호찬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손한결, 김은혜,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성취동기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8(4)
손한결, 신나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중단적 안정성과 상호 영향	청소년학연구, 27(12)
송원일	202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적 역할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6(3)
송은, 임동선	2020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에 따른 군집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신소영, 권성연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구조관계분석	평생학습사회, 18(1)
신연주, 이경순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5(3)
심령	2020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들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안혜우, 엄명용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융합적 대응방안 모색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11(6)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양계민	2016	종단연구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 과제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 1(3)
양영미, 이선영	2020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4)
양영미, 조성심, 이선영	202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 및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관계: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1)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자녀의 진로, 심리, 학업 특성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3)
연은모, 최효식	2020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탐색: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2)
연은모, 최효식	2020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 추정 및 예측요인 탐색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9)
연은모, 최효식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 변화에 대한 개인, 부모, 학교 변인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연은모, 최효식	2022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학교생활 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0)
염동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중단적 변화양상과 변화양상별 영향요인	복지상담교육연구, 8(2)
염동문, 임채영, 김한솔	2019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잠재 프로파일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 35(3)
오동균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중등교육연구, 67(3)
오서진	2021	가족,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8차)를 중심으로	여가복지경영연구 (여가복지), 2(1)
오세현, 민예지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외모만족도와 우울감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오정아, 이영주, 김평화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모형 탐색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12(6)
오혜경, 고미숙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3)
오혜정, 손병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학교생활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우안순, 백진아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유두호, 최정윤	2022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역규모별 분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4(1)
유수정, 송현주, 박다운, 황연재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3(2)
유승현, 조성희	2022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6(1)
유승희	202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1)
유승희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4(1)
유승희	2020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5)
유승희, 최충	2020	중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궤적과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유지애	2020	자녀 학교생활 중개인(broker)으로서의 다문화가정 어머니 역할에 대한 검토-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학교생활 참여가 자녀 학습활동, 어머니 한국어 능력, 어머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2)
유지후, 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1(10)
유지희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양육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3
유창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13(3)
유효은, 이원기,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피해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8(1)
윤미리, 장유나, 홍세희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윤예린, 오범호	2020	다문화멘토링 사업 참여가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31(4)
윤은영	201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윤지영, 허은정	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윤현희, 김나영	2021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변화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6)
윤형덕, 임준, 김태균,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가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효학연구, 32
윤홍주, 최효식	201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른 방임 및 자녀의 학업성취 차이: 성장혼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2)
윤홍주,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 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12)
윤홍주, 최효식	2021	다문화 가정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변화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장벽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1)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이강훈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아동교육, 28(4)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공동운동모형(CFM)을 적용한 변화계적과 예측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68(1)
이경원	2021	문화반응이론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한국가족복지학, 26(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래혁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감독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1
이래혁	20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30(2)
이래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진로교육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어머니의 진로지지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4(3)
이래혁, 이재경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동기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6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습태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을 통한 친구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7(3)
이래혁, 장혜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교우관계와 사회적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2
이래혁, 장혜림	2021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11)
이래혁, 채형석, 오채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이래혁, 최홍일	2020	다문화가정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2)
이미화, 최진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신체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부모놀이치료 학회지, 11
이민술, 문국경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의 관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이민술, 박성철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을 조절변수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이보영	2021	어머니의 진로 관련 지지 행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진로 교육 및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태도를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8(6)
이상미	2022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Self-Perception and Relational Aspects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2(17)
이상은, 최나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경험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39(1)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이수민, 문찬주	2022	다문화 학부모의 문화적응 유형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8(4)
이승현, 황성현	2021	다문화청소년 비행에 대한 범죄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 검증	한국공인행정학회보, 30(2), 187-210
이영주, 박윤경, 이수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3(1)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4
이원석	2019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4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1)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1)
이윤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2)
이윤정	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이은경, 이선희	2019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에 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6)
이은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예측요인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4가지 언어 사용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중심으로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5(2)
이응택, 이은경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4(4)
이종훈, 김주섭	2022	다문화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장벽, 다문화 청소년의진로태도 준비성 간 구조관계	인문사회21, 13(4)
이주실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보, 4(2)
이주실	2022	균형적 이중언어구사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커밍스(J. Cummins)의 이중언어이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2)
이지선, 김정민	2021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및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지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 국가정체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48
이진경, 김혜미	2019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비교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1(2)
이진경, 이해정	2019	이중언어요인과 이중문화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이진석, 장대연, 최선아	2020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 연구, 66
이진선, 강영숙, 오종철	2021	다문화정책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다문화정책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이창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2(2)
이현,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분류 예측요인 탐색연구 - 잠재프로파일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이현주, 차윤경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이주배경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이형하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4)
이형하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5)
이형하	2021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간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적용	디지털융복합연구, 19(6)
이형하	2021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사회관계의 다중매개효과 및 성별 다집단분석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이혜미, 김유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성취동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이희정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 52(1)
인효연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임동선, 김선영, 김성진, 김소은, 양윤희	2021	다문화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언어 능력 종단분석: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6(1)
임동선, 김지애, 오수진, 조수정, 박원정	2021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 사용이 학생 및 부모요인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30(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임동선, 백수정, 김송이, 한지윤	2020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지지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임선아	2018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임숙희, 이진경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	인문사회21, 12(5)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3)
임양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8(6)
임양미	2020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및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상호 영향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임양미	2021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장벽인식에 미치는 영향: 진로지원행동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임유진	2022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4(1)
임은의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0(11)
임은의, 박미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관계: 자존감의 조절효과	다문화와 평화, 15(2)
임은의, 박미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태도와 교육관여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4)
임정수	2021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4(3)
임준, 김태균	2022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8(2)
임효진, 황매향, 최희철	202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아동·청소년기 자기존중감의 다중 발달단계적 특성과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장선아, 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 사회적 지지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
장유나, 오현정, 안소영, 홍세희	2020	성장호르몬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6(4)
장유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연구, 11(4)
장은실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대한 종단분석: 우울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장은애, 정현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9(2)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 학업성취 관련 요인의 지역 간 구조적 모형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 10(5)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장혜림, 이래혁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가족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70(1)
전대성	2021	이민의 역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전혜숙, 전종설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및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정나은, 김원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위축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정나은, 김원영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영향 요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정두수, 백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돌림 및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0(10)
정은아, 이소자	2021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응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4)
정재훈, 황성현, 박희균	2021	다문화청소년 비행 및 범죄와 범죄친구와의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3)
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청소년사실환경, 18(2)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2(3)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3)
조성희, 박소영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조승연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6
조연, 손은령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1(9)
조영미, 조강원, 임영식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방임이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조영선, 조영일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인문사회21, 10(5)
조영선, 조영일, 박수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3)
조옥선, 방해순	2018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4)
조옥선, 석말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융합연구, 19(6)
조윤영, 정현희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따른 잠재계층 전이 양상 및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8(1)
조은정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2(2)
조정은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의 방향	음악교육공학, 51
조현하, 강정미, 정유진	2022	다문화 어머니의 자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 스트레스 모형 적용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3(1)
조혜영, 오민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주소희, 오인근, 안세진	2021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구: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차한솔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스트레스, 사회적위축,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28(10)
천지은, 박지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사회적질연구, 5(2)
최가희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효능감에 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최미선, 김연옥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21세기 사회복지연구, 17(1)
최선엽	2021	Factors influencing positive subjective health awarenes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7(4)
최소연	2021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인문사회과학연구, 64(4)
최원미, 김우진	2022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한국어능력 발달에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12(2)
최정석, 최석규	2020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5)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최정윤, 유두호	2021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 주변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8(2)
최지원, 한윤선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승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탐구	청소년복지연구, 23(3)
최태진	2019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연령 변화에 따른 사회적지지 요인의 변화 분석 및 사회적지지 잠재집단 유형과 심리·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31(6)
최태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에 관한 연구: 어머니 자신의 적응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8)
최효식, 연은모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에 대한 부모감독,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래관계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최희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업 적응을 매개로	다문화교육연구 15(1)
강리, 최나야, 강소연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소수언어 구사수준: 이중문화 수용태도, 부모의 교육적 지원, 부모-자녀 간 소수언어 사용도의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4)
하여진	2021	다문화 청소년 지지유형 분류 및 인지-정서발달 차이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3(2)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효과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4(3)
하여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 잠재계층 유형분류 및 자녀 특성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6)
하영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10(6)
하영진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37(2)
한광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8(1)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7(1)
한광현, 강상경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
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 탐색	교육문화연구, 26(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한지은, 최윤철	2022	이주 배경 아동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 보호요인과 위험 요인	인문사회 21 13(2)
한지혜, 김경희	2020	부모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 연구, 64(1)
허나영, 김두섭	2021	Am I "Korean"?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n National Identity and Dual Identity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한국인구학, 44(1)
허무녕, 김춘경	2022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검증	다문화교육연구 15(2)
호효정, 박용한, 고한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초등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2)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2)
홍성초, 조제성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발달궤적의 차이 검증	한국치안행정논집, 17(4)
홍성초, 조제성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유형별 범죄이론 영향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홍진승, 이영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직렬이중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7(2)
홍현정, 안도희	2021	다문화 가정의 배경 특성과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 교우관계, 학교 적응 및 삶의 만족도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 10(2)
황희봉	202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지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2)
Choi, So-Yun	2021	Effects of Parental Support, Bicultural Acceptance, and Self-Esteem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9(4)
Jung, Hoyong	2020	An Examination of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Identity of Parents and Children: Evidenc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OMNES, 10(2)
Kim, Eun Hye, Nho, Choong Rai	2020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4(3)
Lee, Hyoung-Ha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4(1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Park, Jisu	2022	Acculturation trajectories of South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immigrant mothers and its association with adolescent adjustment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6(1)

(2) 해외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ling.	Stress and Health, 36(1)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4
Choe, Chung, Yu, Seunghee	2022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1)
Choe, Danbi	2021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st child neglect,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dropout risk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112
Choi, Jaeyong, Kruis, Nathan, Lee, Julak	2021	Target Congruence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Risk of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y Youth in South Korea	Crime & Delinquency
Jeon, HyeSook	2022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career barri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 among South Korea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2)
Joung, Kyoung Hwa, Chung, SungSuk	2022	Factors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Nurses, 38(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Jung, Hoyong	2020	I am a Real Korea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Multicultural Youth's National Identity	Asian Studies Review, 44(4)
Kang, Minkyung, Min, Ari, Min, Haeyoung	2022	Predict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in South Korea: Role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5
Kim, Eunjoo, Song, Min Kyung	2022	Profiles of Social Capital and the Association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Lee, Eun Jee, Jeong, Sookyung	2021	Analyzing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7)
Lee, Hyecheon, Lee, Hyeonkyeong, Kim, Youlim, Lee, Mikyung, Park, Chang Gi,	2022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 random 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for 3-wave panel dat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7(4)
No, Boram, Kang, Sujeong, Lee, NamKyung, Choi, Naya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rajectories of Ego-resilience, Neglectful Parenting, Bilingual Competenc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Sustainability, 12(5)
Oh, Hyejeong, Kim, Jinho	2021	Affective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The cas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9
Park, Si-On, Bae, Sung-Man	2021	The verification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Current Psychology
Song, Min Kyung, Yoon, Ju Young Kim, Eunjoo	2020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1)
Yoo, Changmin	2021	Acculturation strategies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in South Korea: Marginalization, separatio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1

3) 학술대회

(1)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MAPS 학술대회)」

이름	제목
김기영, 고은선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내용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김남희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김민주, 윤기봉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김양희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우진, 심태은, 정지아, 이승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김원영, 김경식	사회적 지지가 넘겨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김준범, 박성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박명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박애스터, 김두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2011-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박용한, 이신동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박혜숙, 양상희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백승희, 박소영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백종규, 염동문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봉초운, 정윤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서봉언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오정아, 한애경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유봉애, 옥경희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

이름	제목
윤지영, 허은정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이소연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이은택, 이은경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구
이희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효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임선아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장주리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정민아, 김은혜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정효용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옥선, 방해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현주, 하영진	다문화청소년의 심라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한애경, 김평화, 오정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홍나미, 박현정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2) 외부학술대회

이름	연도	제목	학술대회
김미희, 최가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집단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8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2018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두예슬	2022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통계청 논문 공모전
신형진	2017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사회화 유형: 2015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의 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이름	연도	제목	학술대회
이은지, 정수경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 영향요인 비교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이형하, 라연희, 송현주, 용정미, 윤정희	2019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이형하, 김지선, 김지원, 송현경, 최은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6
장은애, 정현희	2020	다문화가정 초기청소년의 문화정체성 잠재프로파일과 영향요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조정래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가시적 소수자 특성은 학교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 다문화 청소년의 외모적 차이와 그 영향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12
한광현	2019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
한도현, 안명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Eunjoo, Kim, Min Kyung, Song	2021	Social Capital and Depressive Symptom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 A Latent Profile Analysis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21(10)
Minah, Park, Myeunghee, Han, Jiyeong, Seo	2021	A longitudinal study on affecting factors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21(10)

4) 기타 연구보고서

이름	연도	제목	보고서명
김경근	2019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9
정은별, 김지은, 김지현, 박수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21
조승연	2020. 08.14.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결정 요인 분석,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의용 논문 W50

▣ 상대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기준	상대표준오차 25% 미만	상대표준오차 25% 이상 50% 미만	상대표준오차 50% 이상
신뢰도	- 사례 수(표본규모) 10 이상 : 신뢰도가 높음. - 사례 수(표본규모) 10 : 신뢰도가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주의하여 이용)	신뢰도 낮음. (주의 필요)

* 출처: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

표 1.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 진로유형별

	진학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타	전체
동거 상대표준오차	2.06	8.52	5.61	2.25	1.58
비동거 상대표준오차	4.69	11.16	19.94	19.19	4.15
독립 상대표준오차	88.89	18.93	41.59	42.68	16.40

표 2. 대학 선택 영향 준 요인

	1순위 상대표준오차	2 순위 상대표준오차	합계 상대표준오차
본인의 적성과 희망	4.73	7.06	3.30
본인의 성적	5.41	6.82	3.64
취업전망	7.96	7.53	5.02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	11.74	7.30	5.86
대학의 사회적 평판	9.52	13.34	7.45
지리적 여건(통학 편리성 등)	14.21	10.53	8.20
장학금 혜택	19.68	12.92	10.63
가정형편	24.74	18.59	14.79
대학홍보	30.53	18.97	16.42
기타	34.86	30.22	22.75

표 3. 전공계열 및 학과 선택 영향 준 요인

	1순위 상대표준오차	2순위 상대표준오차	합계 상대표준오차
본인의 적성과 희망	3.72	7.17	2.67
취업전망	7.06	6.21	4.11
본인의 성적	6.80	7.72	4.58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	10.10	6.18	4.88
전공의 사회적 평판	12.43	11.43	8.19
지리적 여건(동학 편리성 등)	31.83	18.07	15.65
가정형편	27.22	20.12	16.03
장학금 혜택	27.42	20.89	16.39
전공계열 및 학과 홍보	31.91	21.86	17.90
기타	29.04	50.00	25.06

표 4. 대학입시 전형 준비에 영향을 준 사람

	1순위 상대표준오차	2순위 상대표준오차	합계 상대표준오차
본인	3.01	6.45	1.99
부모님	11.95	7.25	5.89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22.76	19.95	14.84
학교선생님	4.89	4.82	2.65
학원선생님	14.51	14.49	9.94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48.72	87.95	42.64
친구	20.52	8.47	7.73
기타	35.24	35.42	24.80

표 5.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

	1순위 상대표준오차	2순위 상대표준오차	합계 상대표준오차
본인	4.04	5.40	2.40
부모님	13.03	8.90	7.09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25.60	18.45	14.81
학교선생님	3.78	5.41	2.24
학원선생님	12.16	14.97	9.08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60.17	49.40	38.09
친구	17.63	7.48	6.76
기타	25.68	30.18	19.47

표 6. 대학 진학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1순위 상대표준오차	2순위 상대표준오차	합계 상대표준오차
본인	2.31	7.20	1.53
부모님	7.77	4.79	3.60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34.93	16.85	15.02
학교선생님	7.78	5.53	4.08
학원선생님	22.04	17.35	13.52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85.26	59.28	48.68
친구	27.04	11.29	10.35
기타	35.11	32.32	25.16

표 7. 입학한 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1순위 상대표준오차	2순위 상대표준오차	합계 상대표준오차
본인	2.28	6.85	1.43
부모님	8.53	4.99	3.92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28.43	18.36	15.29
학교선생님	7.51	5.65	4.04
학원선생님	20.74	19.11	13.86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	60.17	60.17
친구	28.41	10.64	9.94
기타	33.31	43.03	26.28

표 8. 전공계열 및 학부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1순위 상대표준오차	2순위 상대표준오차	합계 상대표준오차
본인	1.83	7.74	1.09
부모님	10.93	5.35	4.62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35.42	20.12	17.42
학교선생님	8.69	5.60	4.39
학원선생님	25.91	15.20	13.07
다문화 관련 기관의 선생님	84.93	61.70	49.93
친구	34.83	10.35	9.98
기타	31.34	88.93	29.56

표 9. 지난 학기(2020년 1학기) 등록금 마련 방법

	1순위 상대표준오차	2순위 상대표준오차	합계 상대표준오차
부모의 도움	2.47	8.39	1.94
형제, 자매의 도움	-	50.29	50.29
조부모 또는 친척의 도움	27.34	23.49	17.82
본인이 직접 마련함	27.08	18.40	15.23
장학금(코로나19로 인해 장학금 형태로 반환된 등록금 제외)	4.54	4.04	2.65
본인이나 부모님이 학자금 또는 개인대출을 통해 마련	20.95	17.76	13.54
기타	61.25	84.93	49.69

표 10. 차별한 사람 및 차별과 무시의 정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약간 차별을 받았다)	차별 받지 않았다 (별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해당없음
친구 및 학교 선후배 상대표준오차	0.00	21.99	87.95
선생님 상대표준오차	-	10.99	87.95
고용주 또는 직장동료 상대표준오차	0.00	0.00	-
군대 내 상관이나 동료 상대표준오차	-	-	0.00
동네사람 상대표준오차	43.97	12.56	-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상대표준오차	43.97	12.56	-
복지시설 종사자 상대표준오차	-	17.95	62.83
일반 공무원 상대표준오차	-	17.95	62.83
의료인 상대표준오차	87.95	10.99	-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상대표준오차	87.95	10.99	-
기타 상대표준오차	43.97	-	12.56

표 11.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향후 사회진출과정에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매우 낮다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높다 (높은 편이다+매우 높다)
진학자 상대표준오차	2.78	4.08	15.08
상용근로자 상대표준오차	5.82	13.07	43.02
임시근로자 상대표준오차	9.52	12.04	33.94
기타 상대표준오차	5.29	8.04	32.10
전체 상대표준오차	2.22	3.38	12.11

표 12. 집단별 희망 학력 수준

	고등학교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과정 (석사+박사)
진학자 상대표준오차	87.06	5.62	2.34	10.16
상용근로자 상대표준오차	7.13	19.15	14.75	60.49
임시근로자 상대표준오차	9.28	21.05	17.31	49.49
기타 상대표준오차	6.28	12.81	10.71	28.31
전체 상대표준오차	5.52	4.86	2.54	9.33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축된 기초자료 및 다문화청소년 정책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보다 면밀한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2022년도의 중점 목표로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고졸이후 진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으로 고졸이후의 후기청소년기 연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경제활동비율이 일반 청소년 고용비율에 비하여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정책분석 결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며, 알고 있어도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총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중앙부처의 전담부서 신설 및 정책추진방안, 둘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보제공 앱 개발 및 보급방안, 셋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기 글로벌 취업박람회, 넷째, 이주배경자 진로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 다섯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지원사업 등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accomplished for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provide the foundation of the scientific policies establishment and propulsion for the youth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by obtaining basic data on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and by analyzing their developmental changes. The second is to set a direction of policies for the youth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and make the detailed policies by analyzing the established panel data and current policies for them. The main research goal of 2022 is to understand the career paths of the youth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n their late adolescenc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nd explore policy measures for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youth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n their late adolescence has increased as they grew, and the rate of such youth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s lower than the employment rate of other youths. Second, the analysis of relevant policies found that those designed to support the youth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n their late adolescence were limi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Third, only few youth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are aware of such policies, which they have the difficulties to access even when they were aware of such measures. However, those who have the experiences of the policies were highly satisfied, which

suggests the need to raise youth awareness of such measures and improve accessi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ve policies: 1) the installation of a department in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adulescence's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nd the management of relevant policies; 2)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an app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adulescence's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3) a regularly held global job fair for the adulescence's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4) a career mentoring and networking support project for the adulescence's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nd 5) a tailored career employment support project for the adulescence's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운선·전경숙
-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인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영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욱·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 크 슝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 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68-8 94330

979-11-5654-367-1 (세트)

연구보고 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68-8

ISBN 979-11-5654-367-1(세트)